

좋은 득해 습관

실전 풀이 사고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수관 하중



# #0 시작에 앞서

## 대상별 활용 방법

문제의 정답을 어떻게든 정한 후, 정답 및 해설을 보세요. 정답 논리와 근거를 스스로에게 설명해본 후에 해설을 차분히 읽어보면 많은 걸 얻어갈 수 있을 겁니다. 풀어 보지도 않고, 고민도 안 해보고, 스스로에게 설명도 못하면서, 냅다 해설부터 보고 '음~ 이게 맞지~ 그러치 그러치 나도 이렇게 생각했어~' 이라고 넘어가면 남는 게 없습니다. **실전과 같이 맞히고 틀러가면서 본인에게 남겨야만, 비로소 내 것이 되어 실력이 길러집니다.**

### 중학생·고1

이 자료로 본인이 고등 국어 '상위권'으로 수험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지 판단 가능합니다. 50% 이상의 정답률을 보이고, 정답 근거를 대략적으로나마 '설명'해낸다면, 고등학교 내신·모의고사에서 상위권을 목표할 수 있습니다. 풀었는데 거의 다 틀린다거나, 해설이 도대체가 뭘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나오는 개념어조차도 생소하다면, 국어 공부량을 늘립시다.

### 고2

이 자료로 본인이 그간 국어 공부를 열심히, 꾸준히, 꼼꼼히, 잘, 해왔는지 점검 가능합니다. 100%에 가까운 정답률을 보이고, 이유까지도 얼추 설명해낸다면 당신은 상위권일 것입니다. 하지만, 개념어가 부족하여 문제를 틀린다든지, 주관식으로 생각해보는 게 힘들고 어색하다든지, 해설지의 좋은 독해·풀이 습관이 잘 안된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어 학습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고3·N수

해당 자료로 국어 기초개념 및 기초습관이 잘 잡혀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100%에 가까운 정답률을 보이고, 이유까지도 막힘없이 설명해낼 수 있다면 당신은 수능에서 상위권을 목표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간간이 틀리는 문제가 있다면, 스스로 설명이 안 되고 막히는 문제가 있다면, 정답 및 해설을 토대로 개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약점들이 수능 당일 당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으므로, 아니 매우 높은 확률로, 아니 반드시 발목을 잡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늘 겸손할 수 있도록, 늘 긴장하고 자극받을 수 있도록, 혹은 내가 잘 해오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이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가는 안국어

## #152 멘토링

---

프로들의 모습2. 자신의 장점이 단점 때문에 가려지지 않도록 한다.

자신이 잘한 점이  
사소한 부족함 때문에  
무의미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프로입니다.

필기시험 전교 2등하면 뭐해요.  
수행평가 30점 깎여서 3등급 됐는데요.  
필기 전교권이라고 정신승리 해봤자  
당신 3등급입니다.  
억울하다구요?  
그럼 수행평가도 잘 챙겼어야죠.

수학 과학 전국 1등이라구요?  
국어 영어 못하면요,  
가고 싶다는 대부분의 의대는 못 갑니다.

상위 1%나 할 만한 번뜩이는 풀이법을 떠올렸어도,  
계산실수하면 문제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풀이량이 많아도,  
오답률이 높으면 오히려 안 좋습니다.

성실하게 많이 공부해도,  
꼼꼼함 부족하고 기본기 부족하면 성적 안 오릅니다.

빠르게 시간 내에 다 풀어봤자,  
거의 다 틀리면 세상의 비웃음만 살 뿐입니다.  
막힘없이 풀면서도 정확하게 해야 진짜 잘 하는 겁니다.

면접에서 백 마디 말 잘하면 뭐합니까?  
한마디 말이라도 실수하면 그 면접 떨어집니다.  
면접은, 합격시켜야할 이유도 많아야 붙지만,  
떨어뜨릴 이유가 없어야 붙는 겁니다.  
자신의 장점을 잘 전달하려다가,  
단점을 드러내버리는 치명적 실수를 하면 당신 안 뽑습니다.

잘한 점이 아무리 많을 지라도,  
부족한 점이 너무 크고 치명적이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부족한 점, 제대로 못한 점이 너무 크면  
열심히 하고 좀 잘한 건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냉정합니다.

---

그러니 잘한다고 세상에 인정받고 싶다면,  
정말 제대로, 다 잘하려고 해야 합니다.

전체 정답률도 낮고 1등급 정답률도 낮은,  
소위 킬러문제를 나만큼은 맞히는 남다른 뛰어난 능력.

전체 정답률은 낮고, 1등급 정답률은 높은,  
공부깨나 한 사람이라면 다 맞히는 문제를 나도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는 실력.

전체 정답률도 높고, 1등급 정답률도 높은,  
누구나 다 맞히는 쉬운 문제를 실수 없이 잘 맞추는 꼼꼼함.

셋 다 잘해야 합니다.

오히려 번뜩이는 뛰어난 능력은 좀 못해도 됩니다.  
킬러문제 못 풀었다고 해서 재수까지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남들 다 맞히는 쉬운 문제를 잔실수로 틀리면,  
성적이 안정되지 못하고 재수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잘한 점은 늘리고,  
부족한 점, 못한 점은 사소한 것일지라도 어떻게든 줄여가며  
실전에서 조금이나마 더 높은 성과를 내고,  
세상으로부터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세상에 단점 없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 단점을 잘 다듬어서 남들이 사소하다고 느끼게 만들고  
좋은 점이 더 많으니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프로가 되자구요.



[지문]

‘식욕’은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욕망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식욕은 기본적으로 뇌의 시상 하부\*에 있는 식욕 중추\*의 영향을 받는데, 이 중추에는 배가 고픈 느낌이 들게 하는 ‘섭식 중추’와 배가 부른 느낌이 들게 하는 ‘포만 중추’가 함께 있다. 우리 몸이 영양분을 필요로 하는 상태가 되면 섭식 중추는 뇌 안의 다양한 곳에 신호를 보낸다. 그러면 식욕이 느껴져 침의 분비와 같이 먹는 일과 관련된 무의식적인 행동이 촉진된다. 그러다 영양분의 섭취가 늘어나면, 포만 중추가 작용해서 식욕이 억제된다.

그렇다면 뇌에 있는 섭식 중추나 포만 중추는 어떻게 몸속 영양분의 상태에 따라 식욕을 조절하는 것일까?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혈액 속을 흐르는 영양소인데, 특히 탄수화물에서 분해된 ‘포도당’과 지방에서 분해된 ‘지방산’이 중요하다. 먼저 탄수화물은 식사를 통해 섭취된 후 소장에서 분해되면, 포도당으로 변해 혈액 속으로 흡수된다. 그러면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고, 이를 줄이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이 포도당과 인슐린이 혈액을 타고 시상 하부로 이동하여 포만 중추의 작용은 촉진하고 섭식 중추의 작용은 억제한다. 반면에 지방은 피부 아래의 조직에 중성지방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가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혈액 속으로 흘러가 간(肝)으로 운반된다. 그러면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간에서 중성지방이 분해되고, 이 과정에서 생긴 지방산이 혈액을 타고 시상 하부로 이동하여 섭식 중추의 작용은 촉진하고 포만 중추의 작용은 억제한다. 이와 같은 작용 원리에 따라 우리의 식욕은 자연스럽게 조절된다.

그런데 우리는 온전히 영양분 섭취만을 목적으로 식욕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매운 음식이 먹고 싶어.’처럼 영양분의 섭취와 상관없이 취향이나 기분에 좌우되는 식욕도 있다. 이와 같은 식욕은 대뇌의 앞부분에 있는 ‘전두 연합 영역’에서 조절되는데, 본래 이 영역은 정신적이고 지적인 활동을 담당하는 곳이지만 식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곳에서는 음식의 맛, 냄새 등 음식에 관한 다양한 감각 정보를 정리해 종합적으로 기억한다. 또한 맛이 없어도 건강을 위해 음식을 섭취하는 것과 같이, 먹는 행동을 이성적으로 조절하는 일도 이곳에서 담당하는데, 전두 연합 영역의 지령은 신경 세포의 신호를 통해 섭식 중추와 포만 중추로 전해진다.

한편 전두 연합 영역의 기능을 알면, ㉔ 음식을 먹은 후 ‘이젠 더 이상 못 먹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디저트를 먹는 현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흔히 사람들이 ‘이젠 더 이상 못 먹겠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㉕ 실제로 배가 찜기 때문일 수도 있고, 배가 차지는 않았지만 특정한 맛에 질렸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디저트를 먹는 현상은 모두 전두 연합 영역의 영향을 받는다. 먼저, 배가 찬 상태에서는 전두 연합 영역의 영향으로 위(胃) 속에 디저트가 들어갈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 전두 연합 영역의 신경 세포가 ‘맛있다’와 같은 신호를 섭식 중추로 보내면, 거기에서 ‘오렉신’이라는 물질이 나온다. 오렉신은 위(胃)의 운동에 관련되는 신경 세포에 작용해서, 위(胃)의 내용물을 밀어내고 다시 새로운 음식이 들어갈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배가 차지 않은 상태이지만 전두 연합 영역의 영향으로 특정한 맛에 질릴 수 있다. 그래서 식사가 끝난 후에는 대개 단맛의 음식을 먹고 싶어 하게 되는데, 이는 주식이나 반찬에는 그 정도의 단맛을 내는 음식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디저트 먹을 배는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충분히 설득력 있는 표현이 되는 것이다.

\*시상 하부: 사람이 의식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다양한 신체 시스템을 감시하고 조절하는 뇌의 영역.

\*중추: 신경 기관 가운데, 신경 세포가 모여 있는 부분.

[문제] ㉕와 ‘식욕 중추의 작용’을 고려하여 ㉔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섭식 중추의 작용이 억제되므로 ㉔는 타당하다.
- ② 섭식 중추의 작용이 활발하므로 ㉔는 모순적이다.
- ③ 포만 중추의 작용이 억제되므로 ㉔는 모순적이다.
- ④ 포만 중추의 작용이 활발하므로 ㉔는 모순적이다.
- ⑤ 섭식 중추와 포만 중추의 작용이 반복되므로 ㉔는 타당하다.

# #153 정답 및 해설

## [지문]

‘식욕’은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욕망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식욕은 기본적으로 뇌의 시상 하부\*에 있는 식욕 중추\*의 영향을 받는데, 이 중추에는 배가 고픈 느낌이 들게 하는 ‘섭식 중추’와 배가 부른 느낌이 들게 하는 ‘포만 중추’가 함께 있다. 우리 몸이 영양분을 필요로 하는 상태가 되면 섭식 중추는 뇌 안의 다양한 곳에 신호를 보낸다. 그러면 식욕이 느껴져 침의 분비와 같이 먹는 일과 관련된 무의식적인 행동이 촉진된다. 그러다 영양분의 섭취가 늘어나면, 포만 중추가 작용해서 식욕이 억제된다.

그렇다면 뇌에 있는 섭식 중추나 포만 중추는 어떻게 몸속 영양분의 상태에 따라 식욕을 조절하는 것일까?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혈액 속을 흐르는 영양소인데, 특히 탄수화물에서 분해된 ‘포도당’과 지방에서 분해된 ‘지방산’이 중요하다. 먼저 탄수화물은 식사를 통해 섭취된 후 소장에서 분해되면, 포도당으로 변해 혈액 속으로 흡수된다. 그러면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고, 이를 줄이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이 포도당과 인슐린이 혈액을 타고 시상 하부로 이동하여 포만 중추의 작용은 촉진하고 섭식 중추의 작용은 억제한다. 반면에 지방은 피부 아래의 조직에 중성지방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가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혈액 속으로 흘러가 간(肝)으로 운반된다. 그러면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간에서 중성지방이 분해되고, 이 과정에서 생긴 지방산이 혈액을 타고 시상 하부로 이동하여 섭식 중추의 작용은 촉진하고 포만 중추의 작용은 억제한다. 이와 같은 작용 원리에 따라 우리의 식욕은 자연스럽게 조절된다.

그런데 우리는 온전히 영양분 섭취만을 목적으로 식욕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매운 음식이 먹고 싶어.’ 처럼 영양분의 섭취와 상관없이 취향이나 기분에 좌우되는 식욕도 있다. 이와 같은 식욕은 대뇌의 앞부분에 있는 ‘전두 연합 영역’에서 조절되는데, 본래 이 영역은 정신적이고 지적인 활동을 담당하는 곳이지만 식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곳에서는 음식의 맛, 냄새 등 음식에 관한 다양한 감각 정보를 정리해 종합적으로 기억한다. 또한 맛이 없어도 건강을 위해 음식을 섭취하는 것과 같이, 먹는 행동을 이성적으로 조절하는 일도 이곳에서 담당하는데, 전두 연합 영역의 지령은 신경 세포의 신호를 통해 섭식 중추와 포만 중추로 전해진다.

## [현장독해]

- ‘식욕’ 키워드
- ‘식욕’이 사람이 의식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것. 식욕 조절하는 영역이 시상 하부. **[어휘풀이-지문 표현 연결해 이해]**
  - 배고픈 느낌 들게=섭식 중추 vs 배부른 느낌 들게 = 포만 중추 **[차이점 중심으로 정리]**
- 영양분 필요 -> 섭식 중추 신호 -> 침의 분비, 무의식적 행동 -> 영양분 섭취 -> 포만 중추 작용 -> 식욕 억제 **[인과관계, 선후관계 정리]**
- 섭식 중추, 포만 중추의 식욕 조절 방법이 키워드
- 포도당, 지방산이 ‘중요’ **[글쓴이의 강조점 파악]**
- 식사 -> 탄수화물 섭취 -> 탄수화물 소장에서 분해 -> 포도당 혈액 속으로 -> 혈중 포도당 농도 증가 -> 혈중 포도당 농도를 줄이기 위해 인슐린 분비 -> 포만 중추 작용 촉진, 섭식 중추 작용 억제 -> 식욕 억제 **[인과관계, 선후관계 정리]**
- 지방은 중성지방 형태로 피하 조직에 저장 -> 공복 -> 간에서 중성지방 분해 -> 혈중 지방산 농도 증가 -> 섭식 중추 촉진, 포만 중추 억제 -> 식욕 촉진 **[인과관계, 선후관계 정리]** **[차이점 중심으로 정리]** **[지문 앞 표현 활용하여 지문 뒤 표현 정리]**
- 식욕은 자연스럽게 조절된다 = 식사하면 식욕 억제 배부름 느낌. 공복이면 식욕 촉진 배고픔 느낌. **[출제자가 애매하게 중립적으로 대충 설명하고 쓱 넘어간 부분 스스로 명확히 해보기]**
- 영양분 섭취‘만’이 식욕의 이유가 아니다. vs ‘스트레스’, ‘취향’, ‘기분’도 **[한정표현, 예외표현 주의, 차이점 중심 정리]**
- ‘전두 연합 영역’도 조절. vs 섭식·포만 중추**[차이점 중심 정리]**
- 감각 정보 기억
- 먹는 행동을 이성적으로 조절하는 이곳 = 전두 연합 **[‘이곳’ 등 지시대명사의 의미 지문 앞 표현을 활용하여 명확히]**
- 포도당 지방산 말고 전두 연합도 섭식 중추, 포만 중추에 영향 준다.

한편 전두 연합 영역의 기능을 알면, ㉠ 음식을 먹은 후 ‘이젠 더 이상 못 먹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디저트를 먹는 현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흔히 사람들이 ‘이젠 더 이상 못 먹겠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 실제로 배가 찔기 때문일 수도 있고, 배가 차지는 않았지만 특정한 맛에 질렸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디저트를 먹는 현상은 모두 전두 연합 영역의 영향을 받는다. 먼저, 배가 찬 상태에서는 전두 연합 영역의 영향으로 위(胃) 속에 디저트가 들어갈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 전두 연합 영역의 신경 세포가 ‘맛있다’와 같은 신호를 섭식 중추로 보내면, 거기에서 ‘오렉신’이라는 물질이 나온다. 오렉신은 위(胃)의 운동에 관련되는 신경 세포에 작용해서, 위(胃)의 내용물을 밀어내고 다시 새로운 음식이 들어갈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배가 차지 않은 상태이지만 전두 연합 영역의 영향으로 특정한 맛에 질릴 수 있다. 그래서 식사가 끝난 후에는 대개 단맛의 음식을 먹고 싶어 하게 되는데, 이는 주식이나 반찬에는 그 정도의 단맛을 내는 음식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디저트 먹을 배는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충분히 설득력 있는 표현이 되는 것이다.

[문제] ㉠와 ‘섭식 중추의 작용’을 고려하여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섭식 중추의 작용이 억제되므로 ㉡는 타당하다.
- ② 섭식 중추의 작용이 활발하므로 ㉡는 모순적이다.
- ③ 포만 중추의 작용이 억제되므로 ㉡는 모순적이다.
- ④ 포만 중추의 작용이 활발하므로 ㉡는 모순적이다.
- ⑤ 섭식 중추와 포만 중추의 작용이 반복되므로 ㉡는 타당하다.

- ‘아ㅋㅋ 밥 배랑 디저트 배랑 따로 있다 이거?’  
[나만의 편한 표현으로 핵심 정리]

- 못 먹겠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실제로 배가 차서 vs 질려서 둘 다 가능하다.
- + 그럼 반대로 ㉠처럼 디저트 더 먹는 이유는 실제로 배가 안차서 혹은 땡겨서? 둘 다 가능하다는 거겠네. [반대의 경우 생각해보기]
- 전두 연합.

- 실제로 배가 찬 경우에는, 원래는 섭식 중추 억제, 포만 중추 촉진인데 vs 전두 연합이 위에 공간 마련하도록 영향 준다.

[읽고 있는 내용과 지문 앞 내용을 연결해 독해]  
[지문 앞 내용과 뒤 내용을 차이점 중심으로 정리]

- 지방산이 섭식 중추 촉진시키는 거 말고, 전두 연합이 ‘맛있다’ 신호 -> 거기(=섭식 중추)에서 오렉신 나오 -> 오렉신이 위 관련 신경 세포에 영향 줘서, 위를 비워서 실제로 배가 안차게

[읽고 있는 내용과 지문 앞 내용을 연결해 독해]  
[인과관계, 선후관계 정리]

- 실제로 배가 차지 않은 경우에는 원래는 섭식 중추 촉진, 포만 중추 억제인데. 전두 연합이 ‘질리다’는 신호 보내 -> 사람이 안 먹어서 실제로 위가 안 찬 거네.

[읽고 있는 내용과 지문 앞 내용을 연결해 독해]  
[지문 앞 내용과 뒤 내용을 차이점 중심으로 정리]

- 주식 반찬은 단맛 약해서 질렸고, 실제로 배 안 찔으니, ‘대개’ 단맛 찾아. 단맛 = 디저트.
- 디저트배 따로 있다. 어째?

[정답 및 해설] ④

- 그니까 ㉠처럼 실제로 배가 차면, 인슐린이 섭식 중추 억제, 포만 중추 촉진해서 섭식 억제인데, ㉡처럼 디저트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전두 연합에서 위에 공간 마련하도록 오렉신인가 나오게 영향 끼쳐서 위를 비워 디저트 먹게 할 수 있다는 건가?

[선택지 보기 전에 주관식으로 정답을 떠올려본다]

- ① 섭식 중추 억제는 맞고. 그럼 디저트 먹는 ㉡는 타당이 아니라 모순. 거짓.
- ② 섭식 중추 촉진·활발이 아니라 억제. 거짓.
- ③ 포만 중추 억제가 아니라 촉진. 거짓.
- ④ 포만 중추 촉진은 맞고. 그럼 디저트 먹는 ㉡는 모순. 참.
- ⑤ 섭식 중추 억제와 동시에 포만 중추 촉진. 섭식 중추 촉진과 동시에 포만 중추 억제. 이게 반복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반복’이라고 썼고, 전두연합 영향도 언급 안 해서 틀림.

★★★ 최상위1% 독해 :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보며 경우의 수 혹은 표를 머리로 도식화해서 정리 ★★★

지문 마지막 문단 읽으면서, '아 그러니까~ 결국 실제로 배가 차도 전두 연합이 디저트 맛있다는 신호를 보내면 디저트 먹고, 전두 연합이 밥 질렸다는 신호 보내서 실제로 배가 안 차도 디저트 먹는다는 거네. 그래서 디저트 배는 따로 있다는 거고.'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갔다면 고난도 문제를 맞힐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지문 마지막 문단을 읽으며 '근데 이거 결국 2 X 2 4가지 경우로 나뉘는 거 아냐?'라는 생각이 났고, 아래와 똑같은지는 않더라도 비슷한 도식이 그려졌다면, 최상위 1% 독해력을 갖추고 있는 학생입니다. 훈련과 노력에, 재능까지 더해지면 아래와 같은 표를 지문 독해 순간에 떠올릴 수 있는데요. 한번 읽어 보시고 자극 좀 받아 보시죠.

		신경중추 ( 섭식 중추, 포만 중추 )	
		실제로 배 참 ( = 섭식↓포만↑ → 밥 그만 )	실제로 배 안 참 ( = 섭식↑포만↓ → 밥 더 )
전두연합	디저트 맛있다	섭식↓포만↑ → 밥 그만 + 전두 연합 → 디저트 더 ∴오렉신  (지문 내용)	섭식↑포만↓ → 밥 더 vs 전두 연합 → 디저트 더 ∴밥 더 먹다 '실제로 배 참' 상태로, 결국 디저트 더  (지문에 없는)
	밥 질렸다	섭식↓포만↑ → 밥 그만 + 전두 연합 → 밥 그만 ∴ 밥 안 먹다 '실제로 배 안참' 상태로 갈 듯  (지문에 없는)	섭식↑포만↓ → 밥 더 < 전두 연합 → 밥 그만 ∴ 전두 연합( 단맛=디저트 ) → 디저트 더  (지문 내용)

\* '디저트 질렸다, 밥 맛있다'는 글쓰기가 없다고 전제한 듯

# #154 작문

[지문] (가)는 바둑 동아리 학생들이 학교 스포츠 축제 준비 위원회에 제출할 건의문의 초고이고, (나)는 (가)를 수정하기 위한 회의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안녕하세요, 저희는 바둑 동아리 학생들입니다. 먼저 스포츠 축제 준비 위원회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것은 이번 스포츠 축제 경기 종목에 두뇌 스포츠 경기도 포함시켜 달라는 건의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스포츠 축제의 기획 의도는 '다양하게, 모두 함께, 의미있게'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축제에도 신체 활동을 위주로 하는 스포츠 경기만 계획되어 있어 기획 의도를 충분히 만족시키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뇌 스포츠 경기를 열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바둑, 체스 등으로 대표되는 두뇌 스포츠는 스포츠의 일부로 인정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국내외 여러 스포츠 대회에서 바둑 경기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학교 스포츠클럽으로도 두뇌 스포츠 종목이 개설되고 있습니다. 스포츠 축제에 두뇌 스포츠 종목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러한 추세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두뇌 스포츠 경기를 열면 이번 스포츠 축제의 기획 의도에 맞는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학생들에게 스포츠 활동 경험을 보다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스포츠 경기와 함께 두뇌 스포츠 경기를 열면 스포츠 축제가 훨씬 풍성해질 것입니다. 둘째, 학생들이 '모두 함께' 즐기는 스포츠 축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운동 신경이 뛰어나지 않거나 신체 활동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은 스포츠 축제를 즐기기가 어렵는데, 두뇌 스포츠 경기가 열리면 이런 학생들도 축제에 관심을 가지고 축제를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 스포츠 축제가 더욱 '의미 있게' 될 것입니다. 두뇌 스포츠는 체력 강화, 집중력과 창의력 향상, 상대를 존중하는 스포츠맨십 함양 등의 높은 교육적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뇌 스포츠 경기를 열 장소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체육관에서 경기를 열면 해소될 것입니다.

(나)

- 학생 1: 내가 쓴 건의문을 함께 검토해 보자.
- 학생 2: 예상 독자에게 두뇌 스포츠라는 말이 생소할 수도 있으니까 두뇌 스포츠의 개념을 둘째 문단에 넣어 주자.
- 학생 1: 좋은 생각이야. 다른 부분은 어때?
- 학생 3: 국내외 여러 스포츠 대회에서 바둑 경기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있다고만 했는데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주자.
- 학생 2: 우리가 수집한 자료 중에 2016년 전국체육대회부터 바둑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는 기사가 있었잖아. 그걸 넣으면 좋겠어.
- 학생 1: 맞아, 그게 있었지. 국제 스포츠 경기 대회 관련 정보도 찾아서 반영해 볼까?
- 학생 3: 그래, 둘 다 쓰면 좋을 것 같아.
- 학생 1: 좋아. 그렇게 둘째 문단을 수정할게.

- 학생 3: 그런데 셋째 문단에서 두뇌 스포츠를 통해 체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좀 이상한 것 같아
- 학생 1: 두뇌 스포츠에서도 체력은 중요해. 바둑 기사들은 큰 대국을 치르면 체중이 몇 킬로씩 빠지기도 한대.
- 학생 2: 하지만 두뇌 스포츠는 보통 신체 활동이 많지 않은데, 체력을 기를 수 있다는 내용은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
- 학생 1: 듣고 보니 그럴 수 있겠다. 그 부분은 수정할게.
- 학생 2: 그리고 두뇌 스포츠가 상대를 존중하는 스포츠맨십을 길러 준다는 내용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면 좋겠어.
- 학생 3: 셋째 문단에 그런 내용을 언급한 두뇌 스포츠 선수의 말을 인용하면 어떨까?
- 학생 1: 그래, 그렇게 하자. 좋은 생각이야.
- 학생 3: 넷째 문단에 두뇌 스포츠 경기를 체육관에서 열면 된다고 했는데 축제 일정상 정말 가능할까?
- 학생 1: 그럼 스포츠 축제 담당 선생님께 여쭙 보는 게 어떨까?
- 학생 2: 안 그래도 아침에 여쭙 봤는데 그날 오후에는 체육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셨어.
- 학생 1: 다행이다. 체육관 사용이 가능한 시간을 반영해서 글을 수정할게.
- 학생 3: 그런데 글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느낌이야. 건의를 수용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도록 글을 마무리 하자.
- 학생 2: 그리고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 비유적 표현도 활용하면 좋겠어.
- 학생 1: 알겠어. @마무리 부분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글을 써 볼게.

[문제] @를 반영하여 (가)의 마무리 부분을 작성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두뇌 스포츠를 축제 경기 종목으로! 두뇌 스포츠를 좋아하는 학생들을 위해 두뇌 스포츠를 스포츠축제 경기 종목으로 채택하여 주십시오.
- ② 흔히 바둑을 신선놀음이라고 합니다. 뜨거운 땀이 가득한 스포츠 축제 때 우리 모두 바둑이 선물하는 시원한 한줄기 여유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 ③ 이번 스포츠 축제가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는 성공적인 행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학생들의 열정이 불꽃이 되어 타오르는 그날이 기대되지 않으세요?
- ④ 두뇌 스포츠는 이번 스포츠 축제의 기획 의도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일등공신이 될 것입니다. 두뇌 스포츠를 스포츠 축제 경기 종목에 꼭 포함시켜 주십시오.
- ⑤ 스포츠 축제를 학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두뇌 스포츠를 스포츠 축제 경기 종목에 포함시켜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154 정답 및 해설

[지문] (가)는 바둑 동아리 학생들이 학교 스포츠 축제 준비 위원회에 제출할 건의문의 초고이고, (나)는 (가)를 수정하기 위한 회의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안녕하세요, 저희는 바둑 동아리 학생들입니다. 먼저 스포츠 축제 준비 위원회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것은 이번 스포츠 축제 경기 종목에 두뇌 스포츠 경기도 포함시켜 달라는 건의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스포츠 축제의 기획 의도는 '다양하게, 모두 함께, 의미있게'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축제에도 신체 활동을 위주로 하는 스포츠 경기만 계획되어 있어 기획 의도를 충분히 만족시키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뇌 스포츠 경기를 열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바둑, 체스 등으로 대표되는 두뇌 스포츠는 스포츠의 일부로 인정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국내외 여러 스포츠 대회에서 바둑 경기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학교 스포츠클럽으로도 두뇌 스포츠 종목이 개설되고 있습니다. 스포츠 축제에 두뇌 스포츠 종목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러한 추세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두뇌 스포츠 경기를 열면 이번 스포츠 축제의 기획 의도에 맞는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학생들에게 스포츠 활동 경험을 보다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스포츠 경기와 함께 두뇌 스포츠 경기를 열면 스포츠 축제가 훨씬 풍성해질 것입니다. 둘째, 학생들이 '모두 함께' 즐기는 스포츠 축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운동 신경이 뛰어나지 않거나 신체 활동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은 스포츠 축제를 즐기기 어렵는데, 두뇌 스포츠 경기가 열리면 이런 학생들도 축제에 관심을 가지고 축제를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 스포츠 축제가 더욱 '의미 있게' 될 것입니다. 두뇌 스포츠는 체력 강화, 집중력과 창의력 향상, 상대를 존중하는 스포츠맨십 함양 등의 높은 교육적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뇌 스포츠 경기를 열 장소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체육관에서 경기를 열면 해소될 것입니다.

## [현장독해]

- 학생들 건의문.
  - (가)를 수정하는 회의가 (나)
- [시험지에 적혀있는 건 다 읽어야 벌을 받지 않는다]

- 자기소개
- 인사치레
- '두뇌 스포츠 경기 포함'이 키워드 [키워드 파악]

- 너희들이 '다양하게, 모두 함께, 의미 있게'하자고 했다? 이걸 활용하여 설득력 높일 듯 [뒤에 이어질 내용 예측]
- 신체 활동을 위주로 하는 스포츠 경기'만' [한정표현 주의]
- > '다양하게'가 안 된다고 지적하려나 [뒤에 이어질 내용 예측]
- 바둑, 체스 = 두뇌 스포츠

- 국제 스포츠 대회, 국내외 스포츠 대회, 학교 스포츠클럽에서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됨.
- 국내외 추세를 근거로 설득력 높임 [빈출요소 설득전략 파악]

- '두뇌 스포츠 도입 효과'로 키워드 변경
- 첫째, 두뇌 스포츠까지 포함하면 '다양하게' 가능 -> 풍성 [지문 뒤 표현과 지문 앞 표현 연결해 이해]

- 둘째, 운동 신경이 뛰어나지 않거나 신체 활동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도 '모두 함께' [지문 뒤 표현과 지문 앞 표현 연결해 이해]
- 셋째, 체력, 집중력, 창의력, 스포츠맨십 등 교육적 가치 -> '의미 있게' [지문 뒤 표현과 지문 앞 표현 연결해 이해]
- + 두뇌 스포츠인데 체력 강화? 이상해서 수정될 듯 [출제요소 예측]

- 우려 예상하여 먼저 제시하고 반박. 체육관에서 열면 장소 문제 해결 가능. [빈출요소 반박 예상-재반박 파악]

(나)

학생 1: 내가 쓴 건의문을 함께 검토해 보자.

학생 2: 예상 독자에게 두뇌 스포츠라는 말이 생소할 수도 있으니까 두뇌 스포츠의 개념을 둘째 문단에 넣어 주자.

학생 1: 좋은 생각이야. 다른 부분은 어때?

학생 3: 국내외 여러 스포츠 대회에서 바둑 경기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있다고만 했는데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주자.

학생 2: 우리가 수집한 자료 중에 2016년 전국체육대회부터 바둑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는 기사가 있었잖아. 그걸 넣으면 좋겠어.

학생 1: 맞아, 그게 있었지. 국제 스포츠 경기 대회 관련 정보도 찾아서 반영해 볼까?

학생 3: 그래, 둘 다 쓰면 좋을 것 같아.

학생 1: 좋아. 그렇게 둘째 문단을 수정할게.

학생 3: 그런데 셋째 문단에서 두뇌 스포츠를 통해 체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좀 이상한 것 같아

학생 1: 두뇌 스포츠에서도 체력은 중요해. 바둑 기사들은 큰 대국을 치르면 체중이 몇 킬로그램 빠지기도 한대.

학생 2: 하지만 두뇌 스포츠는 보통 신체 활동이 많지 않은데, 체력을 기를 수 있다는 내용은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

학생 1: 듣고 보니 그럴 수 있겠다. 그 부분은 수정할게.

학생 2: 그리고 두뇌 스포츠가 상대를 존중하는 스포츠맨십을 길러 준다는 내용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면 좋겠어.

학생 3: 셋째 문단에 그런 내용을 언급한 두뇌 스포츠 선수의 말을 인용하면 어떨까?

학생 1: 그래, 그렇게 하자. 좋은 생각이야.

학생 3: 넷째 문단에 두뇌 스포츠 경기를 체육관에서 열면 된다고 했는데 축제 일정상 정말 가능할까?

학생 1: 그럼 스포츠 축제 담당 선생님께 여쭙 보는 게 어떨까?

학생 2: 안 그래도 아침에 여쭙 봤는데 그날 오후에는 체육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셨어.

학생 1: 다행이다. 체육관 사용이 가능한 시간을 반영해서 글을 수정할게.

학생 3: 그런데 글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느낌이야. 건의를 수용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도록 글을 마무리 하자.

학생 2: 그리고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 비유적 표현도 활용하면 좋겠어.

학생 1: 알겠어. @마무리 부분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글을 써 볼게.

- 두뇌 스포츠 개념 추가
- 동의
- 구체화 요구
- 국내 기사, 구체적 연도 제시해서 설득력 높임. **[빈출요소 설득전략 파악]**
- 국제 경기 정보 반영으로 구체화
- 두뇌 스포츠 = 체력은 이상함. 신체 스포츠 = 체력이 자연스럽겠지.
- 반박. 바둑 -> 체중 감소
- 두뇌 스포츠는 상대적으로 신체 활동이 적으니 타당성 떨어짐.
- 동의 수정.
- 스포츠맨십 함양 근거 있냐?
- 스포츠 선수 언급 인용. 관계자, 전문가의 말 인용하여 설득력 높임. **[빈출요소 설득전략 파악]**
- 장소 진짜 해결 가능하냐.
- 문의 필요
- 된대
- 체육관 사용이 가능한 시간 = '오후' **[지문 뒤 표현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 지문 앞 표현 연결]**
- '건의 = 두뇌 스포츠 넣어줘' 촉구하는 내용 직접적으로 드러나게 **[지문 뒤 표현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 지문 앞 표현 연결]**
- 비유적 표현.
- 건의 직접 표현, 비유적 표현이 @ 4문단 보충하는 간접 작문 문제 조건이겠지 **[빈출요소 작문 조건 파악]**

[문제] ㉠을 반영하여 (가)의 마무리 부분을 작성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두뇌 스포츠를 축제 경기 종목으로! 두뇌 스포츠를 좋아하는 학생들을 위해 두뇌 스포츠를 스포츠축제 경기 종목으로 채택하여 주십시오.
- ② 흔히 바둑을 신선놀음이라고 합니다. 뜨거운 땀이 가득한 스포츠 축제 때 우리 모두 바둑이 선물하는 시원한 한줄기 여유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 ③ 이번 스포츠 축제가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는 성공적인 행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학생들의 열정이 불꽃이 되어 타오르는 그날이 기대되지 않으세요?
- ④ 두뇌 스포츠는 이번 스포츠 축제의 기획 의도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일등공신이 될 것입니다. 두뇌 스포츠를 스포츠 축제 경기 종목에 꼭 포함시켜 주십시오.
- ⑤ 스포츠 축제를 학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두뇌 스포츠를 스포츠 축제 경기 종목에 포함시켜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정답 및 해설] ④번

- 촉구하는 내용 직접 표현. 비유적 표현 활용. 2개가 조건이야

[선택지 풀러 냅다 넘어가지 말고 정답 조건 정리]

- ① 비유 없음. 거짓.
- ② 바둑 = 신선놀음. 은유법. 바둑이 여유 선물하는 것도 의인법. 근데 바둑이든 두뇌 스포츠든 추가해달라고 직접적으로 드러내야하는데 없음. 없는 것을 있다고 해도 틀림. 거짓.
- ③ 열정 = 불꽃. 은유법. 열정도 불꽃처럼 타오름. 유비추론. 비유는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두뇌 스포츠 넣어달라고 직접적으로 드러내야하는데 없음. 없는 것을 있다고 하면 틀림. 거짓.
- ④ 두뇌 스포츠 = 일등 공신. 은유법. 두뇌 스포츠 포함시켜줘 = 직접적으로 드러냄. 조건 다 갖췄네. 정답 ④번. 정답이 나왔으니 넘어가자. [선택지 표현과 정답 조건 연결해 정답의 확신성 높이기]  
[정답이 나오면, 정답을 2번 확인하고 넘어가기]
- ⑤ 비유 없음. 건의 직접 표현 없음. 거짓.



## #155 문법

<보기1>

[한글 맞춤법]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제46항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

<보기2>

- 꽃집에 꽃이 ㉠ 안개꽃 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 나도 ㉡ 너만큼 달리기를 잘했으면 좋겠다.
- 남은 ㉢ 천 원짜리로 마땅히 살 것이 없었다.
- 나는 그 사람이 그리워 ㉣ 어찌할 줄 몰랐다.
- 기다리던 백신이 ㉤ 7 연구실에서 개발되었다.

[문제]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의 ㉠ ~ ㉤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제41항을 적용해 ‘안개꽃밖에’로 정정해야겠군.
- ② ㉡은 제42항을 적용해 ‘너 만큼’으로 정정해야겠군.
- ③ ㉢은 제43항을 적용해 ‘천 원 짜리’로 정정해야겠군.
- ④ ㉣은 제43항을 적용해 ‘어찌할줄’로 정정해야겠군.
- ⑤ ㉤은 제46항을 적용해 ‘7연구실’로 정정해야겠군.

※ 2020년 고1 11월 15번 문법 문제 참조

# #155 정답 및 해설

### <보기1>

#### [한글 맞춤법]

-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 제46항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

### <보기2>

- 꽃집에 꽃이 ㉠ 안개꽃 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 나도 ㉡ 너만큼 달리기를 잘했으면 좋겠다.
- 남은 ㉢ 천 원짜리로 마땅히 살 것이 없었다.
- 나는 그 사람이 그리워 ㉣ 어찌할 줄 몰랐다.
- 기다리던 백신이 ㉤ 7 연구실에서 개발되었다.

[문제]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의 ㉠ ~ ㉤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제41항을 적용해 '안개꽃밖에'로 정정해야겠군.
- ② ㉡은 제42항을 적용해 '너 만큼'으로 정정해야겠군.
- ③ ㉢은 제43항을 적용해 '천 원 짜리'로 정정해야겠군.
- ④ ㉣은 제43항을 적용해 '어찌할 줄'로 정정해야겠군.
- ⑤ ㉤은 제46항을 적용해 '7연구실'로 정정해야겠군.

### [현장독해]

- 띄어쓰기 문제네.

[문법은 함정 주의하면서, 익숙한 개념은 막힘없이 쓱 보면서 넘어가기]

- ㉠ 붙여야지
- ㉡ 붙여야지
- ㉢ 띄어야지
- ㉣ 띄어야지
- ㉤ 띄어야지, 붙여도 되나, 43항 '다만' 때문에 붙여도 되네.

[선택지로 바로 넘어가지 말고, 주관식으로 풀어보기]

### [정답 및 해설] ①

- ① 조사 '밖에'. 41항. 붙여 쓴다. 참. 끝. 1분 컷  
[정답이 나오면 넘어가서 시간 아끼기]
- ②
- ③
- ④
- ⑤

## ★★★ 하려면 할 수 있지만, 시간을 아끼기 위해 안하고 넘어가기 ★★★

이딴 게 무슨 해설이냐 싶으시죠. 최상위권들이 실전에서 어떻게 푸는지를 강조해보고자 적어봤습니다. 문법 개념 공부도 디테일하게 탄탄히 되어 있고, 문제 풀이 경험도 많으며, 띄어쓰기 관련 빈출 어휘 '밖에, 만큼'도 많이 접해본 학생들은 이 문제 푸는데 1분 안 걸립니다.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관련 조항은 이미 많이 봤고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함정 있는지만 확인하고 막힘없이 넘어가구요, 밑줄을 보며 '안개꽃밖에' '너 만큼' '천 원짜리' '어찌할 줄' '7 연구실' 등 어법 상 맞는 띄어쓰기가 막힘없이 생각나구요. ①번 선택지에서 '안개꽃밖에'에 해당하는 조항이 41항이 맞는지 확인하고 맞는 진술이므로 정답이 나왔으니 다음 선택지를 보지 않고 넘어가서 시간을 아깁니다. 물론 ㉠㉡㉢㉣㉤을 아래처럼 쪼개서 원형파악하고 관련 조항까지 연결해 디테일하게 풀려면 풀 수 있겠으나, 넘어가서 시간을 아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맞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막힘없이 맞히고 넘어가서 시간을 아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보기 1> 한글 맞춤법 조항의 '조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등의 개념어가 어색하여 생각해봐야 했다거나, ㉠㉡㉢㉣㉤에서 출제요소인 '밖에, 만큼, 천, 원, 짜리, ~할 줄(을), 7' 등이 막힘없이 파악되지 않았다거나, 정답 ①번을 한 번에 파악하지 못해 ②③④⑤를 다시 봤다면, 그만큼 시간이 더 많이 걸렸을 것입니다. 본인이 이 문제를 틀렸다면, 위와 같은 이유로 시간이 많이 걸렸다면, 문법 공부를 더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쪼개서 원형파악 ★★★

① ㉠안개꽃밖에

- 안개꽃(합성명사) + 밖에(보조사. '그것 이외에는'의 뜻을 나타내는. 주로 뒤에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 따른다)
- '밖에' : 제41항 '조사'는 앞 말에 붙여 쓴다.

※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 용례 : 꽃이 / 꽃이나 / 거기도 / 꽃마저 / 꽃이다 / 멀리는 / 꽃밖에 / 꽃입니다 / 웃고만 / 꽃에서부터 / 꽃처럼 / 꽃으로만 / 어디까지나

② ㉡너만큼

- 너(2인칭 대명사) + 만큼(보조사. 체언의 뒤에 붙어, 비교의 대상과 거의 비슷한 정도임을 나타내는)
- '만큼' : 제41항 '조사'는 앞 말에 붙여 쓴다.

③ ㉢천 원짜리

- 천(수관형사) + 원(단위성 의존명사) + 짜리((수나 양 또는 값을 나타내는 명사구 뒤에 붙어) '그만한 수나 양을 가진 것' 또는 '그만한 가치를 가진 것'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원' :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 vs 제42항 )

※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 용례 : 아는 것이 힘이다. / 먹을 만큼 먹어라. / 네가 뜻한 바를 알겠다. / 나도 할 수 있다. / 아는 이를 만났다. / 그가 떠난 지가 오래다.

※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 용례 : 한 개 / 소 한 마리 / 조기 한 손 / 집 한 채 / 차 한 대 / 옷 한 벌 / 연필 한 자루 / 신 두 켤레 / 금 서 돈 / 열 살 / 버선 한 족 / 북어 한 괘

④ ㉣어찌할 줄

- 어찌(부사) + -하-(동사 파생 접미사) + ~르(관형형 전성어미) + 줄(의존명사. 어떤 방법, 셈속 따위를 나타내는 말)
- '줄' :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⑤ ㉤7 연구실 or 7연구실

- 7(숫자, \*수관형사) + 연구실(명사)
- '7' :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1, 2, 3'과 같은 아라비아 숫자가 직접 등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한글로 적힌 '일, 이, 삼' 등과 같은 표현에 대해 수사(數詞)와 관형사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명사 '연구실'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므로 수관형사로 보았습니다.
- + '정정해야겠군'도 출제요소입니다. 붙여 쓸 수 있어서 붙여 썼는데 정정'해야'겠다고 말했다기 때문에 ㉤번은 틀린 진술입니다.

※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 용례 : 두시 삼십분 오초 / 1446년 10월 9일 / 80원 / 제일과 / 2대대 / 10개 / 삼학년 / 16동 502호 / 7미터 / 육층 / 제1어학실습실

※ 제44항 수를 적을 적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 용례 : 십이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팔 / 12억 3456만 7898

※ 제45항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다음의 말들은 띄어 쓴다.

- 용례 : 국장 겸 과장 / 청군 대 백군 / 이사장 및 이사들 / 사과, 배 등속 / 열 내지 스물 / 책상, 걸상 등이 있다. / 사과, 배, 굴 등등 / 부산, 광주 등지

※ 제46항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

- 용례 : 그때 그곳 / 좀더 큰것 / 이말 저말 / 한잎 두잎



# #156 문학

### <보기>

조선 시대 사대부들의 시조에는 자연이 자주 등장하는데, 작품 속 자연에 대한 인식이 같지는 않다. (가)에서의 자연은 속세를 벗어난 화자가 동화되어 살고 싶어 하는 공간이자 안빈낙도(安貧樂道)의 공간으로 그려져 있다. 반면에 (나)에서의 자연은 소박하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자 건강한 노동 속에서 흥취를 느끼는 공간으로 그려져 있다.

### [지문]

#### (가)

십 년(十年)을 경영(經營)하여 초려삼간(草廬三間) 지어 내니  
 나 혼 간 들 혼 간에 청풍(淸風) 혼 간 맞져 두고  
 강산(江山)은 들일 디 업스니 돌려 두고 보리라

- 송순 -

#### (나)

서산의 아침별 비치고 구름은 낮게 떠 있구나  
 비 온 뒤 묵은 풀이 뉘 밭에 더 짙었든고  
 두어라 차례 정한 일이니 매는 대로 매리라

<제1수>

둘러내자\* 둘러내자 긴 고랑 둘러내자  
 바라기 역고\* 를 고랑마다 둘러내자  
 잡초 짙은 긴 사례 마주 잡아 둘러내자

<제3수>

땀은 듣는 대로 듣고 별은 쥘대로 쥘다  
 청풍에 옷깃 열고 긴 휘파람 흘리 불 때  
 어디서 길 가는 손님네 아는 듯이 머무는고

<제4수>

밥그릇에 보리밥이요 사발에 콩잎 나물이라  
 내 밥 많을세라 네 반찬 적을세라  
 먹은 뒤 한 숨 졸음이야 너나 나나 다를소냐

<제5수>

돌아가자 돌아가자 해 지거든 돌아가자  
 냇가에 손발 씻고 호미 메고 돌아올 제  
 어디서 우배초적(牛背草笛)\*이 함께 가자 재촉하는고

<제6수>

- 위백규, 「농가구장(農歌九章)」 -

- \* 둘러내자 : 휘감아서 뽑자.
- \* 바라기 역고 : 잡초의 일종.
- \* 우배초적 : 소의 등에 타고 가면서 부는 풀피리 소리.

### [문제] 진위판단

1. (가)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정답 ( 참 / 거짓 )
2. (가)는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계절감을 부각하고 있다. 정답 ( 참 / 거짓 )
3. (가)의 ‘초려삼간’은 화자가 안빈낙도하며 사는 공간으로 볼 수 있  
 군. 정답 ( 참 / 거짓 )
4. (가)의 화자는 ‘강산’에서 벗어나, ‘청풍’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군. 정답 ( 참 / 거짓 )
5. (가)와 (나)는 시어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정답 ( 참 / 거짓 )
6. (나)를 활용하여 ‘전원일기’라는 제목으로 영상시를 제작하기 위해,  
 <제1수>는 아침부터 농기구를 가지고 밭을 가는 농부의 모습을 보  
 여주면 좋겠어. 정답 ( 참 / 거짓 )
7. (나)를 활용하여 ‘전원일기’라는 제목으로 영상시를 제작하기 위해,  
 <제4수>는 옷깃을 열고 바람을 쐬고 있는 농부의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어. 정답 ( 참 / 거짓 )

# #156 정답 및 해설

## <보기>

조선 시대 사대부들의 시조에는 자연이 자주 등장하는데, 작품 속 자연에 대한 인식이 같지는 않다. (가)에서의 자연은 속세를 벗어난 화자가 동화되어 살고 싶어 하는 공간이자 안빈낙도(安貧樂道)의 공간으로 그려져 있다. 반면에 (나)에서의 자연은 소박하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자 건강한 노동 속에서 흥취를 느끼는 공간으로 그려져 있다.

## [지문]

### (가)

십 년(十年)을 경영(經營)하여 초려삼간(草廬三間) 지어 내니  
나 훈 간 들 훈 간에 청풍(淸風) 훈 간 맞져 두고  
강산(江山)은 들일 디 업스니 돌려 두고 보리라

- 송순 -

### (나)

서산의 아침별 비치고 구름은 낮게 떠 있구나  
비 온 뒤 묵은 풀이 누 발에 더 짙었든고  
두어라 차례 정한 일이니 매는 대로 매리라

<제1수>

둘러내자\* 둘러내자 긴 고랑 둘러내자  
바라기 역고\* 를 고랑마다 둘러내자  
잡초 짙은 긴 사례 마주 잡아 둘러내자

<제3수>

땀은 듣는 대로 듣고 별은 찢대로 찢다  
청풍에 옷깃 열고 긴 휘파람 흘리 볼 때  
어디서 길 가는 손님네 아는 듯이 머무는고

<제4수>

밥그릇에 보리밥이요 사발에 콩잎 나물이라  
내 밥 많을세라 네 반찬 적을세라  
먹은 뒤 한 숨 졸음이야 너나 나나 다를소냐

<제5수>

돌아가자 돌아가자 해 지거든 돌아가자  
넷가에 손발 씻고 호미 메고 돌아올 제  
어디서 우배초적(牛背草笛)\*이 함께 가자 재촉하는고

<제6수>

- 위백규, 「농가구장(農歌九章)」 -

## [현장독해]

- (가) 동화되어 살고 싶은 자연. 안빈낙도의 공간 vs (나) 소박한 삶의 현장, 노동 속에서 흥취를 느끼는 공간. [차이점 중심으로 정리]

- 초가집 세 칸을 짓고  
- 나 한 칸, 달 한 칸, 청풍 한 칸 주고  
- 강과 산은 들일 칸이 없으니 초가집 주변에 돌려 두고 보겠다.  
- 집 안팎에서 자연물들과 같이 살고 싶은 거니까 동화. 초가집은 안빈낙도의 공간. [지문-<보기> 연결해 이해하기]

- 아침  
- 비 온 뒤에 풀이 누구 발에 더 짙게 자랐을까  
- 내비뒤라 차례가 다 있으니까 맬 때 매겠다.

- 휘감아서 뽑자. AABA  
- 고랑마다 있는 잡초 뽑자 [어휘풀이 반영해 해석]  
- 둘러내자 반복, 대구 [빈출 요소 : 대구법 등 빈출 표현법 파악]

- 땀나고, 햇볕 찌고  
- (안 그래도 더운데) 바람 부니까 옷깃 열고 휘파람 불고  
- 어디서 길 가는 손님이 나를 아는 듯이 머무는가

- 보리밥에 나물로 밥.  
- 내 밥이 많은지 걱정하고 너 반찬이 적을지 걱정하고  
- 그래봐야 먹고 나서는 졸리는 건 너나 나나 다르지 않다. [설의법은 평서형으로 바꾸어 의도파악]

- 집 가자  
- 정리하고  
- 소의 등에 타고 가면서 부는 풀피리 소리가 함께 가자고 재촉하는 듯하다. [어휘풀이 반영해 해석]

[문제] 진위판단

1. (가)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정답 ( 참 / 거짓 )
2. (가)는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계절감을 부각하고 있다.  
정답 ( 참 / 거짓 )
3. (가)의 '초려삼간'은 화자가 안빈낙도하며 사는 공간으로 볼 수 있  
군.  
정답 ( 참 / 거짓 )
4. (가)의 화자는 '강산'에서 벗어나, '청풍'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군.  
정답 ( 참 / 거짓 )
5. (가)와 (나)는 시어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정답 ( 참 / 거짓 )
6. (나)를 활용하여 '전원일기'라는 제목으로 영상시를 제작하기 위해,  
<제1수>는 아침부터 농기구를 가지고 밭을 가는 농부의 모습을 보  
여주면 좋겠어.  
정답 ( 참 / 거짓 )
7. (나)를 활용하여 '전원일기'라는 제목으로 영상시를 제작하기 위해,  
<제4수>는 옷깃을 열고 바람을 쐬고 있는 농부의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어.  
정답 ( 참 / 거짓 )

[정답 및 해설] 1.거짓, 2.거짓, 3.참, 4.거짓, 5.참, 6.거짓, 7.참

1. 자연에서의 초가집이 '공간'이고, 방 한 칸 한 칸 한 칸 준다는 것  
은 공간의 이동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거짓.
2. 맑은 바람이 봄·여름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 계절에서만 볼 수  
있는 모습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없음. 거짓.  
[없는 것을 있다고 하면 거짓]  
+ '계절감이 드러나 있다'고만 쓰지 않고,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라는  
표현을 굳이 덧붙여서 어떻게든 거짓 진술이라고 티내고 싶어 했던  
출제자의 심정·뉘앙스·의도 눈치 채기
3. [지문] 초려삼간 = 초가집 세 칸 = 내가 달, 바람과 함께 강산에 들  
러싸여 살고자 하는 공간  
= <보기> 안빈낙도의 공간  
= '선택지' 안빈낙도하면 사는 공간. 참.  
[<보기>-[지문]-선택지 표현 연결해 정답의 확신성 높이기]
4. 강산에서 '벗어나?'가 아니라 반대인 '둘러싸여' 살고 싶어하는 것.  
거짓.  
[선택지 표현과 반대되는 지문 표현을 떠올려 진위 판단에 활용]  
[반대의 경우를 떠올려 보아 참·거짓 판단에 활용하는 응용력]
5. (가) 한 간, 한 간, 한 간. (나) 둘러내자 둘러내자 둘러내자 둘러내  
자. 돌아가자 돌아가자 돌아가자. 참.  
\* '한 간' 이거 너무 짧은 시어라 정답의 확신성이 낮았을 수 있습니  
다만, 짧아도 시어는 시어고 두 번 이상 나왔으니 반복 맞습니다. 이  
문제를 계기로, 짧아도 시어는 시어다! '시어'라는 개념의 범위 더  
넓혀두기!
6. 선택지 '밭을 가는 농부' -> [지문] '두어라'. 내비두라는데? <제1  
수>에서는 아직 밭 가는 모습 보여주면 안 되는데. 거짓.  
[선택지 표현과 반대되는 지문 표현을 떠올려 진위 판단에 활용]  
\* 두어라 : (감탄사) 1. 옛 시가에서, 어떤 일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스스로의 마음을 달랠 때 영탄조로 하는 말.
7. '선택지' 옷깃을 열고 바람을 쐬고 있는 농부  
= [지문] <제4수> 청풍에 옷깃 열고. 참.  
[<보기>-[지문]-선택지 표현 연결해 정답의 확신성 높이기]





---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가는 안국어

## #157 멘토링

---

프로들의 모습3. 티내지 않는다.

진짜 힘든데 무리하고 있으면,  
주변에서 먼저 알아봐 주고 챙겨 줍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한번쯤은 진짜로 아파봤고,  
진짜 힘든 사람의 모습을 본 적이 있으니까요.

알고도 모른 채하며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그땐 티를 내고 거절해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너무 티낼 필요까진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은 학생들을 가르치며,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생겼는데요.  
아이들이 께병이 늘더군요.

지금 애들이 이전 세대보다 더 오냐오냐 자라다 보니  
더 나빠지고 더 거짓말을 한다는 그땐 게 아니구요.

친구가 아픈 건데도 자기가 아픈 것처럼 격리당하고,  
조금만 아파도 주변이랑 사회에서 일주일 푹 쉬라고 하다보니,  
그 경험이 아이들을 이렇게 만든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정말 많이 아프면 얼른 병원 가서 약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좀 더 자고 해야겠지만요.

배에서 살짝 신호 와서 화장실 가고 싶거나,  
공부 오래 하다 보니 머리 살짝 시큰해지고 이럴 때는,  
좀 참아가며 하던 일을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힘들다며 하던 거 다 내던져버리고 침대에 드러눕는 건,  
어떤 것도 제대로 해낼 수 없게 만드는 안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살짝 힘든 걸 단 5분만이라도 더 견뎌 보며  
눈앞의 해야할 일을 끝까지 해내는 모습은,  
좋은 습관이자 성공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라는 기업을 인수하느라,  
지금 너무나도 고통스럽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이는 50이 넘었고 여전히 세계 최고 부자인데도,  
지금 이 순간조차 트위터 본사 도서관에서  
숙식 해결하며 일하는 중입니다.

일론 머스크처럼 죽을 것 같아도 공부하는 곳에서 아주 살라는 얘기까진 아니어도,  
한 5분 정도 참고 더 공부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에 더해,  
'말'을 많이 해서 티를 내기 보다는,  
'행동'의 '결과'로 보여주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제부터는 정말 열심히 공부 할게요'  
'집에 가서 나머지 다 하고 사진 찍어서 보낼게요'  
'다음부터는 숙제 잘 해올게요'  
'복습 꼭 할게요.'  
'이젠 정말 바뀌겠습니다.'  
이런 말들...  
사실 꺼내느니만 못한 말들입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되돌아보시죠.  
본인이 위와 같은 말들 내뱉어서 제대로 지킨 적 있는지.

대다수 사람들 역시  
저런 말 꺼낸 다음 제대로 해낸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속으로는 믿지 않고, 겉으로 영혼없는 대답이나 해줄 뿐입니다.

겉으로야 "넵, 다음부터는 우리 잘 해봐요~"라고 하겠지만,  
속으로는 '떡이나 하겠다, 그나저나 끝나고 밥 뭐먹지?' 이런 생각 한다구요.

제대로 지키지도 못할 무책임한 당신의 말을,  
진심으로 믿어주든 마지막으로 속아주든 하는 사람은  
세상에 여러분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현실에서 성과를 내는 프로들은요.  
말은 짧게 끝내고 즉시 행동을 시작합니다.

세치 혀로 있는 말 없는 말 아무리 만들어 내봤자,  
푹린 입 가지고 아무리 털어대 봤자,  
겉으로 포장하고 말로 변호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거든요.

부모님이라는 든든한 울타리 밖의 냉정한 사회에서는  
결국 행동과 결과로 평가받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

**Work hard in silence  
Let your success be your noise**

- Frank Ocean

묵묵히 최선을 다하세요.  
당신이 성공하면,  
굳이 스스로 티내지 않아도  
옆에서 다 알아봐주고 퍼뜨려줄 테니까요

# #158 비문학

### [지문]

어떤 제약 회사에서 특정한 병에 효과가 있는 새로운 약을 만들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신약 개발은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경영자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 경영자는 신약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가설검정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가설검정은 모순된 관계에 있는 두 개의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통해 얻은 통계 자료로 가설의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하는 것이다. 가설검정을 위해 경영자는 ‘신약이 효과가 있다.’와 ‘신약이 효과가 없다.’라는 가설을 설정한다. 전자는 판단하는 이가 주장하려는 가설로 ‘대립(對立)가설’이라 하고 후자는 주장하고 싶은 내용과는 반대되는 가설인 ‘귀무(歸無)가설’이라 한다.

‘신약이 효과가 있다.’라는 대립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특정 질병을 겪고 있는 모든 환자에게 신약을 투약해 보면 된다. 하지만 전체를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립가설을 기준으로 가설검정을 하지는 않는다. 대신 가설검정에서는 귀무가설이 참이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일부 환자에게 투약해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확률에 근거하여 귀무가설의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신약이 효과가 없다.’라는 귀무가설 아래에서 투약하였는데 관찰한 결과 병이 호전된 경우가 많았다고 하자. 이는 ‘신약이 효과가 없다.’가 타당하지 않은 것이므로, 경영자는 귀무가설을 버리고 대립가설을 채택하면 된다. 한편 ‘신약이 효과가 없다.’라는 귀무가설 아래에서 투약하였고, 관찰 결과 병이 낫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하자. 이때는 귀무가설을 버릴 수 없다. 이처럼 가설 검정은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또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라는 의사 결정을 중심으로 대립가설의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경영자가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두 가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귀무가설이 참인데도 불구하고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것을 ‘1종 오류’라고 한다. 앞선 예에서 실제로는 약효가 없는데도 약효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귀무가설이 참이 아닌데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 결정을 내린 것을 ‘2종 오류’라고 한다. 실제로는 약효가 있지만 약효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오류는 판결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증거에 의해 ‘피고인은 유죄이다.’라는 대립가설이 채택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은 무죄이다.’라고 가정한다. 판사는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귀무가설의 기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때 판사가 무죄인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1종 오류, 유죄인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2종 오류에 해당한다.

오류들 중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것은 1종 오류이다. 효과가 있는 약을 출시하지 못해서 기업이 수익을 창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상황에 비해, 시장에 출시했는데 약의 효능이 없어서 회사가 신뢰를 잃는 위험이 더 크다. 또한 죄가 있는데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보다 결백한 사람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이다. 그런데 두 가지 오류를 동시에 줄일 수는 없다. 한쪽 오류를 줄이면 그만큼 반대쪽 오류는 늘어나기 때문이다. 만약 경영자가 약의 효능과는 무관하게 일단은 약을 출시하기로 결정했다면 2종 오류는 배제할 수 있지만 그만큼 1종 오류는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가설 검정 과정에서는 1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의 최대 허용 범위인 ①유의 수준을 가급적 낮게 정한다. 예를 들어 유의 수준이

5%라면 백 번의 시행 중 다섯 번 이내로 1종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우연히 일어난 일로 보고 대립가설을 채택하지만, 이 값을 넘어서면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유의 수준은 실험을 하기 전에 미리 정하며, 사람의 생명이나 인권과 결부된 것이라면 유의 수준은 더 낮게 잡아야 한다.

### [문제] 진위판단 및 오지선다

- 귀무가설은 대립가설이 채택될 때 받아들여지는 가설이다.  
정답 : ( 참 / 거짓 )
- 귀무가설은 참과 거짓을 알기 전까지는 거짓으로 간주한다.  
정답 : ( 참 / 거짓 )
- 신약 개발을 하는 경영자가 채택하고 싶은 것은 대립가설이다.  
정답 : ( 참 / 거짓 )
- 윗글을 통해 ‘귀무가설을 기각할 때 새롭게 설정하는 가설은 무엇인가?’의 답을 찾을 수 있다.  
정답 : ( 참 / 거짓 )
- 유의 수준은 귀무가설이 참일 확률과 거짓일 확률의 차이를 의미한다.  
정답 : ( 참 / 거짓 )
- 유의 수준의 값을 낮게 정할수록 대립가설을 채택할 확률이 낮아진다.  
정답 : ( 참 / 거짓 )
- 유의 수준은 실험이 이루어진 후에 자료를 분석할 때 결정하는 값이다.  
정답 : ( 참 / 거짓 )
- 유의 수준은 가설을 판단할 때 사용할 자료 개수의 최대 허용 범위이다.  
정답 : ( 참 / 거짓 )
-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A ~ 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구분	실제상황		
	귀무가설 참	귀무가설 거짓	
의사결정	귀무가설 기각 못함	A	B
	귀무가설 기각함	C	D

- 실제로 피고인이 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은 A와 C의 경우에 해당한다.
- 경영자가 신약의 효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A와 B의 경우에 해당한다.
- A와 D는 피고인에 대해 판사가 내린 판결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 법원이 B를 줄이면, 실제로 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무죄로 판결해서 사회로 돌려보내는 수가 늘어난다.
- 제약 회사가 C를 줄이려는 이유는 약의 효능이 없어 시장에서 신뢰를 잃는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 #158 정답 및 해설

## [지문]

어떤 제약 회사에서 특정한 병에 효과가 있는 새로운 약을 만들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신약 개발은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경영자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 경영자는 신약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가설 검정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가설 검정은 모순된 관계에 있는 두 개의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통해 얻은 통계 자료로 가설의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하는 것이다. 가설 검정을 위해 경영자는 ‘신약이 효과가 있다.’와 ‘신약이 효과가 없다.’라는 가설을 설정한다. 전자는 판단하는 이가 주장하려는 가설로 ‘대립(對立)가설’이라 하고 후자는 주장하고 싶은 내용과는 반대되는 가설인 ‘귀무(歸無)가설’이라 한다.

‘신약이 효과가 있다.’라는 대립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특정 질병을 겪고 있는 모든 환자에게 신약을 투약해 보면 된다. 하지만 전체를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립가설을 기준으로 가설 검정을 하지는 않는다. 대신 가설 검정에서는 귀무가설이 참이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일부 환자에게 투약해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확률에 근거하여 귀무가설의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신약이 효과가 없다.’라는 귀무가설 아래에서 투약하였는데 관찰한 결과 병이 호전된 경우가 많았다고 하자. 이는 ‘신약이 효과가 없다.’가 타당하지 않은 것이므로, 경영자는 귀무가설을 버리고 대립가설을 채택하면 된다. 한편 ‘신약이 효과가 없다.’라는 귀무가설 아래에서 투약하였고, 관찰 결과 병이 낫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하자. 이때는 귀무가설을 버릴 수 없다. 이처럼 가설 검정은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또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라는 의사 결정을 중심으로 대립가설의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경영자가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두 가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귀무가설이 참인데도 불구하고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것을 ‘1종 오류’라고 한다. 앞선 예에서 실제로는 약효가 없는데도 약효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귀무가설이 참이 아닌데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 결정을 내린 것을 ‘2종 오류’라고 한다. 실제로는 약효가 있지만 약효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오류는 판결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증거에 의해 ‘피고인은 유죄이다.’라는 대립가설이 채택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은 무죄이다.’라고 가정한다. 판사는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귀무가설의 기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때 판사가 무죄인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1종 오류, 유죄인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2종 오류에 해당한다.

## [현장독해]

- 신약 개발
- 신약이 효과 있는지 ‘가설 검정’ 이거 내겠네 [키워드 파악]
- 신약 효과 있다 없다가 모순 관계 [지문 앞-뒤-개념-예시 연결]
- 전자 = 신약이 효과가 있다 = 주장하려는 가설 = 대립가설  
vs 후자 = 신약이 효과가 없다 = 주장하고 싶은 내용과 반대인 가설 = 귀무가설. [지문 앞-뒤 표현 연결, 차이점 중심으로 정리]  
+ 귀무가설이 참이면 ‘없던 일로 돌려보내는 가설 이런건가?’ (歸 돌아 가다 귀, 無 없을 무) [한자 어휘력으로 의미 추론, 최상위권]
- ‘대립가설=신약 효과 있다’를 직접 입증하기 위해서는 모든 환자, 전체 대상에게 하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 모집단 전체를 직접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표본집단으로 모집단 추정하는 통계 그런 애기 인 듯? [배경지식으로 이해도 심화]
- ‘귀무가설=신약 효과 없다’ = 참으로 가정 -> 전체 환자 대신 일부 환자에 투약. 병이 호전된 경우가 많았으면 신약이 효과가 없다는 귀무가설이 거짓 -> 대립가설 채택 [지문 앞-뒤 표현 연결, 인과관계 선후관계 정리]
- 신약이 효과가 없다 = 참으로 가정 -> 일부 환자 투약, 병이 낫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다 -> 참이라고 가정한 귀무가설을 버릴 수 없다 [지문 앞-뒤 표현 연결, 인과관계 선후관계 정리]
-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 참이라고 가정한 귀무가설이 거짓 = 대립가설 채택.  
vs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 = 귀무가설을 버릴 수 없다 = 신약이 효과가 없다는 것이 참. [지문 앞-뒤 표현 연결, 차이점 중심으로 정리]
- 귀무가설이 참 = 신약이 효과가 없다 =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 vs 근데도 귀무가설 기각하면 1종 오류 = 약효가 없는데 약효가 있다고 판단 [지문 앞-뒤 표현 연결, 개념-예시 연결, 차이점 중심으로 정리]
- 귀무가설이 참이 아닌데 = 신약이 효과가 있다 = 귀무가설 기각 = 대립가설 채택 vs 근데 약효가 없다고 판단하면 2종 오류 = 약효가 있는데 약효가 없다고 판단. [지문 앞-뒤 표현 연결, 개념-예시 연결, 차이점 중심으로 정리]
- 실제로 무죄인 사람 = ‘피고인은 무죄이다’라는 귀무가설이 참 vs 근데 귀무가설 기각하고 유죄라고 판단하면 1종 오류.
- 실제로 유죄인 사람 = ‘피고인은 무죄이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 = ‘피고인이 유죄이다’라는 대립가설 채택 vs 근데 귀무가설 기각하지 않고 무죄라고 판단하면 2종 오류.

오류들 중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것은 1종 오류이다. 효과가 있는 약을 출시하지 못해서 기업이 수익을 창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상황에 비해, 시장에 출시했는데 약의 효능이 없어서 회사가 신뢰를 잃는 위험이 더 크다. 또한 죄가 있는데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보다 결백한 사람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이다. 그런데 두 가지 오류를 동시에 줄일 수는 없다. 한쪽 오류를 줄이면 그만큼 반대쪽 오류는 늘어나기 때문이다. 만약 경영자가 약의 효능과는 무관하게 일단은 약을 출시하기로 결정했다면 2종 오류는 배제할 수 있지만 그만큼 1종 오류는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가설 검정 과정에서는 1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의 최대 허용 범위인 유의 수준을 가급적 낮게 정한다. 예를 들어 유의 수준이 5% 라면 백 번의 시행 중 다섯 번 이내로 1종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우연히 일어난 일로 보고 대립가설을 채택하지만, 이 값을 넘어서면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유의 수준은 실험을 하기 전에 미리 정하며, 사람의 생명이나 인권과 결부된 것이라면 유의 수준은 더 낮게 잡아야 한다.

**[문제] 진위판단 및 오지선다**

1. 귀무가설은 대립가설이 채택될 때 받아들여지는 가설이다.  
정답 : ( 참 / 거짓 )
2. 귀무가설은 참과 거짓을 알기 전까지는 거짓으로 간주한다.  
정답 : ( 참 / 거짓 )
3. 신약 개발을 하는 경영자가 채택하고 싶은 것은 대립가설이다.  
정답 : ( 참 / 거짓 )
4. 윗글을 통해 '귀무가설을 기각할 때 새롭게 설정하는 가설은 무엇인가?'의 답을 찾을 수 있다.  
정답 : ( 참 / 거짓 )

- 실제로 효과가 있는데 효과가 없다고 잘못 판단해서 출시하지 못한 것 = 2종 오류. 출시했으면 수익 냈을 텐데 못 냄.
- vs 신약이 약효가 없는데 있다고 잘못 판단해서 출시 = 1종 오류. 신뢰를 잃음 **[지문 앞-뒤 표현 연결, 차이점 중심으로 정리]**
- 출시 안 해서 자기만 손해 보는 것보다 출시해서 남한테 손해 끼치는 것이 더 심각하다는 건가? **[나만의 편한 표현으로 핵심정리]**
- 실제로 죄가 있는데 무죄 판결 = 2종 오류. vs 결백한 사람, 즉 실제로 무죄인데 유죄 판결 = 1종 오류가 더 심각한 문제. **[지문 앞-뒤 표현 연결, 차이점 중심으로 정리]**
- 두 가지 오류를 동시에 줄일 수는 없는 것이 문제. 1종 줄이면 2종 늘어나고, 2종 줄이면 1종 늘어나고.
- 출시하면 2종 오류 줄어듦. 또한 실제로 약효가 있는데 출시했으면 잘한 것. 대신 실제로 약효가 없는데 출시했으면 1종 오류 늘어남 **[설명-예시 연결, 나만의 편한 표현으로 핵심정리]**
- '더 심각하다는 1종 오류 = 즉 안 좋은 걸 좋다고 판단하는 오류'를 최대한 적게 만들기 위해, 1종 오류 발생확률의 최대 허용범위인 유의 수준을 낮게 정한다.
- 100번 중에 1종 오류, 즉 실제로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데 기각해서 대립가설 채택하는 의사결정이 5번 일어나도, 우연으로 봐서 대립가설 채택.
- 이 값을 넘어서면 = 유의 수준 5%를 넘어서면 = 백 번의 시행 중 다섯 번을 초과해서 1종 오류가 발생하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보고 귀무가설 기각 못함, 대립가설 채택 불가. 즉 약효가 없다, 피고인은 무죄다.
- 신약이 생명이고, 무죄가 인권이네. 이런 건 유의 수준 더 낮게. **[지문 앞-뒤 표현 연결해 이해]**

**[정답 및 해설]**

1.거짓, 2.거짓, 3.참, 4.거짓, 5.거짓, 6.참, 7.거짓, 8.거짓, 9.④번

1. 대립가설은 귀무가설을 기각했을 때 채택하는 가설이지. 대립가설이 채택될 때는, 귀무가설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을 때. '받아들이지는'도 틀렸고, 귀무가설 기각여부를 정하고 대립가설 채택여부를 정하는 선후관계도 반대로 돼서 틀렸고. 거짓. **[선후관계 반대로 표현하는 것 주의]**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보는 응용력]**
2. 2문단에, 귀무가설 즉,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과 반대인 가설을 일단 참이라고 가정. 거짓.
3. 채택하고 싶은 것 = 신약이 효과가 있다 = 대립가설. 참. **[선택지-지문 표현 연결해 정답의 확신성 높이기]**
4. 귀무가설을 기각하면,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건데, '새롭게 설정하는 가설'이 왜 필요해. 새롭게 가설 설정한다는 얘기도 없었고. 거짓 **[없는 것을 있다고 하면 틀림]**

5. 유의 수준은 귀무가설이 참일 확률과 거짓일 확률의 차이를 의미한다. 정답 : ( 참 / 거짓 )

6. 유의 수준의 값을 낮게 정할수록 대립가설을 채택할 확률이 낮아진다. 정답 : ( 참 / 거짓 )

7. 유의 수준은 실험이 이루어진 후에 자료를 분석할 때 결정하는 값이다. 정답 : ( 참 / 거짓 )

8. 유의 수준은 가설을 판단할 때 사용할 자료 개수의 최대 허용 범위이다. 정답 : ( 참 / 거짓 )

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A ~ 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구분	실제상황		
	귀무가설 참	귀무가설 거짓	
의사결정	귀무가설 기각 못함	A	B
	귀무가설 기각함	C	D

- ① 실제로 피고인이 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은 A와 C의 경우에 해당한다.
- ② 경영자가 신약의 효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A와 B의 경우에 해당한다.
- ③ A와 D는 피고인에 대해 판사가 내린 판결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 ④ 법원이 B를 줄이면, 실제로 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무죄로 판결해서 사회로 돌려보내는 수가 늘어난다.
- ⑤ 제약 회사가 C를 줄이려는 이유는 약의 효능이 없어 시장에서 신뢰를 잃는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5. 유의 수준 = '1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의 최대 허용범위' '귀무가설이 참이라 기각하지 못하는데 기각해서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대립가설 채택하는 것이 1종 오류'. 단순히 귀무가설이 참vs거짓일 확률 차이를 의미하는 게 아님. 거짓.

[선택지-지문 표현 연결해 정답의 확신성 높이기]

6. 생명과 인권에 관련된 일은 유의 수준 값을 낮게 정한다고 하는데, 즉, 유의 수준을 5%가 아니라 1%로 잡으면, 100번 중 1번만 1종 오류를 범해도 대립가설을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 낮게 정할수록 대립가설 채택 안하겠네. 참.

[지문 예시를 선택지 판단에 활용]

7. 마지막 문단 마지막 문장에, 유의 수준은 실험을 하기 '전'에 미리 정한다고 하지. 거짓.[선후관계 반대로 표현하는 것 주의]

8. 뭐라는 거야 이건. 마지막 문단 첫 번째 문장, '유의 수준 = 1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의 최대 허용범위'라니까. 사용할 자료의 개수의 많고 적음을 허용해주는 거랑 상관없음. 거짓.

[없는 것을 있다고 하면 틀림]

- 9.
  - A : 실제로 귀무가설이 참이라서 귀무가설 기각 못했고, 대립가설 채택 안했으면, 오류 안 내고 제대로 판단한 거지.
  - B : 실제로 귀무가설이 거짓 = 귀무가설 기각 = 대립가설 채택. 근데 귀무가설을 기각 못 했다는 건 '2종 오류'네. 실제로 약효가 있는데 약효가 없다고 하고, 실제로 유죄인데 무죄라고 판단하는 2종 오류.
  - C : 실제로 귀무가설이 참인데 = 즉 약효가 없거나 피고인은 무죄인데 =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데 vs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여 약효가 있다고 하거나 피고인은 유죄라고 하는 것. 이게 1종 오류네.
  - D : 실제로 귀무가설이 거짓이고, 그래서 귀무가설을 기각했고, 그래서 대립가설 채택했으면, 올바른 의사결정이지. 약효가 없지 않으므로 출시, 피고인이 무죄가 아니므로 유죄.

[넵다 선택지로 넘어가지 말고

보기와 지문 표현을 연결해가며 이해해보고 넘어가기]

- ① 실제로 피고인이 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 = 실제로 피고인은 무죄 = 귀무가설 참 = A, C. 참.
- ② 경영자가 신약의 효능이 없다고 판단 = '신약의 효과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 것 = A, B. 참.
- ③ A, D = 오류 없이 잘 판단한 경우. 참.
- ④ 2종 오류를 줄이면 = 실제로 유죄인데 무죄라고 판단하는 걸 줄인다 = 실제로 죄를 저지는 피고인을 무죄로 판결해서 사회로 돌려보내는 수가 줄어들겠지. 거짓. 정답 ④번.
- ⑤ C = 1종 오류 = 실제로 효과 없는 걸 시장에 출시하면 신뢰를 잃어서

[보기-선택지-지문 연결해 정답의 확신성 높이기]

# #159 문법

## <보기>

홀른 조심 아니 햅샤 브를 뿌긔 햅야시닐 그 아비 그 썩니물 구짓고  
 北(북)녝 堀(굴)애 브리스박 불 가져오라 햅야닐 그 썩니미 아비 말 드  
 르샤 北堀(북굴)로 가시니 거름마다 밭 드르신 짜해  
 다 蓮花(연화)ㅣ 나니 자취를 조차

- 「석보상절」 -

## [현대어 풀이]

하루는 조심하지 아니하시어 불을 꺼지게 하시거늘, 그 아비가 그 따님을 꾸짖고, 북녝 굴에 시켜서 불을 가져오라고 하거늘, 그 따님이 아버지의 말을 들으시어 북굴로 가시니, 걸음마다 밭을 드신 땅에 다 연꽃이 나니, 자취를 좇아

[문제] <보기>를 바탕으로 중세 국어의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뿌긔’를 보니 현대 국어와 달리 초성에 어두 자음군이 쓰였음을 알 수 있군.
- ② ‘썩니물, 자취를’을 보니 중세 국어에서도 앞말의 받침 유무에 따라 목적격 조사의 형태가 다르게 쓰였음을 알 수 있군.
- ③ ‘브리스박’를 보니 현대 국어와 달리 ‘ㄷ’과 ‘ㄴ’이 표기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④ ‘가시니’를 보니 중세 국어에서도 주체를 높이는 특수 어휘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⑤ ‘거름, 조차’를 보니 현대 국어와 달리 이어 적기를 하였음을 알 수 있군.

※ 2020년 고1 11월 14번 문법 문제 참조

# #159 정답 및 해설

### <보기>

홀른 조심 아니 햅샤 브를 뿌그 햅야시닐 그 아비 그 썩니물 구짓고  
 北(북)녝 堀(굴)애 브리스박 불 가져오라 햅야닐 그 썩니미 아비 말 드  
 르샤 北堀(북굴)로 가시니 거름마다 밭 드르신 짜해  
 다 蓮花(연화)ㅣ 나니 자취를 조차

- 「석보상절」 -

### [현대어 풀이]

하루는 조심하지 아니하시어 불을 꺼지게 하시거늘, 그 아비가 그 따님을 꾸짖고, 북녝 굴에 시켜서 불을 가져오라고 하거늘, 그 따님이 아버지의 말을 들으시어 북굴로 가시니, 걸음마다 밭을 드신 땅에 다 연꽃이 나니, 자취를 좇아

[문제] <보기>를 바탕으로 중세 국어의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뿌그’를 보니 현대 국어와 달리 초성에 어두 자음군이 쓰였음을 알 수 있군.
- ② ‘썩니물, 자취를’을 보니 중세 국어에서도 앞말의 받침 유무에 따라 목적격 조사의 형태가 다르게 쓰였음을 알 수 있군.
- ③ ‘브리스박’을 보니 현대 국어와 달리 ‘△’과 ‘빙’이 표기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④ ‘가시니’를 보니 중세 국어에서도 주체를 높이는 특수 어휘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⑤ ‘거름, 조차’를 보니 현대 국어와 달리 이어 적기를 하였음을 알 수 있군.

### [현장독해]

- 이걸 미리 볼 필요는 없지. 문제로 바로 넘어가자.

### [정답 및 해설] ④번

- ① ‘뿌’ 초성에 어두 자음군. 현대에서는 안 쓰임. 참
- ② 목적격 조사의 이형태 ‘을, 를’ 말하는 거네. 앞글자의 받침 유무에 따라 달라지듯, 중세국어에서도 ‘을, 를’ 이형태 있었음.
- ③ △(반치음), 빙(순경음ㅂ) 현대 국어에는 안 쓰임. 참
- ④ 썩개서 원형파악 해보면, 주체 높임의 특수 어휘가 아니라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쓰였지. 거짓. ‘그 따님이 ~ 북굴로 가시니’에서 북굴로 가는 주어 ‘따님’을 높이고 있네.
- ⑤ 썩개서 원형파악 해보면, ‘걸-(다) + -음’ -> ‘걸음’을 이어적기하면 ‘거름’, ‘줄-(다) + -아’ -> ‘줄아’를 이어적기하면 ‘조차’

## ★★★ 중세국어 기초 개념 ★★★

- ① **어두자음군(語頭子音群)** : 단어가 시작되는 머리(어두), 즉 초성에 자음들이 무리지어 발음되는 군.
  - 영단어 ‘split’에서 ‘spl’이 국어의 어두자음군과 유사. 두 개 이상의 자음이 배열되어 각자의 소리가 발음에 반영된다는 공통점.
  - 어두자음군을 나타내는 표기 : ㅂ계, ㅅ계, ㅃ계 합용병서 \*어두자음군은 ‘발음’ 관련, 합용병서는 이러한 ‘발음’을 표기.
    - ㅂ계 합용병서(ㅃ,ㅃ 등) : 어두 자음군이 자음들이 모두 발음되었다고 봄 / 예시) ㅃ [ㅂ듯]
    - ㅅ계 합용병서(ㅆ,ㅆ,ㅆ 등) : 각자병서(ㅅ,ㅆ,ㅆ)처럼 된소리로 발음되었다고 봄 / 예시) ㅆ [ㅅ뽀]
    - ㅃ계 합용병서(ㅃ,ㅃ 등) : ㅂ이 따로 발음된 후, ㅅ계 합용병서의 각자병서처럼 된소리로 발음되었다고 봄 / 예시) ㅃ [ㅂ뽀]
- ② **목적격 조사 이형태** : -을, -을, -를, -를
  - 을 :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받침 있음), 바로 앞 모음이 양성모음(모음조화) / 예시) 마으물(마음을)
  - 을 :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받침 있음), 바로 앞 모음이 음성모음(모음조화) / 예시) 구르믈(구름을)
  - 를 :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받침 없음), 바로 앞 모음이 양성모음(모음조화) / 예시) 나를(나를)
  - 를 :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받침 없음), 바로 앞 모음이 음성모음(모음조화) / 예시) 부터를(부처를)
- ③ **중세국어 음운의 변천 중 소멸** : ㅍ, ㅇ, △, ㅂ, ㅅ
  - 여린히읃(ㅍ) : 15세기 중엽 세조 이후 소멸
  - 옛이응(ㅇ) : 16세기 말 소멸
  - 반치음 (△) : 16세기 말 임진왜란 이후 소멸
  - 순경음 비읍(ㅂ) : 17세기 지나며 소멸
  - 아래아(ㅅ) : 17세기 말까지 쓰이다 소멸



<보기>

철학자 마이클 샌델은 올바른 사회를 위해서는 시민이 덕성을 바탕으로 자기 통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기 통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공동선(共同善)에 대하여 동료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 그는 공동선에 대한 토론에서 시민들이 자신의 목표를 잘 선택하고 다른 사람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문]

[앞부분 줄거리] 시골 학교로 전학 온 '나'는 힘으로 학급을 장악하고 있던 석대에게 저항하다 이내 굴복한다. 그러나 김 선생이 부임한 후 아이들이 석대의 비행을 폭로하고 석대는 학교를 떠난다. 학교를 떠난 석대는 학교 밖에서 아이들을 괴롭힌다.

교실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많은 혼란과 소모를 강요한 것은 의식의 파행이었다. 선생님의 격려와 근거 없는 승리감에 취한 우리 중의 일부는 지나치게 앞으로 내달았고, 아직도 석대의 질서가 주던 중압에서 깨어나지 못한 아이들은 또 너무 뒤쳐져 미적거렸다. 임원진으로 뽑힌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어른들의 식으로 표현하자면, 한쪽은 너무도 민주주의 대의에 충실히 우왕좌왕하는 다수와 함께 우왕좌왕했고, 또 한쪽은 석대 식의 권위주의를 청산하지 못해 은근히 작은 석대를 꿈꾸었다. 거기다가 새로 생긴 건의함은 올바른 국민 탄핵제도의 기능을 하기보다는 밀고와 모함으로 일주일에 하나씩은 임원들을 갈아치웠다.

(중략)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안팎의 도전들은 차츰 해결되어 갔다.

먼저 해결된 것은 석대 쪽이었는데, 그 해결을 유도한 담임선생님의 방식은 좀 특이했다. 우리에게서 거의 불가항력적이었던 어찌 된 셈인지 담임선생님은 석대 때문에 결석한 아이들을 그 어느 때보다 호된 매질과 꾸지람으로 다루었다.

“다섯 놈이 하나한테 하루 종일 끌려 다녀? 병신 같은 자식들.”

“너희들은 두 손 묶어 놓고 있었어? 멍청한 놈들.”

그렇게 소리치며 마구잡이 매질을 해댈 때는 마치 사람이 갑자기 변한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영문을 몰랐으나 그 효과는 오래잖아 나타났다. 우리 중에서 좀 별나고 당찬 소년거리 아이들 다섯이 마침내 석대와 맞붙은 것이었다. 석대는 전에 없이 표독을 떨었지만 상대편 아이들도 이판사판으로 덤비자 결국은 혼자서 다섯을 당해내지 못하고 꿈무늬를 뺐다. 선생님은 그 아이들에게 그 당시 한창 인기 있던 케네디 대통령의 「용기 있는 사람들」이란 책 한 권씩을 나눠 주며 우리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여럿 앞에서 그들을 추켜세웠다. 그러자 다음 날 미창 쪽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그 뒤 석대는 두 번 다시 아이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거기 비해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혼란을 대하는 담임선생님의 태도는 또 앞서와 전혀 달랐다. 잘못된 이해나 엇갈리는 의식 때문에 아무리 교실 안이 시끄럽고 학급의 일이 갈팡질팡해도 담임선생님은 철저히 모른 척했다. 토요일 오후 자치회가 끝없는 입씨름으로 서너

시간씩 계속돼도, 급장 부급장이 건의함을 통해 밀고된 대단치 않은 잘못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갈리는 소동이 나도 언제나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뿐 충고 한마디 하는 법이 없었다.

그 바람에 우리 학급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데는 거의 한 학기가 다 소비된 뒤였다. 여름방학이 지나자 벌써 서너 달 앞으로 닥친 중학 입시가 말깨나 할 만한 아이들의 주의를 온통 그리로 끌어들이는 까닭도 있지만, 그보다는 경험의 교훈이 자정 능력을 길러 준 덕분이 아닌가 한다. 서로 다투고 따지고 부대끼고 시달리는 그 대여섯 달 동안에 우리는 차츰 스스로가 스스로를 규율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를 배우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그때껏 그런 우리를 지켜보기만 했던 담임선생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는 데는 아직도 훨씬 더 많은 세월이 지나야 했다.

학교 생활이 정상으로 돌아감과 아울러 굴절되었던 내 의식도 차츰 원래대로 회복되어 갔다. 다시 어른들 식으로 표현하면, 새로운 급장 선거에서 기권표를 던질 때만 해도 머뭇거리던 내 시민 의식은 오래잖아 자신과 희망을 가지게 되고 자유와 합리에 대한 예전의 믿음도 이윽고 되살아 났다. 가끔씩-이를테면, 내가 듣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의견 같은데도 공연히 떠드는 게 좋아 씨알도 먹히지 않는 따지기로 회의만 끝없이 늘어 놓는 아이들을 볼 때나, 다 같이 힘을 합쳐야 할 작업에 요리조리 빠져나가 우리 반이 딴 반에 뒤지게 만드는 아이들을 보게 될 때와 같은 때-석대의 질서가 가졌던 편의와 효용성을 떠올릴 때가 있었지만 그것도, 금지돼 있기에 더 커지는 유혹 같은 것에 지나지 않았다.

석대는 미창 쪽 아이들과의 싸움이 있고 난 뒤 우리들뿐만 아니라 그 작은 읍에서도 사라져버렸다. 얼마 후 들리는 소문으로는 서울에 있는 어머니를 찾아갔다는 것이었다.

- 이문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

[문제] 진위판단

1. '새로 생긴 건의함'은 아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학급의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였군. 정답 : ( 참 / 거짓 )
2. '학급의 일이 갈팡질팡해도 담임선생님은 철저히 모른 척'한 것은 아이들이 자기 통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기르도록 하기 위해서였겠군. 정답 : ( 참 / 거짓 )
3. '자치회가 끝없는 입씨름으로 서너 시간씩 계속'된 것은 아이들이 공동선을 위한 토론에 익숙하지 않은 모습을 나타낸 것이겠군. 정답 : ( 참 / 거짓 )
4. '내'가 '새로운 급장 선거에서 기권표를 던'졌던 것은 아직 자기 통치에 참여할 준비가 되지 않아서였겠군. 정답 : ( 참 / 거짓 )
5. '다 같이 힘을 합쳐야 할 작업에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아이들은 동료 시민들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은 시민에 해당하겠군. 정답 : ( 참 / 거짓 )

# #160 정답 및 해설

## <보기>

철학자 마이클 샌델은 올바른 사회를 위해서는 시민이 덕성을 바탕으로 자기 통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기 통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공동선(共同善)에 대하여 동료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 그는 공동선에 대한 토론에서 시민들이 자신의 목표를 잘 선택하고 다른 사람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지문]

[앞부분 줄거리] 시골 학교로 전학 온 ‘나’는 힘으로 학급을 장악하고 있던 석대에게 저항하다 이내 굴복한다. 그러나 김 선생이 부임한 후 아이들이 석대의 비행을 폭로하고 석대는 학교를 떠난다. 학교를 떠난 석대는 학교 밖에서 아이들을 괴롭힌다.

교실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많은 혼란과 소모를 강요한 것은 의식의 파행이었다. 선생님의 격려와 근거 없는 승리감에 취한 우리 중의 일부는 지나치게 앞으로 내달았고, 아직도 석대의 질서가 주던 중압에서 깨어나지 못한 아이들은 또 너무 뒤쳐져 미적거렸다. 임원진으로 뽑힌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어른들의 식으로 표현하자면, 한쪽은 너무도 민주주의 대의에 충실히 우왕좌왕하는 다수와 함께 우왕좌왕했고, 또 한쪽은 석대 식의 권위주의를 청산하지 못해 은근히 작은 석대를 꿈꾸었다. 거기다가 새로 생긴 건의함은 올바른 국민 탄핵제도의 기능을 하 기보다는 밀고와 모함으로 일주일에 하나씩은 임원들을 갈아치웠다.

(중략)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안팎의 도전들은 차츰 해결되어 갔다.

먼저 해결된 것은 석대 쪽이었는데, 그 해결을 유도한 담임선생님의 방식은 좀 특이했다. 우리에게서 거의 불가항력적이었던 어찌 된 셈인지 담임선생님은 석대 때문에 결석한 아이들을 그 어느 때보다 호된 매질과 꾸지람으로 다루었다.

“다섯 놈이 하나한테 하루 종일 끌려 다녀? 병신 같은 자식들.”

“너희들은 두 손 묶어 놓고 있었어? 멍청한 놈들.”

그렇게 소리치며 마구잡이 매질을 해댈 때는 마치 사람이 갑자기 변한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영문을 몰랐으나 그 효과는 오래잖아 나타났다. 우리 중에서 좀 별나고 당찬 소년거리 아이들 다섯이 마침내 석대와 맞붙은 것이었다. 석대는 전에 없이 표독을 떨었지만 상대편 아이들도 이판사판으로 덤비자 결국은 혼자서 다섯을 당해내지 못하고 꿈무늬를 뺐다. 선생님은 그 아이들에게 그 당시 한창 인기 있던 케네디 대통령의 「용기 있는 사람들」이란 책 한 권씩을 나눠 주며 우리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여럿 앞에서 그들을 추켜세웠다. 그러자 다음 날 미창 쪽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그 뒤 석대는 두 번 다시 아이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 [현장독해]

- 자기 통치, 공동선에 대한 고민과 토론, 목표 선택 및 타인 선택권 존중. [지문 읽으며 연결할 <보기> 키워드 파악]

- 힘으로 학급 장악 vs <보기> 토론, 존중 [지문 표현과 반대되는 내용을 <보기> 활용해 떠올리기]  
- 석대가 빌런, 반동인물이네. [인물 유형 파악, 빌런은 특히 중요한 갈등요인]

- 민주주의 대의, 우왕좌왕 vs 석대 식의 권위주의, 작은 석대 [차이점 중심으로 정리]

- 새로 생긴 건의함 = 밀고와 모함. vs 국민 탄핵제도 [차이점 중심으로 정리]

- 대장 없어지고 개판 됨. [나만의 편한 표현으로 핵심을 촌철살인]

- 석대보다 더 엄하게

- 그 효과 = 호된 매질과 꾸지람의 효과 [지시 관형사의 의미 지문 앞 표현과 연결해 구체화]

- 석대도 아직 애다 [나만의 편한 표현으로 핵심을 촌철살인]

- 석대 때문에 결석하면 엄하게, 석대에 맞서 덤비면 엄청 칭찬. 선생님이 채찍과 당근을 잘 씀 [나만의 편한 표현으로 핵심을 촌철살인]

- 석대 아웃. [나만의 편한 표현으로 핵심을 촌철살인]

거기 비해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혼란을 대하는 담임선생님의 태도는 또 앞서와 전혀 달랐다. 잘못된 이해나 엇갈리는 의식 때문에 아무리 교실 안이 시끄럽고 학급의 일이 갈팡질팡해도 담임선생님은 철저하게 모르는 척했다. 토요일 오후 자치회가 끝없는 입씨름으로 서너 시간씩 계속돼도, 급장 부급장이 건의함을 통해 밀고된 대단치 않은 잘못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갈리는 소동이 나도 언제나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뿐 충고 한마디 하는 법이 없었다.

그 바람에 우리 학급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데는 거의 한 학기가 다 소비된 뒤였다. 여름방학이 지나자 벌써 서너 달 앞으로 닥친 중학 입시가 말깨나 할 만한 아이들의 주의를 온통 그리로 끌어들이는 까닭도 있지만, 그보다는 경험의 교훈이 자정 능력을 길러 준 덕분이 아닌가 한다. 서로 다투고 따지고 부대끼고 시달리는 그 대역섯 달 동안에 우리는 차츰 스스로가 스스로를 규율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를 배우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그때껏 그런 우리를 지켜보기만 했던 담임선생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는 데는 아직도 훨씬 더 많은 세월이 지나야 했다.

학교 생활이 정상으로 돌아감과 아울러 굴절되었던 내 의식도 차츰 원래대로 회복되어 갔다. 다시 어른들 식으로 표현하면, 새로운 급장 선거에서 기권표를 던질 때만 해도 머뭇거리던 내 시민 의식은 오래잖아 자신과 희망을 가지게 되고 자유와 합리에 대한 예전의 믿음도 이윽고는 되살아 났다. 가끔씩-이르테면, 내가 듣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의견 같은데도 공연히 떠드는 게 좋아 씨알도 먹히지 않는 따지기로 회의만 끝없이 늘어 놓는 아이들을 볼 때나, 다 같이 힘을 합쳐야 할 작업에 요리조리 빠져나가 우리 반이 탄 반에 뒤지게 만드는 아이들을 보게 될 때와 같은 때-석대의 질서가 가졌던 편의와 효용성을 떠올릴 때가 있었지만 그것도, 금지돼 있기에 더 커지는 유혹 같은 것에 지나지 않았다.

석대는 미창 쪽 아이들과의 싸움이 있고 난 뒤 우리들뿐만 아니라 그 작은 읍에서도 사라져버렸다. 얼마 후 들리는 소문으로는 서울에 있는 어머니를 찾아갔다는 것이었다.

- 이문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

[문제] 진위판단

1. '새로 생긴 건의함'은 아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학급의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였군.

정답 : ( 참 / 거짓 )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혼란

vs 석대가 학교 밖에서 아이들 괴롭히는 것이 우리 외부에서 일어나는 혼란 [차이점 중심으로 정리]

- 외부 혼란 : 당근과 채찍 vs 내부 혼란 : 모른 척, 충고 안함 [차이점 중심으로 정리]  
[나만의 편한 표현으로 핵심을 촌철살인]

- 경험의 교훈이 자정 능력을 길러 줌. 한 학기동안 자치회 스스로 운영해보고 임원 일주일만에 갈아치우는 혼란 속에서 배웠다는 것. 강하게 컸다.

- 스스로가 스스로를 규율 = <보기> 자기 통치 나왔고. [지문-<보기> 연결해 지문 이해도 높이기]

- 새로운 급장 선거에서 기권표를 던짐 = 굴절되었던 내 의식 [지문 앞-뒤 연결해 지문 이해도 높이기]

- 자신과 희망, 자유와 합리. <보기> 덕성 [지문-<보기> 연결해 지문 이해도 높이기]

- 다 같이 협력 안 해서 결과가 안 좋을 때, 석대가 힘으로 협조 강요 해서 결과를 좋게 가져다주던 질서의 편의와 효용성이 떠오르기도. [지문 앞-뒤 연결해 지문 이해도 높이기]

- 하지 말라니까 더 하고 싶은 정도일 뿐, 결국 석대식으로 돌아가지는 않았다.

[정답 및 해설] 1.거짓, 2.참, 3.참, 4.참, 5.참

1. 지문 '밀고와 모함'으로 '일주일에 하나씩 임원을 갈아치우게' 했으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학급의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였다고는 볼 수 없지. 거짓. [지문 표현을 활용하여 정답의 확신성 높이기]

+ '건의함'의 의도와 목적 자체는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학급의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한 기능 수행'이 맞습니다. 다만, 그렇게 의도된 기능을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수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한 학기 내내 '혼란'을 가중시켰다고까지 볼 수 있으니까요. 이 문제를 통해 '의도·목적·기능·이론·이상'과 '결과·현실'을 구분할 줄 알게 되셨으면 좋겠네요. [의도vs결과, 이상vs현실 구분]

+ 지문 뒤에 '우리 학급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데는 거의 한 학기가 다 소비된 뒤였다'는 표현이 있으므로, 결과적으로는 의도된 기능을 수행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위와 같은 생각이 선택지 표현에 제대로 담긴다면 맞겠습니다. "새로 생긴 건의함'은 도입 초기에는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기도 하였으나, 아이들이 자기 통치를 배움에 따라, 아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학급의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겠군." 이런 식으로요. 밑줄 표현과 선택지 표현은 의미가 사뭇 달라 보이죠? [과정 vs 결과 구분]

2. '학급의 일이 갈팡질팡해도 담임선생님은 철저히 모르는 척'한 것은 아이들이 자기 통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기르도록 하기 위해서였겠군. 정답 : ( 참 / 거짓 )

3. '자치회가 끝없는 입씨름으로 서너 시간씩 계속'된 것은 아이들이 공동선을 위한 토론에 익숙하지 않은 모습을 나타낸 것이겠군. 정답 : ( 참 / 거짓 )

4. '내'가 '새로운 급장 선거에서 기권표를 던'졌던 것은 아직 자기 통치에 참여할 준비가 되지 않아서였겠군. 정답 : ( 참 / 거짓 )

5. '다 같이 힘을 합쳐야 할 작업에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아이들은 동료 시민들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은 시민에 해당하겠군. 정답 : ( 참 / 거짓 )

2. 지문 '경험의 교훈이 자정 능력을 길러 준 덕분에' '서로 다투고 따지고 부대끼고 시달리는 그 대역섯 달 동안에 우리는 차츰 스스로가 스스로를 규율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를 배우게 된 것' 등의 표현을 통해 추론 가능합니다. 선생님이 철저히 모르는 척해서 벌어진 대역섯 달의 갈팡질팡했던 경험의 교훈이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 통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스스로 길러지도록 했으니깐요. 참.

+ '모르는 척'한 선생님의 행동이, '학생들 스스로 성장하도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외적 근거를 통해, 선생님의 의도를 간접적으로 추론해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성장하도록 방치한 것이 선생님이 '의도'한 것이라고 무조건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의도'했다고 '볼 수'는있습니다. 그래서 출제자분의 표현도 '위해서였군'이라는 단정적 표현이 아니라 '위해서였겠군'이라는 겸손한 표현을 썼구요. 지문에 '선생님은 학급의 혼란을 철저히 모르는 척하며 우리들 스스로 자기 통치를 위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라는 문장이 직접적으로 내놓고 나오지 않더라도, '외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간접 추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접 vs 간접 구분]

3. 지문 '끝없는 입씨름' = 선택지 '토론에 익숙하지 않은 모습'. 참이죠. [지문 표현-선택지 표현 연결해 정답의 확신성 높이기]

4. '기권표를 던졌던'의 앞뒤 표현을 보면 참이라고 추론 가능합니다. '학교 생활이 정상으로 돌아감과 아울러 굴절되었던 내 의식도 차츰 원래대로 회복되어 갔다' '기권표를 던질 때만 해도 머뭇거리던 내 시민의식은 오래잖아 자신과 희망을 가지게 되고 자유와 합리에 대한 예전의 믿음도 이윽고 되살아났다'고 하니깐요. 회복되고 되살아났다는 것은 '의식이 굴절되어 있어 기권표 던졌던' 회복 전의 상황, 즉 자기 통치에 참여할 준비가 되지 않았던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겠죠. '표현'(나무)만 보지 마시고, '표현 주위의 상황 맥락'(숲)을 보면 정답의 확신성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숲과 나무 둘 다 잘 파악하여 정답의 확신성 높이기]

5. 지문 '다 같이 힘을 합쳐야 할 작업' = 선택지 '동료 시민들과 함께 하는 것', 지문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 함께하는 것에 적극적이지 않은. 참. [지문 표현-선택지 표현 연결해 정답의 확신성 높이기]

# #161 비문학

<보기> 18번



〈울산 울주 반구대 암각화〉 중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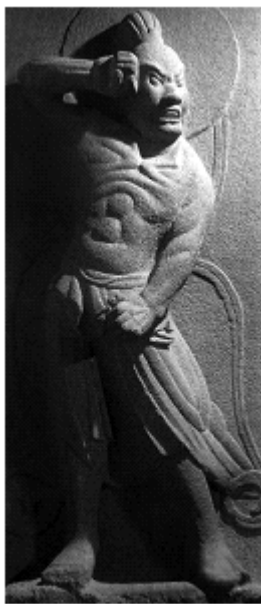
### [지문]

울산 울주에는 한국 미술사의 첫 장을 장식하는 암각화가 있다. 이것에는 넓고 평평한 돌 위에 상징적인 기호와 사실적으로 표현된 동물들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 한편 한국 조형 미술을 대표하는 것으로 금강역사상과 같은 석굴암의 부조상들이 있다. 이것들 또한 돌에 형상을 새긴 것이다. 이들의 표현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암각화에는 선조와 요조가 사용되었다. 선조는 선으로만 새긴 것을 말하며, 요조는 형태의 내부를 표면보다 약간 낮게 쪼아내어 형태의 윤곽선을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요조는 쪼아 낸 면적만 넓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선조의 범주에 든다고 하겠다. 따라서 선으로 대상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암각화는 조각이 아니라 회화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조각과 회화의 성격을 모두 띠고 있는 것으로 부조가 있다. 부조는 벽면 같은 곳에 부착된 형태로 도드라지게 반입체를 만드는 것이다. 평면에 밀착된 부분과 평면으로부터 솟아오른 부분 사이에 생기는 미묘하고도 섬세한 그늘은 삼차원적인 공간 구성을 통한 실재감을 주게 된다. 빛에 따라 질감이 충만한 부분과 빈 부분이 드러나서 상대적인 밀도를 지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부조는 평면 위에 입체로 대상을 표현하므로 중량감을 수반하게 되고 공간과 관련을 맺는다. 이것이 부조에서 볼 수 있는 조각의 측면이다.

이러한 부조의 특성을 완벽하게 소화하여 평면에 가장 입체적으로 승화시킨 것이 석굴암 입구 좌우에 있는 금강역사상이다. 이들은 제각기 다른 자세로 금방이라도 벽 속에서 튀어나올 것 같은 착각을 준다. 팔이 비틀리면서 평행하는 사선의 팽팽한 근육은 힘차고, 손가락 끝은 오므리며 온 힘이 한곳에 응결된 왼손의 손등에 솟은, 방향과 높낮이를 달리하는 다섯 갈래 뼈의 강인함은 실로 눈부시다.



〈금강역사상〉

부조는 신전의 벽면을 장식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기 시작했다. 그리스 신전과 이집트 피라미드 등에서는 부조로 벽면을 장식하여 신비스러운 종교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이처럼 이차원적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삼차원적 효과를 극대화한 부조는 제작 환경과 제작 목적에 맞게 최적화된 독특한 조형 미술의 양식이다.

### [문제] 진위판단

1. 금강역사상이 <보기>보다 빛에 비춰 봤을 때 실재감이 더 크겠어.  
정답 : ( 참 / 거짓 )
2. 금강역사상보다 <보기>가 회화의 특징이 더 두드러진다고 하겠어.  
정답 : ( 참 / 거짓 )
3. 금강역사상은 <보기>와 달리 형상을 평면보다 돌출시켜 역동성을 표현하려 했군.  
정답 : ( 참 / 거짓 )
4. 금강역사상과 <보기>는 모두 이차원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겠군.  
정답 : ( 참 / 거짓 )
5. 금강역사상과 <보기>는 모두 배경이 되는 면에 붙여서 작품을 제작하였겠군.  
정답 : ( 참 / 거짓 )



# #161 정답 및 해설

<보기> 18번



〈울산 울주 반구대 암각화〉 중 일부

### [지문]

울산 울주에는 한국 미술사의 첫 장을 장식하는 암각화가 있다. 이것에는 넓고 평평한 돌 위에 상징적인 기호와 사실적으로 표현된 동물들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 한편 한국 조형 미술을 대표하는 것으로 금강역사상과 같은 석굴암의 부조상들이 있다. 이것들 또한 돌에 형상을 새긴 것이다. 이들의 표현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암각화에는 선조와 요조가 사용되었다. 선조는 선으로만 새긴 것을 말하며, 요조는 형태의 내부를 표면보다 약간 낮게 쪼아내어 형태의 윤곽선을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요조는 쪼아 낸 면적만 넓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선조의 범주에 든다고 하겠다. 따라서 선으로 대상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암각화는 조각이 아니라 회화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조각과 회화의 성격을 모두 띠고 있는 것으로 부조가 있다. 부조는 벽면 같은 곳에 부착된 형태로 도드라지게 반입체를 만드는 것이다. 평면에 밀착된 부분과 평면으로부터 쏘아오른 부분 사이에 생기는 미묘하고도 섬세한 그늘은 삼차원적인 공간 구성을 통한 실재감을 주게 된다. 빛에 따라 질감이 충만한 부분과 빈 부분이 드러나서 상대적인 밀도를 지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부조는 평면 위에 입체로 대상을 표현하므로 중량감을 수반하게 되고 공간과 관련을 맺는다. 이것이 부조에서 볼 수 있는 조각의 측면이다.

이러한 부조의 특성을 완벽하게 소화하여 평면에 가장 입체적으로 승화시킨 것이 석굴암 입구 좌우에 있는 금강역사상이다. 이들은 제각기 다른 자세로 금방이라도 벽 속에서 튀어나올 것 같은 착각을 준다. 팔이 비틀리면서 평행하는 사선의 팽팽한 근육은 힘차고, 손가락 끝은 오므리며 온 힘이 한곳에 응결된 왼손의 손등에 솟은, 방향과 높낮이를 달리하는 다섯 갈래 뼈의 강인함은 실로 눈부시다.



〈금강역사상〉

부조는 신전의 벽면을 장식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기 시작했다. 그리스 신전과 이집트 피라미드 등에서는 부조로 벽면을 장식하여 신비스러운 종교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이처럼 이차원적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삼차원적 효과를 극대화한 부조는 제작 환경과 제작 목적에 맞게 최적화된 독특한 조형 미술의 양식이다.

### [현장독해]

- <보기> 그림 나왔네. 지문 읽으면서 울산 울주 반구대 암각화 관련 얘기 나오면 연결해서 이해하자.

[<그림> 나오면 지문에 관련 내용나왔을 때 연결해서 읽기]

- 암각화 나왔네. <보기> 18번 그림 보면서 읽자.

[그림-지문 연결해서 읽기]

- 상징적인 기호와 사실적으로 표현된 동물들. 그림에 물고기도 보이고 네 발 짐승 보이는데 개려나?

[그림-지문 연결해서 읽기]

- 금강역사상. 부조상. 지문 아래에 있는 '그림'이네. 돌에 형상을 새긴 것은 암각화랑 금강역사상 공통점이네.

[공통점 찾기]

- 선조 vs 요조

- 선조 : 선으로 '만' 새긴

[한정표현 '만' 주의]

vs 요조 : 쪼아내어...? 그림에서 물고기처럼 아예 '면'으로 파냈다는 건가?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한번 더 생각]

- 맞네. 요조는 면적만 넓음. 선조에 포함되는 게 요조.

- 결국 선'만' 있는 선조, '면'인 요조 이거네.

[나만의 편한 표현으로 핵심 정리]

- 부조 = 금강역사상

[1문단-3문단 표현 연결]

- 암각화는 조각이 아니라 회화

vs 부조는 조각과 회화의 성격 모두

[차이점 찾기]

- '부'착해서 '부'조? '선'이라서 '선'조?려나

[순간 암기력 강화]

- 부착 = 도드라짐 = 반입체

= 쏘아오른 = 삼차원 = 실재감 = 상대적인 밀도

= 중량감

= 공간

= 조각

[비슷한 표현들 같은 집단으로 묶기]

- 금강역사상이 부조 = 가장 입체적

- 튀어나올 것 같은 착각 = 실재감

[지문 앞-뒤 표현 연결]

- 오~ 그림 팔근육 봐 미쳤네.

[지문-그림 연결해 이해도 높이기]

- 손등 다섯 갈래 뼈 와~

[지문-그림 연결해 이해도 높이기]

- 장식

- 부조 = 종교적 분위기

= 2차원적 제한성 + 삼차원적 효과 극대화

- 조형 미술 = 조각

[문제] 진위판단

1. 금강역사상이 <보기>보다 빛에 비춰 봤을 때 실재감이 더 크겠어.  
정답 : ( 참 / 거짓 )
2. 금강역사상보다 <보기>가 회화의 특징이 더 두드러진다고 하겠어.  
정답 : ( 참 / 거짓 )
3. 금강역사상은 <보기>와 달리 형상을 평면보다 돌출시켜 역동성을 표현하려 했군.  
정답 : ( 참 / 거짓 )
4. 금강역사상과 <보기>는 모두 이차원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겠군.  
정답 : ( 참 / 거짓 )
5. 금강역사상과 <보기>는 모두 배경이 되는 면에 붙여서 작품을 제작 하였겠군.  
정답 : ( 참 / 거짓 )

[정답 및 해설] 1.참, 2.참, 3.참, 4.참, 5.거짓

1. 암각화는 선조, 요조. 금강역사상은 부조. 암각화가 실재감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실재감이 더 큰 건 조각에 삼차원적 효과 극대화한 부조. 참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 엄밀히 구분하기]
2. 암각화는 조각이 아니라 회화, 부조는 조각과 회화 측면 모두. <보기> 암각화가 '더' 회화. 참.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 엄밀히 구분하기]
3. 금강역사상 = 부조 = 벽면에 부착 = 평면보다 돌출 = 역동성 vs <보기> 암각화 = 돌출X. 선조 요조 다 파내는 식. [선택지-지문 표현 연결해 정답의 확신성 높이기] [차이점 찾기]
4. 금강역사상도 이차원적 성질을 '지니고는' 있지. 삼차원적 효과가 극대화되었다고 해서, 이차원적 제한성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 3차원이 맞다는 사실이, 2차원이 틀린 이유가 될 수 없다 금강역사상은 이차, 삼차 다 가지고 있다. [B가 맞다는 사실이, A가 틀린 이유가 될 수 없다]
5. <보기> 암각화는 붙이는 것 없지. '모두'가 틀리고 금강역사상만 맞음. ['모두'와 같은 극단적, 오만방자한 표현은 반례 떠올려 보기]





## #162 문법

### [지문]

사이시옷이란 두 단어 또는 형태소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의 두 요소 사이에 표기하는 ‘ㅅ’을 말한다.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만족되어야 사이시옷을 표기할 수 있다.

우선, 두 단어가 결합하는 형태가 고유어와 고유어의 결합, 고유어와 한자어의 결합, 한자어와 고유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인 경우 사이시옷을 표기할 수 있다. 단일어이거나 접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인 파생어에는 사이시옷이 표기되지 않고, 외래어가 포함된 합성어나 한자어만으로 구성된 합성어의 경우에도 사이시옷은 표기되지 않는다. 단,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차간(車間), 퇴간(退間), 횃수(回數)’라는 한자어는 예외적으로 사이시옷을 표기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합성어의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두 단어가 결합하여 발생하는 음운론적 현상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첫째,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경우, 둘째,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 셋째,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에 사이시옷을 표기할 수 있다.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사이시옷 표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래옷’과 달리 ‘아랫마을’은 앞말의 끝소리에 ‘ㄴ’ 소리가 덧나기 때문에 사이시옷이 표기된 것이겠군.
- ② ‘고깃국’과 달리 ‘해장국’은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이시옷이 표기되지 않은 것이겠군.
- ③ ‘코마개’와 달리 ‘콧날’은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기 때문에 사이시옷이 표기된 것이겠군.
- ④ ‘우윳빛’과 달리 ‘오렌지빛’은 합성어를 구성하는 단어의 결합 형태를 고려하여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은 것이겠군.
- ⑤ ‘모래땅’과 달리 ‘모랫길’은 두 단어가 결합할 때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었기에 사이시옷이 표기된 것이겠군.

※ 2021년 고1 11월 11번 문법 문제 참조

# #162 정답 및 해설

### [지문]

사이시옷이란 두 단어 또는 형태소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의 두 요소 사이에 표기하는 ‘ㅅ’을 말한다.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만족되어야 사이시옷을 표기할 수 있다.

우선, 두 단어가 결합하는 형태가 고유어와 고유어의 결합, 고유어와 한자어의 결합, 한자어와 고유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인 경우 사이시옷을 표기할 수 있다. 단일어이거나 접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인 파생어에는 사이시옷이 표기되지 않고, 외래어가 포함된 합성어나 한자어만으로 구성된 합성어의 경우에도 사이시옷은 표기되지 않는다. 단,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차간(車間), 퇴간(退間), 횡수(回數)’라는 한자어는 예외적으로 사이시옷을 표기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합성어의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두 단어가 결합하여 발생하는 음운론적 현상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첫째,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경우, 둘째,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 셋째,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에 사이시옷을 표기할 수 있다.

[문제] 밑글을 바탕으로 사이시옷 표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래옷’과 달리 ‘아랫마을’은 앞말의 끝소리에 ‘ㄴ’ 소리가 덧나기 때문에 사이시옷이 표기된 것이겠군.
- ② ‘고깃국’과 달리 ‘해장국’은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이시옷이 표기되지 않은 것이겠군.
- ③ ‘코마개’와 달리 ‘콧날’은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기 때문에 사이시옷이 표기된 것이겠군.

### [현장독해]

- 사이시옷 발음과 사이시옷 표기. 익숙한 내용은 함정 없는지 위주로 체크하며 막힘없이 읽어나가기
- [익숙한 어법 개념도 함정주의하면서 막힘없이 읽어나가기]**
- ‘합성어’ 사이에 ㅅ ‘표기’가 핵심
- 고유어가 하나 이상 있어야.
- 파생어에는 사이시옷 표기 안함.
- **찾곳뒷 셋숫뒷**. 한자어+한자어지만, 사이시옷 예외
-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받침 없어야 함.
- 된소리, ㄴ, ㄴㄴ 세 가지 경우 표기
- 함정 딱히 없네.

### [정답 및 해설] ③번

- 사이시옷 발음, 사이시옷 표기 풀 때 **‘쪼개서 원형파악’**이 핵심  
**[쪼개서 원형파악]**

- ①  
아랫마을-> 아래 + 마을 : 뒷말 ‘마을’의 첫소리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서 [아랜마을]로 발음되고, 사이시옷 표기함.  
아래옷-> 아래 + 옷 : 뒷말 ‘옷’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지 않음, 즉 [아랜논]으로 발음되지 않아서, 사이시옷 표기 안함.
- ②  
해장국-> 해장 + 국 : 뒷말 ‘국’의 첫소리 ‘ㄱ’이 된소리로 바뀌어 [해장꾹]으로 발음되지만,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지 않으므로, 즉 **이미 자음 받침 ‘ㅇ’이 있어서** 사이시옷 표기 안함.  
고깃국-> 고기 + 국 : 뒷말 ‘국’의 첫소리 ‘ㄱ’이 된소리로 바뀌어 [꾹]으로 발음되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므로 사이시옷 표기함.
- ③  
콧날-> 코 + 날 : 뒷말 ‘날’의 첫소리 ‘ㄴ’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 [콘날]로 발음되므로, 사이시옷 표기함. 단,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게 아니라 ‘ㄴ’ 소리가 덧나기 때문에** 거짓. 정답 ③번.  
코마개-> 코 + 마개 : 뒷말 ‘마개’의 첫소리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지 않음, 즉 [콘마개]로 발음되지 않아서, 사이시옷 표기 안함.

④ '우윳빛'과 달리 '오렌지빛'은 합성어를 구성하는 단어의 결합 형태를 고려하여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은 것이겠군.

⑤ '모래땅'과 달리 '모랫길'은 두 단어가 결합할 때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었기에 사이시옷이 표기된 것이겠군

④  
오렌지빛-> 오렌지 + 빛 : '오렌지'는 고유어도 한자어도 아닌 외래어. 결합 형태가 고유어+고유어, 고유어+한자어, 창곳뫼셋숯훗(한자어+한자어)가 아니므로 사이시옷 표기 안함.

우윳빛-> 우유 + 빛 : 뒷말 '빛'의 첫소리 'ㅂ'이 된소리 '뽃'으로 바뀌어 [뽃]으로 발음되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므로 사이시옷 표기함.

⑤  
모랫길-> 모래 + 길 : 뒷말 '길'의 첫소리 'ㄱ'이 된소리로 바뀌어 [꺄]로 발음되고, 앞말 '모래'가 모음으로 끝나므로 사이시옷 표기함.

모래땅-> 모래 + 땅 : 뒷말 '땅'의 첫소리 'ㄸ'은 원래 된소리이므로,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사이시옷 표기 안함.



<보기> 29번

자연에서의 한가로운 삶을 형상화한 사대부들의 시가를 일컬어 '강호시가'라고 한다. 강호시가에서의 자연은 화자에게 익숙한 곳일 수도, 사람들이 쉽게 찾지 못했던 곳일 수도 있다. 이러한 자연은 화자가 오랜 세월을 거쳐 찾아온 공간으로서, 자신이 바라던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화자에게 만족감을 준다. 화자는 자연 속에서 번잡한 속세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자연과 더불어 유유자적한 삶을 향유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지문] (가)

십 년 종사 후에 고향으로 도라오니  
산천 의구하되 인사(人事)는 달라졌구나  
아마도 세간의 존멸을 못내 슬허 하노라 <제1수>

산화(山花)는 물의 피고 물새는 산의 운다  
일신이 한가하야 산수간의 누어시니  
세상의 어스러운 기별을 나는 몰라 하노라 <제4수>

거문고 빗기 들고 산수를 희롱하니  
청풍은 건듯 불고 명월도 도라온다  
하물며 유신(有信)한 갈매기는 오명 가명 하나니 <제5수>

거문고 흥진(興盡)커던 조대(釣臺)로 내려가니  
도화 뜬 말근 물 뛰노나니 고기로다  
아이야 밋기 다지 마라 취적(取適)\*이나 하오리라 <제7수>

- 신교, 「귀산음(歸山吟)」 -

\* 취적 : 낚시질의 참뜻이 세상 생각을 잊고자 하는 데 있음.

[문제]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1수>에서는 영탄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 ② <제4수>에서는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표현한다.
- ③ <제5수>에서는 시적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며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낸다.
- ④ <제7수>에서는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상대와의 동질감을 표현한다.
- ⑤ <제7수>에서는 <제5수>에 언급된 대상을 다시 언급하며 화자의 행위가 변화했음을 드러낸다.

# #163 정답 및 해설

### <보기> 29번

자연에서의 한가로운 삶을 형상화한 사대부들의 시가를 일컬어 ‘강호시가’라고 한다. 강호시가에서의 자연은 화자에게 익숙한 곳일 수도, 사람들이 쉽게 찾지 못했던 곳일 수도 있다. 이러한 자연은 화자가 오랜 세월을 거쳐 찾아온 공간으로서, 자신이 바라던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화자에게 만족감을 준다. 화자는 자연 속에서 번잡한 속세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자연과 더불어 유유자적한 삶을 향유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 [지문]

십 년 종사 후에 고향으로 도라오니  
 산천 의구하되 인사(人事)는 달라졌구나  
 아마도 세간의 존멸을 못내 슬허 하노라 <제1수>

산화(山花)는 물의 피고 물새는 산의 운다  
 일신이 한가하여 산수간의 누어시니  
 세상의 어스러운 괴별을 나는 몰라 하노라 <제4수>

거문고 빗기 들고 산수를 희롱하니  
 청풍은 건듯 불고 명월도 도라온다  
 하물며 유신(有信)한 갈매기는 오명 가명 하나니 <제5수>

거문고 흥진(興盡)커던 조대(釣臺)로 내려가니  
 도화 뜬 말근 물 뛰노나니 고기рода  
 아이야 밋기 다지 마라 취적(取適)\*이나 하오리라 <제7수>

- 신교, 「귀산음(歸山吟)」 -

### [문제]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1수>에서는 영탄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 ② <제4수>에서는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표현한다.
- ③ <제5수>에서는 시적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며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낸다.

### [현장독해]

- 자연, 한가로운 삶 = 강호시가
- 화자에게 익숙한 곳 or 사람들이 쉽게 찾지 못했던 곳 = 오랜 세월을 거쳐 찾아온 공간
- 만족감
- 속세 부정적 vs 자연과 더불어 유유자적 <차이점 파악>  
 [지문 읽으며 떠올릴 키워드 파악]

- 십 년 종사 = <보기> 속세
- 산천은 변함없는데 vs 인사=속세는 변함 <차이점 파악>
- 속세의 생존과 멸망 = <보기> 번잡한 속세를 슬퍼한다.  
 [지문-<보기> 연결해 읽기]

- 산꽃은 물가에 피고, 물새는 산에 운다 = 산과 물의 조화
- 이 한 몸이 한가하여 산과 물가에 누워 있다 = <보기> 자연에서의 한가로운 삶 <지문-<보기> 연결해 읽기>
- 세상의 어스러운 괴별 = <보기> 번잡한 속세, 나는 몰라 하노라 = <보기> 속세를 부정적으로 <지문-<보기> 연결해 읽기>

- 거문고 쳐서 산과 물을 희롱하니
- 맑은 바람, 밝은 달. 금상첨화
- 믿음직한 갈매기도 오며가며 한다.  
 = <보기> 바라던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감 <지문-<보기> 연결해 읽기>

- 거문고의 흥이 다해서 낚시하러 가니
- 꽃 떠 있는 맑은 물에 뛰어노는 것은 고기다
- 아이야 미끼 달지 마라 = 고기 잡을 생각 없음. 낚시질은 세상을 잊고자 하는 거니까 미끼 걸어서 고기 잡지 않을 거다 <지문-\*어휘풀이 연결해 읽기>

### [정답 및 해설] ④번

- ① ‘하노라’ 영탄적 표현입니다.  
 + 아래 ‘영탄적 표현’ 참고해보시고, 더 공부하고 싶다면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45도 풀어보시죠.
- ② ~는 ~하고, ~는 ~한다 = 대구법. 시적 상황 표현.
- ③ <제5수>에 ‘유신한 갈매기’. 시적 대상인 ‘갈매기’에 ‘믿음직하다’는 인격 부여하여 친밀감을 표현했네요.

④ <제7수>에서는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상대와의 동질감을 표현한다.

④ '아이야'라고 했으니 아이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은 맞습니다. 다만, 말을 건네는 상대인 아이와의 동질감이 아니라 '이질감'을 표현합니다.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보는 습관]**

+ 아이는 미끼 달아서 고기 잡으려하는데, 시적 화자인 나는 '낚시질의 참뜻이 세상 생각을 잊고자 하는 데 있다(\*취적)고 보고 있으니 고기 잡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이에게 미끼 달지 말라고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거짓. 정답 ④번.

**[어휘풀이를 지문 해석에 반영하는 좋은 독해 습관이 정답의 확신성을 높임]**

⑤ <제7수>에서는 <제5수>에 언급된 대상을 다시 언급하며 화자의 행위가 변화했음을 드러낸다.

⑤ <제5수>에서 친 '거문고'를 <제7수> 초장에서 다시 언급했네요. 거문고 치다 흥이 다하니 낚시하러 간다는 행위 변화도 드러나구요.

**★★★ 영탄적 표현 ★★★**

- 길게 숨을 내쉬며 한탄 or 감탄사 등을 이용해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는

정답의 확신성이 높은 영탄적 표현

- 문장부호 : ! 느낌표
- 감탄사 : 아, 아아, 오, 오오, **오냐**, **어즈버**(감탄사 '아'의 옛말)
- 감탄형 종결어미 : ~구나, ~어라, ~아라, ~리라, ~노라, ~네, ~지어이

정답의 확신성이 낮지만 그래도 영탄적 표현

- 호격조사 : ~아, ~야, ~이여, ~이시여
- 의문형 종결어미 : ~하는가, ~냐, ~랴, ~르까 등 **★설의법★**

**★★★ '한자'도 고전시가 출제요소 ★★★**

아래 한자어가 막힘없이 해석이 될 정도로 고전시가 어휘력을 갖춰두셔야 합니다. 출제자분이 \*취적(取適)빠고는 어휘풀이 안 적어 줬는데요. 한자어의 뜻을 알고 있든지, 현대어 풀이가 막힘없이 되든지 해야 27번 최다오답 문제를 막힘없이 맞힐 수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한자 급수를 딸 수는 없으니, 고전시가 공부를 하시면서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한자어 표현은 찾아서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인사(人事) : 人(사람 인), 事(일 사) = 인간 세상의 일

- '인사'의 의미가 의구한 자연과 대비되는 <보기>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속세임을 파악 가능합니다.

흥진(興盡) : 興(일어나다 흥), 盡(다할 진)

= 흥(마음이 즐겁고 좋아서 일어나는 정서)이 다하다

: 흥이 다했다는 걸 알고 있으면, '27번 ⑤번 <제5수>에서 거문고 치다가 <제7수>에서 낚시하러 가는 행위 변화'에 대한 확신성이 높아 집니다.

산화(山花) : 山(산 산), 花(꽃 화) = 산의 꽃

- 산의 자연물이 물가에 존재하고, 물가의 새가 산에서 울며 산과 물가가 '조화'를 이루는 자연의 모습을 파악 가능합니다.

조대(釣臺) : 釣(낚시 조), 臺(돈대 대, 높고 평평한 곳) = 낚시터

: 낚시터 간다는 걸 알고 있으면, 거문고 치다 낚시하러 간다는 '27번 ⑤번 행위 변화'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27번 ④번' 풀 때, 낚시터니까 아이가 처음에 미끼 걸려고 했고 화자가 이걸 말리며 이질감을 드러내는 것 역시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유신(有信) : 有(있을 유), 信(믿을 신) = 신의가 있다, 믿음직하다

- 갈매기가 믿음직하다는 걸 파악해야 '27번 ③번 인격 부여'가 맞다는 확신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문]

집중 호우나 우박, 폭설 등과 같은 기상 현상은 재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강수량을 예측하여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 최근에는 이중 편파 레이더 관측을 통해 10분마다 강수 정보가 갱신되는 등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기상 관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중 편파 레이더는 어떻게 기상 현상을 관측하는 것일까? 기본적으로 기상 관측 레이더는 대기 중으로 송신된 전파가 강수 입자에 부딪혀 되돌아오면 수신된 전파를 분석한 후 여러 변수를 산출하여 강수 입자를 분석한다. 이중 편파 레이더 역시 이 원리를 활용하는데, 먼저 송신된 전파와 수신된 전파의 강도를 비교한 값인 반사도를 통해 강수 입자의 대략적인 크기와 개수를 파악한다. 이중 편파 레이더가 송수신하는 전파는 지면과 수평인 방향으로 진동하는 수평 편파와 수직인 방향으로 진동하는 수직 편파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편파의 반사도를 수평 반사도, 수직 반사도라고 하며 단위로는 데시벨Z(dBZ)를 사용한다. 이중 편파 레이더의 산출 변수로 사용되는 ㉔반사도는 수평 반사도를 의미하며, 단위 부피 1m<sup>3</sup>당 존재하는 강수 입자의 크기와 개수에 비례하여 커진다. 일반적으로 강수 입자가 작고 그 수가 적은 이슬비는 1dBZ 이하의 값을, 강수 입자가 크고 그 수가 많은 집중 호우는 20dBZ 이상의 값을 갖는다. 그런데 우박의 경우 집중 호우와 강수 입자의 크기 및 개수가 달라도 반사도가 집중 호우와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사도만으로는 강수 입자의 종류를 구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그래서 이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다른 산출 변수가 필요하다.

우선 강수 입자의 크기와 모양을 알기 위해서 ㉕차등반사도를 활용할 수 있다. 차등반사도란 수평 반사도에서 수직 반사도를 뺀 값으로, 강수 입자가 수평으로 더 길면 양의 값을, 수직으로 더 길면 음의 값을 가지며 단위로는 데시벨(dB)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강수 입자가 큰 집중 호우의 경우, 빗방울이 낙하할 때 받는 공기 저항 때문에 강수 입자가 수평으로 퍼지게 되어 차등반사도가 2dB 이상으로 나타난다. 반면 우박이나 눈이 녹지 않아 순수한 얼음으로 구성된 경우라면 입자의 크기가 커도 수평으로 퍼지지 않으며, 회전 운동을 하면서 낙하하기 때문에 레이더에서는 거의 구형으로 인식되어 차등반사도 값이 0dB인 경우가 많다. 이를 이용하면 집중 호우와 우박의 반사도 값이 비슷해도 기상 현상을 구별할 수 있다. 하지만 강수 입자가 0.3mm보다 작은 이슬비도 공기 저항을 거의 받지 않아 강수 입자가 구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차등반사도가 주로 0dB로 나타난다. 따라서 ㉖강수 입자의 종류를 구별하려면 반사도와 차등반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비나 우박과 같은 강수 입자의 종류와 강수 입자의 크기를 아는 것만으로는 단위 부피당 강수 입자 개수를 정확히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차등위상차와 비차등위상차라는 산출 변수를 통해 강수 입자의 개수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레이더 전파가 강수 입자에 부딪히면 강수 입자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 수평 편파와 수직 편파의 진행 속도가 달라진다. 이에 따라 두 편파의 위상도 달라지는데, 이 위상의 차이를 누적한 값이 바로 ㉗차등위상차이다. 단위로는 도(°)를 사용하며, 수평 편파 위상에서 수직 편파 위상을 빼는 방식으로 위상차를 구한다. 전파가 통과하는 강수 입자의 단면 지름이 길어질수록 위상 값이 커지기 때문에 차등반사도와 마찬가지로 강수 입자가 수평으로 더 길면 양의 값을 가지고, 수직으로 더 길면 음의 값을 가지게 된다. 차등위상차는 전파의 진행 방향을 따라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강수 입자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도 0이 아닌 값이 산출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특정 관측 범위에서 차등위상차의 변화율을 나타낸 값을 ㉘비차등위상차라고 한다. 만약 레이더로부터 5km 떨어진 지점의 차등위상차가 0°이고 10km 떨어진 지점의 차등위상차가 10°라면, 이때 5~10km 구간의 비차등위상차는 차등위상차 변화량 10°를 전파의 왕복 거리 10km로 나눈 1°/km가 된다. 비차등위상차는 차등위상차와는 달리 강수 입자가 존재하는 곳에서만 0이 아닌 값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관측하고자 하는 특정 구간의 강수 입자 개수를 보다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눈이 녹아 눈과 비가 함께 내리는 경우처럼 두 종류 이상의 강수 입자들이 혼재되어 있으면 산출 변수 값이 실제 기상 현상보다 크거나 작게 나타나 혼란을 줄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산출 변수가 교차상관계수이다. 교차상관계수는 수평 편파와 수직 편파 신호의 유사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강수 입자들의 크기와 종류가 유사할수록 1에 가까운 값으로 산출된다. 일반적으로 비나 눈이 내릴 때 관측 범위 내에 종류가 같고 크기가 비슷한 강수 입자들이 분포하면 교차상관계수가 0.97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다. 하지만 여러 종류의 강수 입자가 혼재된 경우나, 집중 호우처럼 강수 입자의 종류가 같더라도 그 크기가 다양한 경우에는 교차상관계수가 0.97 미만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문제] 14번 뒷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상 관측 레이더는 송신된 전파와 수신된 전파의 강도를 비교하기 위해 여러 변수를 산출하는군.
- ② 이중 편파 레이더가 송신하는 전파의 강도는 관측 범위 내에 존재하는 강수 입자의 개수에 따라 달라지겠군.
- ③ 순수한 얼음으로 구성된 강수 입자는 낙하하면서 수평 방향으로 퍼지기 때문에 레이더에서 구형으로 인식하겠군.
- ④ 이중 편파 레이더는 모든 산출 변수를 구할 때 수직 편파를 이용하므로 보다 정확한 기상 관측이 가능한 것이겠군.
- ⑤ 관측 범위 내에 두 종류 이상의 강수 입자가 혼재할 경우 교차상관계수만으로는 강수 입자의 종류를 판별할 수 없겠군.

[문제] 15번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슬비와 우박은 반사도만으로는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 ② 집중 호우와 우박은 반사도만으로는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 ③ 이슬비와 집중 호우는 반사도만으로는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 ④ 이슬비와 집중 호우는 차등반사도만으로는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 ⑤ 집중 호우와 녹지 않은 눈은 차등반사도만으로는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 16번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서로 다른 기상 관측 자료에서 ㉡의 값이 달라도 ㉢의 값은 동일할 수 있다.
- ② 강수 입자 크기에 영향을 받는 ㉡와 ㉢은 서로 비례 관계에 있는 산출 변수이다.
- ③ 관측 범위 내 강수 입자들의 크기와 종류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이 양의 값을 갖는다면 ㉡도 양의 값을 갖는다.
- ④ 레이더로부터 3km, 6km 떨어진 지점에서 ㉢의 값이 각각  $0^\circ$ ,  $12^\circ$  라면 3~6km 구간에서 ㉡의 값은  $2^\circ/\text{km}$ 이다.
- ⑤ ㉡는 ㉢과 달리 강수 입자가 존재하는 곳에서만 0이 아닌 값으로 산출된다.

※ 2023년 고3 7모 14 ~ 17번 비문학 참조

# #164 정답 및 해설

## [지문]

집중 호우나 우박, 폭설 등과 같은 기상 현상은 재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강수량을 예측하여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 최근에는 이중 편파 레이더 관측을 통해 10분마다 강수 정보가 갱신되는 등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기상 관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중 편파 레이더는 어떻게 기상 현상을 관측하는 것일까? 기본적으로 기상 관측 레이더는 대기 중으로 송신된 전파가 강수 입자에 부딪혀 되돌아오면 수신된 전파를 분석한 후 여러 변수를 산출하여 강수 입자를 분석한다. 이중 편파 레이더 역시 이 원리를 활용하는데, 먼저 송신된 전파와 수신된 전파의 강도를 비교한 값인 반사도를 통해 강수 입자의 대략적인 크기와 개수를 파악한다. 이중 편파 레이더가 송수신하는 전파는 지면과 수평인 방향으로 진동하는 수평 편파와 수직인 방향으로 진동하는 수직 편파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편파의 반사도를 수평 반사도, 수직 반사도라고 하며 단위로는 데시벨Z(dBZ)를 사용한다. 이중 편파 레이더의 산출 변수로 사용되는 ㉠반사도는 수평 반사도를 의미하며, 단위 부피 1m<sup>3</sup>당 존재하는 강수 입자의 크기와 개수에 비례하여 커진다. 일반적으로 강수 입자가 작고 그 수가 적은 이슬비는 1dBZ 이하의 값을, 강수 입자가 크고 그 수가 많은 집중 호우는 20dBZ 이상의 값을 갖는다. 그런데 우박의 경우 집중 호우와 강수 입자의 크기 및 개수가 달라도 반사도가 집중 호우와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사도만으로는 강수 입자의 종류를 구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그래서 이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다른 산출 변수가 필요하다.

우선 강수 입자의 크기와 모양을 알기 위해서 ㉢차등반사도를 활용할 수 있다. 차등반사도란 수평 반사도에서 수직 반사도를 뺀 값으로, 강수 입자가 수평으로 더 길면 양의 값을, 수직으로 더 길면 음의 값을 가지며 단위로는 데시벨(dB)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강수 입자가 큰 집중 호우의 경우, 빗방울이 낙하할 때 받는 공기 저항 때문에 강수 입자가 수평으로 퍼지게 되어 차등반사도가 2dB 이상으로 나타난다. 반면 우박이나 눈이 녹지 않아 순수한 얼음으로 구성된 경우라면 입자의 크기가 커도 수평으로 퍼지지 않으며, 회전 운동을 하면서 낙하하기 때문에 레이더에서는 거의 구형으로 인식되어 차등반사도 값이 0dB인 경우가 많다. 이를 이용하면 집중 호우와 우박의 반사도 값이 비슷해도 기상 현상을 구별할 수 있다. 하지만 강수 입자가 0.3mm보다 작은 이슬비도 공기 저항을 거의 받지 않아 강수 입자가 구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차등반사도가 주로 0dB로 나타난다. 따라서 ㉡강수 입자의 종류를 구별하려면 반사도와 차등반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 [현장독해]

- 집중 호우, 우박, 폭설 예측이 문제. [문제 상황 파악]
- 설마 장마철이라고 어거 낸 거야? [시사성·시의성 관련 출제]
- '이중 편파 레이더 관측'이 대안. [키워드, 해결책 파악]

## - 자문자답

- 송신된 전파 -> 강수 입자에 부딪혀 되돌아옴 -> 수신된 전파 분석 [선후관계 정리]
- > 변수 산출 -> 강수 입자 분석
- 송신된 전파와 수신된 전파의 강도 비교한 값 = 반사도 = 여러 변수를 산출한 것 중에 하나. [수식·정의 정리] [지문 앞뒤 연결]
- 강수 입자 크기와 개수 파악 = 강수 입자 분석 [지문 앞뒤 연결]
- 수평 편파 vs 수직 편파
- 수평으로 송신되고 수신된 강도 비교한 값이 수평반사도 vs 수직으로 송수신된 강도의 비교한 값이 수직 반사도. [차이점 보이면 정리]
- ㉠반사도는 '수평 반사도'로 하기로 했다. [수식·정의 정리]
- 수평 반사도는 강수 입자의 크기가 클수록, 개수가 많을수록 커진다. [비례관계 정리]
- 이슬비 = 강수 입자 크기가 작고 개수 적음 -> 1dBZ 이하 vs 집중 호우 = 강수 입자가 크고 개수가 많음 -> 20dBZ 이상 vs 우박 = 강수 입자 크기가 크지 않고, 개수가 많지 않아도 -> 수평 반사도는 20dBZ 이상일 수 있다. 수평 반사도의 한계. [차이점 중심으로 정리]
- ㉢차등반사도 (수평)㉠반사도 한계의 대안 [키워드, 해결책 파악]
- 차등반사도 = 수평 반사도에서 수직 반사도를 뺀 값 = 강수 입자가 수평으로 더 길면 수평 반사도가 더 커가보네, 수직으로 더 길면 수직 반사도가 더 크고. [수식·정의 정리]
- 차등반사도 = dB vs 수평반사도 = dBZ [차이점 보이면 정리]
- 집중 호우 -> 강수 입자 큼 -> 공기 저항 크게 받음 -> 강수 입자가 수평으로 퍼짐 = 강수 입자가 수평으로 더 길어짐 -> 수평 반사도가 더 큼 -> 차등반사도 양수 = 2dB 이상 [인과관계 정리]
- vs [차이점 중심으로 정리]
- 우박, 얼음 -> 수평으로 안 퍼짐, 회전 운동하며 낙하 -> 레이더가 구형으로 인식 = 수직 수평이 비슷하다 -> 0dB [인과관계 정리]
- 수평 반사도는 비슷해도, 차등반사도로 집중 호우랑 우박 구별 가능하다. 하지만 차등반사도는 이슬비랑 우박 구분 못한다. 한계네. 반사도로 이슬비랑 집중호우 구분, 차등반사도로 집중호우랑 우박 구분. 이러니까 '종합적으로' [밑줄의 의미 생각해보고 넘어가기]

한편 비나 우박과 같은 강수 입자의 종류와 강수 입자의 크기를 아는 것만으로는 단위 부피당 강수 입자 개수를 정확히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차등위상차와 비차등위상차라는 산출 변수를 통해 강수 입자의 개수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레이더 전파가 강수 입자에 부딪히면 강수 입자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 수평 편파와 수직 편파의 진행 속도가 달라진다. 이에 따라 두 편파의 위상도 달라지는데, 이 위상의 차이를 누적한 값이 바로 ㉔차등위상차이다. 단위로는 도(°)를 사용하며, 수평 편파 위상에서 수직 편파 위상을 빼는 방식으로 위상차를 구한다. 전파가 통과하는 강수 입자의 단면 지름이 길어질수록 위상 값이 커지기 때문에 차등반사도와 마찬가지로 강수 입자가 수평으로 더 길면 양의 값을 가지고, 수직으로 더 길면 음의 값을 가지게 된다. 차등위상차는 전파의 진행 방향을 따라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강수 입자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도 0이 아닌 값이 산출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특정 관측 범위에서 차등위상차의 변화율을 나타낸 값을 ㉕비차등위상차라고 한다. 만약 레이더로부터 5km 떨어진 지점의 차등위상차가 0°이고 10km 떨어진 지점의 차등위상차가 10°라면, 이때 5~10km 구간의 비차등위상차는 차등위상차 변화량 10°를 전파의 왕복 거리 10km로 나눈 1°/km가 된다. 비차등위상차는 차등위상차와는 달리 강수 입자가 존재하는 곳에서만 0이 아닌 값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관측하고자 하는 특정 구간의 강수 입자 개수를 보다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눈이 녹아 눈과 비가 함께 내리는 경우처럼 두 종류 이상의 강수 입자들이 혼재되어 있으면 산출 변수 값이 실제 기상 현상보다 크거나 작게 나타나 혼란을 줄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산출 변수가 교차상관계수이다. 교차상관계수는 수평 편파와 수직 편파 신호의 유사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강수 입자들의 크기와 종류가 유사할수록 1에 가까운 값으로 산출된다. 일반적으로 비나 눈이 내릴 때 관측 범위 내에 종류가 같고 크기가 비슷한 강수 입자들이 분포하면 교차상관계수가 0.97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다. 하지만 여러 종류의 강수 입자가 혼재된 경우나, 집중 호우처럼 강수 입자의 종류가 같더라도 그 크기가 다양한 경우에는 교차상관계수가 0.97 미만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 종류, 크기로 단위 부피당 입자 개수 정확히 추정 못하는 한계.
- 대안은 차등위상차와 비차등위상차. **[키워드, 해결책 파악]**
- 기존 방법의 한계에 대한 해결책·대안을 제시하며 보완하는 지문 전개방식. 출제하려는? **[출제요소 예측]**
- '속도 차이' -> 위상 차이 -> 차이를 '누적' = 차등위상차 **[수식·정의 정리]**
- 위상차 = 수평 편파 위상 - 수직 편파 위상. **[수식·정의 정리]**
- 강수 입자의 단면 지름 증가 -> 위상 값 증가 **[비례관계 정리]**
- 수평으로 더 길면 양의 값, 수직으로 더 길면 음의 값, 수평수직 비슷하면 0에 가깝게. 차등위상차와 차등반사도의 공통점. **[공통점 및 차이점 보이면 정리]**
- 차등위상차는 진행방향에 따라 누적되므로 강수 입자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도 0이 아닌 값 산출 vs 차등반사도는 강수입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0인 값이 산출될 수도 있다는 건가?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보는 응용력]**
- 차등위상차의 변화율 = 비차등위상차
- = 차등위상차 변화량 ÷ 왕복거리 (=거리 x2) \* 계산 함정 낼 듯? **[수식·정의 정리] [출제요소 예측]**
- 비차등위상차는 강수 입자가 존재하는 곳에서만 0이 아닌 값으로 산출 vs 차등위상차는 강수입자가 존재하지 않아도 0이 아닌 값이 나올 수 있는 게 한계인 듯.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부정확한 거지. 대안이 비차등위상차고.**[문제·한계 - 키워드·해결책 파악]**
- 눈과 비가 섞이면 강수 입자의 '종류'가 문제
- 교차상관계수 = 수평 편파 신호와 수직 편파 신호의 유사도
- 크기와 종류가 유사할수록 -> 교차상관계수 1에 가까움 **[문제·한계 - 키워드·해결책 파악]**
- 종류 같고 크기 비슷-> 교차상관계수 0.97이상 vs 종류 혼재or 종류 같아도 크기 다양-> 교차상관계수 0.97 미만 **[차이점 중심으로 정리] [인과관계 정리]**
- 강수 입자 종류 크기 개수 가지고 반사도, 차등반사도, 차등위상차, 비차등위상차, 교차상관계수 비교하는 문제, 킬러문제겠네. **[출제요소 예측]**

[문제] 14번 밑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상 관측 레이더는 송신된 전파와 수신된 전파의 강도를 비교하기 위해 여러 변수를 산출하는군.
- ② 이중 편파 레이더가 송신하는 전파의 강도는 관측 범위 내에 존재하는 강수 입자의 개수에 따라 달라지겠군.
- ③ 순수한 얼음으로 구성된 강수 입자는 낙하하면서 수평 방향으로 퍼지기 때문에 레이더에서 구형으로 인식하겠군.
- ④ 이중 편파 레이더는 모든 산출 변수를 구할 때 수직 편파를 이용하므로 보다 정확한 기상 관측이 가능한 것이겠군.
- ⑤ 관측 범위 내에 두 종류 이상의 강수 입자가 혼재할 경우 교차상관계수만으로는 강수 입자의 종류를 판별할 수 없겠군.

[문제] 15번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슬비와 우박은 반사도만으로는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 ② 집중 호우와 우박은 반사도만으로는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 ③ 이슬비와 집중 호우는 반사도만으로는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 ④ 이슬비와 집중 호우는 차등반사도만으로는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 ⑤ 집중 호우와 녹지 않는 눈은 차등반사도만으로는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답 및 해설] 14.㉠, 15.㉡, 16.㉡

- ① 강도를 비교해서 여러 변수 산출 vs 강도를 비교하기 위해 여러 변수 산출. 거짓. [의도vs목적 구분] [선후관계 역접 주의]
  - ② 송신하는 전파의 강도 자체가 아니라, 송수신된 전파의 강도의 차이인 반사도가 강수 입자의 개수에 따라 달라지겠지. 거짓. [서술어의 주체와 대상 엄밀히 파악]
  - ③ 순수한 얼음은 레이더에서 구형으로 인식한다는 맞는 진술 사이에, '얼음'인데 낙하하면서 수평 방향으로 퍼진다는 거진 진술 끼워 넣었네. 수평 방향으로 퍼지지 않고 회전 운동하면서 낙하하면서 구형으로 인식됨. 거짓. [맞는 진술 속 틀린 진술 주의]
  - ④ '모든?' 오만방자하다. 반례 떠올려 보면, ㉠반사도는 수직 편파가 아니라 수평 편파 이용. 거짓[오만방자한 표현은 반례 떠올려 보기] [반대의 경우를 떠올려보는 응용력]
  - ⑤ '만'으로는 못하지. 겸손한 표현이네. 교차상관계수 0.97 미만으로 나오면 종류가 다르다는 것만 아는 거고 입자 종류를 알 수는 없지. 참. [겸손한 표현의 의도·의미 파악]
- 반사도로 이슬비랑 집중호우 구분하고, 차등반사도로 집중호우랑 우박 구분할 수 있으니까, 둘 중 하나만 가지고는 구분 못할 수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한다.
- [지문 읽으면서+선택지로 넘어가기 전에 밑줄 의미 생각 =주관식으로 풀기]
- ① 이슬비는 반사도 1dBZ이하, 우박은 집중호우랑 비슷하게 20dBZ 이상으로 나올 수 있으니, 반사도로 이슬비랑 우박은 구분 가능. 거짓 [이슬비와 반사도, 우박과 반사도의 관계 연결해 정답의 확신성 높이기]
  - ② 집중 호우와 우박은 (둘 다 20dBZ 이상으로 나와서) 반사도만으로 구별 못하고, 차등반사도 필요. 정답 ②번.
  - ③ 이슬비는 반사도 1dBZ이하, 집중호우는 ①번 우박이랑 비슷하게 20dBZ 이상으로 나올 수 있으니, 반사도로 이슬비랑 집중호우는 구분 가능. 거짓. [뒤 선택지 판단할 때, 앞 선택지 연결해 풀이 속도 및 정답의 확신성 높이기]
  - ④ 차등반사도는 이슬비 0dB, 집중 호우 2dB 이상이니까 차등반사도로 구별 가능. 거짓. [이슬비-차등 반사도-집중 호우의 관계 연결해 정답의 확신성 높이기]
  - ⑤ 집중 호우 2dB, 녹지 않는 눈 즉 순수한 얼음은 차등반사도 0dB. 차등반사도만으로 구별 가능. 거짓. [선택지 표현과 지문 표현 연결해 정답의 확신성 높이기]

[문제] 16번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서로 다른 기상 관측 자료에서 ㉠의 값이 달라도 ㉣의 값은 동일할 수 있다.
- ② 강수 입자 크기에 영향을 받는 ㉠과 ㉢은 서로 비례 관계에 있는 산출 변수이다.
- ③ 관측 범위 내 강수 입자들의 크기와 종류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이 양의 값을 갖는다면 ㉣도 양의 값을 갖는다.
- ④ 레이더로부터 3km, 6km 떨어진 지점에서 ㉣의 값이 각각 0°, 12° 라면 3~6km 구간에서 ㉠의 값은 2°/km이다.
- ⑤ ㉠은 ㉢과 달리 강수 입자가 존재하는 곳에서만 0이 아닌 값으로 산출된다.

- ① 이게 밑줄 ㉠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이유였지. ㉠반사도 같아도 ㉣차등 반사도 다른 게 있고, ㉠반사도 달라도 ㉣차등 반사도 같은 게 있었지.
- + 이슬비는 반사도 1dBZ이하, 우박은 집중호우랑 비슷하게 20dBZ 이상, 근데 이슬비랑 우박 차등반사도 둘 다 0dB. 참.

[앞 문제와 뒤 문제 연결해 정답의 확신성 높이기]  
[지문 사례 연결해 정답의 확신성 높이기]

- ② '반사도'와 '차등위상차'? vs '차등반사도'와 '차등위상차'는 강수 입자 크기에 비례하는 것 같은데, '반사도'도 강수 입자 크기에 따라 달라지기는 해서.....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둘이 비례관계? 애매한데? 일단 다른 선택지 보고 다시 와서 더 생각해보자.
- + ①~⑤번 다 보고 왔는데... ①③④⑤ 맞으니까 일단 ②번 짚고 넘어가서 내 멘탈·시간·페이스 지키자
- [한번 더 생각해보다가 안되면, 일단 넘어가서 다른 문제 풀기]

- ③ 크기가 동일하면, 차등위상차는 차등반사도와 마찬가지로 강수 입자가 수평으로 더 길어서 양의 값을 가진다. 4문단 마지막 내용.

- ④  $(12 - 0) / (6 - 3) * 2 = 12 / 6 = 2^\circ/\text{km}$ . 참.
- \* 왕복거리니까 x2 조심하자고 했지
- +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2 참고

- ⑤ ㉠비차등위상차는 ㉣차등위상차와는 달리 강수 입자가 존재하는 곳에서만 0이 아닌 값으로 산출된다. 5문단 북-불. + ㉣차등위상차는 강수 입자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도 0이 아닌 값이 산출될 수 있다는 특징.
- > 잠깐만... 그럼 차등위상차는 강수 입자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도 0이 아닌 값을 갖는데, ㉠반사도 ㉣차등반사도는 강수 입자가 존재해야만 특정 값을 갖는 거잖아. 그럼 ③번처럼 ㉣가 양수면 ㉣도 양수라고는 할 수 있어도 ㉠번처럼 비례 관계라고 말 못하는건가? 정답 ②번?
- [뒤 선택지 판단할 때, 앞 선택지 연결해 풀이 속도 및 정답의 확신성 높이기]

★★★ '비례 관계'라는 개념의 엄밀함 ★★★

- 솔직히 저도 16번에 ②번이 틀린 진술이라는 걸 막힘없이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①③④⑤는 맞으니까, ②번이 뭔가 틀린 것 같아서 ②번 짚고 넘어갔는데요. 그리고 해설을 읽어보니... '㉠은 강수 입자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 값이므로 강수 입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0dBZ로 산출된다. 하지만 ㉣는 강수 입자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도 0이 아닌 값으로 산출될 수 있으므로 두 산출 변수가 비례 관계에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고 나와 있네요.

-> 즉 출제자분은, '비례 관계'라고 하려면 입자 크기가 크면 커지고, 입자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지는 것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말하고 계신 겁니다. 0일 때는 0이어야만 비례 관계라고 할 수 있다는 건데요.

+ 작년 수능 'L그래프' 지문과 출제요소가 비슷해 보이죠. 일상어로서의 '비례'는 그냥 '한쪽의 양이나 수가 증가하는 만큼 그와 관련 있는 다른 쪽의 양이나 수도 증가함'이지만요. 출제자는 '1제공 비례 = (정)비례 vs 0.75제공 비례 vs 0.65제공 비례' 이 3가지가 다르다는 걸 엄밀히 구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7모 출제자분도 일상에서야 '한 쪽 증가하면 다른 쪽 증가'정도를 대충 비례관계로 보지만, 이에 더해 한 쪽이 없으면(0이면) 다른 쪽도 없어야(0이어야) 비례 관계라고 더 엄밀하게 볼 것을 요구했습니다. 일상적으로는 엄밀하지 않게 대충 뭉개서 사용하는 일상어들을 지문에서는 디테일하고 엄밀하게 구분하셔야 합니다. 제 표현으로는 '일상어 비틀기' '편견 뒤틀기'를, 출제자분들이 요구한다는 걸 알아둡시다.

<보기> 25번. 다음은 이 작품이 발표된 시기의 신문 기사이다.

○ ○ 일 보

1974년 △월 △일

조수 보호는 됐지만 농가 보호는 어디로

지난 1972년부터 조수 보호 정책에 따라 야생 동물의 전면적인 수렵 금지 조치가 시행 중이다. 해당 조치 이후 야생 동물 보호라는 목적은 이루었지만, 이 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인식은 부족한 실정이다. 수렵 금지 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강제적 규제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 또한 거세다. 농가 1가구당 월 평균 수입이 3만 원을 웃도는 것을 감안하면 벌금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늘어난 야생 동물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심각한데, □□군의 경우 농작물 생산량이 계획보다 30%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 농촌 현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농민 보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진정도 쏟아지고 있어, 야생 동물을 자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문]

오수길이가 먼저 용모에게 알은체를 했다.

“읽디 가나?”

“심심해서 예까지 나와봤구먼.”

용모가 다가가며 대꾸하자 조순만이라도 얼굴을 걷으며,

“장보러 나가남?”

하고 물었다.

“아침버텀 장에 가봤자 별 볼일 있간디. 나이타에 지름이나 놓카 허구……”

[A]하는데 옆에 있던 아이가 고개를 꾸뻑 하여 여겨보니 느름새 위 뜸 고향성이 아들 성문이었다. 아이는 겨드랑이에 장끼를 물리고 있었다.

“웬 게냐. 나라 잡었데?”

용모가 물었다.

“오만무지루 침녕쿨 올무를 해 낚더니 오늘 아침에 가봉께 모가지가 윽혀 죽었더라너먼그려.”

오가 아이 대신 그렇다고 일러주었다.

“잡었으면 앓구 있는 아버지나 북어 디리지 워디 가지구 가는 겨?”

용모가 나무라는 투로 한 말에 오는,

“학생이가 여적지 못 일어났나 뵈. 워디가 워째서 못 일어난 다나? 누운 지두 달포 가차이나 될 텐디.”

하며 염려하였고 조는,

“원체 읍는 살림에 약을 먹을라니 되게 짜는가 벼. 담뱃값 허게 팔어 오라더랴.”

장끼를 어루만져가며 성문이 말로 대꾸했다.

“좀 들헌지 그저 그 타령인지, 나두 자주 못 들여다봐서…… 니 아빠가 팔어 오라더란 말여?”

용모가 성문이더러 물으니 녀석도 그렇다고 대답했다.

“얼마나 나가나?”

조가 묻고,

“누가 팔어 봤으야지.”

오가 고개를 가웃하는데,

“삼천 원 아래루는 안 팔 거유.”

성문이가 어린 것답지 않게 흰소리를 했다.

“글쎄 말여, 드른 것이긴 해두 그 돈 주구 먹을 사람이 있으까……”

용모는 막연하게 중얼거리고 나서 가던 길을 다시 이었는데, 성문이가 졸래졸래 뒤따라오고 있었다.

[B]용모가 성문이 손에서 꿩을 넘겨 받아 든 것은 읍내 초입에 들어 서기 직전이었다. 그것은 물건을 흥정하기에는 애가 너무 어리고, 뿐만 아니라 곁에서 말마디나 거들어 다다 한 푼이라도 더 받아 쥐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용모는 꿩 날갯죽지를 쥐고 앞뒤로 내둘거리며 장꾼들 틈으로 들어 갔다. 보자는 사람만 나서면 아무라도 붙들고 흥정하여 웬만하면 얼른 넘겨주고 아이를 일찍 들여보낼 셈이었다. 그는 하던 대로 먼저 어리 전에 들렀다. 그날도 돼지 새끼 염소 닭 오리부터 역지로 젓 땀 강아 지, 생쥐만 한 고양이 새끼까지 고루 나왔는데, 용모가 그곳을 먼저 찾아간 것은 꿩 임자가 있으리라고 여겨서가 아니라 장에 나오면 으레 거기서부터 둘러보았던 습관으로서였다.

[중략 줄거리] 장터에서 ‘용모’는 꿩을 잡았다는 오해로 조사를 받는다. 경찰은 용모를 폭행하고, 자신의 추측대로 진술서를 작성한다. 결국 용모는 수렵 금지 조치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다음 차례가 용모였다. 용모는 대답을 하고 일어서면서,

“암만 생각해 봐두 말여, 고연히 덧널 게 아니라 내가 헌 짓이라구 뒤집어쓰는 수밖에 읍겼다.”

내게 꺾속말을 하고 나갔다. 그가 움직이자 새삼 점심에 마신 술 냄 새가 물싹했다. 판사는 기록을 한눈으로 훑고 나더니,

“야생 조류나 야생 동물뿐 아니라 입산 금지와 낙엽 채취를 비롯해서 자연을 보호하자는 것이 우리 모두의 당면 과제라는 것을 알 만한 분이 왜 이런 짓 했어요?”

[C]판사는 앞서보다 훨씬 부드러운 어조였으나 그만큼 위엄이 서리어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용모는 거듭 읍한 뒤에도 잔뜩 지르숙어 가지고 입을 못 열고 있었다.

“꿩이 천연기념물은 아니지만, 비록 참새 한 마리라도 그것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보호하자는 건데, 보호하는 사람 따로 있고 해치는 사람 따로 있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판사가 거듭 나무라셔야 용모가 대답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주눅이 들었거나 겁에 질린 음성이 아니었다.

“물런 그렇지유. 그러나 말입니다, 꿩은 말입니다, 과연 현재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두 문제란 말입니다. 보호할 건 보호해야 마땅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실지 농작물을 망치는 해조는 으레 참새만 긴 줄 아시는데 말입니다. 꿩의 피해는 말입니다, 사실 농군에게는 말입니다, 훨씬 심각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그냥 참고로 아시라구 말씀드리는 말입니다.”

[D]용모는 아무것도 꿀릴 게 없다는 투로 원기 있게 말했다. 그것은 술기운 덕도 아닌 것 같았다. 지은 죄 없이 고개 조이고 살아온 사람이 오랜만에 쳐보는 기지개와 같은 몸짓으로 믿어야 될 성싶었다.

판사가 고개를 가웃하고 나서 용모를 쏘아보며 말했다.

“그래서 꿩은 잡아도 무방하다, 해조를 퇴치했다— 이겁니까?”

“도깃자루 감으로 나무를 찍을 때는 쥐고 있는 도깃자루를 기준해서 찍는다는 말도 있지만 말입니다, 물런 그건 아닙니다.”

“뭐가 아니오? 당신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 등쌀에 야생 동물이 안 남아나니까 보호하자고 하는 것 아니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말입니다, 예. 제가 잘못된 것은 제가 벌을 받아야 옳습니다. 예, 받겠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저도 법의 보호를 받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괜찮으니까 당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오?”

“예, 그러믄유. 여기는 바깥허구 달려서 여러 가지 것을 보호하는 법정이라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는디 말입니다. 동물에 물격이 있으면 저두 인격이 있으니 말입니다, 저두 야생 동물- 아니 그게 아니라, 야생 인간인디 말입니다…… 야생 인격이 물격보다두 거시기 허면 말입니다…… 그럴 수는 옳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E]나는 용모의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문득, 물은 부드러운나 추운 겨울에 얼면 굳어져 부러진다던, 어디서 들은 말이 떠올랐다.

판사가 기록집을 젓혀놓으며 판결했다.

“피의자가 개전의 정이 전혀 안 보여…… 법정에 출두하는데 술에 취해 가지고 와서 횡설수설하고,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없으니까…… 이런 사람 일벌백계로 다스려서 본보기를 삼아야 해요. 벌금 2만 원-”

- 이문구, 「관춘수필」 -

[문제] 22번. 밑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조순만은 성문이 장에 가는 이유를 용모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 ② 용모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성문을 돕겠다고 나서고 있다.
- ③ 오수길은 고향성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성문의 말을 통해 알게 된다.
- ④ 고향성은 아들을 장에 보내 자신의 병을 치료할 약을 사 오도록 한다.
- ⑤ 성문은 조순만의 말을 듣고 거래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게 된다.

※ 2024학년도 2023년 고3 7모 22 ~ 25번 문학 지문 참조

- 스스로 정답을 정하고, 그 근거도 정리해본 후에, '정답 및 해설'을 보셔야 합니다 -



# #165 정답 및 해설

<보기> 25번. 다음은 이 작품이 발표된 시기의 신문 기사이다.

○ ○ 일 보

1974년 △월 △일

조수 보호는 됐지만 농가 보호는 어디로

지난 1972년부터 조수 보호 정책에 따라 야생 동물의 전면적인 수렵 금지 조치가 시행 중이다. 해당 조치 이후 야생 동물 보호라는 목적은 이루었지만, 이 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인식은 부족한 실정이다. 수렵 금지 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강제적 규제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 또한 거세다. 농가 1가구당 월 평균 수입이 3만 원을 웃도는 것을 감안하면 벌금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늘어난 야생 동물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심각한데, □□군의 경우 농작물 생산량이 계획보다 30%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 농촌 현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농민 보호 대책을 마련해 달라라는 진정도 쏟아지고 있어, 야생 동물을 자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지문]

오수길이가 먼저 용모에게 알은체를 했다.

“읽디 가나?”

“심심해서 예까지 나와봤구먼.”

용모가 다가가며 대꾸하자 조순만이라도 얼굴을 걷으며,

“장보러 나가남?”

하고 물었다.

“아침버텀 장에 가봤자 별 볼일 있간다. 나이타에 지름이나 놓카 허구……”

[A]하는데 옆에 있던 아이가 고개를 꾸뻑 하여 여겨보니 느름새 위 뜸 고향성이 아들 성문이였다. 아이는 겨드랑이에 장끼를 물리고 있었다.

“웬 게냐. 니라 잡었데?”

용모가 물었다.

“으만무지루 침녕쿨 올무를 해 낚더니 오늘 아침에 가봉께 모가지가 윽혀 죽었더라너먼그려.”

오가 아이 대신 그렇다고 알려주었다.

“잡었으면 앓구 있는 아버지나 북어 디리지 읽디 가지구 가는 겨?”

용모가 나무라는 투로 한 말에 오는,

“학생이가 여적지 못 일어났나 뵈. 읽디가 워째서 못 일어난다나? 누운 지두 달포 가차이나 될 텐디.”

하며 염려하였고 조는,

“원체 읍는 살림에 약을 먹을라니 되게 짜는가 벼. 담뱃값 허게 팔어 오라더랴.”

### [현장독해]

- 조수 보호 vs 농가 보호

[차이점 중심 정리]

- 조수 보호 = 야생 동물의 전면적인 수렵 금지

-> ‘조수’가 뭘지 정확히 몰랐지만... 한자 짐승 수(獸)자 쓰려나...? 여튼 야생동물 보호가 조수 보호인 듯.

[지문 앞뒤 표현 연결해 모르는 단어 의미 추론]

- 강제라서 농민 반발

- 벌금이 3달 치 수입이라 농민 부담 크다

- 야생 동물 때문에 피해봐서 농민들이 잡는. 생산량 30% 감소 전망

- 농촌 현실 = 야생 동물 때문에 농가 피해 받아서 잡는 건데, 야생 동물 잡는 것 금지시키고 벌금 세게 물려서 힘들어

[나만의 편한 표현으로 상황 정리]

- 강제 vs 자율적 보호

[차이점 중심 정리]

- 오수길. 용모.

[인물 파악]

- 용모 심심

- 용모는 아침부터 장에 가봤자 볼일 없다고 생각.

- 아이 = 성문 = 고향성 아들.

[동일 인물에 대한 다른 표현 연결해 알아두기]

- 장끼 = <보기> 야생동물 나왔네.

[지문-<보기> 연결해 읽기]

- 오 = 오수길.

[동일 인물에 대한 다른 표현 연결해 알아두기]

- 주변 인물 말을 통해 장끼 잡은 성문의 상황 전달. 이거 출제하려나?

[출제 요소 예측]

- 아픈 아버지한테 장끼 먹여라 = 효도해라

[나만의 편한 표현으로 핵심 파악]

- 학생이 = 고향성 = 성문 아버지. 오래도록 아픈가봄.

[동일 인물에 대한 다른 표현 연결해 알아두기]

- 경제적으로 힘든 성문이네. 담배 사게 장끼 팔아오라고 하더냐?고 조가 추측하네.

[나만의 편한 표현으로 핵심 파악]

장끼를 어루만져가며 성문이 말로 대꾸했다.

“좀 들هن지 그저 그 타령인지, 나두 자주 못 들여다봐서…… 닉 아빠가 팔어 오라더란 말여?”

용모가 성문이더러 물으니 녀석도 그렇다고 대답했다.

“얼마나 나가나?”

조가 묻고,

“누가 팔어 봤으야지.”

오가 고개를 가웃하는데,

“삼천 원 아래루는 안 팔 거유.”

성문이 어린 것답지 않게 흰소리를 했다.

“글쎄 말여, 드른 것이긴 해두 그 돈 주구 먹을 사람이 있으까……”

용모는 막연하게 중얼거리고 나서 가던 길을 다시 이었는데, 성문이 가 졸래졸래 뒤따라오고 있었다.

[B]용모가 성문이 손에서 꿩을 넘겨 받아 든 것은 읍내 초입에 들어 서기 직전이었다. 그것은 물건을 흥정하기에는 애가 너무 어리고, 뿐만 아니라 곁에서 말마디나 거들어 다다 한 푼이라도 더 받아 쥐게 해 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용모는 꿩 날갯죽지를 쥐고 앞뒤로 내둘거리며 장꾼들 틈으로 들어 갔다. 보자는 사람만 나서면 아무라도 붙들고 흥정하여 웬만하면 얼른 넘겨주고 아이를 일찍 들여보낼 셈이었다. 그는 하던 대로 먼저 어리 전에 들렀다. 그날도 돼지 새끼 염소 닭 오리부터 억지로 젓 떼 강아 지, 생쥐만 한 고양이 새끼까지 고루 나왔는데, 용모가 그곳을 먼저 찾아간 것은 꿩 임자가 있으리라고 여겨서가 아니라 장에 나오면 으레 거기서부터 둘러보았던 습관으로서였다.

[중략 줄거리] 장터에서 ‘용모’는 꿩을 잡았다는 오해로 조사를 받는다. 경찰은 용모를 폭행하고, 자신의 추측대로 진술서를 작성한다. 결국 용모는 수렵 금지 조치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다음 차례가 용모였다. 용모는 대답을 하고 일어서면서,

“암만 생각해 봐두 말여, 고연히 덧낼 게 아니라 내가 헛 짓이라구 뒤집어쓰는 수밖에 읍겼다.”

내게 귓속말을 하고 나갔다. 그가 움직이자 새삼 점심에 마신 술 냄 새가 물씬했다. 판사는 기록을 한눈으로 훑고 나더니,

“야생 조류나 야생 동물뿐 아니라 입산 금지와 낙엽 채취를 비롯해서 자연을 보호하자는 것이 우리 모두의 당면 과제라는 것을 알 만한 분이 왜 이런 짓 했어요?”

[C]판사는 앞서보다 훨씬 부드러운 어조였으나 그만큼 위엄이 서리어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용모는 거듭 읍한 뒤에도 잔뜩 지르숙어 가지고 입을 못 열고 있었다.

“꿩이 천연기념물은 아니지만, 비록 참새 한 마리라도 그것이 보호 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보호하자는 건데, 보호하는 사람 따로 있고 해치는 사람 따로 있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 녀석 = 성문 [동일 인물에 대한 다른 표현 연결해 알아두기]

- 조 = 조순만. [동일 인물에 대한 다른 표현 연결해 알아두기]

- 성문이 장에서 장끼 3000원 이상으로 팔려고 하네. 어린 애 답지 않게 경제관념 있다? [나만의 편한 표현으로 핵심 파악]

- 용모가 어린 성문이 대신 장에서 장끼 팔아주려고 하네. [나만의 편한 표현으로 핵심 파악] [밑줄은 그 의미와 의도 한번은 생각해보고 넘어가기]

- 먼저 어리전 갔는데, 딱히 전략이 있어서는 아니고 그냥 습관적으로 간 것.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 인물 심리 다 서술 가능 [출제 요소 예측]

- <보기> 야생 동물 수렵 금지. 성문이 잡은 건데 용모가 장에서 파는 거 도와주려다가 오해받네. 경찰까지 패고. [나만의 편한 표현으로 핵심 파악]

- 재판 상황  
- 울... 용모 성문이 대신 자기가 꿩 잡았다고 하려나보네. [나만의 편한 표현으로 핵심 파악]

- 내게? 1인칭 관찰자 시점인가보네. 시점 전환? [출제 요소 예측]  
- 시골 아재 술 먹고 재판받네 [나만의 편한 표현으로 핵심 파악]

- 용모 졸았음. [나만의 편한 표현으로 핵심 파악]

- 꿩, 참새 보호 = <보기> 야생동물 수렵 금지 = <보기> 조수 보호. [지문-<보기> 연결해 읽기]

판사가 거듭 나무라셔야 용모가 대답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주눅이 들었거나 겁에 질린 음성이 아니었다.

“물런 그렇지요. 그러나 말입니다, 꿩은 말입니다, 과연 현재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두 문제란 말입니다. 보호할 건 보호해야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실지 농작물을 망치는 해조는 으레 참새만 긴 줄 아시는데 말입니다. 꿩의 피해는 말입니다, 사실 농군에게는 말입니다, 훨씬 심각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그냥 참고로 아시라구 말씀드리는 말입니다.”

[D]용모는 아무것도 꿀릴 게 없다는 투로 원기 있게 말했다. 그것은 술기운 덕도 아닌 것 같았다. 지은 죄 없이 고개 조이고 살아온 사람이 오랜만에 켜보는 기지개와 같은 몸짓으로 민어야 될 성싶었다.

판사가 고개를 가웃하고 나서 용모를 쏘아보며 말했다.

“그래서 꿩은 잡아도 무방하다, 해조를 퇴치했다— 이겁니까?”

“도끼자루 감으로 나무를 찍을 때는 쥐고 있는 도끼자루를 기준해서 찍는다는 말도 있지만 말입니다, 물런 그건 아닙니다.”

“뭐가 아니오? 당신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 등쌀에 야생 동물이 안 남아나니까 보호하자고 하는 것 아니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말입니다, 예. 제가 잘못된 것은 제가 벌을 받아야 옳습니다. 예, 받겠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저도 법의 보호를 받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괜찮으니까 당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오?”

“예, 그러믄유. 여기는 바깥허구 달려서 여러 가지 것을 보호하는 법정이라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는디 말입니다. 동물에 물격이 있으면 저두 인격이 있으니 말입니다, 저두 야생 동물— 아니 그게 아니라, 야생 인간인디 말입니다…… 야생 인격이 물격보다두 거시기 허면 말입니다…… 그럴 수는 옳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E]나는 용모의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문득, 물은 부드러우나 추운 겨울에 얼면 굳어져 부러진다던, 어디서 들은 말이 떠올랐다.

판사가 기록집을 찢어놓으며 판결했다.

“피의자가 개전의 정이 전혀 안 보여…… 법정에 출두하는데 술에 취해 가지고 와서 횡설수설하고,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없으니까…… 이런 사람 일벌백계로 다스려서 본보기를 삼아야 해요. 벌금 2만 원—”

- 이문구, 「관춘수필」 -

- 참새만 해조인줄 아는데 참새보다 꿩이 농작물 망치는 피 더 심각하다 = <보기> 늘어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농작물 생산량이 계획보다 30% 낮을 전망. [지문-<보기> 연결해 읽기]

- 당당한 용모. [나만의 편한 표현으로 핵심 정리]

- 도끼자루를 기준으로 해서 찍는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냥도구가 꿩 잡을 정도라서 꿩 잡았다? 꿩이 나한테 피해를 입혔으니 나한테는 꿩이 해조고 그래서 꿩 잡았다? 근데 애초에 용모가 잡은 것도 아니잖아. [직관적으로 이해 안 되는 표현의 의미 생각]

- 동물에 물격이 있다 = <보기> 조수 보호 [지문-<보기> 연결]  
vs 저두 인격이 있으니 = <보기> 농가 보호. [차이점 중심 정리]  
-> 사람이고 농민인 나도 보호를 해 달라. '야생' 인간 취급해서 나도 야생 동물처럼 보호 해 달라. 아재—드립보소

[나만의 편한 표현으로 핵심 파악]

- 추운 겨울에 얼면 굳어져 부러진다 = 판사 앞에서 세게 나가면 벌 안 받을 것도 받아요.

[밑줄은 그 의미와 의도 한번은 생각해보고 넘어가기]

[직관적으로 이해 안 되는 표현의 의미 생각]

- 반성 안 해, 술 먹고 와, 횡설수설해. 넌 벌 받아라.

[나만의 편한 표현으로 핵심 파악]

- 2만원. <보기> 한 달 평균 수입이 3만원인데 벌금 세게 주셨네. [지문-<보기> 연결]

[정답 및 해설] 22번. 뒷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조순만은 성문이 장에 가는 이유를 용모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 “원체 읊는 살림에 약을 먹을라니 되게 짜는가 벼. 담뱃값 허게 팔어 오라더랴.” 이거 얘기하는 거 같은데..... 이건 이야기해주는 게 아니고 추측하면서 성문이한테 물어보는 거 아닌가? 거짓.

② 용모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성문을 돕겠다고 나서고 있다.

- 용모는 장 볼 생각은 없고 심심해서 나와 본 것. 성문을 돕겠다고 나서서 장에 가는 것이지 장을 보고 돌아오는 것이 아님. 거짓.

[선후관계 반대로 바꾸는 출제 노하우 주의]

③ 오수길은 고학성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성문의 말을 통해 알게 된다.

- 지문 ‘용모가 나무라는 투로 “학생이가 여적지 못 일어났나 보. 워디가 워째서 못 일어난 다나? 누운 지두 달포 가차이나 될 텐디.”하며 염려.’ 오수길이 성문의 말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오 = 오수길’ 본인의 말로 고학성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대신 얘기 해줌. 거짓.

[서술어의 주체와 대상 엄밀히 구분하고 정확하게 파악]

④ 고학성은 아들을 장에 보내 자신의 병을 치료할 약을 사 오도록 한다.

- “원체 읊는 살림에 약을 먹을라니 되게 짜는가 벼. 담뱃값 허게 팔어 오라더랴.”를 보면, 약을 사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담배 사게 장끼(= 뽕) 팔아오라는 것. 게다가 이건 조순만의 추측일 뿐이라 진짜 사 오도록 한건지도 모름. 거짓.

⑤ 성문은 조순만의 말을 듣고 거래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게 된다.

- “얼마나 나가나?”라고 조가 묻는 것을 보면, 조순만도 거래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모름. 성문이가 3000원 밑으로는 안 팔 꺼라고 금액을 막연히 얘기한 것뿐. 거짓.

★★★ 실수를 돌이키는 매커니즘 + 시간·멘탈·페이스 지키기 ★★★

-> 뭘야 다 틀렸는데...? 다시 살펴보자. ① 이야기한 거 아니고 ②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빠박 절대 아니고 ③ 성문의 말 빠박 절대 아니고 ④ 없는 살림이라 약 안 되고 담배 사오라고 하니까, 추측이니까 빠박 절대 아니고 ⑤ 조순만도 금액 모르고. 뭘야... 원데... 뭘냐고... 아 뭘... ① 추측을 가지고 성문에게 물어본 거기도 하지만 용모에게 이유를 이야기한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 여튼 나머지 ②③④⑤는 단순사실판단으로 확실히 틀렸으니까 일단 ①번 짚고 넘어가자.

[애매할 땐, 가장 명백하게 답이 아닌 것들을 소거하고, 그나마 답인 선택지를 짚고 일단 넘어가서, 시간·멘탈·페이스를 지킨다]

★★★ 문학 고난도 출제 유형 및 대처 자세 ★★★ ( 올해 평가원 문학 준킬러 출제 방향성 )

문학임에도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 중에, 다음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핵심은 ‘애매함’인데요.

1. ‘적절한 것’을 고르는 긍정형 문제 + 오답 4개는 틀린지 애매한데, ‘정답 1개가 명백히 맞아서’ 답은 고를 수 있음.
2. ‘적절한 것’을 고르는 긍정형 문제 + 정답 1개는 맞는지 애매한데, ‘오답 4개가 명백히 틀려서’ 답은 고를 수 있음.
3.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부정형 문제 + 오답 4개는 맞는지 애매한데, ‘정답 1개가 명백하게 틀려서’ 답은 고를 수 있음.
4.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부정형 문제 + 정답 1개는 틀린지 애매한데, ‘오답 4개가 명백하게 맞아서’ 답은 고를 수 있음.

위 4가지 유형은, 정답을 찾는 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답을 찾아내도 정답에 대한 확신성이 낮을 수밖에 없어서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 합니다. 선택지 5개를 다 보며, 상대적 애매함(지문·선지 표현 해석)에 절대적 사실판단(단순 사실로 맞고 틀림)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구요. 한두 번 했는데 안 되면 시간은 있는 대로 잡아먹히고, 멘탈은 깨지고, 페이스는 무너집니다. 그럼 당초 계획대로 문학 영역을 막힘 없이 풀지 못하게 될 것이구요. 그럼 비문학 영역을 푸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문학 영역 킬러 문제를 내지 않고도, 그저 지문 길이만 좀 길게 해도 시간부족 및 심심미약으로 평소보다 비문학 오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비문학을 먼저 풀더라도, 결국 이 문제들 풀면서 시간이 부족해져 점수를 깎일 것이구요.

좀 알미운 부분까지 있는데요. ‘어쨌든 단 하나의 정답을 고를 수는 있기 때문에’, 논란은 생길 수 있을지언정, 출제분이 고소당할 일은 없는, 즉 평가원에 이의 제기를 해도 검토 결과 정답 도출 가능 정도로 공개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비문학을 어렵게 내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출제자를 고소로부터 보호할 수 있으면서도, 문학 난이도를 높일 수 있고, 전체 등급컷을 낮추는데 기여하는 매력적인 유형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애매하지만 정답은 나오는 문제 유형들이 이번 수능 문학에 많이 출제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일단 단순 사실 판단으로 무조건 명백히 맞고 틀린 선택지들, 즉 객관적으로 판단 가능하여 나중에 이게 잘못 되면 출제자분을 고소까지 할 자신이 있는 선택지와, 그렇지 않은 애매한 선택지를 구분해보세요. 이후 각 선택지 간의 상대적 애매함과 절대적 진위판단을 비교해서 ‘찝찝하긴 한데 그래도 이게 정답’인 선택지 단 1개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두 번 문제 훑어보다가 안 되면 일단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시간·멘탈·페이스를 지켜’ 전체적으로 시험을 잘 치르는데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보기> 31번

무엇인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은 마음을 구속하는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야 한다. 지식은 새로운 것을 이해하는 데 장애가 되며, 지식을 토대로 무언가를 경험하는 순간 마음은 그것을 기존의 지식으로 해석하고 이름 붙인다. 따라서 지식을 완전히 멈출 때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다. 미지의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식이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지식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지문] (다)

머지않아 숲에는 수련수련 신록(新綠)의 문이 열리리라. 그때는 나도 숲에 들어가 한 그루 정정한 나무가 되고 싶다. 나무들처럼 새 움을 틔우고 가지를 뻗으면서 연둣빛 물감을 풀어 내고 싶다. 가려 둔 속 뜰을 꽃처럼 열어 보이고 싶다.

허허, 이 봄날이 나를 흔들려고 하네.

귀는 항상 듣던 소리를 즐거워하고 눈은 새로운 것을 보고자 한다는 말은 그럴 법하다. 음악을 듣더라도 귀에 익은 곡만을 즐겨 듣고, 새 것을 찾아 눈은 구경거리의 발길을 멈추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귀는 좀 보수적이고 눈은 제법 진보적인 셈.

제작년이던가 여름날에 있었던 일이다. 날씨가 화창하여 밀린 빨래를 해치웠었다. 성미가 비교적 급한 나는 빨래를 하더라도 그날로 풀을 먹여 다녀야지 그렇지 않으면 찹찹해서 심기가 흉분하지 않다. 그날도 여름 옷가지를 빨아 다리고 나서 노곤해진 몸으로 마루에 누워 쉬려던 참이었다. 팔베개를 하고 누워서 서까래 끝에 열린 하늘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모로 돌아누워 산봉우리에 눈을 주었다. 갑자기 산이 달리 보였다. ㉞ 하, 이것 봐라 하고 나는 별떡 일어나 이번에는 가랑이 사이로 산을 내다보았다. 우리들이 어린 시절 동무들과 어울려 놀이를 하던 그런 모습으로.

그건 새로운 발견이었다. 하늘은 호수가 되고, 산은 호수에 잠긴 그림자가 되었다. 바로 보면 굴곡이 심한 산의 능선이 거꾸로 보니 훨씬 유장하게 보였다. 그리고 숲의 빛깔은 원색이 날날이 분해되어 멀고 가까움이 선명하게 드러나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다. 나는 하도 신기해서 일어서서 바로 보다가 다시 거꾸로 보기를 되풀이했다.

이러한 동작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다면 필시 미친 증으로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는 새로운 사실을 캐낼 수 있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람을 대하거나 사물을 보고 인식하는 것은 틀에 박힌 고정관념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알아 버린 대상에서는 새로운 모습을 찾아내기 어렵다. 아무개 하면, 자신의 인식 속에 들어와 이미 굳어 버린 그렇고 그런 존재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걸 얼마나 그릇된 오해인가. 사람이나 사물은 끝없이 형성되고 변모하는 것인데.

그러나 보는 각도를 달리함으로써 그 사람이나 사물이 지닌 새로운 면을, 아름다운 비밀을 찾아낼 수 있다. 우리들이 시들하게 생각하는 그저 그렇고 그런 사이라 할지라도 선입견에서 벗어나 맑고 따뜻한 '열린 눈'으로 바라본다면 시들한 관계의 틀에 생기가 돌 것이다.

내 눈이 열리면 그 눈으로 보는 세상도 열리는 법이다.

- 법정, 「거꾸로 보기」 -

[문제]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팔베개를 하고 누워' 하늘을 '무심히' 바라보는 것은 지식을 멈추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려는 행동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사람'과 '사물'을 '일상적'으로 대하는 것은 미지의 것을 경험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겠군.
- ③ 어떤 대상에 대해 '아무개 하'는 것은 그 대상을 기존의 지식으로 해석하게 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아름다운 비밀'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은 기존의 지식에 의지하지 않고 대상을 진심으로 이해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시들한 관계'를 '열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 필요한 자세로 볼 수 있겠군.

# #166 정답 및 해설

<보기> 31번

무엇인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은 마음을 구속하는 제약(A)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야(B) 한다. 지식은 새로운 것(B)을 이해하는데 장애(A)가 되며, 지식을 토대로 무언가를 경험하는 순간 마음은 그것을 기존의 지식으로 해석하고 이름 붙인다(A). 따라서 지식(A)을 완전히 멈출 때 새로운 것을 경험(B)할 수 있다. 미지의 것을 경험(B)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식(A)이 개입하지 않아야(B)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지식(A)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지문] (다)

머지않아 숲에는 수련수련 신록(新綠)의 문이 열리리라. 그때는 나도 숲에 들어가 한 그루 정정한 나무가 되고 싶다. 나무들처럼 새 움을 틔우고 가지를 뻗으면서 연듯빛 물감을 풀어 내고 싶다. 가려 둔 속 뜻을 꽃처럼 열어 보이고 싶다.

허허, 이 봄날이 나를 흔들려고 하네.

귀는 향시 듣던 소리(A)를 즐거워하고 눈은 새로운 것을 보고자 한다(B)는 말은 그럴 법하다. 음악을 듣더라도 귀에 익은 곡만을 즐겨 듣고(A), 새것을 찾아 눈은(B) 구경거리의 발길을 멈추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귀는 좀 보수적(A)이고 눈은 제법 진보적(B)인 셈.

제작년이던가 여름날에 있었던 일이다. 날씨가 화창하여 밀린 빨래를 해치웠었다. 성미가 비교적 급한 나는 빨래를 하더라도 그날로 풀을 먹여 다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찜찜해서 심기가 훌가분하지 않다. 그날도 여름 옷가지를 빨아 다리고 나서 노곤해진 몸으로 마루에 누워 쉬려던 참이었다. 팔베개를 하고 누워서 서까래 끝에 열린 하늘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모로 돌아누워 산봉우리에 눈을 주었다. 갑자기 산이 달리 보였다(B). ㉞하, 이것 봐라 하고 나는 별떡 일어나 이번에는 가랑이 사이로 산을 내다보았다(B). 우리들이 어린 시절 동무들과 어울려 놀이를 하던 그런 모습으로.

그건 새로운 발견(B)이었다. 하늘은 호수가 되고, 산은 호수에 잠긴 그림자가 되었다(B) 바로 보면 굴곡이 심한 산의 능선(A)이 거꾸로 보니 훨씬 유장하게 보였다(B). 그리고 숲의 빛깔은 원색이 낱낱이 분해되어 멀고 가까움이 선명하게 드러나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다. 나는 하도 신기해서 일어서서 바로 보다가 다시 거꾸로 보기를 되풀이했다.

이러한 동작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다면 필시 미친 중으로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는 새로운 사실을 캐낼 수 있었다.

[현장독해]

- 구속, 제약(A) vs 자유로워야(B) [차이점 정리]
- 지식 = 장애 = 구속, 제약(A) [지문 앞 뒤 비슷한 표현 연결]

- 지식(A), 멈춰!(B) [나만의 편한 표현으로 핵심 정리]
- 기존 지식 개입하지 않고, 기존 지식에서 벗어나야(B)

★ '기존 지식(A)' vs '지식로부터 벗어나는(B)' 지문에서 찾아서 묶어 보자 [ <보기>를 통해 출제요소 파악 및 독해 전략 수립]

- 신록의 문, 정정한 나무, 새 움, 연듯빛 물감, 뜰, 봄날. 뭐 다 좋아 보여.

- 향시 듣던 소리(A), 새로운 것(B)
- 귀에 익은 곡만을 즐겨 듣고(A) = <보기> 기존 지식(A)
- 새것(B)

- 귀 = 기존 지식 = 보수(A), 눈 = 진보(B) [ <보기> 지문의 비슷한 표현들끼리 연결해서 묶어가며 읽기]

- (원 애가를 하하려고... 어떻게 빌드업을...)

- 눈(B) = 바라보는 건 눈 = 진보 = <보기> 자유.
- 산이 달리 보였다=<보기> 새로운 것(B)경험 [지문-<보기>연결]
- ㉞영감이...! 발상이...![밑줄의 의미·의도 나만의 표현으로 정리]
- 가랑이 사이로 산을 내다보았다 = 제목이 [거꾸로 보기]인 이유가 이거네. 가랑이 사이로 거꾸로 봤다는 것.

- [글의 제목과 지문 내용 연결, 제목이 정해진 이유 파악]
- 새로운 발견 = <보기> 새로운 것(B)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람을 대하거나 사물을 보고 인식하는 것은 틀에 박힌 고정관념(A)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알아 버린 대상에서는 새로운 모습을 찾아내기 어렵다(A) 아무개(A) 하면, 자신의 인식 속에 들어와 이미 굳어 버린 그렇고 그런 존재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A)이다. 이걸 얼마나 그릇된 오해(A)인가. 사람이나 사물은 끝없이 형성되고 변모하는 것인데.

그러나 보는 각도를 달리함(B)으로써 그 사람이나 사물이 지닌 새로운 면을, 아름다운 비밀을 찾아낼 수 있다(B) 우리들이 시들하게 생각하는 그저 그렇고 그런 사이(A)라 할지라도 선입견(A)에서 벗어나 맑고 따뜻한 '열린 눈'으로 바라본다면(B) 시들한 관계의 틀(A)에 생기(B)가 돌 것이다.

내 눈이 열리면 그 눈으로 보는 세상도 열린다(B) 법이다.  
- 법정, 「거꾸로 보기」 -

[문제]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팔베개를 하고 누워' 하늘을 '무심히' 바라보는 것은 지식을 멈추고 새로운 것을 경험(B)하려는 행동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사람'과 '사물'을 '일상적'으로 대하는 것(A)은 미지의 것을 경험(B)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있겠군.
- ③ 어떤 대상에 대해 '아무개 하'는 것(A)은 그 대상을 기존의 지식으로 해석(A)하게 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아름다운 비밀'을 '찾아낼 수' 있는 것(B)은 기존의 지식(A)에 의지하지 않고 대상을 진심으로 이해(B)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시들한 관계'(A)를 '열린 눈'으로 바라보는 것(B)은 진정한 자유(B)를 얻기 위해 필요한 자세로 볼 수 있겠군.

- 일상적(A)
- = 틀에 박힌 고정관념(A) = <보기> 기존 지식의 구속, 제약(A)
- = 이미 알아 버린 대상(A) = 아무개(A)
- = 자신의 인식 속에 들어와 이미 굳어 버린 그렇고 그런 존재(A)
- = 그릇된 오해(A)
- 끝없이 형성되고 변모하는 <보기> 미지의 것을 경험(B)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기존의 지식(A)이 개입하지 않아야
- 보는 각도를 달리함(B)
- = <보기> 마음을 구속하는 제약에서 벗어나(B)
- 선입견(A) = 기존 지식(A)
- 열린 눈(B). 시들한 관계의 틀(A), 생기(B)
- 눈이 열리면 세상도 열린다(B)

[<보기> 지문의 비슷한 표현들끼리 연결해서 묶어가며 읽기]

[정답 및 해설] ①번

- ① '팔베개 하고 하늘 바라본 것'은 그냥 쉬려고 한 행동이죠. 새로운 것을 경험하려고 의도해서 한 행동이 아니라, 우연히 한 행동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의도와 결과 엄밀히 구분하기. 거짓. 정답 ①번.  
[의도·결과 바꾸는 출제 노하우 주의]
- ② 일상적으로 대하는 것(A) = <보기> 기존 지식(A) vs 미지의 것(B). <보기> 기존 지식(A)은 새로운 것 경험(B)에 장애.  
[지문 표현과 <보기> 표현 연결해 정답의 확신성 높이기]
- ③ 아무개(A) = 이미 알아버린 대상(A) = <보기> 기존 지식(A)  
[지문 표현과 <보기> 표현 연결해 정답의 확신성 높이기]
- ④ 아름다운 비밀(B). 기존 지식(A) 안 해서 미지의 새로운 것 찾아내는.  
[지문 표현과 <보기> 표현 연결해 정답의 확신성 높이기]
- ⑤ 시들한 관계(A)를 열린 눈으로 바라보는 것(B).  
[지문 표현과 <보기> 표현 연결해 정답의 확신성 높이기]





## #167 문법

### <보기>

- ㄱ. 羅睺羅(라후라)ㅣ 得道(득도)하야 도라가샤 어미를 濟渡(제도)하야  
(라후라가 득도하여 돌아가서 어미를 제도하여)
- ㄴ. 瞿曇(구담)이 오솔 니브샤 深山(심산)에 드러 果實(과실)와 물와 좌  
시키고  
(구담의 옷을 입으시어 깊은 산에 들어 과일과 물을 자시고)
- ㄷ. 南堀(남굴)스 仙人(선인)이 한 짝를 길러 내니 …… 時節(시절)에  
자취마다 蓮花(연화)ㅣ 나느니라  
(남굴의 선인이 한 딸을 길러 내니 …… 시절에 자취마다 연꽃이  
납니다.)
- ㄹ. 네가짓 受苦(수고)는 生(생)과 老(로)와 病(병)과 死(사)왜라  
(네 가지 괴로움은 태어남과 늙음과 병듦과 죽음이다.)

### [문제]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ㄱ의 '羅睺羅(라후라)ㅣ'와 ㄷ의 '仙人(선인)이'에는 주어의 자격을 부여해 주는 조사의 형태가 서로 다르게 사용되었군.
- ② ㄱ의 '어미를'과 ㄷ의 '짝를'에는 목적어의 자격을 부여해 주는 조사의 형태가 서로 동일하게 사용되었군.
- ③ ㄴ의 '瞿曇(구담)이'와 ㄷ의 '南堀(남굴)스'에는 모두 관형어의 자격을 부여해 주는 조사가 사용되었군.
- ④ ㄴ의 '深山(심산)에'와 ㄷ의 '時節(시절)에'에는 모두 부사어의 자격을 부여해 주는 조사가 사용되었군.
- ⑤ ㄴ의 '果實(과실)와'와 ㄹ의 '病(병)과'에는 모두 단어와 단어를 이어주는 조사가 사용되었군.

※ 2021년 고1 11월 15번 문법 문제 참조

# #167 정답 및 해설

### <보기>

- ㄱ. 羅睺羅(라후라) | 得道(득도)하야 도라가사 어미를 濟渡(제도)하야 (라후라가 득도하여 돌아가서 어미를 제도하여)
- ㄴ. 瞿曇(구담)이 오솔 니브샤 深山(심산)에 드러 果實(과실)와 물와 좌 시고 (구담의 옷을 입으시어 깊은 산에 들어 과일과 물을 자시고)
- ㄷ. 南堀(남굴)스 仙人(선인)이 혼 썩를 길어 내니 …… 時節(시절)에 자취마다 蓮花(연화) | 나누니이다 (남굴의 선인이 한 딸을 길러 내니 …… 시절에 자취마다 연꽃이 납니다.)
- ㄹ. 네가짓 受苦(수고)는 生(생)과 老(로)와 病(병)과 死(사)왜라 (네 가지 괴로움은 태어남과 늙음과 병듦과 죽음이다.)

### [문제]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ㄱ의 ‘羅睺羅(라후라) |’와 ㄷ의 ‘仙人(선인)이’에는 주어의 자격을 부여해 주는 조사의 형태가 서로 다르게 사용되었군.
- ② ㄱ의 ‘어미를’과 ㄷ의 ‘썩를’에는 목적어의 자격을 부여해 주는 조사의 형태가 서로 동일하게 사용되었군.
- ③ ㄴ의 ‘瞿曇(구담)이’와 ㄷ의 ‘南堀(남굴)스’에는 모두 관형어의 자격을 부여해 주는 조사가 사용되었군.
- ④ ㄴ의 ‘深山(심산)에’와 ㄷ의 ‘時節(시절)에’에는 모두 부사어의 자격을 부여해 주는 조사가 사용되었군.
- ⑤ ㄴ의 ‘果實(과실)와’와 ㄹ의 ‘病(병)과’에는 모두 단어와 단어를 이어주는 조사가 사용되었군.

### [현장독해]

- 먼저 볼 필요는 없지. 바로 선택지로.

### [정답 및 해설] ②번

- ① ㄱ의 라후라 |’는 현대어 ‘-가’, ㄷ의 선인 ‘이’는 현대어 ‘이’. 주격 조사 이형태. 참.
- ② ㄱ의 어미 ‘를’은 현대어 ‘-를’, ㄷ의 썩 ‘를’은 현대어 ‘-을’이지. ‘썩를’ 쪼개서 원형파악하면 ‘딸+을’이니까 ‘-을’. 목적격조사 이형태인데 조사의 형태가 서로 동일하게 사용됐다고 했으니 틀렸지. 거짓 정답②번.
- ③ ㄴ의 구담 ‘이’는 현대어 ‘-의’, ㄷ의 남굴 ‘스’는 현대어 ‘-의’. 관형격 조사 이형태 사용. 참.
- ④ ㄴ의 심산 ‘에’는 현대어 산 ‘에’, ㄷ의 시절 ‘에’는 현대어 시절 ‘에’. 부사격조사 이형태 사용. 참.
- ⑤ ㄴ의 과실 ‘와’ 들은 현대어 과일 ‘과’ 물, ㄹ의 병 ‘과’ 사는 현대어 병듦 ‘과’ 죽음. 접속조사 이형태 사용. 참.

## ★★★ 걸 출제요소와 속 출제요소를 구분하여 파악한다 ★★★

걸 출제요소는 중세국어 조사의 이형태입니다만, 결국 정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필요했던 속 출제요소는 ‘쪼개서 원형파악’이었습니다. ‘썩를’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썩 + -을’로 쪼개서 원형파악을 할 수 있었어야 이 문제를 맞힐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래 조사의 이형태 실현 환경에 대해 공부해 보실 때에도 ‘조건’만 무지성으로 외우지 마시구요. 예시로 주어진 단어를 ‘쪼개서 원형파악’한 후 그것이 실현 환경 조건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형태로 다시 공부해 보세요. **문법 영역 최고난도, 최다오답 문제는 걸 출제요소는 문법 개념이지만, 속 출제요소이자 가장 핵심적인 출제요소는 결국 ‘쪼개서 원형파악’입니다.** 주어진 단어 및 문장을 쪼개서 원형을 파악해보는 훈련을 많이 하신다면 수능에서 출제자분이 함정을 파도 함정을 잘 파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 ※ 중세 국어 조사 이형태 실현 환경

### 1. 주격조사 이형태

- -이 : 앞말(체언)이 자음으로 끝날 때 ㉠ 슴미 -> 슴 + -이
- -ㅣ : 앞말(체언)이 '이, 반모음 ㅣ'가 아닌 모음으로 끝날 때 ㉠ 부테 -> 부터 + -ㅣ
- -ㅣ :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이 한자로 표시될 때 ㉠ 孔子ㅣ -> 공자(孔子) + -ㅣ
- ∅ : 앞말(체언)이 '이, 반모음 ㅣ'로 끝날 때 ㉠ 불휘 -> 불휘 + ∅

### 2. 목적격조사 이형태

- 을 : 받침이 있는 체언 뒤에서, 앞 음절의 모음이 양성 모음일 때 ㉠ 싹를 -> 싹 + -을
- 을 : 받침이 있는 체언 뒤에서, 앞 음절의 모음이 음성 모음일 때 ㉠ 므를 -> 므 + -을
- 를 : 받침이 없는 체언 뒤에서, 앞 음절의 모음이 양성 모음일 때 ㉠ 천하를 -> 천하 + -를
- 를 : 받침이 없는 체언 뒤에서, 앞 음절의 모음이 음성 모음일 때 ㉠ 부터를 -> 부터 + -를

### 3. 관형격조사 이형태

- -ㅅ : 앞말이 높임의 대상(사람)일 때 ㉠ 부텃 나히 -> 부터 + -ㅅ
- -ㅅ : 앞말이 무정 체언(사물)일 때 ㉠ 나뭇 불휘 -> 나모 + -ㅅ
- -이 : 앞말이 유정 체언(사람, 동물)이고, 앞 음절의 모음이 양성모음일 때 ㉠ 사르미 -> 사름 + -이
- -의 : 앞말이 유정 체언(사람, 동물)이고, 앞 음절의 모음이 음성모음일 때 ㉠ 사스미 -> 사슴 + -의

### 4. (처소) 부사격조사 이형태

- -애 : 앞 음절의 모음이 양성모음일 때 ㉠ 바르매 -> 바름 + -애
- -에 : 앞 음절의 모음이 음성모음일 때 ㉠ 굴허에 -> 굴흥 + -에
- -예 : 앞 음절의 모음이 'ㅣ'모음일 때 ㉠ 萬理예 -> 만리(萬理) + -예

### 5. 접속조사 이형태

- -와 : 받침이 없는 체언 뒤에서 ㉠ 老(로)와 -> 로 + -와
- -와 : 받침 'ㄹ' 뒤에서 ㉠ 果實(과실)와 물와 -> 과실 + -와 + 물 + -와
- -과 : 받침이 있는 체언 뒤에서 ㉠ 病(병)과 死(사) -> 병 + -과 + 사



## #168 멘토링

### 프로들의 모습4. 어려운 걸 잘하는 사람, 그래서 대체불가능한 사람이 프로다.

비문학 독해력 높이고 싶으시죠.  
아래 방법도 한번 해보세요.

우선 지문 이해 하나도 안 되고, 문제는 손도 못 댔던  
소위 킬러 지문 '한 개'를 선택해 보시구요.  
그 '한 지문'을 매일 한 번씩 5일 동안 반복해서 읽어보는 겁니다.

일단 한 번 읽고 문제 풀어보세요. 여전히 잘 안 되고 어렵겠죠?  
이후 강사분이나 해설지가 지문 독해하고 문제 풀면서 무슨 논리와 근거를 대는지 찾아보세요.  
'오~ 어~ 음~ 이 부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 하는 걸 알아두세요.

다음 날 백지 상태의 같은 지문을 또 읽고 풀어보면서,  
새롭게 알게 된 아이디어와 생각 및 논리를 그대로 따라해 보려고 하세요.  
지문에 나온 소재나 개념에 대해서도 검색해서 좀 더 알아 보시구요.  
또 다른 강사분 얘기, 다른 해설지 얘기도 또 읽어 보시구요.

다음번에 읽을 때는,  
더 생각해낼 건 없는지, 더 깔끔하게 읽는 법은 없을지,  
더 좋은 논리와 근거는 없는지 계속 풀이를 다듬어 보세요.  
이젠 진짜 출제 요소 다 찾았다,  
여기서 생각할 게 더 있을 수가 없다고 할 정도가 될 때까지 다듬는 겁니다.

다음에 읽을 때는, 이때까지 깨달게 된 모든 지혜·습관·지식을  
지문 읽으면서 스스로 막힘없이 떠올릴 수 있는지 점검하세요.

다음 날 읽을 때는, 앞의 모든 사고 과정을  
전보다 조금 더 빨리 해보려고 하시구요.

이렇게 매주 단 '한 지문'만이라도 죽어라고 디테일하게 파다보면요.  
본인이 배경지식도 기초 개념도 부족하고  
무엇보다 독해 시에 생각도 안 하고 이해도 못하면서 대충 읽고 있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게 될 겁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지문·문장·단어를 보는데도  
누군가는 출제 요소·강조점·표지·출제자의 의도까지 파악하며 문제를 막힘없이 푸는데,  
본인은 좋은 독해 습관이 없고, 실전 풀이 전략이 없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인데, 잘 모르는 상태로 푸니까  
운 좋으면 맞고 운 나쁘면 틀리는 거였단 걸 체감하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어렵지만 디테일한 공부를 안 해보고  
그저 지문 많이 읽고 문제 많이 풀기만 하면,  
간편할 수는 있지만 성장은 더딜 것입니다.

쉬운 방법을 택하는 건 어려운 방법을 택하는 것보다  
처음엔 점수가 잘 오를 수 있습니다.  
쉽기 때문에 편하고 빨리 능숙해질 테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쉬운 방법을 택하고  
어려운 방법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마치 어차피 질 싸움인 걸 알면서도  
그냥 하겠다는 말과 같아요.  
쉬운 거 잘해봐야 한계가 있거든요.

쉬운 방법은 내가 잘해봤자 남들도 잘하기 때문에 변별력도 없구요.  
쉬운 방법으로 학생들이 점수 날로 먹는 꼴을  
출제자들이 계속 봐주시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격당해서 안 통하게 됩니다.

어렵고 까다로운 방법은,  
처음에는 한다고 해봐야 정답률도 안 올라가고  
여러 번 해봐도 여전히 잘 안되기 일쑤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 어려운 걸 계속 하다보면요.  
처음에는 손도 못 댈 정도로 막막했던 게, 여전히 어색하고 좀 느리긴 해도, 할 수는 있게 됩니다.  
거기서 또 계속 하다보면요.  
어려웠던 걸 혼자서도 빠르게 해낼 수 있게 되구요.  
계속 더 하다보면,  
그 어렵던 것이 어느새 일상의 다른 것들처럼 편해지고 쉬워질 겁니다. (feat. 성장하는 법,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방법)

남들은 여전히 어려워하는 것이  
내겐 마치 물마시듯 쉽게 되는 게  
바로 클래스의 차이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쉬운 것을 잘해봐야 클래스 차이를 만들 수 없습니다.  
쉬운 거 백날 잘해봐야 상위권 못가고 맨날 허수 소리 들어요.  
심지어 이런 쉬운 건 이제 Chat GPT같은 AI가 다 해줄 거구요.

힘들고 까다로우서 남들이 어려워 하는 것들을  
물마시듯 쉽게 해낼 수 있어야  
남다른 등급을 받고 남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렵고 까다롭고 힘든 것을 계속 참고 수십 번 반복하여  
쉽고 편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장이고 발전입니다.  
어렵고 까다로운 것을 끈기 있게 훈련하여  
실전에서 완벽하게 수행해 내는 것이 프로입니다.

시간 여유가 생기는 방학동안  
위와 같이 어렵지만 깊이 있는 공부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변해야 성적이, 그리고 나의 세상이 변합니다.

하루하루 어려운 걸 이겨나가길,  
파이팅!

# #169 화법과 작문 2023 고3 7모 39번 42번

[지문] (가)는 토론 전 찬성 측 학생이 작성한 입론서 초고이고, (나)는 이를 읽은 찬성 측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디지털 유산의 상속권을 인정해야 한다.’에 찬성합니다. 디지털 유산이란 고인이 생전에 인터넷상에 남긴 데이터 형태의 모든 정보를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디지털 유산에 대한 상속권이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별로 상속권에 대해 서로 다른 약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인이 남긴 디지털 유산에 대한 상속인들의 접근이 제한되어 고인과의 추억을 잃게 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기도 합니다.

논제에 찬성하는 이유는 디지털 유산이 상속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디지털 유산은 크게 인터넷 계정에 대한 권리와 데이터 자체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계정의 경우 계약상 지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포괄적 권리의무의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는 상속인에게 당연 승계된다는 민법 조항에 따라 상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경우도 실체는 없지만 데이터가 재산적 가치가 부여된 저작물이라면 공개 여부에 상관없이 당연히 상속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민법 조항에 따르면 인터넷 계정을 계약상의 지위가 아닌, 특정 개인에만 온전히 속한 계약으로 해석할 수 있어 상속 대상으로 보지 않기도 합니다. 또 고인이 남긴 데이터에 대해서도 민법에서 인정하는, 상속 대상이 되는 물건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상속권을 인정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상속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디지털 유산의 가치를 알릴 필요도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유산을 상속 가능한 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법 제도를 마련하여 상속인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학생 1 : 작성해 준 초고는 잘 봤어. 토론 개요서를 작성하며 미리 의논했던 대로 논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시작하기가 우리 입장이 잘 드러난 것 같아. 그래도 토론에 참여하려면 입론서를 조금 수정해야 할 것 같아.

학생 2 : 그래. 함께 작성한 토론 개요서를 참고해서 쓰긴 했는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알려 줘.

[A]학생 3 :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알려 달라는 거지? 토론 개요서를 작성하며 조사한 낱선 용어들의 개념은 모두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학생 2 : 하지만 토론자들이 이미 용어의 의미를 공유하고 있어서 조사한 용어를 모두 다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

학생 1 : 그렇긴 해도 배경지식이 없는 청중들은 생소하게 느낄 수 있으니까 조사한 용어를 빠짐없이 설명해 주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

학생 2 : 그래. 그럼 용어가 처음 등장할 때 개념도 같이 설명할게.

학생 3 : 그런데 우리나라 인터넷 서비스 제공 기업의 디지털 유산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구나.

학생 2 : 분량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인터넷 서비스 기업별 약관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어. 대신에 A

[B]학생 1 : 그래.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그런데 디지털 유산의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가 빠져있는 것 같은데, 두 번째 단락에 근거로 추가해서 설득력을 높이는 건 어떨까?

학생 2 : 디지털 유산의 상속권과 관련된 다른 나라의 제도나 해외 기업의 사례는 조금 더 꼼꼼히 조사한 후 반론 단계에서 활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언급하지 않았어.

학생 3 : 좋은 한데, 지난번에 함께 조사해서 알고 있듯이 해외 기업들의 경우 디지털 유산 정책이 다양해서 반대 측에서도 해외 기업의 사례를 근거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돼.

학생 1 : 우린 디지털 유산의 상속권을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기업의 사례만 반론 단계에서 근거로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학생 3 : 그래. 그리고 상속권을 인정하는 기업의 정책이 그렇지 않은 기업의 정책보다 상속인에게 더 이익이 된 사례를 함께 제시하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을 거야.

학생 1 :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입론서에 데이터 중 저작물에 대해서만 상속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괜찮을까?

학생 3 : 데이터 중 저작물이 아니더라도 공개 여부에 따라 상속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더라고. 저작물이 아닌 데이터의 공개 여부에 따라 상속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학생 2 : 그래. 그렇게 수정해 볼게. 그리고 반론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지막 단락에 반대 측 근거로 조사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추가했는데 오히려 상대측의 근거로 활용되는 건 아닐까?

학생 3 : 난 오히려 현재 상속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돼서 더 좋은 것 같아. 대신 현재의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예상되는 반론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을 것 같아.

학생 1 : 좋아.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 토론의 쟁점인 ‘디지털 유산이 상속 대상인가?’와 관련 없는 내용이 있는데, 삭제하여 논의 내용을 초점화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학생 2 : 그래.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수정해 볼게.

[문제] 39번. 다음은 '학생 2'가 (가)를 작성하기 위해 참고한 토론 개요서이다. (나)의 대화를 참고했을 때, ㉠~㉣가 (가)에 반영된 양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논제	㉠디지털 유산의 상속권을 인정해야 한다.	
㉡용어의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유산 : 고인이 생전에 인터넷상에 남긴 데이터 형태의 모든 정보</li> <li>◦ 포괄적 권리의무 : 특정 개인에 온전히 속한 것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li> </ul>	
㉢논제의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 계정 정보 제공하지 않음. 공개된 데이터의 백업 제공.</li> <li>◦ △△기업 : 계정 정보 및 데이터를 유족에게 제공하지 않음.</li> </ul>	
입장	찬성	반대
주장	디지털 유산은 상속 대상이다	디지털 유산은 상속 대상이 아니다.
이유 및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일의 경우 디지털 유산의 상속권을 인정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주제만 향유할 수 있는 권리는 포괄적 권리의무에 해당하지 않음.</li> <li>◦ 실체가 없는 데이터는 상속 대상 물건에 해당하지 않음.</li> </ul>

- ① ㉠ : 사전에 의논한 대로 디지털 유산의 상속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며 글을 시작하였다.
- ② ㉡ : 토론자들의 배경지식을 고려하여 특정 용어의 개념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였다.
- ③ ㉢ :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디지털 유산에 대한 약관이 인터넷 서비스 기업별로 다르다는 점만 언급하였다.
- ④ ㉣ : 반론 단계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 디지털 유산의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생략하였다.
- ⑤ ㉤ : 예상되는 반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반대 측이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의도적으로 언급하였다.

[문제] 42번. (나)의 논의 내용을 반영하여, (가)를 수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초고	수정 내용
1문단	◦ '포괄적 권리의무'의 개념을 설명한다. …………… ①
2문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유산의 상속권을 인정하는 해외 기업의 사례를 추가한다. …………… ②</li> <li>◦ 데이터의 공개 여부에 따라 저작물의 상속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설명한다. …………… ③</li> </ul>
3문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론 쟁점과 관련 없는, 디지털 유산의 가치를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한다. …………… ④</li> <li>◦ 디지털 유산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현재의 제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⑤</li> </ul>

※ 2024학년도 2023년 고3 7모 38번 ~ 42번 화법과 작문 문제 참조

- 스스로 정답을 정하고, 그 근거도 정리해본 후에, '정답 및 해설'을 보셔야 합니다 -



# #169 정답 및 해설

[지문] (가)는 토론 전 찬성 측 학생이 작성한 입론서 초고이고, (나)는 이를 읽은 찬성 측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디지털 유산의 상속권을 인정해야 한다.’에 찬성합니다. 디지털 유산이란 고인이 생전에 인터넷상에 남긴 데이터 형태의 모든 정보를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디지털 유산에 대한 상속권이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별로 상속권에 대해 서로 다른 약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인이 남긴 디지털 유산에 대한 상속인들의 접근이 제한되어 고인과의 추억을 잃게 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기도 합니다.

논제에 찬성하는 이유는 디지털 유산이 상속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디지털 유산은 크게 인터넷 계정에 대한 권리와 데이터 자체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계정의 경우 계약상 지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포괄적 권리의무의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는 상속인에게 당연 승계된다는 민법 조항에 따라 상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경우도 실체는 없지만 데이터가 재산적 가치가 부여된 저작물이라면 공개 여부에 상관없이 당연히 상속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민법 조항에 따르면 인터넷 계정을 계약상의 지위가 아닌, 특정 개인에만 온전히 속한 계약으로 해석할 수 있어 상속 대상으로 보지 않기도 합니다. 또 고인이 남긴 데이터에 대해서도 민법에서 인정하는, 상속 대상이 되는 물건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상속권을 인정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상속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디지털 유산의 가치를 알릴 필요도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유산을 상속 가능한 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법 제도를 마련하여 상속인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학생 1 : 작성해 준 초고는 잘 봤어. 토론 개요서를 작성하며 미리 의논했던 대로 논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시작하니깐 우리 입장이 잘 드러난 것 같아. 그래도 토론에 참여하려면 입론서를 조금 수정해야 할 것 같아.

학생 2 : 그래. 함께 작성한 토론 개요서를 참고해서 쓰긴 했는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알려 줘.

[A]학생 3 :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알려 달라는 거지? 토론 개요서를 작성하며 조사한 낱선 용어들의 개념은 모두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학생 2 : 하지만 토론자들이 이미 용어의 의미를 공유하고 있어서 조사한 용어를 모두 다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

학생 1 : 그렇긴 해도 배경지식이 없는 청중들은 생소하게 느낄 수 있으니까 조사한 용어를 빠짐없이 설명해 주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

학생 2 : 그래. 그럼 용어가 처음 등장할 때 개념도 같이 설명할게.

[현장독해]

- 찬성 측 입론서 초고와 대화. 수정하자는 거겠지 뭐

[지문 유형 파악] [출제요소 예측]

- 죽은 사람의 디지털 재산도 유산으로 유족한테 상속하자는 게 1문단. 밑줄㉠은 상속 안돼서 피해 본 예시로 설득력 높이기 이런 거려나? [출제요소 예측]

- 오프라인 현물 말고 디지털 재산도 상속 대상이다

- 계정에 대한 권리 + 데이터 자체 2가지로 구분

- 계정 -> 계약상 지위 -> 포괄적 권리의무 대상 -> 민법 상 상속 대상 [논리관계 정리]

- 데이터 -> 재산적 가치가 부여된 저작물 -> 상속대상 [논리관계 정리]

- ‘공개 여부에 상관없이’ 이거 함정으로 낼 듯? [출제요소 예측]

- 계정은 계약상 지위 vs 특정 개인에만 온전히 속한 계약 [차이점 정리]

- 데이터는 저작물 vs 데이터는 물건이 아님 [차이점 정리]

- 디지털 유산도 가치 있다고 알리자? 좀 뜬금없지 않냐? 씨한데 [출제요소 예측]

- 명확한 법 만들어 줘. [나만의 편한 표현으로 핵심 정리]

- 입론서 1문단 첫문장에 바로 ‘찬성’ 밝혔지. [앞 지문, 뒤 지문 연결해 읽기]

- 수정 제안

- 낱선 용어들의 개념 설명 필요 제안. [나만의 편한 표현으로 핵심 정리]

- 토론자들은 다 안다

vs

- 청중은 모른다 [차이점 정리]

- 용어 다 설명하겠다. 학생2는 처음에는 수정 제안을 반대했으나, 학생1, 학생3 의견 결국 수용했다 이런거 내려나 [출제요소 예측]

학생 3 : 그런데 우리나라 인터넷 서비스 제공 기업의 디지털 유산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구나.

학생 2 : 분량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인터넷 서비스 기업별 약관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어. 대신에 [A]

[B]학생 1 : 그래.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그런데 디지털 유산의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가 빠져있는 것 같은데, 두 번째 단락에 근거로 추가해서 설득력을 높이는 건 어떨까?

학생 2 : 디지털 유산의 상속권과 관련된 다른 나라의 제도나 해외 기업의 사례는 조금 더 꼼꼼히 조사한 후 반론 단계에서 활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언급하지 않았어.

학생 3 : 좋긴 한데, 지난번에 함께 조사해서 알고 있듯이 해외 기업들의 경우 디지털 유산 정책이 다양해서 반대 측에서도 해외 기업의 사례를 근거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돼.

학생 1 : 우린 디지털 유산의 상속권을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기업의 사례만 반론 단계에서 근거로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학생 3 : 그래. 그리고 상속권을 인정하는 기업의 정책이 그렇지 않은 기업의 정책보다 상속인에게 더 이익이 된 사례를 함께 제시하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을 거야.

학생 1 :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입론서에 데이터 중 저작물에 대해서만 상속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괜찮을까?

학생 3 : 데이터 중 저작물이 아니더라도 공개 여부에 따라 상속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더라고. 저작물이 아닌 데이터의 공개 여부에 따라 상속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학생 2 : 그래. 그렇게 수정해 볼게. 그리고 반론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지막 단락에 반대 측 근거로 조사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추가했는데 오히려 상대측의 근거로 활용되는 건 아닐까?

학생 3 : 난 오히려 현재 상속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돼서 더 좋은 것 같아. 대신 현재의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예상되는 반론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을 것 같아.

학생 1 : 좋아.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 토론의 쟁점인 '디지털 유산이 상속 대상인가?'와 관련 없는 내용이 있는데, 삭제하여 논의 내용을 초점화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학생 2 : 그래.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수정해 볼게.

- '약관' 빼먹음
- 길어질 것 같아서. [나만의 편한 표현으로 핵심 정리]
- 1문단에 약관 구체적으로 설명 안한 대신 피해 사례 제시가 [A]에 들어갈 듯? [밑줄의 의미 의도, 빈칸에 들어갈 내용 주관식으로 스스로 떠올려보기]
- 독일 사례 2문단에 추가하자.
- 입론서에서 말고 반론에서 쓰자
- 반대측도 해외 기업 사례 반론에서 쓸 듯.
- 인정하는 기업 사례'만'. 찬성측, 즉 우리에게 유리한 근거를 반론에서 쓰자 [한정표현 '만' 주의]
- 인정해서 더 이익이 된 사례를 제시하자. [나만의 편한 표현으로 핵심 정리]
- 저작물'만' 언급했다 [한정 표현 주의]
- '저작물인지 여부' 말고도 '공개여부'도 주요 변수인데. '저작물 여부' vs '공개 여부' 2가지로 상속 대상 인정 경우 구분하자[차이점 정리]
- 반대 측 근거로 조사한 내용 = '계정을 지위가 아닌 특정 개인에만 온전히 속한 계약, 데이터는 저작물이 아니라 물건' 이 얘기. [앞 지문, 뒤 지문 연결해 읽기]
- 예상 내용 선수치는 거 좋지 [나만의 편한 표현으로 핵심 정리]
- 제도 개선 구체화 [나만의 편한 표현으로 핵심 정리]
- '디지털 유산이 상속 대상인가?'와 관련 없는 내용 = '상속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디지털 유산의 가치를 알릴 필요도 있습니다' 이거 삭제하자고 [앞 지문, 뒤 지문 연결해 읽기]

[문제] 39번. 다음은 '학생 2'가 (가)를 작성하기 위해 참고한 **토론 개요서**이다. (나)의 대화를 참고했을 때, ㉠~㉢가 (가)에 반영된 양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논제	㉠디지털 유산의 상속권을 인정해야 한다.	
㉡용어의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유산 : 고인이 생전에 인터넷상에 남긴 데이터 형태의 모든 정보</li> <li>◦ 포괄적 권리의무 : 특정 개인에 온전히 속한 것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li> </ul>	
㉢논제의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 계정 정보 제공하지 않음. 공개된 데이터의 백업 제공.</li> <li>◦ △△기업 : 계정 정보 및 데이터를 유족에게 제공하지 않음.</li> </ul>	
입장	찬성	반대
주장	디지털 유산은 상속 대상이다	디지털 유산은 상속 대상이 아니다.
이유 및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일의 경우 디지털 유산의 상속권을 인정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주제만 향유할 수 있는 권리는 포괄적 권리의무에 해당하지 않음.</li> <li>◦ 실체가 없는 데이터는 상속 대상 물건에 해당하지 않음.</li> </ul>

- ① ㉠ : 사전에 의논한 대로 디지털 유산의 상속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며 글을 시작하였다.
- ② ㉡ : 토론자들의 배경지식을 고려하여 특정 용어의 개념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였다.
- ③ ㉢ :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디지털 유산에 대한 약관이 인터넷 서비스 기업별로 다르다는 점만 언급하였다.
- ④ ㉠ : 반론 단계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 디지털 유산의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생략하였다.
- ⑤ ㉢ : 예상되는 반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반대 측이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의도적으로 언급하였다.

[정답 및 해설] 39번. ㉢, 42번. ㉠.

- 먼저 보는 것보다 선택해보면서 하는 게 나을 듯.  
 [<보기> 먼저 스스로 분석하고 선택지 볼지 = 주관식으로 풀지 vs 선택지부터 봐서 효율적으로 볼지 판단]

- ① 미리 의논했던 대로 논제에 대한 입장 밝힘. (나) = (가) = 토론 개요서. 참. [지문-<보기>-선택지 연결해 정답의 확신성 높이기]
- ② 토론자들은 다 알아들을 거라고 초안에서 개념 생략했었지. 그러다가 (나)에서 학생 1, 학생 3한테 까이고 수정하기로 함.  
 [지문-<보기>-선택지 연결해 정답의 확신성 높이기]  
 \* 학생들이 ②번을 적절하지 않다고 많이 선택하셨는데요. (나)에서 비판받고 고치로 했다고 해서 (가)에서 '생략'한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생략'을 하는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나)에서 비판받고 수정하게 된 겁니다. 수정하기로 했다고 '잘못'이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잘못'이 앞에 존재하니까 뒤에 수정하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선후관계 주의]
- ③ (나)의 [A][B] 사이에 분량 상 약관 구체적으로 안 넣었었다고 했지. [지문-<보기>-선택지 연결해 정답의 확신성 높이기]
- ④ 찬성 측에 유리한, 상속권 인정한 해외 기업 사례는 반론에서 쓰려고 초안에서는 안 썼지 [한정표현 '만' 주의]
- ⑤ '반대 측의 반론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지. 예상되는 반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가 아니지. '위해서' '의도'가 틀렸네. 거짓. 정답 ⑤번. [의도 vs 결과]

[문제] 42번. (나)의 논의 내용을 반영하여, (가)를 수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초고	수정 내용
1문단	○ ‘포괄적 권리의무’의 개념을 설명한다. …………… ①
2문단	○ 디지털 유산의 상속권을 인정하는 해외 기업의 사례를 추가한다. …………… ②  ○ 데이터의 공개 여부에 따라 저작물의 상속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설명한다. …………… ③
3문단	○ 토론 쟁점과 관련 없는, 디지털 유산의 가치를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한다. …………… ④  ○ 디지털 유산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현재의 제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⑤

- 수정하는 문제인데 적절한 것을 묻는다고...? 수정 방안이 4개가 틀리고 1개만 맞다고...? 긴장하자 함정밭일 듯.

[출제요소 예측]

- ① ‘포괄적 권리의무’는 2문단 내용. 1문단이 아님. 거짓.  
[선택지 글자(겉 출제요소)만 보지 말고, 표 전체적으로 봐서 1문단(속 출제요소) 놓치지 말기]
- ② 상속권 인정해서 찬성 쪽에 유리한 해외 기업 사례‘만’ 반론에서 쓰기로 했지. (가)는 입론이니까 거짓.  
[선택지 글자(겉 출제요소)만 보지 말고, 지문 전체적으로 봐서 (가) 수정인 것(속 출제요소) 놓치지 말기]
- ③ 데이터를 저작물로 보면 공개 여부에 상관없이 상속권 인정. vs 저작물이 아닌 데이터도 공개 여부에 따라 상속권이 인정되는 것. 2가지로 구분하기로 했지. 거짓. 역시 공개 여부 가지고 함정 팠네  
[차이점 중심 독해, 차이점 중심 풀이]
- ④ (나) 마지막에 3문단에 관련 없는 내용 ‘상속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디지털 유산의 가치를 알릴 필요도 있습니다.’ 빼자고 한 거 있었지. 참. 정답 ④번  
[(나)지문-(가)지문-선택지 연결해 정답의 확신성 높이기]
- ⑤ 제한하는 현재 제도 구체적으로 제시 vs 제도의 개선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안 좋은 거 자체 말고, 그 안 좋은 걸 고치는 방법을 구체화하자고 했지. 거짓. [반대의 경우를 떠올려보는 응용력]

### ★★★ 틀린 문제를 오답하면서 독해 속도 및 풀이 속도 최적화 ★★★

39번에 ②번을 틀리다고 판단하고 정답으로 찍고 ③④⑤ 안보고 넘어가서 틀린 경우, 독해 속도, 생각 속도, 풀이 속도 늦추시기 바랍니다. 39번에 ②번을 놓쳤다면, 지문 [A]파트를 너무 빨리 읽다보니 ‘토론자들은 용어 다 알테니까 (가) 입론서에서는 생략했는데, 청중은 모를테니 생략하지 말고 수정하자’는 (나) 맥락 파악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혹은 앞서 ②번 해설에서도 언급했듯이, 수정하기로 했으니까 ‘생략’한 사실은 아예 없던 일 아니냐고 순간 착각한 것일 수도 있구요. 이정도 실수를 하지 않게 될 때까지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39번에 ⑤번 선택지 뒤 파트 <보기> ㉔의 ‘반대 측이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의도적으로 언급하였다’가 너무 완벽하게 맞아요. 뒤 선지가 맞으니까 학생들이 어 이거 맞구나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요. 앞에 ‘~하기 위해서’ 파트가 틀렸습니다. ‘선지 뒤 파트가 맞다고 앞 파트도 맞겠거니 대충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앞 파트가 단순 사실 판단으로 맞는지, 맞더라도 선지 앞 파트와 뒤 파트의 논리적 연결도 맞는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겉 출제 요소는 그저 앞 파트, 뒤 파트 2개지만, 속 출제요소는 앞 파트와 뒤 파트 간의 연결 1개가 더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그런데, 39번의 ⑤번은 심지어 앞 파트 ‘예상되는 반론을 이끌어 내는’이라는 단순 사실 판단조차도 없는 내용이라 틀렸는데 이것마저도 놓쳐서 ⑤번을 답으로 고르지 못했다면, 지문을 너무 빨리 읽고 문제를 너무 빨리 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출제요소를 정확하게 쫓아가지도 못하고, 겉 출제요소와 속 출제요소가 파악하지도 못할 정도로 빨리 읽으면 이런 문제를 틀릴 수밖에 없고 성적이 안정될 수가 없습니다. 속도만큼이나 정확도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 #170 비문학

[지문]

특허권은 발명에 대한 정보의 소유자가 특허 출원 및 담당 관청의 심사를 통하여 획득한 특허를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말한다. 한편 영업 비밀은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으로, 일정 조건을 갖추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 비밀은 모두 지식 재산인데, 정보 통신 기술(ICT) 산업은 이 같은 지식 재산을 기반으로 창출된다. 지식 재산 보호 문제와 더불어 최근에는 ICT 다국적 기업이 지식 재산으로 거두는 수입에 대한 과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ICT 다국적 기업에 대해 디지털세 도입을 진행 중이다. 디지털세는 이를 도입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디지털세의 배경에는 법인세 감소에 대한 각국의 우려가 있다. 법인세는 국가가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 등을 통해 거둔 수입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다.

㉠많은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현저하게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에 이윤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예를 들면 ICT 다국적 기업 Z사는 법인세율이 매우 낮은 A국에 자회사를 세워 특허의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그리고 법인세율이 A국보다 높은 B국에 설립된 Z사의 자회사에서 특허 사용으로 수입이 발생하면 Z사는 B국의 자회사로 하여금 A국의 자회사에 특허 사용에 대한 수수료인 로열티를 지출하도록 한다. 그 결과 Z사는 ㉡B국의 자회사에 법인세가 부과될 이윤을 최소화한다. ICT 다국적 기업의 본사를 많이 보유한 국가에서도 해당 기업에 대한 법인세 징수는 문제가 된다. 그러나 그중 어떤 국가들은 ICT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해당 산업에서 자국이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라도 디지털세 도입에는 방어적이다.

[A] ICT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ICT 지식 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일 수 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지식 재산의 보호가 약할수록 유용한 지식 창출의 유인이 저해되어 지식의 진보가 정체되고, 지식 재산의 보호가 강할수록 해당 지식에 대한 접근을 막아 소수의 사람만이 혜택을 보게 된다. 전자로 발생한 손해를 유인 비용, 후자로 발생한 손해를 접근 비용이라고 한다면,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두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될 때일 것이다. 각국은 그 수준에서 자국의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설정한다. 특허 보호 정도와 국민 소득의 관계를 보여 주는 한 연구에서는 국민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태에서는 국민 소득이 증가할수록 특허 보호 정도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들은 그들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보다 오히려 특허 보호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에 대해서도 국가별 입장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문제] 31번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이 수행할 학습지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 과제 : '㉠을 근거로 ICT 다국적 기업에 디지털세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한가?'를 검증할 가설에 대한 판단
- 가설 :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들의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낮다.
- 판단 : 가설이 참이라면 ㉠고 할 수 있으므로 ㉠을 근거로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것을 지지할 수 있겠군.

- ①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많다
- ②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 로열티를 지출한다
- ③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 대비 제반 비용의 비율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높다
- ④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서 수입에 비해 이윤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줄이고 있다
- ⑤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 본사가 있는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낮다

[문제] 32번 [A]를 적용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S국은 현재 국민 소득이 가장 낮은 수준의 국가이고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가 아니다. S국의 특허 보호 정책은 지식 재산 보호 정책을 대표한다.

- ①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는 S국이 유인 비용을 현재보다 크게 인식하여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높이기 바라겠군.
- ② S국에서는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이 낮을 때가 높을 때보다 지식 재산 창출 의욕의 저하로 인한 손해가 더 심각하겠군.
- ③ S국에서 현재의 특허 제도가 특허권을 과하게 보호한다고 판단한다면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낮춰 접근 비용을 높이고 싶겠군.
- ④ S국의 국민 소득이 점점 높아진다면 유인 비용과 접근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은 낮아졌다가 높아지겠군.
- ⑤ S국이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높일 때, 지식의 발전이 저해되어 발생하는 손해는 감소하고 다수가 지식 재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증가하겠군.

[문제] 33번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Z사의 전체적인 법인세 부담을 줄인다
- ② A국의 자회사가 거두는 수입을 늘린다
- ③ A국의 자회사가 얻게 될 이윤을 줄인다
- ④ B국의 자회사가 낼 법인세를 최소화한다
- ⑤ B국의 자회사가 지출하는 제반 비용을 늘린다

# #170 정답 및 해설

## [지문]

특허권은 발명에 대한 정보의 소유자가 특허 출원 및 담당 관청의 심사를 통하여 획득한 특허를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말한다. 한편 영업 비밀은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으로, 일정 조건을 갖추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 비밀은 모두 지식 재산인데, 정보 통신 기술(ICT) 산업은 이 같은 지식 재산을 기반으로 창출된다. 지식 재산 보호 문제와 더불어 최근에는 ICT 다국적 기업이 지식 재산으로 거두는 수입에 대한 과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ICT 다국적 기업에 대해 디지털세 도입을 진행 중이다. 디지털세는 이를 도입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디지털세의 배경에는 법인세 감소에 대한 각국의 우려가 있다. 법인세는 국가가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 등을 통해 거둔 수입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다.

㉠많은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현저하게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에 이윤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예를 들면 ICT 다국적 기업 Z사는 법인세율이 매우 낮은 A국에 자회사를 세워 특허의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그리고 법인세율이 A국보다 높은 B국에 설립된 Z사의 자회사에서 특허 사용으로 수입이 발생하면 Z사는 B국의 자회사로 하여금 A국의 자회사에 특허 사용에 대한 수수료인 로열티를 지출하도록 한다. 그 결과 Z사는 ㉡B국의 자회사에 법인세가 부과될 이윤을 최소화한다. ICT 다국적 기업의 본사를 많이 보유한 국가에서도 해당 기업에 대한 법인세 징수는 문제가 된다. 그러나 그중 어떤 국가들은 ICT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해당 산업에서 자국이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라도 디지털세 도입에는 방어적이다.

[A] ICT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ICT 지식 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일 수 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지식 재산의 보호가 약할수록 유용한 지식 창출의 유인이 저해되어 지식의 진보가 정체되고, 지식 재산의 보호가 강할수록 해당 지식에 대한 접근을 막아 소수의 사람만이 혜택을 보게 된다. 전자로 발생한 손해를 유인 비용, 후자로 발생한 손해를 접근 비용이라고 한다면,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두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될 때일 것이다. 각국은 그 수준에서 자국의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설정한다. 특허 보호 정도와 국민 소득의 관계를 보여 주는 한 연구에서는 국민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태에서는 국민 소득이 증가할수록 특허 보호 정도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들은 그들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보다 오히려 특허 보호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에 대해서도 국가별 입장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 [현장독해]

- 특허권 : 특허 출원 -> 심사 -> 일정 기간 독점 &

- 영업비밀 : 일정조건 -> 법으로 보호

[인과관계 정리]

- 특허권, 영업비밀 모두 지식 재산

[공통점 찾기]

- 지식 재산으로 거두는 수입에 대한 '과세'가 핵심

[키워드 파악]

- 디지털세

=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부과하는 세금

[개념 정리]

- '법인세' 감소 우려 때문에 '디지털세' 도입

- 법인세 =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 중 가장 중요한

= 수입에서 비용 뺀 이윤에 대해 부과

[개념 정리]

- ㉠ 세금 싼 곳에 이윤 몰아줘서 이윤에 대한 세금 줄이려고~~

[밑줄의 의미·의도 생각] [나만의 편한 표현으로 핵심정리]

- A사나 B사나 다 같이 Z사에 속한 그룹인데 세금 싼 자회사에 이윤 몰아주려고, 세금 비싼 자회사가 세금 싼 자회사 지식 재산(=특허)를 사준다. 셋 다 한통속이라 한 놈은 돈 주고, 한 놈은 돈 벌고 한다.

[예시의 시사점 정리] [나만의 편한 표현으로 핵심정리]

- ㉡B국 자회사는 상대적으로 특허 사용 수수료인 '비용'이 많아질테니까 수입에서 비용 뺀 이윤이 적어지겠지. 그럼 법인세율이 높아도 세금을 전보다 적게 내겠지.

[밑줄의 의도 생각]

- 디지털세 도입하면 본사 옮길 거 아냐. 그래서 도입 머뭇.

[나만의 편한 표현으로 핵심정리]

- '과세'에서 '지식 재산 보호 국제적 강화'로. [키워드 변화 확인]

- 지식 재산 보호가 약할수록 -> (표절 엄청 하겠지? 그럼 지식 만들기 싫겠지?) -> 지식 창출 유인 저해 -> 지식 진보가 정체

[비례관계 정리] [배경지식으로 생략된 전제 추론 : 최상위권]

vs 지식 재산 보호가 강할수록 -> 지식에 대한 접근 막음 -> 접근 가능한 소수만 혜택 봄.

[비례관계 정리]

- 지식 안 만들어서 보는 손해가 '유인 비용' + 만든 지식에 접근이 힘들어서 보는 손해가 '접근 비용' 둘 합이 최소가 되게 하는 게 최적화.

[수식 정리]

- 그니까... 잘 살게 되고부터야 국민 소득 증가 -> 지식 재산 보호 증가인데. 이제 막 빈곤을 벗어났으면, 오히려 빈곤 못 벗어난 나라보다도 특허 보호 안 해. 막 가져다가 써서 더 발전해서 더 잘 살려고?  
[나만의 편한 표현으로 핵심정리]

[문제] 31번 <보기>는 밑글을 읽은 학생이 수행할 학습지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 과제 : '㉠을 근거로 ICT 다국적 기업에 디지털세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한가?'를 검증할 가설에 대한 판단
- 가설 :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들의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낮다.
- 판단 : 가설이 참이라면 ㉠ 고 할 수 있으므로 ㉠을 근거로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것을 지지할 수 있겠군.

- ①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많다
- ②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 로열티를 지출한다
- ③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 대비 제반 비용의 비율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높다
- ④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서 수입에 비해 이윤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줄이고 있다
- ⑤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 본사가 있는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낮다

[문제] 32번 [A]를 적용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S국은 현재 국민 소득이 가장 낮은 수준의 국가이고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가 아니다. S국의 특허 보호 정책은 지식 재산 보호 정책을 대표한다.

- ①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는 S국이 유인 비용을 현재보다 크게 인식하여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높이기 바라겠군.
- ② S국에서는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이 낮을 때가 높을 때보다 지식 재산 창출 의욕의 저하로 인한 손해가 더 심각하겠군.
- ③ S국에서 현재의 특허 제도가 특허권을 과하게 보호한다고 판단한다면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낮춰 접근 비용을 높이고 싶겠군.
- ④ S국의 국민 소득이 점점 높아진다면 유인 비용과 접근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은 낮아졌다가 높아지겠군.
- ⑤ S국이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높일 때, 지식의 발전이 저해되어 발생하는 손해는 감소하고 다수가 지식 재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증가하겠군.

[정답 및 해설] 31.④, 32.③, 33.③

-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 = 수입에서 비용 많이 뺄수록 이윤 낮아짐. 비용 적게 뺄수록 높아짐. **[반대를 생각해내는 응용력]**
-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면 예시에서 B국이네. B국 기업이 특허 보유한 A국 기업한테 특허 사용으로 돈 주고, 수입 대비 비용 높여서 이윤 낮게 하는. **[<보기> - 지문 '예시' 연결해서 이해]**  
**[선택지 넘어가기 전에 <보기> 보면서 지문과 연결점 정리]**

- ①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수입'은 모르고,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이 낮지. '수입'이 많은지는 '모르지'. **[없는 것을 있다고 하면 틀림]**
- ②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의 자회사에 특허 사주고 로열티 지출. **[반대의 경우를 떠올려보는 응용력]**
- ③ 수입 대비 '제반 비용의 비율'이 높다 = <보기>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이 낮다. 그렇다면, 비용은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높이고, 이윤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서 높여야 이득이겠지. **[선택지-<보기> 표현 연결] [반대를 떠올려보는 응용력]**
- ④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 = B. B에서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의 자회사 A의 특허권 사주면서 비용 높이고, 그래서 수입에 비해 이윤을 줄여서 법인세를 줄이지. 정답 ④번. **[선택지-지문 예시-<보기> 표현 연결]**
- ⑤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의 자회사 = A. A는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을 높게 하지. 거짓. **[선택지-지문 예시-<보기> 표현 연결]**

- S국 = 소득이 '가장 낮은 국가'
- =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들보다는 특허 보호가 강하겠지.
- +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들은 특허 보호가 S국보다 강하겠지.
- > 그럼 S국이 중간 수준의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이겠네. **[선택지 넘어가기 전에 <보기> 보면서 지문과 연결점 정리]**

- ① 주도적인 국가는 지식 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유인 비용을 크게 인식 = 보호가 약해서 지식 진보가 정체되어 있다 -> 보호 수준을 높이자. 참. **[선택지-지문 예시-<보기> 표현 연결]**
- ② 일단 보호 수준이 낮으면, 유용한 지식 창출 유인 저하 = 지식 재산 창출 의욕 저하 -> 유인 비용 증가 = 손해 심각 **[지문 비례관계 활용]**
- ③ 과하게 보호 -> 보호 수준 낮춤 -> 접근 비용을 '낮추는'. 높인다고 했으니까 거짓. 정답 ③번 **[선택지-지문 예시-<보기> 표현 연결]**
- ④ 높아져서 가장 낮은 수준을 갖 벗어나면, 보호 수준은 오히려 낮아질 것이고, 이후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태가 되면 보호 수준은 높아지겠지. 참. **[지문 핵심 파악]**
- ⑤ 보호 수준을 높이면 -> 지식의 발전이 저해되어 발생하는 손해 = 유인 비용 감소. 다수가 지식 재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함 = 소수의 사람만이 혜택 -> 접근 비용 증가. **[지문 비례관계 활용]**

[문제] 33번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Z사의 전체적인 법인세 부담을 줄인다
- ② A국의 자회사가 거두는 수입을 늘린다
- ③ A국의 자회사가 얻게 될 이윤을 줄인다
- ④ B국의 자회사가 낼 법인세를 최소화한다
- ⑤ B국의 자회사가 지출하는 제반 비용을 늘린다

- ㉠ B국 자회사는 법인세가 싸니까, 법인세가 붙는 이윤을 줄여야 하고, 이윤 줄이기 위해 법인세가 싼 A국 자회사 특허 사줘서 비용 늘림.

[선택지 넘어가기 전에 정답을 스스로 주관식으로 생각해보기]

- ① 그래서 Z사 전체로는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거지. 결국 전체적으로 줄이려고 이 난리 치는 거다. 참 [지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파악]
- ② A국 자회사는 특허 사용 로열티 받으니까 수입 늘겠지. 참
- ③ ②번처럼 수입이 늘는데 이윤도 당연히 늘어나겠지. 줄인다고 했으니까 거짓. 정답 ③번.

[앞 선지 맞는 진술을 뒤 선지에 활용하는 센스, 응용력]

④ B국 자회사는 A국에 특허 사용 로열티 주느라 31번 <보기>처럼 수입 대비 비용은 늘고, 이윤은 줄고, 그래서 이윤에 대한 법인세 최소화.

[앞 문제의 표현을 뒤 문제 풀이에 활용]

⑤ B국 자회사는 A국에 특허 사용 로열티 주느라 지출 비용 증가. 참.



# #171 비문학

### [지문]

흔히 어떤 대상이 반드시 가져야만 하고 그것을 다른 대상과 구분해 주는 속성을 ㉠**본질**이라고 한다. X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X에 대한 필요 충분한 속성을 찾으면 된다. 다시 말해서 모든 X에 대해 그리고 오직 X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을 찾으면 된다. ㉡**예컨대** 모든 까투리가 그리고 오직 까투리만이 꺾이면서 동시에 암컷이므로, ‘암컷인 꺾’은 까투리의 본질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암컷인 꺾은 애초부터 까투리의 정의라고 우리가 규정한 것이므로 그것을 본질이라고 말하기에는 허망하다. 다시 말해서 본질은 따로 존재하여 우리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까투리라는 낱말을 만들면서 사후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서로 다른 개체를 동일한 종류의 것이라고 판단하고 의사소통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체들이 공유하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본질주의는 ㉢**그것이** 우리와 무관하게 개체 내에 본질로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반(反)본질주의는 그런 본질이란 없으며, 인간이 정한 언어 약정이 본질주의에서 말하는 본질의 역할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본질은 우리가 관습적으로 부여하는 의미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본질’이 존재론적 개념이라면 거기에 언어적으로 상관하는 것은 ‘정의’이다. 그런데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약정적이지 않으면서 완벽하고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는 사실은 반본질주의의 주장에 힘을 실어 준다. 사람을 예로 들어 보자. 이성적 동물은 사람에 대한 정의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면 이성적이지 않은 갓난아이를 사람의 본질에 반례로 제시할 수 있다. 이번에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정의를 제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를 이루고 산다고 해서 모두 사람인 것은 아니다. ㉦**개미나 벌도** 사회를 이루고 살지만 사람은 아니다.

서양의 철학사는 본질을 찾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본질주의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유나 지식 등의 본질을 찾는 시도를 계속해 왔지만, 대부분의 경우 아직까지 본질적인 것을 명확히 찾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숨겨진 본질을 밝히려는 철학적 탐구는 실제로는 부질 없는 일이라고 반본질주의로부터 비판을 받는다. 우리가 본질을 명확히 찾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의 무지 때문이 아니라 그런 본질이 있다는 잘못된 가정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물의 본질이라는 것은 단지 인간의 가치가 투영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반본질주의의 주장이다.

### [문제] 진위판단

1. ‘어떤 대상이라도 그 개념을 언어로 약정할 수 없다.’는 견해는 ‘반본질주의’의 견해로 볼 수 있다. 정답 : ( 참 / 거짓 )
2. ‘어떤 대상에 의미가 부여됨으로써 그 대상은 다른 대상과 구분된다.’는 견해는 ‘반본질주의’의 견해로 볼 수 있다. 정답 : ( 참 / 거짓 )
3. ‘가위는 자를 수 있는 도구이다’와 ‘칼’의 관계는 문맥상 ㉠과 ㉡의 관계와 같다. 정답 : ( 참 / 거짓 )
4. ‘고래는 헤엄칠 수 있는 포유동물이다’와 ‘헤엄칠 수 없는 고래’의 관계는 문맥상 ㉠과 ㉡의 관계와 같다. 정답 : ( 참 / 거짓 )
5. 본질주의자는 ‘누군가가 사자와 바위와 컴퓨터를 묶어 ‘사바컴’으로 정의했지만 그 정의는 널리 쓰이지 않았다.’는 걸 근거로 들어 본질은 사후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겠네. 정답 : ( 참 / 거짓 )
6. 반본질주의자는 ‘금은 오랫동안 색깔이나 밀도처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특성으로 정의되어 왔지만 이제는 현대 화학에 입각해 정의되고 있다.’에서처럼 널리 믿어지던 정의가 바뀌는 것을 보고 약정적이지 않은 정의는 없다고 주장하겠네. 정답 : ( 참 / 거짓 )
7. 반본질주의자는 ‘누군가가 사자와 바위와 컴퓨터를 묶어 ‘사바컴’으로 정의했지만 그 정의는 널리 쓰이지 않았다.’에 대해 그 세 가지가 지니는 근원적 속성이 발견되지 않아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하겠네. 정답 : ( 참 / 거짓 )
8. 본질주의자와 반본질주의자는 모두 ‘금은 오랫동안 색깔이나 밀도처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특성으로 정의되어 왔지만 이제는 현대 화학에 입각해 정의되고 있다.’를 들어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개체들을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겠네. 정답 : ( 참 / 거짓 )

※ 2014학년도 2013년 시행 고3 6평 B형 17 ~ 20번 비문학 지문 참조

# #171 정답 및 해설

## [지문]

흔히 어떤 대상이 반드시 가져야만 하고 그것을 다른 대상과 구분해 주는 속성을 ㉠**본질**이라고 한다. X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X에 대한 필요 충분한 속성을 찾으면 된다. 다시 말해서 모든 X에 대해 그리고 오직 X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을 찾으면 된다. ㉡**예컨대** 모든 까투리가 그리고 오직 까투리만이 꿩이면서 동시에 암컷이므로, ‘암컷인 꿩’은 까투리의 본질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암컷인 꿩은 애초부터 까투리의 정의라고 우리가 규정한 것이므로 그것을 본질이라고 말하기에는 허망하다. 다시 말해서 본질은 따로 존재하여 우리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까투리라는 낱말을 만들면서 사후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서로 다른 개체를 동일한 종류의 것이라고 판단하고 의사소통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체들이 공유하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본질주의는 ㉢**그것이** 우리와 무관하게 개체 내에 본질로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반(反)본질주의는 그런 본질이란 없으며, 인간이 정한 언어 약정이 본질주의에서 말하는 본질의 역할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본질은 우리가 관습적으로 부여하는 의미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본질’이 존재론적 개념이라면 거기에 언어적으로 상관하는 것은 ‘정의’이다. 그런데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약정적이지 않으면서 완벽하고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는 사실은 반본질주의의 주장에 힘을 실어 준다. 사람을 예로 들어 보자. 이성적 동물은 사람에게 대한 정의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면 이성적이지 않은 갓난아이를 사람의 본질에 반례로 제시할 수 있다. 이번에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정의를 제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를 이루고 산다고 해서 모두 사람인 것은 아니다. ㉦**개미나 벌도** 사회를 이루고 살지만 사람은 아니다.

## [현장독해]

- 본질 =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속성 + 그것과 다른 대상과 구분해 주는 속성 **[정의, 개념 정리]**

= 필요 충분한 속성 = 모든 X에 대해 그리고 오직 X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 **[정의, 개념 정리]**

- 모든 X에 대해서 =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 오직 X에 대해서만 = 그것과 다른 대상과 구분해 주는 **[지문 앞-뒤 표현 연결해 이해]**

- X = 까투리 **[예시-지문 개념 연결]**

- X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 = 꿩이면서 동시에 암컷  
= 까투리의 본질 **[예시-지문 개념 연결]**

- 허망...? 우리의 규정이 자의적이어서? 틀릴 수 있다? 뭐지 **[직관적으로 이해 안 되는 표현의 의미 이해해보려고 시도]**

- 따로 존재하여 우리가 발견한 것 vs 낱말을 만들면서 사후적으로 구성된 것. 아~ 그니까~ 기존에 있던 본질을 발견한 게 아니라, 우리가 낱말 만들면서 사후적으로 정의 내린 걸 본질이라고 한다면 허망하다 **[차이점 정리] [나만의 편한 표현으로 핵심 이해]**

- 동일 종류 = 공유하는 무엇인가 필요 **[비슷한 표현 연결]**

- 본질주의 : ‘그것(㉢) = 공유하는 무엇인가’가 개체 내에 본질로서 존재 **[밑줄 및 지시대명사 의미 제대로 파악하고 넘어가기]**  
= 따로 존재하여 우리가 발견 **[지문 앞-뒤 비슷한 표현 연결]**

vs(㉣) 반본질주의 : 우리와 무관하게 개체 내에 존재하는 본질은 ‘없다’ = 인간이 정한 언어 약정이 의사소통 역할 달성한다 .

- 본질주의에서 말하는 본질의 역할 = 의사소통을 위해 공유하려는 무엇인가 **[지문 앞-뒤 비슷한 표현 연결]**

- 본질은 우리가 관습적으로 부여한 의미 표현한 것 = 우리가 낱말을 만들면서 사후적으로 구성한 **[지문 앞-뒤 비슷한 표현 연결]**

- ‘본질’ = 존재론적 개념 = 본질주의

- ‘정의’ = 언어적으로 상관하는 = 반본질주의

- 약정없이 완벽하고 정확한 정의 내리기 어렵다? ‘약정적 = 약속해서 정한다’ = 낱말을 만들면서 사후적으로 구성 = 관습적으로 의미부여 **[어휘력으로 의미 추론 : 최상위권] [지문 앞-뒤 비슷한 표현 연결]**

- 이성적 동물 중에 사람 아닌 갓난아기도 있다. 사회적 동물 중에 사람 아닌 개미나 벌도 있다. ㉥**정의에 대한 반례가 많다** = 완벽하고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

**[직관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의 의미 뒤 예시를 보며 이해]**

서양의 철학사는 본질을 찾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본질주의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유나 지식 등의 본질을 찾는 시도를 계속해 왔지만, 대부분의 경우 아직까지 본질적인 것을 명확히 찾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숨겨진 본질을 밝히려는 철학적 탐구는 실제로는 부질 없는 일이라고 반본질주의로부터 비판을 받는다. 우리가 본질을 명확히 찾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의 무지 때문이 아니라 그런 본질이 있다는 잘못된 가정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물의 본질이라는 것은 단지 인간의 가치가 투영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반본질주의의 주장이다.

[문제] 진위판단

1. '어떤 대상이라도 그 개념을 언어로 약정할 수 없다.'는 견해는 '반본질주의'의 견해로 볼 수 있다. 정답 : ( 참 / 거짓 )
2. '어떤 대상에 의미가 부여됨으로써 그 대상은 다른 대상과 구분된다.'는 견해는 '반본질주의'의 견해로 볼 수 있다. 정답 : ( 참 / 거짓 )
3. '가위는 자를 수 있는 도구이다'와 '칼'의 관계는 문맥상 ㉠과 ㉡의 관계와 같다. 정답 : ( 참 / 거짓 )
4. '고래는 헤엄칠 수 있는 포유동물이다'와 '헤엄칠 수 없는 고래'의 관계는 문맥상 ㉠과 ㉡의 관계와 같다. 정답 : ( 참 / 거짓 )
5. 본질주의자는 '누군가가 사자와 바위와 컴퓨터를 묶어 '사바컴'으로 정의했지만 그 정의는 널리 쓰이지 않았다.'는 걸 근거로 들어 본질은 사후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겠네. 정답 : ( 참 / 거짓 )
6. 반본질주의자는 '금은 오랫동안 색깔이나 밀도처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특성으로 정의되어 왔지만 이제는 현대 화학에 입각해 정의되고 있다.'에서처럼 널리 믿어지던 정의가 바뀌는 것을 보고 약정적이지 않은 정의는 없다고 주장하겠네. 정답 : ( 참 / 거짓 )
7. 반본질주의자는 '누군가가 사자와 바위와 컴퓨터를 묶어 '사바컴'으로 정의했지만 그 정의는 널리 쓰이지 않았다.'에 대해 그 세 가지가 지니는 근원적 속성이 발견되지 않아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하겠네. 정답 : ( 참 / 거짓 )
8. 본질주의자와 반본질주의자는 모두 '금은 오랫동안 색깔이나 밀도처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특성으로 정의되어 왔지만 이제는 현대 화학에 입각해 정의되고 있다.'를 들어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개체들을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겠네. 정답 : ( 참 / 거짓 )

- 본질 명확히 찾는 데 성공 못함
- > 본질주의는 부질없다 = 반본질주의 [논리관계 정리]
- 본질이 애초에 없는데 있다고 잘못된 가정을 하고 찾으려고 하니까 못 찾는 거다 [나만의 표현으로 핵심 파악]
- 본질 = 인간의 가치가 투영된 것 : 반본질주의 vs 따로 존재하는 걸 인간이 발견한 것 : 본질주의 [차이점 중심으로 정리]

[정답 및 해설] 1.거짓, 2.참, 3.참, 4.거짓, 5.참, 6.참, 7.거짓, 8.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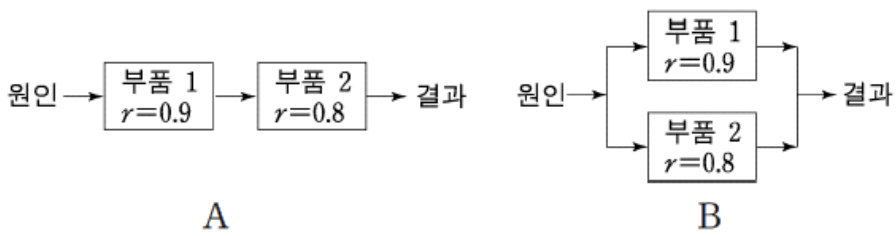
1. 언어로 약정할 수 '있다', 애초에 '본질'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언어로 사후적으로 약정하는 것으로 의사소통 가능하다는 것이 반본질주의. 거짓.
2. 선택지 '의미가 부여됨으로써' = 지문 '본질은 낱말을 만들면서 사후적으로 구성' = '우리가 관습적으로 부여한 의미 표현한 것' = 반본질주의. 참. [선택지-지문 표현 연결해 정답의 확신성 높이기]
3. ㉠은 정의, ㉡은 정의를 정확하고 완벽하지 않게 만드는 반례. ㉠자를 수 있는 도구지만, 가위가 아닌 반례가 바로 ㉡칼. 참.
4. '헤엄칠 수 있는 포유동물'이지만 고래는 아닌 ㉡반례를 대야하는데 '헤엄칠 수 없는'은 정의 자체를 부정했네. 헤엄칠 수는 있어야지. 3번 문제처럼 헤엄칠 수 있는 포유동물인데 고래가 아닌 뭐 상어가 ㉡의 예시겠지. 거짓. [선택지 간의 차이점을 파악하여 문제 풀이]
5. 선택지 '누군가가 ~를 ~로 정의 했다' = 지문 '사후적으로 관습적으로 부여' + 선택지 '널리 쓰이지 않았다' = 선택지 '사후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님'. 반본질주의자 말처럼 해봤는데 잘 안 되던데? 그럼 반본질주의자 틀린 거 아님?이 5번 본질주의자의 논리. 참. [선택지-지문 표현 연결해 정답의 확신성 높이기]
6.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특성으로 정의되어 왔다가, 현대 화학 기술 발달로 '쉽게 확인할 수 없었던 특성'으로 정의가 바뀐다는 것. 지문 본질주의자 말처럼, '우리와 무관하게 개체 내에 본질로서 존재해서 완벽하고 정확한 정의'면 왜 바뀌겠냐는 거지. 정의가 바뀐다는 것은 본질주의의 반례. 약정적이지 않은 정의는 없다는 반본질주의 주장의 근거. 참. [선택지-지문 표현 연결해 정답의 확신성 높이기]
7. 반본질주의자는 '근원적 속성'이 없는데, 애초에 없는 걸 있다고 하고 찾으려고 하니까 못 찾는 거라고 했지. 근원적 속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말은, 근원적 속성이 있다는 얘기라서 반본질주의자가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지. 거짓.
8. 선택지 '개체들을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무엇인가' = 공유하려는 무엇인가 = ㉠그것 = 의사소통에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 본질주의자. 공통점. 참. [선택지-지문 표현 연결해 정답의 확신성 높이기]



# #172 비문학

[지문]

어떤 장비의 '신뢰도'란 ㉠주어진 운용 조건하에서 의도하는 사용 기간 중에 의도한 목적에 맞게 작동할 확률을 말한다. 복잡한 장비의 신뢰도는 한 번에 분석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장비를 분해하여 몇 개의 하부 시스템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 방법이다. 직렬과 병렬 구조는 하부 시스템에 자주 나타나는 구조로서, 그 결과를 통합한다면 복잡한 장비의 신뢰도를 구할 수 있다.



A와 같은 직렬 구조는 원인에서 결과에 이르는 경로가 하나인 가장 간단한 신뢰도 구조이다. 직렬 구조에서 시스템이 정상 가동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품이 다 정상 작동해야 한다. 어떤 하나의 부품이 고장 나면 형성된 경로가 차단되므로 시스템이 고장 나게 된다. 만약 어떤 부품의 고장이 다른 부품의 수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A의 신뢰도는 부품 1의 신뢰도 (r=0.9)와 부품 2의 신뢰도 (r=0.8)를 곱한 0.72로 계산되며, 이것은 100번 ㉡가운데 72번은 고장 없이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장 없이 영원히 작동하는 부품은 없기 때문에 직렬구조의 신뢰도는 항상 가장 약한 부품의 신뢰도보다도 낮을 수밖에 없다.

한편, B와 같은 병렬 구조는 원인에서 결과에 이르는 여러 개의 경로가 있고, 그중에 몇 개가 차단되어도 나머지 경로를 통해 결과에 이를 수 있는 구조이다. 병렬 구조에서는 부품이 모두 고장이어야 시스템이 고장이므로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의미의 값인 1에서 두 개의 부품이 모두 고장 날 확률(\*0.1 × \*0.2 =0.02)을 빼서 얻은 0.98이 B의 신뢰도가 된다. 한 부품의 고장이 다른 부품의 신뢰도에 영향을 준다면 이 값 역시 달라진다.

이러한 신뢰도 구조는 물리적 구조와 구분된다. 자동차의 네 바퀴는 물리적 구조상 병렬로 설치되어 있지만, 그중 하나라도 고장 나면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없으므로 신뢰도 구조상으로 직렬 구조인 것이다.

[가]종종 장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중복 설계(重複設計)를 활용하기도 한다. 가령, 순간적인 과전류로부터 섬세한 전자 기구를 보호하는 회로 차단기를 설치할 때에 그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2개를 물리적 구조상 직렬로 연결해야 하는데, 이때 차단기 2개 중 1개라도 정상 작동하면 전자 기구를 보호할 수 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직렬 구조이지만 신뢰도 구조상으로 병렬 구조인 것이다.

신뢰도 문제에서 직렬이나 병렬의 구조로 분석할 수 없는 'n 중 k' 구조도 나타난다. 이 구조에서는 모두 n개의 부품 중에 k개만 작동하면 시스템이 정상 가동된다. n겹의 쇠줄로 움직이는 승강기에서 최대 하중을 견디는 데 k겹이 필요한 경우가 그 예이다. 이 구조에서도 부품 간의 상호 작용에 따라 신뢰도가 달라진다.

실제로 대규모 장비에 대한 신뢰도 분석은 대단히 힘들기 때문에 많은 경우 적절한 판단과 근삿값 계산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주어진 장비의 구조 및 운용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어떤 부품이 고장 날 확률 = 1 - (그 부품의 신뢰도)

[문제] 진위판단

1. '신뢰도구조'에서 부품 간의 상호 작용 유무에 관계없이 신뢰도는 동일하다. 정답 : ( 참 / 거짓 )
2. '신뢰도구조'에서 n = k일 때, 'n 중 k' 구조의 신뢰도는 직렬 구조의 경우와 같아진다. 정답 : ( 참 / 거짓 )
3. 원인과 결과가 하나뿐인 직렬 또는 병렬 구조를 적용한 사례중 '교실 천장에 있는 4개의 형광등에서 깜빡거리는 형광등 1개를 빼내도 3개의 형광등은 켜져 있었다.'는 사례의 신뢰도 구조는 병렬이다. 정답 : ( 참 / 거짓 )
4. 원인과 결과가 하나뿐인 직렬 또는 병렬 구조를 적용한 사례중 '4개의 건전지가 필요한 탁상시계에 3개의 건전지를 넣어도 작동하지 않다가 4번째 건전지를 끼우니 작동하였다.'는 사례의 신뢰도 구조는 병렬이다. 정답 : ( 참 / 거짓 )

[문제] 47번 <보기>가 ㉠을 고려하여 작성한 카메라 사용 시 주의 사항이라 할 때,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볼 수 없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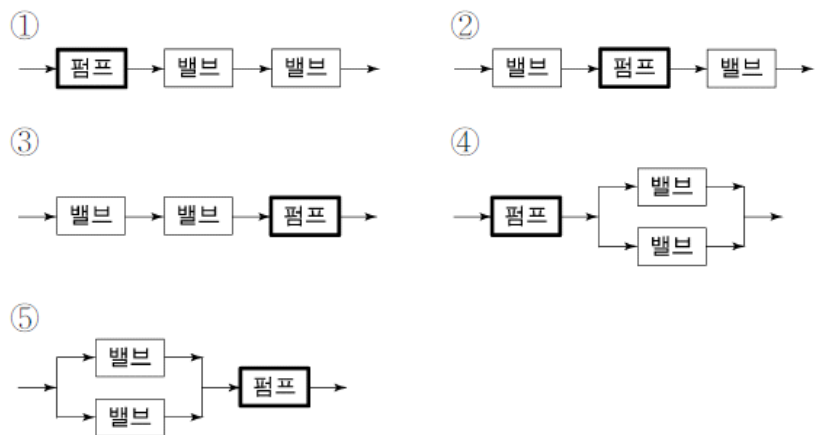
<보기>

본 카메라를 무상으로 ㉡보증하는 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입니다. 본 카메라는 ㉢0°C ~ 40°C의 온도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직사광선에 정면 노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강한 전파 에너지가 발생하는 곳에서는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카메라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손실된 녹화 내용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정답 : ( A / B / C / D / E )

[문제] 49번 [가]에 근거할 때, <보기>의 배수펌프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물리적인 구조는?

하천 인근의 배수펌프 관에는 두 개의 역류 방지용 밸브가 연결되어 있다. 펌프에서 배출된 물이 금방 빠지지 않을 경우 펌프 쪽으로 물이 역류할 우려가 있다. 두 개의 밸브는 '중복설계'된 것이므로 한 개만 작동해도 역류를 막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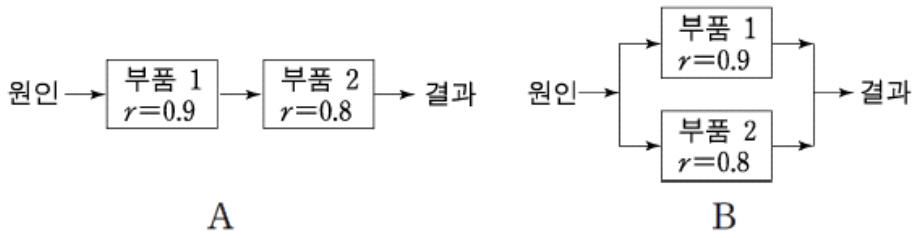
\* 단, 역류에 대한 고장만을 생각하고 밸브가 닫힌 채 고장 나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음. ( → : 물이 흘러 나가는 방향)



# #172 정답 및 해설

**[지문]**

어떤 장비의 '신뢰도'란 ㉠주어진 운용 조건하에서 의도하는 사용 기간 중에 의도한 목적에 맞게 작동할 확률을 말한다. 복잡한 장비의 신뢰도는 한 번에 분석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장비를 분해하여 몇 개의 하부 시스템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 방법이다. 직렬과 병렬 구조는 하부 시스템에 자주 나타나는 구조로서, 그 결과를 통합한다면 복잡한 장비의 신뢰도를 구할 수 있다.



A와 같은 직렬 구조는 원인에서 결과에 이르는 경로가 하나인 가장 간단한 신뢰도 구조이다. 직렬 구조에서 시스템이 정상 가동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품이 다 정상 작동해야 한다. 어떤 하나의 부품이 고장 나면 형성된 경로가 차단되므로 시스템이 고장 나게 된다. 만약 어떤 부품의 고장이 다른 부품의 수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A의 신뢰도는 부품 1의 신뢰도 (r=0.9)와 부품 2의 신뢰도 (r=0.8)를 곱한 0.72로 계산되며, 이것은 100번 ㉡가운데 72번은 고장 없이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장 없이 영원히 작동하는 부품은 없기 때문에 직렬구조의 신뢰도는 항상 가장 약한 부품의 신뢰도보다도 낮을 수밖에 없다.

한편, B와 같은 병렬 구조는 원인에서 결과에 이르는 여러 개의 경로가 있고, 그중에 몇 개가 차단되어도 나머지 경로를 통해 결과에 이를 수 있는 구조이다. 병렬 구조에서는 부품이 모두 고장이어야 시스템이 고장이므로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의미의 값인 1에서 두 개의 부품이 모두 고장 날 확률(\*0.1 × \*0.2 =0.02)을 빼서 얻은 0.98이 B의 신뢰도가 된다. 한 부품의 고장이 다른 부품의 신뢰도에 영향을 준다면 이 값 역시 달라진다.

이러한 신뢰도 구조는 물리적 구조와 구분된다. 자동차의 네 바퀴는 물리적 구조상 병렬로 설치되어 있지만, 그중 하나라도 고장 나면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없으므로 신뢰도 구조상으로 직렬 구조인 것이다.

[가]종종 장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중복 설계(重複設計)를 활용하기도 한다. 가령, 순간적인 과전류로부터 섬세한 전자 기구를 보호하는 회로 차단기를 설치할 때에 그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2개를 물리적 구조상 직렬로 연결해야 하는데, 이때 차단기 2개 중 1개라도 정상 작동하면 전자 기구를 보호할 수 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직렬 구조이지만 신뢰도 구조상으로 병렬 구조인 것이다.

**[현장독해]**

- 신뢰도 = 주어진 운용 조건 하에서 의도하는 사용 기간 중에 의도한 목적에 맞게 작동할 확률.

= 뭐 그니까 신뢰와 믿음에 부응하여 역할과 기능을 해냈냐 뭐 그런 건가보지. **[나만의 편한 표현으로 핵심 정리]**

+ 운용 조건, 사용 기간, 목적에 맞게 작동 3가지가 변수. **[조개서 원형파악 : 개념 속에서 변수 찾기. 최상위권]**

- 복잡한 장비를 조개서 그 원형(기반)을 파악한 것이 바로 '하부 시스템'이고, 하부 시스템 구조는 직렬, 병렬이 많다. **[나만의 편한 표현으로 핵심 정리]**

- A직렬 구조 = 경로가 하나 **[개념 정리]**

- '모든' 부품이 '다' 정상 작동'해야' 정상 작동 **[모든 '해야 한다' 등 극단적 표현 주의]**

- 경로가 하나라 하나 고장나면 다 멈춘다는 거지. **[나만의 편한 표현으로 핵심 정리]**

- 부품1 부품2 모두 다 의도한 목적에 맞게 정상 작동해야 하니까, 둘의 신뢰도를 곱해서 0.9 \* 0.8 = 0.72.

- A직렬구조의 신뢰도(=0.72) < 가장 약한 부품(=부품2)의 신뢰도 (=0.8). 그니까 어차피 가장 약한 부품2 고장나면 전체 다 고장나는데, 가장 약한 부품2보다 다른 부품이 먼저 고장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0.8보다는 낮다 이 말인 듯?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의 의미 한번 생각해보기]**

- 병렬 = 경로가 여러 개 vs 직렬 = 경로가 한 개 **[차이점 파악]**

- 부품1 신뢰도가 0.9니까, 부품1이 고장 날 확률 = 1 - 0.9 = 0.1이겠네. 부품2 고장 날 확률은 0.2고, 둘 곱하면 0.02고, 이거 반대인 0.98이 병렬B의 신뢰도.

**[어휘풀이 반드시 독해에 반영] [수식 도출 과정 스스로 해보기]**

- 신뢰도 구조 vs 물리적 구조  
- 자동차 네 바퀴 = 물리적 구조는 병렬 vs 신뢰도 구조는 직렬. 하나라도 고장나면 멈추는 게 직렬, 하나 고장나도 굴러가면 병렬.

**[나만의 편한 표현으로 핵심 정리]**  
- '중복 설계'가 키워드 **[키워드 파악]**

- 차단기 2개 중 1개라도 정상 작동하면 기능 수행 = 병렬.

- 아 똑같은 구조를 2개 설치한다고 해서 '중복'인가보네.

**[전문 용어가 이름지어진 이유 생각해보기]**

- 물리적 구조로는 직렬인데 신뢰도 구조상으로는 병렬. 결과 속이 다르네. 출제할 듯. **[출제요소 예측 : 결과 속 다른 것 주의]**



신뢰도 문제에서 직렬이나 병렬의 구조로 분석할 수 없는 'n 중 k'

구조도 나타난다. 이 구조에서는 모두 n개의 부품 중에 k개만 작동하면 시스템이 정상 가동된다. n겹의 쇠줄로 움직이는 승강기에서 최대 하중을 견디는 데 k겹이 필요한 경우가 그 예이다. 이 구조에서도 부품 간의 상호 작용에 따라 신뢰도가 달라진다.

실제로 대규모 장비에 대한 신뢰도 분석은 대단히 힘들기 때문에 많은 경우 적절한 판단과 근삿값 계산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주어진 장비의 구조 및 운용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어떤 부품이 고장 날 확률 = 1 - (그 부품의 신뢰도)

[문제] 진위판단

- 1. '신뢰도구조'에서 부품 간의 상호 작용 유무에 관계없이 신뢰도는 동일하다. 정답 : ( 참 / 거짓 )
- 2. '신뢰도구조'에서 n = k일 때, 'n 중 k' 구조의 신뢰도는 직렬 구조의 경우와 같아진다. 정답 : ( 참 / 거짓 )
- 3. 원인과 결과가 하나뿐인 직렬 또는 병렬 구조를 적용한 사례 중 '교실 천장에 있는 4개의 형광등에서 깜빡거리는 형광등 1개를 빼내도 3개의 형광등은 켜져 있었다.'는 사례의 신뢰도 구조는 병렬이다. 정답 : ( 참 / 거짓 )
- 4. 원인과 결과가 하나뿐인 직렬 또는 병렬 구조를 적용한 사례 중 '4개의 건전지가 필요한 탁상시계에 3개의 건전지를 넣어도 작동하지 않다가 4번째 건전지를 끼우니 작동하였다.'는 사례의 신뢰도 구조는 병렬이다. 정답 : ( 참 / 거짓 )

- C 'n 중 k구조' vs A직렬 vs B병렬

[차이점 정리]

- n개 중에 1개만 작동하면 정상 가동되는 게 B병렬구조 vs n개 중에 k개만 작동하면 정상 가동되는 게 C n중k구조.

[차이점 정리]

- k겹보다 적으면 그때는 최대 하중 못 견디고 승강기 떨어지긴 한다.  
- 부품 간 상호작용에 따라 신뢰도가 달라진다. 여러 개니까, 같은 k개가 남는다고 해도, k개 중에 뭐가 남는지에 따라서 신뢰도 달라진다?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은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기]

- 네.

[정답 및 해설] 1.거짓, 2.참, 3.참, 4.거짓, 47.㉔, 49.㉑

- 1. 3문단 마지막 문장에 '한 부품의 고장이 다른 부품의 신뢰도에 영향을 준다면 이 값 역시 달라진다.' 6문단 마지막 문장에 'n 중 k구조'에서 '도' 상호 작용에 따라 신뢰도 달라진다. 상호 작용 유무가 신뢰도에 영향 준다는 얘기. 거짓.
- 2. 'n 중 n 구조'라는 거 아니야. n개 부품 중 n개만 작동하면 시스템이 정상 가동 된다는 말은, 결국 부품 모두 다 작동돼야 정상 작동한다는 거네. 그럼 직렬이지. 참.
- 3. 형광등 1개가 없어도, 나머지 3개는 정상 작동. 병렬. 참.
- 4. 건전지 1개가 없으면, 나머지 3개가 정상 작동해도, 전체 탁상시계가 정상 작동 못하네. 직렬. 거짓.

[문제] 47번. <보기>가 ㉠을 고려하여 작성한 카메라 사용 시 주의 사항이라 할 때,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볼 수 없는 것은?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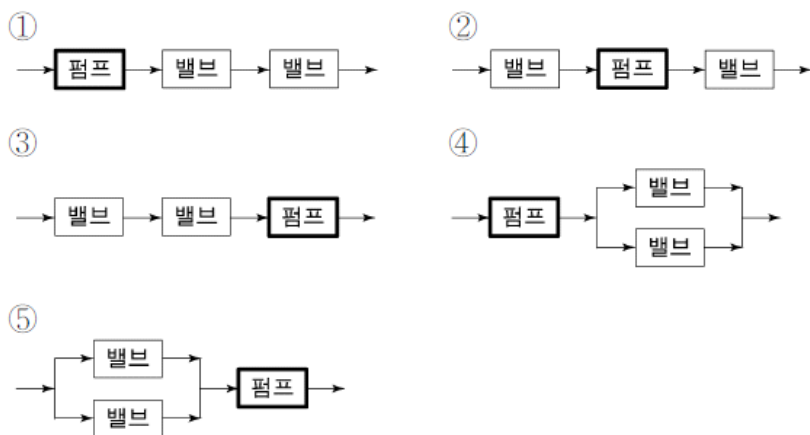
본 카메라를 무상으로 ㉠보증하는 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입니다. 본 카메라는 ㉡0°C~40°C의 온도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직사광선에 정면 노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강한 전파 에너지가 발생하는 곳에서는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카메라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손실된 녹화 내용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정답 : ( ㉠ / ㉡ / ㉢ / ㉣ / ㉤ )

[문제] 49번. [가]에 근거할 때, <보기>의 배수펌프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물리적인 구조는?

하천 인근의 배수펌프 관에는 두 개의 역류 방지용 밸브가 연결되어 있다. 펌프에서 배출된 물이 금방 빠지지 않을 경우 펌프 쪽으로 물이 역류할 우려가 있다. 두 개의 밸브는 '중복설계'된 것이므로 한 개만 작동해도 역류를 막을 수 있다.

\* 단, 역류에 대한 고장만을 생각하고 밸브가 닫힌 채 고장 나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음. ( → : 물이 흘러 나가는 방향)



47. ㉠은 '주어진 운용 조건하에서 의도하는 사용 기간 중에 의도한 목적에 맞게 작동할 확률'이지

- ㉠ 보증 기간 = 의도하는 사용 기간
- ㉡ 온도 = 운용 조건
- ㉢ 직사광선 피해라 = 운용 조건
- ㉣ 강한 전파 에너지 피해라 = 운용 조건
- ㉤ 손실된 녹화 내용 = ㉠ 신뢰도가 깨져서 정상 작동하지 못한 결과로 일어난 일.

[지문-<보기> 표현 중 비슷한 표현 연결해서 이해도 높이기]

- ㉤는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니라, 신뢰도에 따라 정상작동할 확률을 벗어나 정상 작동하지 못해서 일어난 결과잖아. 결과는 영향을 못 주지. 영향을 받았으면 몰라도.

+ ㉡㉢㉣는 비슷해 보인단 말이야. 5지선다 문제는 정답 1개 고르는 거니까, 비슷한 논리와 근거를 가진 선택지들이 동시에 정답이 될 수는 없잖아. 일단 비슷한 거 3개는 지우고 보면, 남는 ㉠랑 ㉤ 중에 하나일 것 같아. ㉠보증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품이 고장 날 확률이라든지 뭐 다른 변수로 고장 날 확률은 높아지지 않을까? 스마트폰 1년 안에는 고장 잘 안 나겠지만, 3년 안에는 한 번은 고장 나던데. ㉠도 신뢰도에 영향을 주긴 줄 것 같으니, 일단 ㉤찍자.

[나만의 예시를 통해 이해도 높이기]

49.

\*배수 : 수원지에서 급수관을 통하여 수돗물을 나누어 보냄. [어휘력]

- 밸브 한 개만 작동해도 역류를 막을 수 있다. 신뢰도 구조 병렬로 지으라는 거고. [보기에서 지문 관련 출제 요소 파악]

- 역류만 안 되게 하면 된다. 역류 막는다고 밸브 닫히면 물이 안 흐를테고 그러면 문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은 생각나도 무시해주라? [출제자의 고충 파악]

① 펌프에서 물 나가서, 밸브 지나쳐서 잘 흘러가다가 역류했을 때, 마지막에 있는 밸브가 막아주고, 마지막 밸브가 못 막아도 가운데 밸브가 막고. 이게 병렬이네. 겉으로는 직렬로 보이는데, 즉 물리적 구조는 직렬처럼 보이는데, 신뢰도 구조는 병렬이네. 정답 ①번인 듯.

[겉 표현·그림과 속의 의미가 다른 것에 주의한다]

② 배수펌프에서 물 내보내는 거잖아. 배수 펌프에서 나온 물의 역류 방지용인데, 밸브가 배수펌프 뒤에 있는 건 이상하지. ②③⑤는 지워도 될 듯?

④ 펌프에서 물 나가고, 밸브 지나쳐서 흘러가다가 역류했을 때, 위에 밸브가 역류 막아도, 아래 밸브가 역류 못 막으면, 역류 못 막는 거잖아. 이건 신뢰도 구조가 직렬이네. 겉으로 보기에 병렬이네. 출제자분이 함정 잘 짰네.

[겉 표현·그림과 속의 의미가 다른 것에 주의한다]



# #173 문학

<보기> 33번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연군 가사는 임금과 떨어진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고 걱정하며 충성심을 드러낸 가사 작품들을 가리킨다. 「속미인곡」은 정철이 정쟁(政爭)으로 인해 관직에서 물러난 후 낙향하였을 때 쓴 연군 가사의 대표적 작품이다.

<보기> 34번 다음은 수업의 일부이다.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가)와 (나)의 인물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 : 시나 수필을 창작할 때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인물 간의 대화로 작품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인물들은 중심 인물과 주변 인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중심 인물은 대화를 주도하며, 작가 의식을 대변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변 인물은 중심 인물의 말을 이끌어내거나 중심 인물을 위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보조적 인물, 중심 인물과 대립하면서 중심 인물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 대립적 인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지문]

(가)

저기 가는 저 각시 본 듯도 하구나  
 천상 백옥경(白玉京)\*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 다 저 저문 날에 누굴 보러 가시는고  
 어와 너로구나 이 내 사설 들어 보오  
 내 얼굴 이 거동이 임 사랑 받을 만할까만  
 어떤 일로 날 보시고 너로다 여기시니  
 나도 임을 믿어 굳뜻이 전혀 없어  
 아양이야 교태야 어지러이 하였더니  
 반기시는 낮빛이 전과 어찌 다르신고  
 누워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헤아리니  
 내 몸의 지은 죄 산같이 쌓였으니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라  
 서러워 풀어 헤아리니 조물\*의 탓이로다  
 그리 생각 마오  
 맺힌 일이 있소이다  
 임을 모셔 있어 임의 일을 내 알거니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일꼬  
 (중략)

반백 푸른 등은 누굴 위하여 밝았는고  
 오르며 내리며 헤매며 오락가락하니  
 어느덧 힘이 다해 풋잠을 잠깐 드니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입을 보니  
 옥 같던 얼굴이 반이 넘게 늙었어라  
 마음에 먹은 말씀 실컷 사뢰자 하니  
 눈물이 이어져 나니 말씀인들 어이 하며  
 정을 못다 풀고 목조차 메어 오니  
 방정맞은 닭 울음에 잠을 어찌 깨었던고  
 어와 허사로다 이 임이 어디 간고  
 바로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불쌍한 그림자 날 좇을 뿐이로다

차라리 사라져 낙월(落月)이나 되어서  
 임 계신 창 안에 번듯이 비추리라  
 각시님 달이야커녕 굶은 비나 되소서

- 정철, 「속미인곡(續美人曲)」 -

\*백옥경 : 옥황상제가 지내는 궁궐.

\*조물 : 조물주.

(나)

손[客]이 주옹(舟翁)에게 물었다.

“그대가 배에서 사는데, 고기를 잡는다 하자니 낚시가 없고, 장사를 한다 하자니 팔 것이 없고, 뱃사공 노릇을 한다 하자니 물 가운데만 있어 오고감이 없구려. 변화불측한 물에 조각배 하나를 띄워 가없는 ㉠넓은 바다를 헤매다가, 바람 미치고 물결 놀라 돛대는 기울고 노까지 부러지면, 정신과 혼백이 흩어지고 두려움에 싸여 목숨이 지척에 있게 될 것이로다. 이는 지극히 험한 데서 위태로움을 무릅쓰는 일이 거늘, 그대는 도리어 이를 즐겨 오래오래 물에 떠가기만 하고 돌아오지 않으니 무슨 재미인가?”

주옹이 대답했다.

“아아, 그대는 생각하지 못하는가? 대개 사람의 마음이란 변덕스러운 것이어서, ㉡평탄한 땅을 디디면 느긋해지고, 험한 지경에 처하면 두려워 조심하는 법이다. 두려워 조심하면 든든하게 살지만, 느긋하면 반드시 흐트러져 위태롭게 되나니, 내 차라리 위험을 딛고서 항상 조심할지언정, 편안한 데 살아 스스로 쓸모없게 되지 않으려 한다. 하물며 내 배는 정해진 풀이 없이 떠도는 것이니, 혹시 무게가 한쪽에 치우치면 그 모습이 반드시 기울어지게 된다.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기울지 않고,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게끔 내가 배 한가운데서 평형을 잡아야만 기울어지지도 뒤집히지도 않아 내 배의 평온을 지킬 수 있다. 비록 ㉢풍량이 거세게 인다 한들 편안한 내 마음을 어찌 흔들 수 있겠는가? 또, 무릇 인간 세상이란 한 거대한 물결이요, 인심(人心)이란 ㉣한바탕 큰 바람이니, 하잘것없는 내 한 몸이 아득한 그 가운데 뒹다 잠겼다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 잎 조각배로 만 리의 부슬비 속에 떠 있는 것이 낫지 않은가? 내가 배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을 보니, 안전한 때는 후환을 생각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느라 나중을 돌보지 못하다가, 마침내는 빠지고 뒤집혀 죽는 자가 많다. 그대는 어찌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나를 위태롭다 하는가?”

- 권근, 「주옹설(舟翁說)」 -

[문제] 진위판단

1. (가)와 (나)는 공통적으로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정답 : ( 참 / 거짓 )
2. (가)와 (나)는 공통적으로 점층적 방식을 활용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정답 : ( 참 / 거짓 )
3. (가)와 (나)는 공통적으로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대상을 예찬하고 있다. 정답 : ( 참 / 거짓 )
4. (가)의 ‘너’는 주변 인물로 ‘그리 생각 마오.’라는 발화로 중심 인물과 대립하고 있다. 정답 : ( 참 / 거짓 )
5. (가)의 ‘너’는 주변 인물로 ‘궂은 비나 되소서’라는 발화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답 : ( 참 / 거짓 )
6. ㉠은 조각배의 돛대를 기울게 하고 노를 부러뜨릴 수 있는 바람과 물결로, ‘주옹’이 위태로움을 느끼는 외적 요인이다. 정답 : ( 참 / 거짓 )
7. ㉡은 욕심을 부리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비유한 것으로, 그들의 삶을 위태롭게 만드는 요인이다. 정답 : ( 참 / 거짓 )

※ 2022년 고1 6모 32 ~ 35번 문학 문제 참조

- 스스로 정답을 정하고, 그 근거도 정리해본 후에, '정답 및 해설'을 보셔야 합니다 -

# #173 정답 및 해설

<보기> 33번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연군 가사는 임금과 떨어진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고 걱정하며 충성심을 드러낸 가사 작품들을 가리킨다. 「속미인곡」은 정철이 정쟁(政爭)으로 인해 관직에서 물러난 후 낙향하였을 때 쓴 연군 가사의 대표적 작품이다.

<보기> 34번 다음은 수업의 일부이다.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가)와 (나)의 인물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 : 시나 수필을 창작할 때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인물 간의 대화로 작품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인물들은 중심 인물과 주변 인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중심 인물은 대화를 주도하며, 작가 의식을 대변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변 인물은 중심 인물의 말을 이끌어내거나 중심 인물을 위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보조적 인물, 중심 인물과 대립하면서 중심 인물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 대립적 인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지문]

(가)

저기 가는 저 각시 본 듯도 하구나  
천상 백옥경(白玉京)\*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 다 저 저문 날에 누굴 보러 가시는고  
어와 너로구나 이 내 사설 들어 보오

내 얼굴 이 거동이 임 사랑 받을 만할까만  
어쩐 일로 날 보시고 너로다 여기시니  
나도 임을 믿어 굳뜻이 전혀 없어  
아양이야 교태야 어지러이 하였더니  
받기시는 낮빛이 전과 어찌 다르신고

누워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헤아리니  
내 몸의 지은 죄 산같이 쌓였으니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라

서러워 풀어 헤아리니 조물\*의 탓이로다  
그리 생각 마오

맺힌 일이 있소이다  
임을 모셔 있어 임의 일을 내 알거니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일꼬

(중략)

반벽 푸른 등은 누굴 위하여 밝았는고  
오르며 내리며 해매며 오락가락하니  
어느덧 힘이 다해 풋잠을 잠깐 드니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임을 보니

### [현장독해]

- 임금에 대한 그리움, 걱정, 충성심.
- 낙향한 후 임금님한테 다시 불러달라고 치트키 쓰시는 거지  
[<보기>에서 지문 독해 시 키워드 파악]

- 인물 간 대화

- 중심 인물 = 작가 의식 대변  
vs 주변 인물 = 보조적 인물 : 중심 인물이 말하는 계기 제공 or 위로와 대안

vs 주변 인물 = 대립적 인물 : 중심 인물과 대립, 문제 제기  
[차이점 보이면 정리]

- '각시'한테 말 걸
- 옥황상제가 지내는 궁궐 왜 떠났니
- 저녁인데 누구 보러 가니?
- '너' = 주변 인물 = <보기>질문해서 '각시'가 말하는 계기 제공  
[지문-<보기> 연결]

- '임' = <보기> '임금'이겠지. 연군 가사니까 [지문-<보기> 연결]
- 임금님의 사랑 받기는 내 얼굴과 행동이 부족한 것 같은데도 날 봐 주셔서 나도 임금님 믿어서, 다른 뜻 없었다.
- 임금님께 아양떨고 교태롭게 어지럽게 했을 뿐인데
- 임금님이 날 반겨주는 모습이 전과 다르다.

[설의적 표현은 평서형으로 바꾸어 그 의도 파악]

- 왜 변하셨는지 생각해보니
- 죄가 많았구나 깨달음
- 내 탓이라 하늘 탓도, 사람 탓도 힘들다

[설의적 표현은 평서형으로 바꾸어 그 의도 파악]

- 서러워서 생각하니 조물주 탓이다.
- 그리 생각 마오 : <보기> 주변 인물 너가 위로 하네  
[서술어의 주체와 대상 엄밀히 파악] [지문-<보기> 연결]

- 맺힌 일이 있어 들어봐 : 중심 인물이 또 얘기
- 임은 내가 잘 알아.
- 임금님 편하신 날 몇 날 없을거야 = <보기> 임금 걱정  
[설의적 표현 평서형으로 바꿔 의도 파악] [지문-<보기> 연결]

- 벽에 등불이 밝혀져 있구나
- 내가 이것저것 하다가
- 지쳐서 잠들었는데
- <보기> 임금님 그리워하는 마음이 커 꿈에서도 임을 보는데  
[지문-<보기> 연결]

옥 같던 얼굴이 반이 넘게 늙었어라  
 마음에 먹은 말씀 실컷 사뢰자 하니  
 눈물이 이어져 나니 말씀인들 어이 하며  
 정을 못다 풀고 목조차 메어 오니  
 방정맞은 닭 울음에 잠을 어찌 깨었던고  
 어와 허사로다 이 임이 어디 간고  
 바로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불쌍한 그림자 날 좇을 뿐이로다  
 차라리 사라져 낙월(落月)이나 되어서  
 임 계신 창 안에 번듯이 비추리라  
 각시님 달이야커녕 곳은 비나 되소서

- 정철, 「속미인곡(續美人曲)」 -

(나)

손[客]이 주옹(舟翁)에게 물었다.

“그대가 배에서 사는데, 고기를 잡는다 하자니 낚시가 없고, 장사를  
 한다 하자니 팔 것이 없고, 뱃사공 노릇을 한다 하자니 물 가운데만  
 있어 오고감이 없구려. 변화불측한 물에 조각배 하나를 띄워 가없는  
 ㉠넓은 바다를 헤매다가, 바람 미치고 물결 놀라 돛대는 기울고 노까  
 지 부러지면, 정신과 혼백이 흩어지고 두려움에 싸여 목숨이 지척에  
 있게 될 것이로다. 이는 지극히 험한 데서 위태로움을 무릅쓰는 일이  
 거늘, 그대는 도리어 이를 즐겨 오래오래 물에 떠가기만 하고 돌아오  
 지 않으니 무슨 재미인가?”

주옹이 대답했다.

“아아, 그대는 생각하지 못하는가? 대개 사람의 마음이란 변덕스러  
 운 것이어서, ㉡평탄한 땅을 디디면 느긋해지고, 험한 지경에 처하면  
 두려워 조심하는 법이다. 두려워 조심하면 든든하게 살지만, 느긋하면  
 반드시 흐트러져 위태롭게 되나니, 내 차라리 위험을 딛고서 항상 조  
 심할지언정, 편안한 데 살아 스스로 쓸모없게 되지 않으려 한다. 하물  
 며 내 배는 정해진 끈이 없이 떠도는 것이니, 혹시 무게가 한쪽에 치  
 우치면 그 모습이 반드시 기울어지게 된다.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기울지 않고,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게끔 내가 배 한가운데서 평형을  
 잡아야만 기울어지지도 뒤집히지도 않아 내 배의 평온을 지킬 수 있  
 다. 비록 ㉢풍량이 거세게 인다 한들 편안한 내 마음을 어찌 흔들 수  
 있겠는가? 또, 무릇 인간 세상이란 한 거대한 물결이요, 인심(人心)이  
 란 ㉣한바탕 큰 바람이니, 하잘것없는 내 한 몸이 아득한 그 가운데  
 떠다 잠겼다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 잎 조각배로 만 리의 부슬비  
 속에 떠 있는 것이 낫지 않은가? 내가 배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을 보  
 니, 안전한 때는 후환을 생각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느라 나중을 돌보  
 지 못하다가, 마침내는 빠지고 뒤집혀 죽는 자가 많다. 그대는 어찌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나를 위태롭다 하는가?”

- 권근, 「주옹설(舟翁說)」 -

- 임금님 늙었더라 <보기> 임금 걱정 [지문-<보기> 연결]
- 임금님 나 할 말 많은데요
- 눈물 나서 말이 안 나오네요
- 목 메어서 말 못했는데
- 닭 울음소리 때문에 꿈 깼네.
- 임금님 어디 가셨어요? 아직 할 말 다 못했는데
- 창문 열고 바라봤는데
- 임금님은 없고 그림자만 있네
- 차라리 내가 죽어서 달빛이라도 돼서
- 임 계신 창가에 비추겠다. <보기> 충성심 [지문-<보기> 연결]
- 달은 힘들 것 같은데 곳은 비라도 되시면 임금님 계신 곳에 내려서  
볼 수 있을 듯. <보기> 주변 인물 대안 제시.

[서술어의 주체와 대상 엄밀히 파악] [지문-<보기> 연결]

- <보기> 주변 인물 '손'이 질문으로 중심 인물의 말 이끌어 냄 [지문-<보기> 연결]
- 너 고기 잡는다면서 낚시 안해, 장사한다면서 파는 것도 없고, 뱃사  
공이라면서 배에서 살면서 물 가운데 앉아만 있네. 너 거기서 뭐함?
- 변화해서 예측이 어렵고, 끝도 없고, 바람 불고 물결 쳐서 배 망가지  
면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는데 그 험한 물에서 위태로움을 무릅쓰고  
심지어 즐기고 왜 계속 있냐?
- > 물에서 아무것도 안하는 건 보통 '위장어부, 겉으로만 어부인 척하  
고 물고기 안 잡고 세월을 낚는 현자' 이런 건데, 여기는 물이 험  
하다고 하니까 물이 '자연'이 아니라 '속세'를 의미하는 듯?

[표현'(나무)+'맥락'(숲)으로 의미 파악]

- 주옹 = <보기> 중심인물 [지문-<보기> 연결]
- ㉡평탄한 땅 -> 느긋 -> 흐트러짐 -> 위태 + 편안한데 살아서 쓸모  
없게 됨
- vs 험한 지경 = ㉠넓은 바다 -> 두렵고 위험해 항상 조심 -> 든든  
하게 삶 = 내가 평형 잡아야 평온 지킬 수 있다.

[차이점 보이면 정리]

- 풍량이 거세게 인다 = 바람 미치고 물결 놀라 = 흐트러져 위태  
vs 내가 평형 잘 잡으면 내 마음 흔들 수 없다

[설의적 표현 평서형으로 바꿔 의도 파악] [차이점 보이면 정리]

- 인간 세상이 물처럼 험해, 사람들 마음도 바람같고. 세상과 인간들에  
게 맞춰서 살려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 내 세상 만들어나가는  
게 낫다 [설의적 표현 평서형으로 바꿔 의도 파악]
- 당장 안전하다고 욕심 부리고, 눈앞에 있는 것만 보다가 결국 망하  
는 사람들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 내 세상에서 홀로 중심 잡아가며 사는 것이 위태로운 게 아니라 그  
렇게 시대 흐름에 맞춰 남들 눈치보가며 안전하게 살려고 하는 게  
더 위험하다. [나만의 편한 표현으로 핵심정리]

[문제] 진위판단

1. (가)와 (나)는 공통적으로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정답 : ( 참 / 거짓 )

2. (가)와 (나)는 공통적으로 점층적 방식을 활용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정답 : ( 참 / 거짓 )

3. (가)와 (나)는 공통적으로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대상을 예찬하고 있다. 정답 : ( 참 / 거짓 )

4. (가)의 '너'는 주변 인물로 '그리 생각 마오.'라는 발화로 중심 인물과 대립하고 있다. 정답 : ( 참 / 거짓 )

5. (가)의 '너'는 주변 인물로 '긷은 비나 되소서'라는 발화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답 : ( 참 / 거짓 )

[정답 및 해설] 1.참, 2.거짓, 3.거짓, 4.참, 5.참, 6.거짓, 7.참

1. (가) '전과 어찌 다르신고', (나) '내 마음을 어찌 흔들 수 있겠는가?'부터 해서 뭐 엄청 많이 나왔지 설의적 표현. 참.

[지문 독해 시에 설의적 표현이 나오면 습관적으로 평서형으로 바꾸어 해석하니까, 설의적 표현이 있었다는 기억이 더 잘 나게 되는 것. 좋은 독해 습관이 정답의 확신성과 풀이 속도를 높임]

2. 점층법 없음.(다수론) [없는 것을 있다고 하면 틀린 것이다]

+ 물론, (가) 각시가 자기 얘기 끝에 죽겠다고 까지 하니,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점점 고조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나)주옹이 자기 얘기하다가 세상 얘기까지 하는 걸 보면 뭔가 확장되는 것 같아 보이구요. 이렇게 글 전체적으로 감정이 고조되고 논의가 확장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출제자분은 점층적 방식을 활용했다고 보지는 않으신 듯합니다. 점층법을 '작품 전체'의 시상 전개 방식으로 보기 다는 '문장 내 혹은 앞뒤 문장 간'에서 쓰는 표현법으로 보신 것 같습니다. 물론 '점층법'의 개념을 폭 넓게 활용해서 시 전체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소수론) 물론 이렇더라도 (가)(나)에서 점층적 시상 전개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짓으로 보는 것이 더 안전했습니다.

※ 점층법

하나의 대상이나 현상에 대하여 단어, 구, 절들이 거듭될수록 문장의 뜻이 단계별로 상승해 나가도록 배열해나가는 수사법. 낮고 작고 약하고 알고 느리고 좁은 표현에서 높게 크게 강하게 깊게 빠르게 넓게 표현이 확대되어 나감.

예) 스스로 잘 수양한 후에야, 집안을 화목하게 할 수 있고, 나아가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되며, 그래야 천하를 평정해 나갈 수 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

예) 한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열 사람을 당하리라. 열은 백을 당하고 백은 천을 당하며, 천은 만을 당하여, 만으로써 천하를 얻으리라.

3. (가) '반벽 푸른 등은 누굴 위하여 밝았는고'에서 '푸른 색'의 시각적 심상, '방정맞은 닭 울음에 잠을 어찌 깨었던고' '울음소리' 청각적 심상, (나) '바람 미치고 물결 놀라 돛대는 기울고 노까지 부러지면' '혹시 무게가 한쪽에 치우치면 그 모습이 반드시 기울어지게 된다.'에서 '모습이 그려지는' 시각적 심상이 나타나지만 이를 통해 대상을 예찬하고 있지는 않지. 등불, 방정맞은 닭 울음, 배의 위태로운 모습 등을 예찬하고 있지는 않음. 거짓.

4. 주변 인물 '너'는 중심 인물 '각시'가 임금님이 변하신 게 내 탓이고 조물주 탓이라고 하자, '그리 생각 마오'라는 말을 건네며 인물에게 '위로'를 건네고 있습니다. '그리 생각 마오'라는 표현 자체(나무)만 보면 대립처럼 보이지만, 이 말이 나온 맥락(숲)을 살피면 중심인물의 한탄에 대한 위로임을 파악 가능. 참.

[숲과 나무를 둘 다 살피, 겉표현과 속의미가 다른 것 파악]

5. '긷은 비나 되소서'(나무)라는 말 앞에 보면(숲), 각시가 죽어서 달빛이 되어 임금님 계신 창에 비출꺼라고 함. 이에 대해 주변 인물 '너'가 '달이야커녕 긷은 비나 되소서'라고 말하니까, 달말고 '비라도' 되라는 것. 달 대신에 대안인 비를 제시하고 있지. 참.

[표현(나무) + 표현 앞뒤(숲) 둘 다 파악]

6. ㉠은 조각배의 돛대를 기울게 하고 노를 부러뜨릴 수 있는 바람과 물결로, '주옹'이 위태로움을 느끼는 외적 요인이다.

정답 : ( 참 / 거짓 )

7. ㉠은 욕심을 부리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비유한 것으로, 그들의 삶을 위태롭게 만드는 요인이다.

정답 : ( 참 / 거짓 )

6. ㉠'풍랑'은 바람과 물결. 조각배의 돛대를 기울게 하고 노를 부러뜨릴 수 있는 외적 요인은 맞지. ㉠'풍랑'이라는 단어 자체(나무)만 보면 위태롭게 할 수 있어 보이지만, 단어가 포함된 문장 전체(숲) '비록 풍랑이 거세게 인다 한들 편안한 내 마음을 어찌 흔들 수 있겠는가?'를 보면, '주옹'이 풍랑으로 인해 위태로움을 느끼지는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음. 거짓.

[표현(나무) + 표현이 속한 문장(숲) 둘 다 파악]

7. 인심은 ㉠'한바탕 큰 바람'이라고 함. 뒤에 '내가 배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을 보니, 안전한 때는 후환을 생각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느라 나중을 돌보지 못하다가, 마침내는 빠지고 뒤집혀 죽는 자가 많다.'고 하네. 결국 편안함 속에서 욕심 부리다 위태롭게 되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큰 바람'인 것. 참.

[표현(나무) + 표현 뒤에 이어지는 내용(숲) 연결해서 파악]

+ 겉으로는 Wind의 의미지만, 속에는 '바람잡이'의 바람, '무슨 바람이 들어서 그런 일을 저질렀니?'의 바람의 의미도 담고 있는 듯.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가는 안국어

## #174 멘토링

열심히 하고 있는 당신을 너무 주눅 들게 하고  
힘 빠지게 만드는 것들은 조금 멀리하세요

요샌 뭘 하든 힘들고, 누구나 다 힘듭니다.  
기존에 정답이라고 여겨지던 것들을 해도 힘들고 안 해도 힘들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각자 엄청난 고충과 스트레스를 참으며 살구요

공부해도 힘들고, 공부 안 해도 힘들어요.  
날 새가면서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성적 안 오르니 답답하죠.  
같이 놀기만 했던 친구가 어디 들어본 대학에라도 원서 쓰는 거 보면 공부 좀 할 껌 후회되구요.

원래 학교를 그냥 다녀도 힘들고, 나와서 N수를 해도 힘들어요.  
이 학교 나와서 뭘 해먹고 살 수나 있을지 걱정부터 앞서는데 어떻게 그냥 다니냐구요.  
그렇다고 매일 10시간씩 공부 그걸 또 해요? 말이야 쉽지 막상 하면 정신 나갈 것 같아요.

일해도 힘들고, 놀아도 힘들어요.  
이제 겨우 서른인데 일하다가 탈모오고 정신과 치료받는데요.  
친구들은 일하면서 돈 모으고 미래 그려나가는데, 나만 집에서 멍하니 있으면 불안해 미쳐요.

결혼 해도 힘들고, 안 해도 힘듭니다.  
개인 시간은 없어지고 책임질 것들이 너무 많아 부담입니다.  
그래도 남들은 하나둘씩 가는데 나만 못가면, 뒤처지는 것 같고 외로워요.

부모님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어요.  
고생고생해가면서 자식한테 다 쏟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싶어요.  
내 사정 내 마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공감 안 되는 얘기만 하니 애들도 듣기 힘듭니다.

자영업자도 힘들고, 공무원도 힘듭니다.  
진상도 많고 비용은 오르기만 하니 사장인데도 노예처럼 일해요.  
공무원 한달 실수령액 180만원 찍히는데 이걸로 한 달 어떻게 사냐구요.

남녀? 아니 지금 남녀노소가 다 힘들어 죽어나가는데,  
남자가 더 힘들다느니 여자가 더 힘들다느니 그런 소리가 남들한테 들리겠냐구요

변호사도 힘들고, 의사도 힘들어요.  
서울권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 시험도 한방에 합격했는데  
교대역 공유 오피스에 사무실 한 칸 겨우 유지하고 있어요.  
어쩔 때는 리트 과외까지 한답니다.  
드라마화도 됐었는데, 웹툰 '내과 박원장' 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보세요. 의사의 삶이 마냥 그렇게 화려하고 행복한지. 아 이건 내과라서 그런 거라구요?  
강남역에 피부과 꽤 크게 하시는 분 계시는데,  
매달 비용으로 몇 억이 코웃음치듯 나가가지고 자기 직원보다도 돈 못 벌 때가 있습니다.

준 재벌급 집안인데도 세상살이가 마냥 쉽지 않습니다.  
수업 중에 애가 갑자기 잡혀 나가요. 할아버님이 입원하셨는데 누구보다 빨리 뵈러 가야된다나 조금이라도 더 갖겠다고, 가족끼리 피말리게 견제하구요.

건물주라고 다 편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친구 아버님 비오는 날 건물 하수구 뚫는다고 옷 다 버리고 얇아 누우셨어요.  
건물 산다고 빌린 대출금 이자가 너무 올라서, 월세보다 이자가 더 나오고 있구요.

좋은 이미지의 유명한 유튜버 분 있는데, 걸려있는 소송만 수십 개입니다.  
변호사 비용 장난 아니고, 서류 날아오는 것들 볼 때마다 돌겠대요.

가히 불확실성과 다양성의 시대입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성공하고 실패하는지 예측하기도,  
나온 결과의 원인을 제대로 설명해내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나이 어리다고 돈 못 버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틱톡이랑 유튜브 쇼츠로 대박 난 친구 있어요.  
이제 막 성인됐는데 저보다도 자기 부모보다도 많이 벌어요.

학력 없다고 못 살거나 조용히 살지 않습니다 요새. 윤루뽀서커?  
주변에 여러분이 부럽다고 생각하는 분들 학력 한번 보세요.

주식·코인 투자해서 벌써 수십 억 벌었다는 대학 동기도 있습니다.  
BMW 타고 다니고 친한 형들이랑 같이 술집 하나 인수해서 놓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이 성공으로 이어질지 안타깝게 실패할지는 정말정말정말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도 완벽하게 확신할 수가 없어진 세상이구요.

그래도 아무것도 안하는 것보다는 열심히 사는 것이 미래가 있으니,  
힘든 거 참아가며 하루하루 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힘겹게 버텨나가고 있는 와중에 옆에 와가지고,  
그딴 거 왜 하고 있냐?  
그런 식으로 하면 절대 성공 못한다.  
그거 해가지고 되겠냐?  
남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넌 왜 그렇게 하냐?  
내가 어디서 들어서 좀 아는데 그렇게 하면 어찌고저찌고

이런 말이나 늘어놓으면서,  
사람 주눅 들게 하고 힘 빠지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진심어린 걱정엔 한두 번 하는 거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극받아야죠.  
근데 뭐 볼 때마다 이딴 소리해서 스트레스 받게 하면요.  
최대한 마주치지 않도록 멀리하면서 본인 하시던 거 더욱 열심히 하십시오.

인생은 마치 기찻길과 같아서, 앞만 보고 달릴 때는 그 길이 굽었는지 고생길인지 알 수 없어요.  
다 해보고 웬만큼 달려본 후에, 뒤돌아보고 나서야 그 길이 어땠는지를 비로소 알 수 있는 겁니다.  
해보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책임하게 내뱉는 말들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시구요.

애초에 없는 정답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하루하루가 힘들겠지만 주눅 들지 않고 파이팅해서,  
각자의 정답을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 #175 문법

### <보기>1

주체 높임법은 문장의 주어인 서술의 주체에 대하여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객체 높임법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곧 서술의 객체에 대하여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의 대상은 문장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생략되기도 한다. 한편, 상대 높임법은 화자가 청자인 상대방에 대하여 높이거나 낮추는 태도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한 문장 안에서도 다양한 높임법이 쓰일 수 있다.

### <보기>2

#### <아들과 아버지의 통화>

아들: ㉠ 아버지, 집에 언제 도착하시나요?

아버지: 무슨 일 있니?

아들: ㉡ 할머니께서 아버지께 전화해 보라고 하셨어요. ㉢ 아버지께 드릴 말씀도 있어서요.

아버지: 그래, 거의 다 왔으니 집에 가서 얘기하자. 그런데 할머니 아직 안 주무시니?

아들: ㉣ 아직 안 주무셔요. ㉤ 방금 어머니께서 할머니 모시고 나가셨어요.

[문제]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주체 높임과 상대 높임의 대상이 같다.
- ② ㉡는 객체 높임과 상대 높임의 대상이 다르다.
- ③ ㉢는 객체 높임과 상대 높임의 대상이 같다.
- ④ ㉣는 주체 높임과 상대 높임의 대상이 다르다.
- ⑤ ㉤는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의 대상이 모두 다르다.

※ 2021년 고1 11월 14번 문법 문제 참조

# #175 정답 및 해설

## <보기>1

주체 높임법은 문장의 주어인 서술의 주체에 대하여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객체 높임법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곧 서술의 객체에 대하여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의 대상은 문장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생략되기도 한다. 한편, 상대 높임법은 화자가 청자인 상대방에 대하여 높이거나 낮추는 태도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한 문장 안에서 다양한 높임법이 쓰일 수 있다.

## <보기>2

### <아들과 아버지의 통화>

아들: ㉠ 아버지, 집에 언제 도착하시나요?

아버지: 무슨 일 있니?

아들: ㉡ 할머니께서 아버지께 전화해 보라고 하셨어요. ㉢ 아버지께 드릴 말씀도 있어서요.

아버지: 그래, 거의 다 왔으니 집에 가서 얘기하자. 그런데 할머니 아직 안 주무시니?

아들: ㉣ 아직 안 주무셔요. ㉤ 방금 어머니께서 할머니 모시고 나가셨어요.

[문제]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주체 높임과 상대 높임의 대상이 같다.
- ② ㉡는 객체 높임과 상대 높임의 대상이 다르다.
- ③ ㉢는 객체 높임과 상대 높임의 대상이 같다.
- ④ ㉣는 주체 높임과 상대 높임의 대상이 다르다.
- ⑤ ㉤는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의 대상이 모두 다르다.

## [현장독해]

- 언매 함정 조심 [내가 익히 아는 문법 지식과 다른 함정 찾기]

- 주체 = 서술어의 주체인 주어를 높이는
- vs 객체 = 서술어의 객체인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 생략 가능
- 상대 = 청자(vs화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차이점 중심으로 정리]

## [출제자의 표현을 내가 아는 익숙한 문법 개념으로 정리]

- 문제 보면서 푸는 게 나을 듯. 밑줄 앞뒤보면서 맥락 파악은 해야겠지.

## [정답 및 해설] ②번

- 높임법 문제는 '서술어의 주체와 대상, 발화의 주체와 대상인 청자 파악'하면 풀려 [서술어의 주체와 대상을 엄밀하게 파악한다]

- ① 서술어 '도착하시나요'의 주체 '아버지' 주체 높임, 청자 아버지 상대 높임. 둘 다 아버지.
- ② 서술어 '전화해 보다'의 객체 '아버지께' 객체 높임, 청자 아버지 상대 높임. 둘 다 아버지로 같은데 다르다고 했으므로, 거짓. 정답②번.
- ③ (관형절로 안긴문장 '내가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다'의) 서술어 '드릴'의 객체 '아버지께' 객체 높임, 청자 아버지 상대 높임. 둘 다 아버지. [문장의 짜임 쪼개서 안긴문장의 원형파악]
- ④ (앞선 아버지의 질문 '그런데 할머니 아직 안 주무시니?'에 대답하는 맥락 상) 서술어 '주무셔요'의 주체 할머니 주체 높임, 청자 아버지 상대 높임. 할머니와 아버지는 다름 [발화문장(나무) 주위의 대화 맥락(숲), 숲과 나무 파악]
- ⑤ 서술어 '나가셨어요'의 주체 어머니 주체 높임, 서술어 '모시고'의 객체 할머니 객체 높임, 청자 아버지 상대 높임. 어머니, 할머니, 아버지 모두 다름

★★★ 좋은 풀이 습관 : 서술어의 주체와 대상을 엄밀히 파악한다 ★★★

높임법 헛갈리시는 분들은, 우선 문장에서 '서술어'부터 찾아보세요. 그리고 서술어의 주체와 대상이 누구인지를 파악해보는 것입니다. 해당 서술어의 주체 대상이 높여야할 분이면 높임법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버지, 집에 언제 도착하시나요?

- 서술어 '도착하시나요'를 먼저 찾고, 누가 도착하는지를 찾아보면 주체 높임의 대상 '아버지'가 파악될 겁니다.

㉢할머니께서 아버지께 전화해 보라고 하셨어요.

- 서술어 '전화해 보다'를 먼저 찾고, 누가 전화하는지 찾아보면 주체 '아들'이 파악되고, 누구에게 전화하는지 찾아보면 객체 높임의 대상 '아버지'가 파악될 겁니다.

- 서술어 '하셨어요'를 찾고, 누가 하신건지 찾아보면 주체 높임의 대상 '할머니'가 파악될 겁니다.

㉣아버지께 드릴 말씀도 있어서요.

- 서술어 '있어서요'를 먼저 찾고, 무엇이 있는건지 찾아보면 주체 '말씀'이 파악될 겁니다.

- 서술어 '드리다'를 찾고, 누가 말씀을 드리는지 찾아보면 주체 '아들'이 파악되고, 누구에게 말씀을 드리는지 찾아보면 객체 높임의 대상 '아버지'가 파악될 겁니다.

㉤아직 안 주무셔요.

- 서술어 '주무셔요'를 먼저 찾고, 누가 주무시는지 찾아보면 주체 높임의 대상 '할머니'가 파악될 겁니다.

㉥방금 어머니께서 할머니 모시고 나가셨어요.

- 서술어 '나가셨어요'를 먼저 찾고, 누가 나가신건지 찾아보면 주체 높임의 대상 '어머니'가 파악될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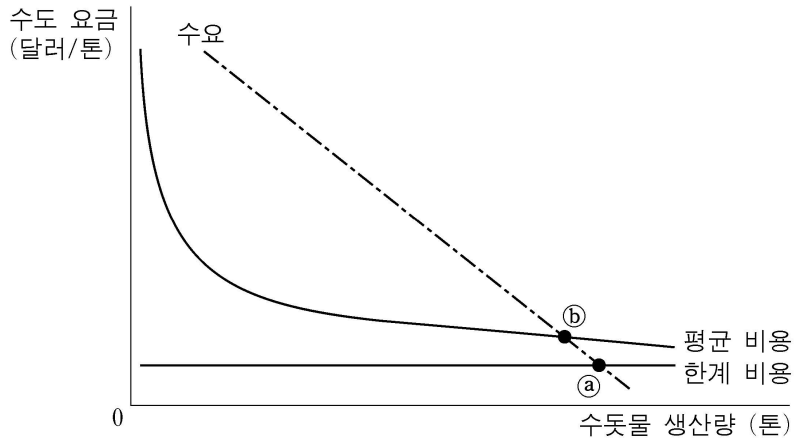
- 서술어 '모시고'를 찾고, 누가 모시는지 찾아보면 주체 '어머니'가 파악되고, 누구를 모시는지 찾아보면 객체 높임의 대상 '할머니'가 파악될 겁니다.

+ 상대 높임법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장을 말한 발화자와 해당 문장을 듣는 청자의 관계를 찾아보세요. ㉠㉢㉣㉤㉥ 모두 화자 아들이 청자 아버지께 말하는 문장이니 상대 높임법이 쓰였고, 상대 높임의 대상은 모두 아버지입니다.



# #176 비문학

<보기> 36번



[지문]

경제학에서는 가격이 한계 비용과 일치할 때를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고 본다. ‘한계 비용’이란 재화의 생산량을 한 단위 증가시킬 때 추가되는 비용을 말한다. 한계 비용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정해지면 재화의 생산 과정에 들어가는 자원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며, 이때 사회 전체의 만족도가 가장 커진다.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인해 수요량이 줄면서 거래량이 따라 줄고, 결과적으로 생산량도 감소한다. 이는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사회 전체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낳는다.

위에서 설명한 일반 재화와 마찬가지로 수도, 전기, 철도와 같은 공익 서비스도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생각하면 한계비용 수준으로 가격(=공공요금)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공익 서비스는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은 막대한 반면 한계 비용은 매우 적다. 이러한 경우, 한계 비용으로 공공요금을 결정하면 공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손실을 볼 수 있다.

[A]예컨대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이 6억 달러이고, 톤당 1달러의 한계 비용으로 수돗물을 생산하는 상수도 서비스를 가정해 보자. 이때 수돗물 생산량을 ‘1톤, 2톤, 3톤, …’으로 늘리면 총비용은 ‘6억 1달러, 6억 2달러, 6억 3달러, …’로 늘어나고, 톤당 평균 비용은 ‘6억 1달러, 3억 1달러, 2억 1달러, …’로 지속적으로 줄어든다. 그렇지만 평균 비용이 계속 줄어든더라도 한계 비용 아래로는 결코 내려가지 않는다. 따라서 한계 비용으로 수도 요금을 결정하면 총비용보다 총수입이 적으므로 수도 사업자는 손실을 보게 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부가 공익 서비스 제공 기업에 손실분만큼 보조금을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공요금을 평균 비용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보조금을 세금으로 충당한다면 다른 부문에 들어갈 자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 평균 비용 곡선과 수요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요금을 정하는 후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과 총비용이 같아져 기업이 손실을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요금이 한계 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문제가 생긴다.

[문제] 35.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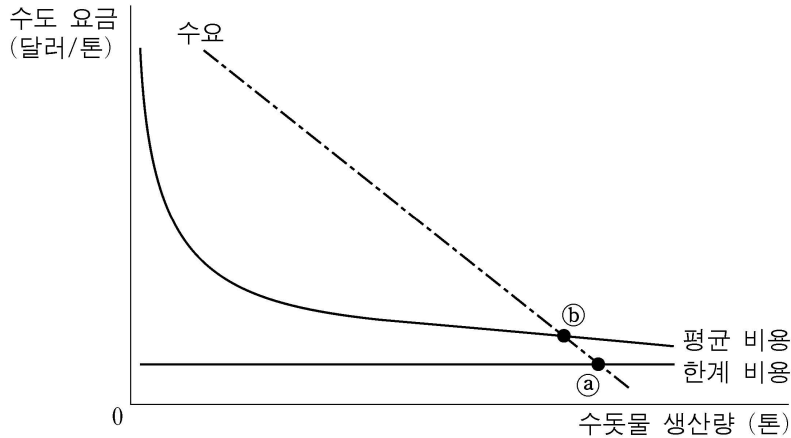
- 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때 사회 전체의 만족도가 극대화된다
- ②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높은 경우에는 한계 비용과 같은 경우에 비해 결국 그 재화의 생산량이 줄어든다.
- ③ 공익 서비스와 일반 재화의 생산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조건은 서로 같다.
- ④ 정부는 공공요금을 한계 비용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보조금 정책을 펼 수 있다.
- ⑤ 평균 비용이 한계 비용보다 큰 경우, 공공요금을 평균 비용수준에서 결정하면 자원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문제] 36. <보기>는 [A]의 내용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위 글과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에서 수도 요금을 결정하면 수도 사업자는 손실을 본다.
- ② ㉠에서 수도 요금을 결정하면 수도 요금은 톤당 1달러이다
- ③ ㉢에서 수도 요금을 결정하면 수도 사업자의 총수입과 총비용은 같다.
- ④ 수돗물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의 격차가 줄어든다.
- ⑤ 요금 결정 지점이 ㉠에서 ㉢로 이동하면 사회 전체의 만족도는 증가한다

# #176 정답 및 해설

<보기> 36번



### [지문]

경제학에서는 가격이 한계 비용과 일치할 때를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고 본다. ‘한계 비용’이란 재화의 생산량을 한 단위 증가시킬 때 추가되는 비용을 말한다. 한계 비용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정해지면 재화의 생산 과정에 들어가는 자원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며, 이때 사회 전체의 만족도가 가장 커진다.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인해 수요량이 줄면서 거래량이 따라 줄고, 결과적으로 생산량도 감소한다. 이는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사회 전체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낳는다.

위에서 설명한 일반 재화와 마찬가지로 수도, 전기, 철도와 같은 공익 서비스도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생각하면 한계비용 수준으로 가격(=공공요금)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공익 서비스는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은 막대한 반면 한계 비용은 매우 적다. 이러한 경우, 한계 비용으로 공공요금을 결정하면 공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손실을 볼 수 있다.

[A]예컨대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이 6억 달러이고, 톤당 1달러의 한계 비용으로 수돗물을 생산하는 상수도 서비스를 가정해 보자. 이때 수돗물 생산량을 ‘1톤, 2톤, 3톤, ...’으로 늘리면 총비용은 ‘6억 1달러, 6억 2달러, 6억 3달러, ...’로 늘어나고, 톤당 평균 비용은 ‘6억 1달러, 3억 1달러, 2억 1달러, ...’로 지속적으로 줄어든다. 그렇지만 평균 비용이 계속 줄어든더라도 한계 비용 아래로는 결코 내려가지 않는다. 따라서 한계 비용으로 수도 요금을 결정하면 총비용보다 총수입이 적으므로 수도 사업자는 손실을 보게 된다.

### [현장독해]

- [문제]에 그림 나왔네. 지문에서 한계 비용, 평균 비용, 수요 이런 거 나올 때, [A] 부분 읽을 때 같이 보자.

[<그림>-지문 연결해 지문 이해도 높이기]

- ‘가장’ 이상적: 가격 = 한계비용  
[최상급표현 주의] [개념 도식화해서 정리]
- 한계 비용=재화의 생산량을 한 단위 증가시킬 때 추가되는 비용.  
<그림>에서 X축에 수평인 거. 수돗물 한 톤 더 생산할 때 일정하게 추가되는 [<그림>-지문 연결]
- 한계 비용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지점 = @에서 가격 정해짐  
[<그림>-지문 연결해 지문 이해도 높이기]
- 가격 = 한계 비용 : @네. 자원 효율적 배분, 사회 만족도 커짐  
vs 가격 > 한계 비용 : 높은 가격 -> 수요량 감소 -> 거래량 감소 -> 생산량 감소 = 비효율적 배분, 사회 만족도 감소

[비례관계 정리] [차이점 정리]

- <그림> 수도
- <그림> 수돗물 생산량이 0일 때 평균 비용 봐봐. 천장 뚫리겠어 아주 = 초기 시설투자비용 막대 [<그림>-지문 연결해 읽기]
- vs 한계 비용 : 평균 비용에 비해서는 한계 비용 매우 적은거지
- 한계 비용으로 공공요금 결정하면 기업이 손실? 왜지? 1문단에서는 한계비용과 가격이 일치할 때 이상적이고 효율적이고 만족도 높다며? 일단 넘어가자.

[바로 이해 안 되면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넘어가기]

- 예시 들어주네. 다행.
- 총비용 = 6억 + 1톤 1달러 2톤 2달러 3톤 3달러 이렇게.
- 톤당 평균 비용 = <그림> 평균비용이네. 1톤 생산하면 6억 1달러, 2톤 생산하면 3억 1달러. 왜? ‘6억 2달러’를 ‘2톤’으로 나누면 ‘3억 1달러’ [출제자 표현의 이유 생각해보기]
- <그림>에서 생산량 늘 때마다 평균비용 확 떨어지는. <그림> 생산량 늘어서 평균비용 아무리 줄어도 한계비용보단 높네 [<그림>-지문 연결해 읽기]
- 생산량 아무리 늘려도 평균비용이 한계비용보다 높는데 가격을 한계 비용으로 정해버리면 사업자 손실나겠지. 이러니까 아까 한계 비용으로 공공요금 결정하면 공익 서비스 기업 손실본다.

[앞에서 이해 못하고 넘어간 내용, 뒤 정보 추가해서 이해]

- 어거 요새 ‘한전’ 적자 얘거? [나만의 예시로 이해도 높이기]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부가 공익 서비스 제공 기업에 손실분만큼 보조금을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공요금을 평균 비용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보조금을 세금으로 충당한다면 다른 부문에 들어갈 재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 평균 비용 곡선과 수요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요금을 정하는 후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과 총비용이 같아져 기업이 손실을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요금이 한계 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문제가 생긴다.

[문제] 35.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때 사회 전체의 만족도가 극대화된다
- ②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높은 경우에는 한계 비용과 같은 경우에 비해 결국 그 재화의 생산량이 줄어든다.
- ③ 공익 서비스와 일반 재화의 생산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조건은 서로 같다.
- ④ 정부는 공공요금을 한계 비용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보조금 정책을 펼 수 있다.
- ⑤ 평균 비용이 한계 비용보다 큰 경우, 공공요금을 평균 비용수준에서 결정하면 자원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문제] 36. <보기>는 [A]의 내용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위 글과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에서 수도 요금을 결정하면 수도 사업자는 손실을 본다.
- ② ㉠에서 수도 요금을 결정하면 수도 요금은 톤당 1달러이다
- ③ ㉡에서 수도 요금을 결정하면 수도 사업자의 총수입과 총비용은 같다.
- ④ 수도물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의 격차가 줄어든다.
- ⑤ 요금 결정 지점이 ㉠에서 ㉡로 이동하면 사회 전체의 만족도는 증가한다

- 싸게 팔아서 기업 손해 보게 하는 대신 정부가 메꿔 준다.
- vs 가격을 올린다 [나만의 편한 표현으로 핵심 정리] [차이점 정리]
- 전자 = 정부가 세금으로 메꾸면, 다른데 세금 못 쓴다
- vs 평균-수요 교차점 = ㉠가 아니라 ㉡로 정한다 = 후자 = 기업이 손실은 안 보겠지 [지문 앞 표현, <그림>과 연결해 읽기]
- [전자, 후자 등 표현의 의미를 지문 앞 표현 활용해 구체화]
- ㉡는 비효율적 자원 배분이라는 단점

[정답 및 해설] 35. ㉡번, 36. ㉡번

- ① ㉠지점에서 자원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며, 이때 사회 전체의 만족도가 가장 커진다(=만족도 극대화)  
[지문-<그림>-선택지 연결해 정답의 확신성 높이기]
- ② 높은 가격 -> 수요량 감소 -> 거래량 감소 -> 생산량 감소  
[지문 독해하며 비례 관계 정리한 그대로 출제, 짝꿍]
- ③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조건 = 수요와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가격 결정  
[지문-<그림>-선택지 연결해 정답의 확신성 높이기]
- ④ 한계 비용 수준으로 싸게 팔아서 기업 손해 보게 하는 대신 정부가 메꿔 준다.
- ⑤ 공공요금을 평균 비용 수준에서 결정 = 한계 비용 수준에서 결정 안 한다 = 효율적 자원 배분 안 된다. 자원 낭비 됨. 방지 못함.  
[반대의 경우를 떠올려 보기]

- ① ㉠지점 = 한계비용으로 수도 요금 결정 = 사업자 손실
- ② ㉠지점 = 한계비용으로 수도 요금 결정 = 톤당 1달러
- ③ ㉠지점 = 한계비용으로 수도 요금 결정 = 총비용보다 총수입이 적음  
vs ㉡지점은 총비용과 총수입이 같겠네. [반대적 사고]
- ④ 생산량이 0일 때는 평균 비용 천장 뚫을 것 같았는데 생산량 증가할수록 평균 비용 줄어들어서 한계 비용에 가까워지네. 격차는 줄어들지 참. [지문-<그림>-선택지 연결해 정답의 확신성 높이기]
- ⑤ ㉠지점 = 한계비용으로 수도 요금 결정 =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 사회 전체 만족도 극대화. 35번에 1번 선택지. ㉡로 이동하면 전체 만족도 감소. [앞에 참인 선택지 활용]





<보기> 20번

(가), (나)의 화자는 특정한 대상에 대한 인식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대상에 공감한다. (가)의 화자는 병원에서 본 ‘여자’의 모습에 주목하고 ‘여자’의 아픔에 비추어 자신의 처지를 성찰하며 ‘여자’가 지닌 치유에 대한 소망에 공감한다. (나)의 화자는 여행 중에 만난 ‘나무’들의 모습에 주목하고 ‘나무’들에 비추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며 ‘나무’들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정서에 공감한다. 이를 통해 (가), (나)의 화자는 대상과의 동질성을 확인한다.

[지문]

(가)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뒤뜰에 누워, 젊은 여자가 흰 옷 아래로 하얀 다리를 드러내 놓고 일광욕을 한다. 한나절이 기울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를 찾아오는 이, 나비 한 마리도 없다.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 가지에는 바람조차 없다.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화단에서 금잔화 한 포기를 따 가슴에 꽂고 병실 안으로 사라진다.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 - 아 니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 본다.

- 윤동주, 「병원」-

(나)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어느 들판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한 그루 늙은 나무를 만났다. 수도승일까. 묵중하게 서 있었다.

다음날은 조치원에서 공주로 가는 어느 가난한 마을 어귀에 그들은 떼를 쥘 몰려 있었다. 멍청하게 몰려 있는 그들은 어설픈 과객일까. 몹시 추워 보였다.

공주에서 온양으로 우회하는 뒷길 어느 산마루에 그들은 멀리 서 있었다. 하늘 문을 지키는 파수병일까, 외로워 보였다.

온양에서 서울로 돌아오자,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내 안에 뿌리를 펴고 있었다. 묵중한 그들의. 침울한 그들의. 아아 고독한 모습. 그 후로 나는 뽑아낼 수 없는 몇 그루의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

- 박목월, 「나무」-

[문제] 19.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물의 역동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일상을 벗어난 공간과 대비하여 일상의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사물의 속성을 분석하여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변주하여 사물이 연상시키는 의미를 심화하고 있다.
- ⑤ (가)는 현재형 시제로 계절의 상징성을, (나)는 과거형 시제로 시간에 따른 사물의 변화상을 보여 주고 있다.

[문제] 20. <보기>의 관점에서 (가), (나)의 ‘화자와 대상의 관계’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의 화자는 ‘병원 뒤뜰’에 누워있는 ‘여자’를 관찰함으로써, (나)의 화자는 여로에서 만난 ‘나무’를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대상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가)의 화자는 찾는 이가 없는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의 처지에, (나)의 화자는 ‘나무’에게서 본 ‘수도승’, ‘과객’, ‘파수병’의 모습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있다.
- ③ (가)의 화자는 ‘젊은이의 병’을 모르는 ‘늙은 의사’에 대한 원망을 ‘여자’와 공유함으로써, (나)의 화자는 ‘멀리 서 있’는 ‘나무’들의 위치를 확인함으로써 대상과 자신의 거리를 좁히려 하고 있다.
- ④ (가)의 화자는 ‘금잔화 한 포기’를 꽃고 병실로 들어가는 ‘여자’에게서 ‘회복’에 대한 소망을 읽어 냄으로써, (나)의 화자는 ‘나무’들이 ‘외로워 보였다’고 표현함으로써 대상에 공감하고 있다.
- ⑤ (가)의 화자는 ‘그가 누웠던’ 곳에 ‘누워 본다’고 함으로써, (나)의 화자는 ‘뽑아낼 수 없’는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고 함으로써 대상과 자신의 동질성을 드러내고 있다.

※ 2017학년도 2016년 고3 9평 19 ~ 20번 문학 지문 참조

# #177 정답 및 해설

## <보기> 20번

(가), (나)의 화자는 특정한 대상에 대한 인식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대상에 공감한다. (가)의 화자는 병원에서 본 '여자'의 모습에 주목하고 '여자'의 아픔에 비추어 자신의 처지를 성찰하며 '여자'가 지닌 치유에 대한 소망에 공감한다. (나)의 화자는 여행 중에 만난 '나무'들의 모습에 주목하고 '나무'들에 비추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며 '나무'들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정서에 공감한다. 이를 통해 (가), (나)의 화자는 대상과의 동질성을 확인한다.

## [지문]

### (가)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뒤뜰에 누워, 젊은 여자가 흰 옷 아래로 하얀 다리를 드러내 놓고 일광욕을 한다. 한나절이 기울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를 찾아오는 이, 나비 한 마리도 없다.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 가지에는 바람조차 없다.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화단에서 금잔화 한 포기를 따 가슴에 꽂고 병실 안으로 사라진다.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 - 아니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 본다.

- 윤동주, 「병원」-

### (나)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어느 들판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한 그루 늙은 나무를 만났다. 수도승일까. 묵중하게 서 있었다.

다음날은 조치원에서 공주로 가는 어느 가난한 마을 어귀에 그들은 떼를 지어 몰려 있었다. 멍청하게 몰려 있는 그들은 어설픈 과객일까. 몹시 추워 보였다.

공주에서 온양으로 우회하는 뒷길 어느 산마루에 그들은 멀리 서 있었다. 하늘 문을 지키는 파수병일까, 외로워 보였다.

온양에서 서울로 돌아오자,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내 안에 뿌리를 펴고 있었다. 묵중한 그들의. 침울한 그들의. 아아 고독한 모습. 그 후로 나는 뽑아낼 수 없는 몇 그루의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

- 박목월, 「나무」-

## [현장독해]

- (가) 병원의 여자, 여자의 아픔, 자기 성찰, 여자가 지닌 치유에 대한 소망.
- (나) 나무, 자기 성찰, 나무들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정서.

- 화자와 대상과의 동질성.

[<보기> 먼저 읽으면서 지문 독해 시 파악할 표현 찾기]

- 병원에서 바람 쐬러 나온 여자. 흰색의 색채이미지.
- 아무도 여자 안 찾아옴. 외로움. <보기> 여자의 (또 다른) 아픔 = 바람조차 없는 살구나무 가지 = 찾아오는 이 없는 여자. 여자의 처지를 자연물에 빗대어 암시.

- 나'도' = <보기> 자기 성찰.

- 젊은이 = 나 [의미는 같은데 표현만 다른 것 연결]

- 아픔 = 병 = 지나친 시련 = 지나친 피로.

- 화가 나지만 화내면 안 된다. 이것 자체가 아픔인지, 아픔을 이겨내기 위한 다짐인지. 둘 다려나.

- 금잔화 한 포기 가슴에 꽂고 = <보기> 여자가 지닌 치유에 대한 소망 [<보기>-지문 연결해 읽기]

- 여자와 나의 건강 회복 기원 = <보기> 여자의 소망에 공감

- 여자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 본다 = <보기> 화자와 대상의 동질성

[<보기>-지문 연결해 읽기]

- 늙은 나무 = 수도승 = 묵중하게 서 있음 = <보기> 나무 모습

[의미 같은데 표현 다른 것 연결] [<보기>-지문 연결해 읽기]

- 그들 = 나무들 = 떼를 지어 몰려 있음 = 과객 = 추워 보임

= <보기> 나무 모습

- 그들 = 나무들 = 멀리 서 있음 = 파수병 = 외로워 보임

= <보기> 나무 모습

- 그들 = 나무들 = 내 안에 = <보기> 자신의 내면 성찰

- 묵중함, 침울한, 고독한 = <보기> 나무들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정서

[<보기>-지문 연결해 읽기]

- 나무를 기르게 된 나 = <보기> 화자와 대상의 동질성

[<보기>-지문 연결해 읽기]

[문제] 19.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물의 역동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일상을 벗어난 공간과 대비하여 일상의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사물의 속성을 분석하여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변주하여 사물이 연상시키는 의미를 심화하고 있다.
- ⑤ (가)는 현재형 시제로 계절의 상징성을, (나)는 과거형 시제로 시간에 따른 사물의 변화상을 보여 주고 있다.

[문제] 20. <보기>의 관점에서 (가), (나)의 '화자와 대상의 관계'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의 화자는 '병원 뒤뜰'에 누워있는 '여자'를 관찰함으로써, (나)의 화자는 여로에서 만난 '나무'를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대상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가)의 화자는 찾는 이가 없는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의 처지에, (나)의 화자는 '나무'에게서 본 '수도승', '과객', '파수병'의 모습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있다.
- ③ (가)의 화자는 '젊은이의 병'을 모르는 '늙은 의사'에 대한 원망을 '여자'와 공유함으로써, (나)의 화자는 '멀리 서 있는' '나무'들의 위치를 확인함으로써 대상과 자신의 거리를 좁히려 하고 있다.
- ④ (가)의 화자는 '금잔화 한 포기'를 꽃고 병실로 들어가는 '여자'에게서 '회복'에 대한 소망을 읽어 냄으로써, (나)의 화자는 '나무'들이 '외로워 보였다'고 표현함으로써 대상에 공감하고 있다.
- ⑤ (가)의 화자는 '그가 누웠던' 곳에 '누워 본다'고 함으로써, (나)의 화자는 '뽑아낼 수 없'는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고 함으로써 대상과 자신의 동질성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및 해설] 19.④번, 20.③번

- ① (가)는 1연 첫 문장에 흰색의 색채이미지 썼고, (나)는 나무들의 모습은 시각적 이미지로 잘 드러냈는데 색채...가... 없네. 그리고 (가)도 '여자'의 모습을 '사물'의 역동성이라고 하면 안 됨.  
**[없는 것을 있다고 하면 틀림] [사물 vs 사람]**
  - ② (가) 병원이 일상을 벗어난 공간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일상과 대비되어 표현되었다고 보기 애매하네. 나) 역시 '일상' 얘기 위주가 아니라, 일상을 벗어난 나무들의 공간 위주. (가)(나) 모두 일상을 벗어난 공간 위주 얘기를 하지, 일상과 공간을 대비하는 건 없다.  
**[없는 것을 있다고 하면 틀림]**
  - ③ (가)에 '사물'은 살구나무, 금잔화 정도. 살구나무 가지에 바람조차 없는 게 속성이라고 쳐도 이걸 현재 부정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 것. 금잔화는 속성 분석 없고. 오히려 (나)가 '사물'인 나무들의 속성을 분석하여, 현재 자기 내면 성찰.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 제시는 틀리고. 뭐로 보나 다 틀리다.
  - ④ (나)는 '수도승일까' '과객일까' '파수병일까'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 여러 개, 즉 변주해서 나무들의 의미 즉 내면의 묵중함, 침울함, 고독함 심화. (가)에 추측의 표현 없고, '사물' 금잔화가 연상시키는 여자의 회복 소망같은 의미는 있는데 표현이 없으니 의미 심화도 없다. (나)맞고 (가)틀림. 정답④번
  - ⑤ (가) 현재형은 맞는데, 현재형으로 '계절?'이 드러나는 건 없네. 그래서 봄여름가을겨울 중에 뭐냐고. '살구나무' '금잔화'가 무슨 계절을 상징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애매. (나) 과거형 시제는 맞지. 유성-조치원-온양-공주-서울 등 여정의 진행에 따른 시간 변화는 있는데, 시간 변화에 따라 사물인 나무가 변화한 게 아니라, 여정에서 마주친 다른 나무들 각각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는 게 낫지.  
**[없는 것을 있다고 하면 틀림]**
- 
- ① (가) 여자 관찰, (나) 여로 = 여정? 여행길?인 듯. 나무 반복 제시 맞고. 참  
**[유의어를 통한 어휘 의미 추론]**
  - ② (가) 여자 처지에서 <보기> 자기 성찰, (나) 나무 모습에서 <보기> 내면 성찰[<보기>-지문-선택지 표현 연결해 정답의 확신성 높이기]
  - ③ (가) 여자랑 '공유'하는 거 없고, 여자랑 같이 와사 원망하고 그런 거 없어. ①번처럼 여자 관찰할 뿐이지. (나) '멀리 서 있는 나무들'의 위치는 뒷길 어느 산마루인데, 이걸로 대상과 자신의 거리를 좁히려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온양 가는 길에 보면서 지나친 것. 거짓. 정답 ③번. **[앞 선택지 활용] [없는 것을 있다고 하면 틀림]**
  - ④ (가) 회복에 대한 소망 = <보기> 치유에 대한 소망. 이후 지문 '건강 회복을 기원하니 공감 맞고'. (나) 3연에 '외로워 보였다'고 표현. 이후 지문 '내 안에 뿌리를 펴고 있으니' 공감 맞고  
**[<보기>-지문-선택지 표현 연결해 정답의 확신성 높이기]**
  - ⑤ (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 봄, (나) 뽑아낼 수 없는 나무를 기르게 됨. <보기> 대상인 (가) 여자, (나) 나무들과 자신의 동질성 맞지  
**[<보기>-지문-선택지 표현 연결해 정답의 확신성 높이기]**



# #178 화법

<지문> 다음은 강연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식품 안전 연구소의 ○○○입니다. 여러분은 식품을 구매할 때 식품 포장지에서 어떤 정보를 주로 보시나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네, 주로 영양 성분을 보시는군요. 하지만 식품 포장지에는 영양 성분 외에도 유익한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식품 포장지의 표시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식품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보게 되는 주표시면입니다. 이렇게 주표시면에는 제품명과 내용량 및 열량, 그리고 상표 등이 표시돼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데요. 제품명에 ‘향’ 자가 보이시나요? 제품명에 특정 맛이나 향이 표시되어 있고 그 맛이나 향을 내기 위한 원재료로 합성 향료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복숭아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합성 향료가 첨가되었다는 문구도 제품명 주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화면을 보시죠. (㉡자료 제시) 이 화면은 다른 식품의 주표시면인데, 여기에서는 어떤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제품명을 보고 소고기만으로 만든 식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아래 쪽을 보시면, 소고기와 함께 돼지고기도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식품과 같이 식육가공품은 가장 많이 사용한 식육의 종류를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식품에 포함된 모든 식육의 종류와 함량이 주표시면에 표시되어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자료 제시) 이 화면은 앞서 보신 식품 포장지의 다른 면을 확대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식품유형, 원재료명, 유통기한, 주의사항 등 다양한 정보가 있는데요. 이렇게 표시사항을 한데 모아 표시한 면을 정보표시면이라고 합니다. 이 중 일부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바탕색과 다르게 표시된 부분이 보이시죠? 이곳은 알레르기 표시란인데요.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됩니다. 또한 식품에 사용된 원재료가 아니어도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섞여 들어갈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혼입될 수 있다는 의미의 주의사항 문구가 쓰여 있으니 특정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유의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날짜 표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원재료명 아래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앞으로는 식품을 유통할 수 있는 기한인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됩니다. 소비기한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했을 때 식품을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 그러니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에 신경 쓰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식품 포장지의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식품을 잘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문제] 2번 다음은 위 강연자가 제시한 자료이다. 강연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table border="1"> <tr> <td>식품유형</td> <td>분쇄가공육</td> </tr> <tr> <td rowspan="2">원재료명</td> <td>소고기 00%</td> </tr> <tr> <td>돼지고기 00%</td> </tr> <tr> <td></td> <td>대추 ⋮ 소고기, 돼지고기, 밀 함유</td> </tr> <tr> <td>유통기한</td> <td>2022. XX. XX. 까지</td> </tr> <tr> <td>주의사항</td> <td>대두, 우유 혼입 가능 -18℃ 이하 냉동 보관 ⋮</td> </tr> </table>	식품유형	분쇄가공육	원재료명	소고기 00%	돼지고기 00%		대추 ⋮ 소고기, 돼지고기, 밀 함유	유통기한	2022. XX. XX. 까지	주의사항	대두, 우유 혼입 가능 -18℃ 이하 냉동 보관 ⋮
식품유형	분쇄가공육												
원재료명	소고기 00%												
	돼지고기 00%												
	대추 ⋮ 소고기, 돼지고기, 밀 함유												
유통기한	2022. XX. XX. 까지												
주의사항	대두, 우유 혼입 가능 -18℃ 이하 냉동 보관 ⋮												
[자료 1]	[자료 2]	[자료 3]											

- ① 주표시면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보여 주기 위해 ㉠에 [자료 1]을 활용하였다.
- ② 제품명에 특정 글자가 사용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에 [자료 1]을 활용하였다.
- ③ 식육가공품에서 제품명에 원재료명이 포함된 경우 주표시면에 추가로 표시되는 요소를 보여 주기 위해 ㉡에 [자료 2]를 활용하였다.
- ④ 식품 제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혼입될 수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알레르기 표시란을 통해 표시되는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에 [자료 3]을 활용하였다.
- ⑤ 식품 포장지에 표기되는 날짜 표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에 [자료 3]을 활용하였다.

# #178 정답 및 해설

<보기> 2번

<p>[자료 1]</p>	<p>[자료 2]</p>	<table border="1"> <tr> <td>식품유형</td> <td>분쇄가공육</td> </tr> <tr> <td rowspan="2">원재료명</td> <td>소고기 00% 돼지고기 00%</td> </tr> <tr> <td>대두, 우유 혼입 가능 -18℃ 이하 냉동 보관</td> </tr> <tr> <td>유통기한</td> <td>2022. XX. XX. 까지</td> </tr> <tr> <td>주의사항</td> <td>대두, 우유 혼입 가능 -18℃ 이하 냉동 보관</td> </tr> </table> <p>[자료 3]</p>	식품유형	분쇄가공육	원재료명	소고기 00% 돼지고기 00%	대두, 우유 혼입 가능 -18℃ 이하 냉동 보관	유통기한	2022. XX. XX. 까지	주의사항	대두, 우유 혼입 가능 -18℃ 이하 냉동 보관
식품유형	분쇄가공육										
원재료명	소고기 00% 돼지고기 00%										
	대두, 우유 혼입 가능 -18℃ 이하 냉동 보관										
유통기한	2022. XX. XX. 까지										
주의사항	대두, 우유 혼입 가능 -18℃ 이하 냉동 보관										

<지문> 다음은 강연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식품 안전 연구소의 ○○○입니다. 여러분은 식품을 구매할 때 식품 포장지에서 어떤 정보를 주로 보시나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네, 주로 영양 성분을 보시는군요. 하지만 식품 포장지에는 영양 성분 외에도 유의한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식품 포장지의 표시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식품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보게 되는 주표시면입니다. 이렇게 주표시면에는 제품명과 내용량 및 열량, 그리고 상표 등이 표시돼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데요. 제품명에 '향' 자가 보이시나요? 제품명에 특정 맛이나 향이 표시되어 있고 그 맛이나 향을 내기 위한 원재료로 합성 향료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복숭아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합성 향료가 첨가되었다는 문구도 제품명 주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화면을 보시죠. (◎자료 제시) 이 화면은 다른 식품의 주표시면인데, 여기에서는 어떤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제품명을 보고 소고기만으로 만든 식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아래 쪽을 보시면, 소고기와 함께 돼지고기도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식품과 같이 식육가공품은 가장 많이 사용한 식육의 종류를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식품에 포함된 모든 식육의 종류와 함량이 주표시면에 표시되어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자료 제시) 이 화면은 앞서 보신 식품 포장지의 다른 면을 확대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식품유형, 원재료명, 유통기한, 주의사항 등 다양한 정보가 있는데요. 이렇게 표시사항을 한데 모아 표시한 면을 정보표시면이라고 합니다. 이 중 일부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바탕색과 다르게 표시된 부분이 보이시죠? 이곳은 알레르기 표시란인데요.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됩니다. 또한 식품에 사용된 원재료가 아니어도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섞여 들어갈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혼입될 수 있다는 의미의 주의사항 문구가 쓰여 있으니 특정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유의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현장독해]

- <그림> 나왔네. 지문 읽으면서 그림 관련 내용 나오면 와서 봐야겠다.

[<보기>-지문 연결해 읽기]

- 인사, 자기소개
- 청중에게 질문하여 주의 환기. 청중과 상호작용. 청중의 대답에 따라 발표 내용 유연하게 조정. [화작 빈출 출제요소 파악]
- 키워드 '식품 포장지 표시사항' [키워드 파악]
- 시각자료를 활용하여 전달효과를 높임 [빈출 출제요소 파악]
- 주표시면 : 제품명, 내용량 및 열량, 상표

= <보기> [자료1] 복숭아향 캔디, 00g, 00kcal, △△제과 [<보기>-지문 연결해 읽기]

- 키워드 '향', 질문 통해 청중의 주의 환기 [키워드 파악]
- 향 = 합성 향료'만' 사용 [화작 빈출 출제요소 파악]
- '만'같은 한정표현 주의
- 시각자료 또 썼고. 질문 자주하네 [화작 빈출 출제요소 파악]

- [자료2] 제품명 : 소고기'만' [<보기>-지문 연결해 읽기]
- [자료2] 돼지고기 00% 있네 [<보기>-지문 연결해 읽기]
- '가장 많이' 사용한 소고기를 제품명으로 사용 [최상급표현 주의]
- = [자료2] '소고기' 햄버그 스테이크 [<보기>-지문 연결해 읽기]
- '모든' 식육의 종류와 함량이 주표시면에 표시 [최상급표현 주의]
- = [자료2] 돼지고기 내용량도 표시 [<보기>-지문 연결해 읽기]
- ◎자료 = [자료3] 식품 포장지의 다른 면 [<보기>-지문 연결]
- = 식품유형, 원재료명, 유통기한, 주의사항 = 정보표시면 vs 주표시면 [차이점 주의]

- 또 시각 자료, 또 질문
- 바탕색과 다르게 표시된 부분 = 알레르기 표시란
- =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 [최상급표현 주의]
- = <보기>[자료3] 소고기, 돼지고기, 밀 함유[<보기>-지문 연결해 읽기]
- 주의사항 문구 = [자료3] 대두, 우유 혼입 가능
- 알레르기가 2개네? 뭘 차이냐. [차이점 주의]

마지막으로 날짜 표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원재료명 아래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앞으로는 식품을 유통할 수 있는 기한인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됩니다. 소비기한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했을 때 식품을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 그러니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에 신경 쓰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식품 포장지의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식품을 잘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문제] 2번 다음은 위 강연자가 제시한 자료이다. 강연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표시면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보여 주기 위해 ㉠에 [자료 1]을 활용하였다.
- ② 제품명에 특정 글자가 사용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에 [자료 1]을 활용하였다.
- ③ 식육가공품에서 제품명에 원재료명이 포함된 경우 주표시면에 추가로 표시되는 요소를 보여 주기 위해 ㉢에 [자료 2]를 활용하였다.
- ④ 식품 제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혼입될 수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알레르기 표시란을 통해 표시되는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에 [자료 3]을 활용하였다.
- ⑤ 식품 포장지에 표기되는 날짜 표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에 [자료 3]을 활용하였다.

- 유통기한 = <보기> [자료3] 2022. XX. XX까지  
= 유통할 수 있는 기한 [ <보기>-지문 연결해 읽기 ]  
vs 소비기한 = 보관 방법 준수 시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 차이점 주의 ]
- 보관 방법이 중요
- 꼼꼼히 읽어

[정답 및 해설] ④번.

- ① ㉠=[자료1], 주표시면 구성 요소 제품명, 내용량 ~ 맞지. [ <보기>-지문-선택지 표현 연결해 정답의 확신성 높이기 ]
- ② 선택지 '제품명에 특정 글자' = 지문 '향'이 사용된 이유. 합성 향료 '만' 사용했다. ㉡=[자료1] 활용. [ <보기>-지문-선택지 표현 연결해 정답의 확신성 높이기 ]  
+ 제품명에 '소고기' 사용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의 [자료2]를 활용했다는 사실이 맞다 해서, 제품명에 '향'이 사용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에 [자료1]을 활용했다는 사실이 틀리지는 않음. 둘 다 맞음. [ 내가 맞다고 해서, 나와 다른 게 꼭 틀리지는 않는다. 둘 다 맞을 수 있다 ]
- ③ 제품명에 원재료명 [자료2] '소고기' 포함된 경우, 주표시면에 추가로 표시되는 요소 = ㉢에 [자료2] 돼지고기. [ <보기>-지문-선택지 표현 연결해 정답의 확신성 높이기 ]
- ④ 알레르기 혼입 = 주의사항 vs 알레르기 표시란 =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 = 바탕색이 다르게 표시. 아 이래서 지문에 알레르기 표시가 2개였구나. (소름;;) 정답 ④번. [ 최상급표현 및 차이점에 주의하는 좋은 독해 습관이 출제자의 함정을 파악하여 문제를 막힘없이 푸는데 도움을 줌 ]
- ⑤ 날짜 표시 관련 정보 = 유통기한 = ㉤ = [자료3] [ <보기>-지문-선택지 표현 연결해 정답의 확신성 높이기 ]





[지문]

디지털 통신 시스템은 송신기, 채널, 수신기로 구성되며, 전송할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부호화 과정을 거쳐 전송한다. 영상, 문자 등인 데이터는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들의 조합이다. 예를 들어 기호 집합 {a, b, c, d, e, f}에서 기호들을 조합한 add, cab, beef 등이 데이터이다. 정보량은 어떤 기호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얻는 정보의 크기이다. 어떤 기호 집합에서 특정 기호의 발생 확률이 높으면 그 기호의 정보량은 적고, 발생 확률이 낮으면 그 기호의 정보량은 많다. 기호 집합의 평균 정보량\*을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모든 기호들이 동일한 발생 확률을 가질 때 그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는 최댓값을 갖는다.

송신기에서는 소스 부호화, 채널 부호화, 선 부호화를 거쳐 기호를 부호로 변환한다. 소스 부호화는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해 기호를 0과 1로 이루어진 부호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어떤 기호가 110과 같은 부호로 변환되었을 때 0 또는 1을 비트라고 하며 이 부호의 비트 수는 3이다. 이때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는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를 부호로 표현하는 데 필요한 평균 비트 수의 최솟값이다. 전송된 부호를 수신기에서 원래의 기호로 복원하려면 부호들의 평균 비트 수가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기호 집합을 엔트로피에 최대한 가까운 평균 비트 수를 갖는 부호들로 변환하는 것을 엔트로피 부호화라 한다. 그중 하나인 ‘허프만 부호화’에서는 발생 확률이 높은 기호에는 비트 수가 적은 부호를, 발생 확률이 낮은 기호에는 비트 수가 많은 부호를 할당한다.

채널 부호화는 오류를 검출하고 정정하기 위하여 부호에 잉여 정보를 추가하는 과정이다. 송신기에서 부호를 전송하면 채널의 잡음으로 인해 오류가 발생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잉여 보를 덧붙여 전송한다. 채널 부호화 중 하나인 ‘삼중 반복 부호화’는 0과 1을 각각 000과 111로 부호화한다. 이때 수신기에서는 수신한 부호에 0이 과반수인 경우에는 0으로 판단하고, 1이 과반수인 경우에는 1로 판단한다. 즉 수신기에서 수신된 부호가 000, 001, 010, 100 중 하나라면 0으로 판단하고, 그 이외에는 1로 판단한다. 이렇게 하면 000을 전송했을 때 하나의 비트에서 오류가 생겨 001을 수신해도 0으로 판단하므로 오류는 정정된다. 채널 부호화를 하기 전 부호의 비트 수를, 채널 부호화를 한 후 부호의 비트 수로 나눈 것을 부호율이라 한다. 삼중 반복 부호화의 부호율은 약 0.33이다.

채널 부호화를 거친 부호들을 채널을 통해 전송하려면 부호들을 전기 신호로 변환해야 한다. 0 또는 1에 해당하는 전기 신호의 전압을 결정하는 과정이 선 부호화이다. 전압의 결정 방법은 선 부호화 방식에 따라 다르다. 선 부호화 중 하나인 ‘차동 부호화’는 부호의 비트가 0이면 전압을 유지하고 1이면 전압을 변화시킨다. 차동 부호화를 시작할 때는 기준 신호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차동 부호화 직전의 기준 신호가 양(+)의 전압이라면 부호 0110은 ‘양, 음, 양, 양’의 전압을 갖는 전기 신호로 변환된다. 수신기에서는 송신기와 동일한 기준 신호를 사용하여, 전압의 변화가 있으면 1로 판단하고 변화가 없으면 0으로 판단한다.

\*평균 정보량: 각 기호의 발생 확률과 정보량을 서로 곱하여 모두 더한 것.

[문제] 진위판단 & 오지선다

1. 수신기에는 부호를 기호로 복원하는 기능이 있다. 정답 : ( 참 / 거짓 )
2. 영상을 전송할 때는 잡음으로 인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 ( 참 / 거짓 )
3. 2가지 기호로 이루어진 기호 집합에 대해,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각각 1/4, 3/4인 경우의 평균 정보량이 최댓값이다. 정답 : ( 참 / 거짓 )
4. 2가지 기호로 이루어진 기호 집합에 대해,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모두 1/2인 경우, 기호를 부호화하는 데 필요한 평균 비트 수의 최솟값이 최대가 된다. 정답 : ( 참 / 거짓 )
5. 선 부호화에서는 수신기에서 부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한다. 정답 : ( 참 / 거짓 )
6. 허프만 부호화에서는 정보량이 많은 기호에 상대적으로 비트 수가 적은 부호를 할당한다. 정답 : ( 참 / 거짓 )
7. 삼중 반복 부호화를 이용하여 0을 부호화한 경우, 수신된 부호에서 두 개의 비트에 오류가 있으면 오류는 정정되지 않는다. 정답 : ( 참 / 거짓 )
8.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날씨 데이터를 전송하려고 한다. 날씨는 ‘맑음’, ‘흐림’, ‘비’, ‘눈’으로만 분류하며, 각 날씨의 발생 확률은 모두 같다. 엔트로피 부호화를 통해 ‘맑음’, ‘흐림’, ‘비’, ‘눈’을 각각 00, 01, 10, 11의 부호로 바꾼다.

  - ① 기호 집합 {맑음, 흐림, 비, 눈}의 엔트로피는 2보다 크겠군.
  - ② 엔트로피 부호화를 통해 4일 동안의 날씨 데이터 ‘흐림비맑음흐림’은 ‘01001001’로 바뀌겠군.
  - ③ 삼중 반복 부호화를 이용하여 전송한 특정 날씨의 부호를 ‘110001’과 ‘101100’으로 각각 수신하였다면 서로 다른 날씨로 판단하겠군.
  - ④ 날씨 ‘비’를 삼중 반복 부호화와 차동 부호화를 이용하여 부호화하는 경우, 기준 신호가 양(+)의 전압이면 ‘음, 양, 음, 음, 음, 음’의 전압을 갖는 전기 신호로 변환되겠군.
  - ⑤ 삼중 반복 부호화와 차동 부호화를 이용하여 특정 날씨의 부호를 전송할 경우, 수신기에서 ‘음, 음, 음, 양, 양, 양’을 수신했다면 기준 신호가 양(+)의 전압일 때 ‘흐림’으로 판단하겠군.

# #179 정답 및 해설

## [지문]

디지털 통신 시스템은 송신기, 채널, 수신기로 구성되며, 전송할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부호화 과정을 거쳐 전송한다. 영상, 문자 등인 데이터는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들의 조합이다. 예를 들어 기호 집합 {a, b, c, d, e, f}에서 기호들을 조합한 add, cab, beef 등이 데이터이다. 정보량은 어떤 기호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얻는 정보의 크기이다. 어떤 기호 집합에서 특정 기호의 발생 확률이 높으면 그 기호의 정보량은 적고, 발생 확률이 낮으면 그 기호의 정보량은 많다. 기호 집합의 평균 정보량\*을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모든 기호들이 동일한 발생 확률을 가질 때 그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는 최댓값을 갖는다.

송신기에서는 소스 부호화, 채널 부호화, 선 부호화를 거쳐 기호를 부호로 변환한다. 소스 부호화는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해 기호를 0과 1로 이루어진 부호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어떤 기호가 110과 같은 부호로 변환되었을 때 0 또는 1을 비트라고 하며 이 부호의 비트 수는 3이다. 이때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는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를 부호로 표현하는 데 필요한 평균 비트 수의 최솟값이다. 전송된 부호를 수신기에서 원래의 기호로 복원하려면 부호들의 평균 비트 수가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기호 집합을 엔트로피에 최대한 가까운 평균 비트 수를 갖는 부호들로 변환하는 것을 엔트로피 부호화라 한다. 그중 하나인 '허프만 부호화'에서는 발생 확률이 높은 기호에는 비트 수가 적은 부호를, 발생 확률이 낮은 기호에는 비트 수가 많은 부호를 할당한다.

채널 부호화는 오류를 검출하고 정정하기 위하여 부호에 잉여 정보를 추가하는 과정이다. 송신기에서 부호를 전송하면 채널의 잡음으로 인해 오류가 발생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잉여 보를 덧붙여 전송한다. 채널 부호화 중 하나인 '삼중 반복 부호화'는 0과 1을 각각 000과 111로 부호화한다. 이때 수신기에서는 수신한 부호에 0이 과반수인 경우에는 0으로 판단하고, 1이 과반수인 경우에는 1로 판단한다. 즉 수신기에서 수신된 부호가 000, 001, 010, 100 중 하나라면 0으로 판단하고, 그 이외에는 1로 판단한다. 이렇게 하면 000을 전송했을 때 하나의 비트에서 오류가 생겨 001을 수신해도 0으로 판단하므로 오류는 정정된다. 채널 부호화를 하기 전 부호의 비트 수를, 채널 부호화를 한 후 부호의 비트 수로 나눈 것을 부호율이라 한다. 삼중 반복 부호화의 부호율은 약 0.33이다.

채널 부호화를 거친 부호들을 채널을 통해 전송하려면 부호들을 전기 신호로 변환해야 한다. 0 또는 1에 해당하는 전기 신호의 전압을 결정하는 과정이 선 부호화이다. 전압의 결정 방법은 선 부호화 방식에 따라 다르다. 선 부호화 중 하나인 '차동 부호화'는 부호의 비트가 0이면 전압을 유지하고 1이면 전압을 변화시킨다. 차동 부호화를 시작할 때는 기준 신호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차동 부호화 직전의 기준 신호가 양(+)의 전압이라면 부호 0110은 '양, 음, 양, 양'의 전압을 갖는 전기 신호로 변환된다. 수신기에서는 송신기와 동일한 기준 신호를 사용하여, 전압의 변화가 있으면 1로 판단하고 변화가 없으면 0으로 판단한다.

## [현장독해]

- 기호 abcdef 6개,의 기호집합 {},에서 기호들 조합한 문자,가 데이터. **[용어 정리 및 구분]**
- 정보량 = 정보의 크기
- 기호 집합에서 특정 기호의 발생 확률이 높다 -> 정보량 적다 vs 발생 확률이 낮다 -> 그 기호의 정보량은 많다 **[차이점 구분]**
- 평균 정보량 = a발생확률\*정보량+b ..... +f발생확률\*정보량=엔트로피
- 모든 기호들이 동일한 발생 확률 -> 엔트로피 '최대' (후...)

### [극단적표현 주의]

- 송신기 : 기호 -> 소스 -> 채널 -> 선 -> 부호
- 소스 부호화 : 기호 a b c d e f를 01 부호 조합으로 **[앞에 나온 예시를 뒤에 나온 개념 이해에 계속 활용]**
- 어떤 기호, 예컨대 a를 110으로, 세 자리니까 비트 수가 3.
- 엔트로피 = 평균 비트 수의 최솟값
- 전송된 부호 110을 원래 a로 복원하려면 부호들의 평균 비트 수가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 즉 평균 비트 수의 최솟값보다 크거나 같아야... 뭐야 최솟값보다는 크거나 같은 게 당연한 거 아냐?

### [같은 의미인데 표현만 다르게 한 것들 활용해 독해]

- 엔트로피 부호화 : 평균 비트 수의 최솟값에 최대한 가까운 평균 비트 수를 갖는 부호들로 변환 (후... 출제자...)
- 허프만 부호화 : 발생 확률 높은 기호 -> 비트 수 적은 부호 vs 발생 확률이 낮은 기호 -> 비트 수 많은 부호 할당 **[차이 주목]**
- = 이렇게 하면 평균 비트 수는 낮아지겠네. 자주 발생하는 기호가 비트 수 적으니까. **[직관적으로 이해 안 되는 표현의 의미 생각해보기]**
- 채널 부호화 = 부호에 잉여 정보 추가

- 잡음 문제 해결
- '삼중 반복 부호화'
- 0 = 000, 1 = 111. 3번 반복하니까 '삼중 반복'인 듯.

### [지문 내용 통해 전문 용어가 그렇게 이름 지어진 원인 파악]

- 비트 수 3에서 0이 더 많으면 0, 1이 더 많으면 1. **[나만의 편한 표현으로 핵심 정리]**
- 000에서 한 자리 틀려서 001 보내도 둘 다 0으로 판단하니까 **[나만의 편한 표현으로 핵심 정리]**
- 0을 000으로 채널 부호화 할 때, 채널 부호화 하기 전 비트 수는 1, 채널 부호화 한 후 비트 수는 3. 3분의 1 = 0.33. 삼중이니까 부호율은 3분의 1. **[나만의 편한 표현으로 핵심 정리]**

- 차동 부호화 : 비트가 0 -> 전압 유지 vs 비트 1 -> 전압 변화 **[차이점 정리]**

- 기준 양, 0양, 1음, 1양, 0양. 그래서 '양, 음, 양, 양'
- [결과가 도출된 과정 스스로 해보기]**

- 변화 있음 = 1, 변화 없음 = 0

[문제] 진위판단 & 오지선다

1. 수신기에는 부호를 기호로 복원하는 기능이 있다.  
정답 : ( 참 / 거짓 )
  2. 영상을 전송할 때는 잡음으로 인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 ( 참 / 거짓 )
  3. 2가지 기호로 이루어진 기호 집합에 대해,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각각 1/4, 3/4인 경우의 평균 정보량이 최댓값이다.  
정답 : ( 참 / 거짓 )
  4. 2가지 기호로 이루어진 기호 집합에 대해,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모두 1/2인 경우, 기호를 부호화하는 데 필요한 평균 비트 수의 최솟값이 최대가 된다.  
정답 : ( 참 / 거짓 )
  5. 선 부호화에서는 수신기에서 부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한다.  
정답 : ( 참 / 거짓 )
  6. 허프만 부호화에서는 정보량이 많은 기호에 상대적으로 비트 수가 적은 부호를 할당한다.  
정답 : ( 참 / 거짓 )
  7. 삼중 반복 부호화를 이용하여 0을 부호화한 경우, 수신된 부호에서 두 개의 비트에 오류가 있으면 오류는 정정되지 않는다.  
정답 : ( 참 / 거짓 )
  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날씨 데이터를 전송하려고 한다. 날씨는 '맑음', '흐림', '비', '눈'으로만 분류하며, 각 날씨의 발생 확률은 모두 같다. 엔트로피 부호화를 통해 '맑음', '흐림', '비', '눈'을 각각 00, 01, 10, 11의 부호로 바꾼다.
- ① 기호 집합 {맑음, 흐림, 비, 눈}의 엔트로피는 2보다 크겠군.
  - ② 엔트로피 부호화를 통해 4일 동안의 날씨 데이터 '흐림비맑음흐림'은 '01001001'로 바뀌겠군.
  - ③ 삼중 반복 부호화를 이용하여 전송한 특정 날씨의 부호를 '110001'과 '101100'으로 각각 수신하였다면 서로 다른 날씨로 판단하겠군.
  - ④ 날씨 '비'를 삼중 반복 부호화와 차동 부호화를 이용하여 부호화하는 경우, 기준 신호가 양(+)의 전압이면 '음, 양, 음, 음, 음, 음'의 전압을 갖는 전기 신호로 변환되겠군.
  - ⑤ 삼중 반복 부호화와 차동 부호화를 이용하여 특정 날씨의 부호를 전송할 경우, 수신기에서 '음, 음, 음, 양, 양, 양'을 수신했다면 기준 신호가 양(+)의 전압일 때 '흐림'으로 판단하겠군.

[정답 및 해설] 1.참, 2.거짓, 3.거짓, 4.참, 5.거짓, 6.거짓, 7.참, 8.④

1. 2문단에 '전송된 부호를 수신기에서 원래의 기호로 복원'한다는 표현 있네. 엔트로피에 힘 다 빠지게 만들어 놓는 와중에, 수신기 관련 내용 썩 집어넣었네. 참.  
[출제자가 썩 집어넣고 어물쩡 넘어간 표현 주의]
  2. 잡음으로 인한 오류가 발생해서 채널 부호화 하는 것. 거짓.
  3. 평균 정보량이 최댓값을 가지는 건, 모든 기호들이 동일한 발생 확률을 가질 때잖아. 1/4, 3/4로 다르면 안 됨. 거짓.
  4. 선택지 '평균 비트 수의 최솟값' = 지문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 = 지문 '발생 확률이 모두 같을 때 최대' = 선택지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모두 1/2'.참 [선택지-지문 표현 연결해 정답의 확신성 높이기]
  5. 전기 신호의 전압을 결정하는 과정이 선 부호화. 선 부호화는 송신기에서 이뤄지는 거기도 하고. 거짓.
  6. 선택지 '정보량이 많은 기호' = 지문 '발생 확률이 낮은 기호' = 지문 '비트 수가 많은 부호 할당'.반대. 거짓. [비례·반비례 관계 주의]  
[선택지-지문 표현 연결해 정답의 확신성 높이기]
  7. 0을 삼중 반복 부호화 하면 000. 여기서 두 개의 비트가 오류가 난다는 건 011같은 거. 그럼 1로 판정되면서 오류 정정 안 됨. 참.
  8.  
발생 확률은 1/4로 모두 같으니,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는 최댓값. 각 날씨의 비트 수는 모두 2개. 평균 비트 수도 2개. 평균 비트 수의 최솟값도 2겠네. 삼중 부호화에 차동 부호화 다 내겠구만.  
[선택지로 냅다 넘어가지 말고 <보기> 보면서 지문과 연결해 출제요소 파악]
- ① '2보다 크겠군'이 아니라 2네. 거짓.
  - ② 흐림01이고 비10인데. 0110이라고 해야 되는데 0100이라고 했네. 거짓.
  - ③ 삼중이니까 3개씩 끊어야 되는 거고.  
110 = 1, 001 = 0 -> 110001 = 10  
101 = 1, 100 = 0 -> 101100 = 10.  
서로 같은 날씨 비로 판단. 참.
  - ④ 비는 10. 삼중 반복 부호화하면 111000.  
기준 양->1음->1양->1음->0음->0음->0음.  
음양음음음음. 참.
  - ⑤ 기준 양->음1->음0->음0->양1->양0->양0.  
100100 = 00 = '맑음'인데 '흐림'이라고 했으니까 거짓.

★★★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생각해보고 넘어가되, 안 되면 일단 넘어가서 시간·멘탈·페이스를 지킨다 ★★★

풀면서 울컥 화가 치밀어 오르는 지문이 있습니다. 출제자분 납치해서 앉혀놓고 80분 시간 재고 풀어서 맞혀 보라고 하고 싶은 그런 지문이요. 아마 출제자 본인도 지문 이해 제대로 못하고 문제 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지문 말입니다. 대개 철학 지문이나 과학기술 지문이 그런데요. 이런 지문들은 사실, 위에 현장 독해처럼 지문 이해하고 막힘없이 문제를 다 풀고 넘어가기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지문 처음 봤는데 막힘없이 이해 다 됐고, 문제도 막힘없이 다 풀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없습니다. 다 끄꿍대면서 풀어요. 출제자 본인에게 시켜 봐도 막상 시간 압박 받으면서 풀라고 하면 까다로울 거구요. 출제자 본인도 제대로 막힘없이 설명해내기 어려운 지문을 써 봤으니 문제를 깊이 있게 내기 힘듭니다. 그러니 '눈알 굴리기 풀이'처럼,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선택지 표현에 해당하는 지문 내용 얼른 찾아가서 정보 확인하고 푸는 방법이 통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지문에 대처하는 방식은요. 지문을 읽으면서 일단 이해해보려고 시도는 하되, 안 되면, 안되는 게 너무 많으면 (출제자를 속으로 욕하며) 일단 넘어가서 본인의 시간·멘탈·페이스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와 지문을 자주 왔다갔다하며 지문에서 쓰여진 대로, 지문에서 하라는 대로 해서 문제를 꾸역꾸역 풀어서 맞히시면 됩니다. 이 지문도, 지문 독해 및 이해는 매우 까다로웠겠지만, 침착하게 비례·반비례 관계 찾고, 지문 '예시'·'기술 적용법·계산법 등 지문에서 했던 걸 침착하게 따라 했으면 한두 문제는 맞힐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출제자 욕 좀 하면서 다음 지문 풀러 가셨다면, 적어도 본인 평소 등급은 지킬 수 있었을 거구요.

제가 말해왔던 대원칙은 '눈알 굴리기'를 모든 지문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도하려고 하지는 말자는 겁니다. 일단 지문 읽어서 이해해보려고 하고, 좋은 독해 습관을 발휘해서 지문 이해도 높이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위 지문처럼,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거나, 전문 용어가 쏟아져 나와서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거나, 정보량이 너무 많아서 정리하고 넘어가기 힘들거나, 출제자도 잘 모르면서 지문 쓴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지문은 일단 읽으면서도 '눈알 굴리기' 할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간·멘탈·페이스를 지키며 한두 문제라도 맞히고 넘어가서 등급을 방어하는 보수적 시험 운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보기>

단어에서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을 어근이라 하고, 어근에 붙어 그 뜻을 더하는 부분을 접사라고 한다. 우리말은 어근끼리 결합해도 새말을 만들 수 있고, 어근과 접사가 결합해도 새말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솔방울’은 실질적 의미를 지닌 ‘솔’과 ‘방울’이라는 어근끼리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이고, ‘푹고추’는 ‘덜 익은’이라는 뜻을 더하는 접사 ‘푹-’과 어근인 ‘고추’가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이다. 어근끼리 결합한 단어를 합성어라 부르고,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단어를 파생어라 부른다.

[문제]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단어 형성’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맨주먹’은 뜻을 더하는 접사가 어근에 결합한 단어이군.
- ② ‘날짐승’은 실질적 의미를 지닌 어근끼리 결합한 단어이군.
- ③ ‘군소리’와 ‘군밤’은 어근 앞에 접사가 결합한 단어이므로 파생어이군.
- ④ ‘돌다리’와 ‘집안’은 어근끼리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이므로 합성어이군.
- ⑤ ‘감나무’는 어근끼리 결합한 단어이고, ‘나무꾼’은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단어이군.

※ 2013년 고2 3월 A형 15번 문법 문제 참조

#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 #180 정답 및 해설

### <보기>

단어에서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을 어근이라 하고, 어근에 붙어 그 뜻을 더하는 부분을 접사라고 한다. 우리말은 어근끼리 결합해도 새말을 만들 수 있고, 어근과 접사가 결합해도 새말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솔방울’은 실질적 의미를 지닌 ‘솔’과 ‘방울’이라는 어근끼리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이고, ‘푯고추’는 ‘덜 익은’이라는 뜻을 더하는 접사 ‘푯-’과 어근인 ‘고추’가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이다. 어근끼리 결합한 단어를 합성어라 부르고,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단어를 파생어라 부른다.

[문제]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단어 형성’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맨주먹’은 뜻을 더하는 접사가 어근에 결합한 단어이군.
- ② ‘날짐승’은 실질적 의미를 지닌 어근끼리 결합한 단어이군.
- ③ ‘군소리’와 ‘군밤’은 어근 앞에 접사가 결합한 단어이므로 파생어이군.
- ④ ‘돌다리’와 ‘집안’은 어근끼리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이므로 합성어이군.
- ⑤ ‘감나무’는 어근끼리 결합한 단어이고, ‘나무꾼’은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단어이군.

### [현장독해]

- 함정 주의
  - 솔 + 방울 = 어근 + 어근 = 합성명사
  - 푯- + 고추 = 접두사 + 어근 = 파생명사
- [빈출 출제요소를 자신의 익숙한 방식으로 바꾸어 이해]**

### [정답 및 해설] ③번

- 쪼개서 원형파악 하는 거지 뭐 [빈출 출제요소 예측]
- ① 맨-(접두사) + 주먹(어근) = 파생명사.
- ② 날(어근, 동사‘날다’의 관형형) + 짐승(어근) = **(통사적)합성명사**  
- 새같이 날아다니는 짐승 말하는 건 어근이었지.
- ③ 군-(접두사) + 소리(어근) = 파생명사  
군(어근, 동사‘굽다’의 관형형 ‘구운’이 줄어든) + 밤(어근)  
= 통사적합성명사. 거짓. 정답 ③번.  
**[결과 속이 다른 것 주의]**  
**[비슷해 보이는 것들을 묶어서 제시한 출제 의도 파악]**
- ④ 돌(어근) + 다리(어근) = (통사적종속)합성명사  
집(어근) + 안(어근) = (통사적융합)합성명사
- ⑤ 감(어근) + 나무(어근) = (통사적종속)합성명사  
나무(어근) + -꾼(접미사) = 파생명사

### ★★★ 좋은 풀이 습관 : 쪼개서 원형파악 ★★★

2023학년도 수능국어 언어와 매체 영역의 문법 출제경향을 생각해본다면, 위와 같은 디테일한 ‘쪼개서 원형파악’을 하고자 하면 막힘없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제요소 관련 문법 용어들이 막힘없이 떠오를 정도로 암기하고, 문법 개념어를 활용한 쪼개서 원형파악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비문학’ ‘문학’ ‘매체’ 영역에서는 다를 수 있으나, ‘문법’ 영역에서만은 사고력뿐 아니라 ‘암기력’까지 갖춰야만 합니다. 그래야 문제를 정확하면서도 ‘막힘없이’ 풀 수 있습니다. 문법 영역을 다 맞히는 건 당연한 것이나, ‘막힘없이’ 다 맞혀야만 고난도 비문학 영역에서 ‘사고력’을 발휘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클래스 차이를 만드는 법 : 더 깊이 있게, 더 디테일하게, 그걸 막힘없이 ★★★

‘집안’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보여주고 이거 뭐냐고 물어보면요. ‘단일어, 파생어’라고 답하고 틀리는 학생, ‘합성어’라고 답하고 넘어가는 학생, ‘합성명사’라고 답하는 학생, ‘융합합성명사’로 답하는 학생, ‘통사적융합합성명사’를 얘기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뒤로 갈수록 상위권 학생입니다. 고작 단어 하나 분석하는데도 급이 이렇게 갈립니다. 특히 ‘통사적융합합성명사’는, 좀 섬뜩하기까지 하죠. 심지어 ‘통사적융합합성명사’라는 걸, ‘집안’이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1초 만에 대답하는 학생은 아마 상위권 중에 상위권일 겁니다. 물론 시험에서 문제 풀 때야, 시간 제약 상 출제자가 요구한 선까지 분석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다만, ‘통사적융합합성명사’라고 답하려면 할 수 있으나 시간 상 안하고 넘어가는 것과, 이렇게 해 볼 생각조차도 못했었다는 건 차이가 큼니다. 같은 단어를 같은 시간에 분석해도 더 깊이 있는, 더 디테일한 결과물을 내는 게 바로 상위권입니다. 자극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좋은 공부 습관 : 틀린 것만큼은 제발 좀 외우자 ★★★

저도 처음부터 막힘없는 쪼개서 원형파악, 정확한 어근·접사 판단 잘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생각조차 못했어요. 학생 때 여러분처럼 엄청 틀렸구요. 어근·접사 문제 많이 풀어보고, 틀릴 때마다 '이건 어근처럼 보이는데 접사였네'하는 접사들, '이건 접사처럼 보이는데 어근이었네'하는 어근들, 나올 때마다 외우고 정리하고 하니깐 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틀리게 만든 개념과 출제요소는 보일 때마다 찾아보고 '외워야' 결국 정답률이 올라갑니다. 약점이 보이면 즉시 개선하세요. 보이면 그거 개선될 때까지 파세요. 그래야 다음에 안 틀립니다.

맨- : 접두사, '다른 것이 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맨 : 관형사, 더 할 수 없을 정도나 경지에 있음을 나타내는 말. 맨 위

날- : 접두사, '말리거나 익히거나 가공하지 않은', '다른 것이 없는', '장례를 다 치르지 않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날 : 동사 '날다'의 활용형. 어간 '날-'에 관형사형 어미 '-르'이 붙어 '르'이 생략되어 이루어진 말. 뒷말의 명사나 명사구를 꾸민다.

군- : 접두사, '쓸데없는', '가외로 더한', '덧붙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군 : 동사 '굽다'의 활용형. 어간 '굽-'에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붙어 이루어진 말 '구운'의 준말. 뒷말의 명사나 명사구를 꾸민다.

안 : 명사, 어떤 물체나 공간의 둘러싸인 가에서 가운데로 향한 쪽. 또는 그런 곳이나 부분, 일정한 표준이나 한계를 넘지 않은 정도.

안 : 부사, '아니'의 준말.

꾼 : 명사, 어떤 일, 특히 즐기는 방면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예) 영화 '꾼', 전국의 꾀이란 꾀들은 여기 다 모였네.

-꾼 : 접미사,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 '어떤 일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또는 '어떤 일을 즐겨 하는 사람', '어떤 일 때문에 모인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181 문학

<보기> 39번

고시가 속의 '자연'은 화자가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하는 '현실 도피의 공간'으로 나타난다. 또는 '본받아야 할 대상'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때 화자는 다양한 자연물의 속성에서 본받고자 하는 덕목을 찾아 이를 바람직한 삶의 태도로 내면화한다.

(가)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에 살어리랏다.  
멀위랑 드래랑 먹고 청산에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제1장>

우러라 우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러라 새여.  
넬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로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제2장>

어디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믹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셔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제5장>

- 작자 미상, 「청산별곡(靑山別曲)」 -

(나)

내 벗이 몇이나 하니 수석(水石)과 송죽(松竹)이라.  
동산에 달 오르니 그 더욱 반갑구나.  
두어라 이 다섯 벗기 또 더하여 무엇하리. <제1수>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쉬이 지고  
풀은 어이 하여 푸르는 듯 누르나니  
아마도 변치 아닐손 ㉠바위뿐인가 하노라. <제3수>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곧기는 뉘 시기며\* 속은 어이 비었느냐.  
저렇게 사시(四時)에 푸르니 그를 좋아하노라. <제5수>

- 윤선도, 「오우가(五友歌)」 -

\*시기며: 시키며

[문제] 진위판단

- (나)의 제1수는 전체 내용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답 : ( 참 / 거짓 )
- (나)는 (가)와 달리 4음보를 사용하여 안정감을 주고 있다. 정답 : ( 참 / 거짓 )
- (가)와 (나)는 각 연의 마지막 행에 시상이 집약되고 있다. 정답 : ( 참 / 거짓 )
- ㉠과 ㉡은 모두 자아 성찰의 매개물이다. 정답 : ( 참 / 거짓 )
- ㉠과 ㉡은 모두 감정이 이입된 소재이다. 정답 : ( 참 / 거짓 )
- ㉠은 설움을, ㉡은 흥모의 감정을 유발한다. 정답 : ( 참 / 거짓 )
- (가)의 '새'는 화자가 합일하고자 하는 자연물이다. 정답 : ( 참 / 거짓 )
- (나)의 '다섯'은 바람직한 삶의 덕목을 담고 있다. 정답 : ( 참 / 거짓 )
- (나)의 '꽃'은 본받아야 할 대상과 대조적인 존재이다. 정답 : ( 참 / 거짓 )

※ 2015학년도 2014년 고1 9모 37 ~ 39번 문학 지문 참조

- 스스로 정답을 정하고, 그 근거도 정리해본 후에, '정답 및 해설'을 보셔야 합니다 -

# #181 정답 및 해설

## <보기> 39번

고시가 속의 '자연'은 화자가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하는 '현실 도피의 공간'으로 나타난다. 또는 '본받아야 할 대상'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때 화자는 다양한 자연물의 속성에서 본받고자 하는 덕목을 찾아 이를 바람직한 삶의 태도로 내면화한다.

### (가)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에 살어리랏다.  
멀위랑 드래랑 먹고 청산에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제1장>

우러라 우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러라 새여.  
널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로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제2장>

어디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믹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셔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제5장>

- 작자 미상, 「청산별곡(靑山別曲)」 -

### (나)

내 벗이 몇이나 하니 수석(水石)과 송죽(松竹)이라.  
동산에 달 오르니 그 더욱 반갑구나.  
두어라 이 다섯 벗과 또 더하여 무엇하리. <제1수>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쉬이 지고  
풀은 어이 하여 푸르는 듯 누르나니  
아마도 변치 아닐손 ㉠바위뿐인가 하노라. <제3수>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곧기는 뉘 시키며\* 속은 어이 비었느냐.  
저렇게 사시(四時)에 푸르니 그를 좋아하노라. <제5수>

- 윤선도, 「오우가(五友歌)」 -

\*시키며: 시키며

## [현장독해]

- 자연 = 현실 도피의 공간 or 자연 = 본받아야할 대상  
- 다양한 자연물의 속성 -> 본받고자 하는 덕목 -> 바람직한 삶의 태도 내면화 <보기> 먼저 읽으며 지문에서 주목할 키워드 파악

- 청산 = <보기> 자연 <보기>-지문 연결해 읽기  
- 머루 다래 먹고 청산에 살고자 한다 = <보기> 현실 도피 공간  
- 후렴구

- 자고 일어나서 우는 '새'  
- 너(새)보다 시름 많은 나도 울래. <보기> 본받는 건 아닌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슬픔 극대화.

- 어디로 던지던 돌이고 누구를 맞히려는 돌이고  
- 미워할 이도 괴로워할 이도 없이 맞아서 운다. 화자가 맞아서 우는 거니까 안 좋은 것. <보기>-지문 연결해 읽기

- 내 벗 = 물(수), 돌(석), 소나무(송), 대나무(죽)  
- 달까지  
- 이 5개가 친구고 이외에 또 더해서 뭐하겠어. 안 더할 거다. <보기>-지문 연결해 읽기  
[설의적 표현은 평서형으로 바꾸어 의도 파악]  
- 그래서 제목이 다섯(오) 친구(우) 노래(가)네. <보기>-지문 연결해 읽기  
['제목'과 연관된 지문 표현 찾기. 제목-지문 연결해 읽기]

- 꽃은 피었다가 쉽게 지고  
- 풀은 푸르는 듯하다 누레 지고  
vs 변치 않는 건 바위뿐. 꽃·풀과 바위를 대비·대조 <보기>-지문 연결해 읽기  
- 안 변해서 친구다 = <보기> 본받을 덕목, 바람직한 삶 내면화 <보기>-지문 연결해 읽기

-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니고  
- 곧기는 누가 시켰으며 속은 왜 비었느냐. 대나무가 곧고 속 빔.  
- 사계절 내내 푸르러 친구 대나무 좋아함 = <보기> 본받을 덕목, 바람직한 삶 <보기>-지문 연결해 읽기

[문제] 진위판단

- 1. (나)의 제1수는 전체 내용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답 : ( 참 / 거짓 )
- 2. (나)는 (가)와 달리 4음보를 사용하여 안정감을 주고 있다.  
정답 : ( 참 / 거짓 )
- 3. (가)와 (나)는 각 연의 마지막 행에 시상이 집약되고 있다.  
정답 : ( 참 / 거짓 )
- 4. ㉠과 ㉡은 모두 자아 성찰의 매개물이다.      정답 : ( 참 / 거짓 )
- 5. ㉠과 ㉡은 모두 감정이 이입된 소재이다.      정답 : ( 참 / 거짓 )
- 6. ㉠은 설움을, ㉡은 흠모의 감정을 유발한다.      정답 : ( 참 / 거짓 )
- 7. (가)의 '새'는 화자가 합일하고자 하는 자연물이다.  
정답 : ( 참 / 거짓 )
- 8. (나)의 '다섯'은 바람직한 삶의 덕목을 담고 있다.  
정답 : ( 참 / 거짓 )
- 9. (나)의 '꽃'은 본받아야 할 대상과 대조적인 존재이다.  
정답 : ( 참 / 거짓 )

[정답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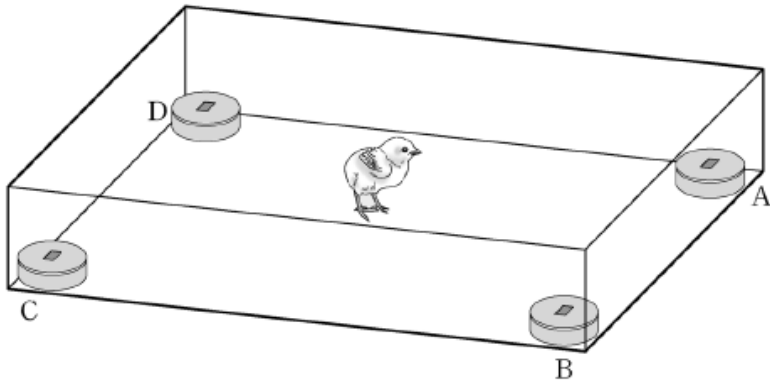
1.참, 2.참, 3.거짓, 4.거짓, 5.거짓, 6.참, 7.거짓, 8.참, 9.참

- 1. <제3수> 돌, <제5수> 대나무 친구 얘기를 <제1수>에서 5개의 친구 얘기 미리 해서 안내. 참.
- 2. (나)  
내 벗이 / 몇이나 하니 / 수석과 / 송죽이라 / 4음보  
동산에 / 달 오르니 / 그 더욱 / 반갑구나 / 4음보  
아마도 / 변치 아닐손 / 바위뿐인가 / 하노라 / 4음보  
  
(가)  
살어리 / 살어리랏다 / 청산에 / 살어리랏다 / 4음보?  
**아니. 고려가요 청산별곡 332조 3음보 내신 때 열심히 외웠잖아**  
살어리 / 살어리 / 랏다 / 3음보, 청산에 / 살어리 / 랏다 / 3음보  
**[눈앞의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인생의 빈칸으로 남긴 채 그냥 넘어갔다면, 언젠가는 벌 받고 발목 잡힌다 : 내신]**  
(나) 맞고, (가) 틀리니까, 달리 맞아서 참.
- 3. (나) <제1수> 마지막 행에서는 5친구 외에 더 친구 사귀지 않을 것, <제3수> 마지막 행에서는 변치 않는 바위 예찬, <제5수> 마지막 행에서는 사계절 푸른 대나무 예찬. 각 연의 마지막 행에 시상 집약.  
vs (가)는 마지막 행 '후렴구'라 시상 집약은 아니지. 거짓.
- 4. ㉠돌은 맞아서 슬픈, ㉡바위는 변치 않아서 좋아하는. 자아성찰의 매개물 ㉠은 확실히 아니고, ㉡도 애매하고.
- 5. ㉠돌은 맞아서 슬픈, ㉡바위는 변치 않아서 좋아하는. 감정이 이입된 소재 ㉠㉡ 둘 다 아니고.
- 6. ㉠돌은 맞아서 슬픈, ㉡바위는 변치 않아서 좋아하는. 슬픈 = 선택지 설움. 좋아하는 = 흠모. 참  
**[지문 표현-내 표현-선택지 표현 연결해 정답의 확신성 높이기]**
- 7. 새가 우는데, 새보다 더 시름 많은 나도 운다는 거니까 슬픔을 강조하는 수단. 하나가 되고자하는 건 아니지.
- 8. 선택지 '바람직한 삶의 덕목 = 지문 <제3수> 바위 변치 않는 한결 같은, <제5수> 대나무 사계절 푸름 = <보기> 바람직한 삶의 태도. 참.      **[선택지-지문-<보기> 연결해 정답의 확신성 높이기]**
- 9. 선택지 '본받아야 할 대상' = 지문 '바위' = 변치 않음 vs 선택지 '꽃' = 지문 '피었다 지는' = 변하는. 대조 참.  
**[선택지 표현 - 지문 표현 연결해 정답의 확신성 높이기]**



# #182 비문학

<보기> 18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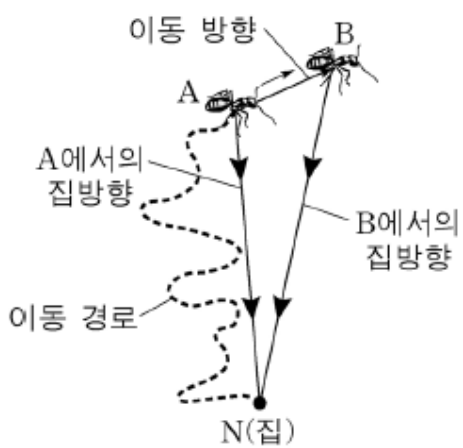


[지문]

동물은 다양한 방식으로 중요한 장소의 위치를 기억하고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은신처까지 길을 찾아올 수 있다. 동물의 길찾기 방법에는 ‘장소기억’, ‘재정위’, ‘경로적분’ 등이 있다. ‘장소기억’은 장소의 몇몇 표지만을 영상 정보로 기억해 두었다가 그 영상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며 길을 찾는 방법이다. 기억된 영상은 어떤 각도에서 바라보는지에 따라 달라지기에, 이 방법을 활용하는 꿀벌은 특정 장소를 특정 각도에서 본 영상으로 기억해 두었다가 다시 그곳으로 갈 때는 자신이 보는 영상과 기억된 영상이 일치하도록 비행한다. 장소기억은 곤충과 포유류를 비롯한 많은 동물이 길찾기에 활용한다.

‘재정위’는 방향 기억이 헝클어진 상황에서도 장소의 기하학적 특징을 활용하여 방향을 다시 찾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직사각형 방에 갇힌 배고픈 흰쥐에게 특정 장소에만 먹이를 두고 찾게 하면, 긴 벽이 오른쪽에 있었는지와 같은 공간적 정보만을 활용하여 먹이를 찾는다. 이런 정보는 흰쥐의 방향 감각을 혼란시킨 상황에서도 보존되는데, 흰쥐는 재정위 과정에서 장소기억 관련 정보를 무시한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원숭이는 재정위 과정에서 벽 색깔과 같은 장소기억 정보도 함께 활용한다는 점이 밝혀졌다.

‘경로적분’은 곤충과 새의 가장 기본적인 길찾기 방법으로 이를 활용하는 능력은 타고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먹이를 찾아 길을 나선 ㉠사하라 사막의 사막개미는 집 근처를 이리저리 탐색하다가 일단 먹이를 찾으면 집을 향해 거의 일직선으로 돌아온다. 사막개미는 장소기억 능력이 있지만 눈에 띄는 지형지물이 거의 없는 사막에서는 장소기억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경로적분을 활용한다. 사막개미의 이러한 놀라운 집찾기는 집을 출발하여 먹이를 찾아 이동하면서 자신의 위치에서 집 방향을 계속하여 다시 계산함으로써 가능하다. 가령,



그림에서 이동 경로를 따라 A에 도달한 사막개미가 먹이를 찾았다면 그때 파악한 집 방향  $\overline{AN}$ 으로 집을 향해 갈 것이다. 만약 A에서 먹이를 찾지 못해 B로 한 걸음 이동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사막개미는 A에서 B로의 이동 방향과 거리에 근거하여 새로운 집 방향  $\overline{BN}$ 을 계산한다. 사막개미는 먹이를 찾을 때까지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매

위치에서의 집 방향을 파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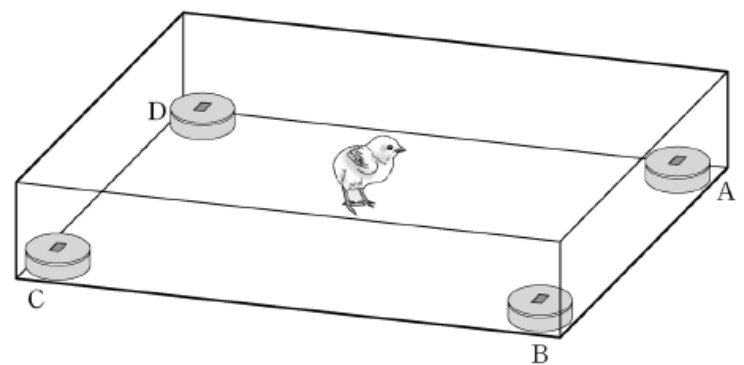
한편, 이동 경로상의 매 지점에서 사막개미가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 기준을 정하기 위해 사막개미는 태양의 위치와 산란된 햇빛을 함께 이용한다. 태양의 위치는 태양이 높이 떠 있거나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을 때는 유용하지 않다. 이때 결정적 도움을 주는 것이 산란된 햇빛 정보이다. 사막개미는 마치 하늘을 망원경으로 관찰하는 천문학자처럼 하늘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 진위판단 & 오지선다

1. 원숭이는 재정위 과정에서 기하학적 정보도 활용한다. 정답 : ( 참 / 거짓 )
  2. 꿀벌은 특정 장소를 여러 각도에서 바라본 영상을 기억하여 길을 찾는다. 정답 : ( 참 / 거짓 )
  3. ㉠의 길찾기에 대해, 지형지물이 많은 곳에서 사막개미는 장소기억을 활용하겠군. 정답 : ( 참 / 거짓 )
  4. ㉠의 길찾기에 대해, 사막개미는 한 걸음씩 이동하면서 그때마다 집까지의 직선거리를 다시 계산하겠군. 정답 : ( 참 / 거짓 )
18.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상황에서 병아리가 보일 행동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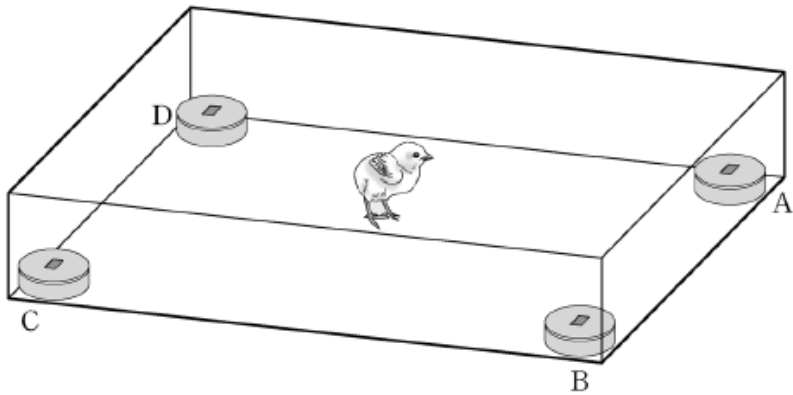
병아리가 재정위 과정에서 기하학적 특징만을 활용한다고 가정하자. 아래 그림의 직사각형 모양의 상자에서 먹이는 A에만 있다. 병아리가 A, B, C, D를 모두 탐색하여 먹이가 어디에 있는지 학습하게 한 후, 상자에서 꺼내 방향을 혼란시킨 다음 병아리를 상자 중앙에 놓고 먹이를 찾도록 한다. 이와 같은 실험을 여러 번 수행하여 병아리가 A, B, C, D를 탐색하는 빈도를 측정한다.



- ① A를 높은 빈도로 탐색하고 B, C, D를 비슷한 정도의 낮은 빈도로 탐색한다.
- ② A, B를 비슷한 정도의 높은 빈도로 탐색하고 C, D를 비슷한 정도의 낮은 빈도로 탐색한다.
- ③ A, C를 비슷한 정도의 높은 빈도로 탐색하고 B, D를 비슷한 정도의 낮은 빈도로 탐색한다.
- ④ A, D를 비슷한 정도의 높은 빈도로 탐색하고 B, C를 비슷한 정도의 낮은 빈도로 탐색한다.
- ⑤ A, B, C, D를 비슷한 정도의 빈도로 탐색한다.

# #182 정답 및 해설

<보기> 18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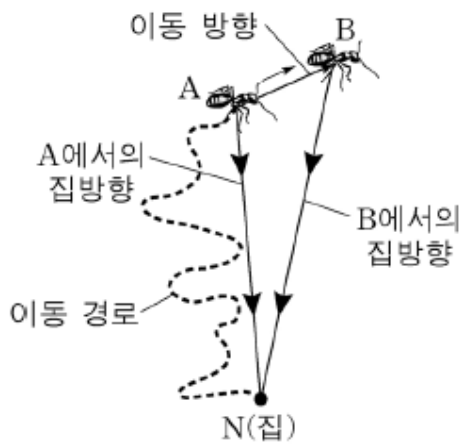


[지문]

동물은 다양한 방식으로 중요한 장소의 위치를 기억하고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은신처까지 길을 찾아올 수 있다. 동물의 길찾기 방법에는 ‘장소기억’, ‘재정위’, ‘경로적분’ 등이 있다. ‘장소기억’은 장소의 몇몇 표지만을 영상 정보로 기억해 두었다가 그 영상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며 길을 찾는 방법이다. 기억된 영상은 어떤 각도에서 바라보는지에 따라 달라지기에, 이 방법을 활용하는 꿀벌은 특정 장소를 특정 각도에서 본 영상으로 기억해 두었다가 다시 그곳으로 갈 때는 자신이 보는 영상과 기억된 영상이 일치하도록 비행한다. 장소기억은 곤충과 포유류를 비롯한 많은 동물이 길찾기에 활용한다.

‘재정위’는 방향 기억이 헝클어진 상황에서도 장소의 기하학적 특징을 활용하여 방향을 다시 찾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직사각형 방에 갇힌 배고픈 흰쥐에게 특정 장소에만 먹이를 두고 찾게 하면, 긴 벽이 오른쪽에 있었는지와 같은 공간적 정보만을 활용하여 먹이를 찾는다. 이런 정보는 흰쥐의 방향 감각을 혼란시킨 상황에서도 보존되는데, 흰쥐는 재정위 과정에서 장소기억 관련 정보를 무시한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원숭이는 재정위 과정에서 벽 색깔과 같은 장소기억 정보도 함께 활용한다는 점이 밝혀졌다.

‘경로적분’은 곤충과 새의 가장 기본적인 길찾기 방법으로 이를 활용하는 능력은 타고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먹이를 찾아 길을 나선 ㉠사하라 사막의 사막개미는 집 근처를 이리저리 탐색하다가 일단 먹이를 찾으면 집을 향해 거의 일직선으로 돌아온다. 사막개미는 장소기억 능력이 있지만 눈에 띄는 지형지물이 거의 없는 사막에서는 장소기억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경로적분을 활용한다. 사막개미의 이러한 놀라운 집찾기는 집을 출발하여 먹이를 찾아 이동하면서 자신의 위치에서 집 방향을 계속하여 다시 계산함으로써 가능하다. 가령, 그림에서 이동 경로를 따라 A에 도달한 사막개미가 먹이를 찾았다면 그때 파악한 집 방향  $\overrightarrow{AN}$ 으로 집을 향해 갈 것이다. 만약 A에서 먹이를 찾지 못해 B로 한 걸음 이동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사막개미는 A에서 B로의 이동 방향과 거리에 근거하여 새로운 집 방향  $\overrightarrow{BN}$ 을 계산한다. 사막개미는 먹이를 찾을 때까지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매 위치에서의 집 방향을 파악한다.



는 A에서 B로의 이동 방향과 거리에 근거하여 새로운 집 방향  $\overrightarrow{BN}$ 을 계산한다. 사막개미는 먹이를 찾을 때까지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매 위치에서의 집 방향을 파악한다.

[현장독해]

- <보기> 그림 나왔네. 지문에서 비슷한 내용 나오면 같이 보자.

- 장소기억, 재정위, 경로적분
- 장소기억 : 표지‘만’을 영상정보로 기억.
- 꿀벌은 특정 각도에서 본 특정 장소의 영상과 일치하도록 비행

- 재정위 : 방향을 ‘다시’ 찾으니까 ‘재’정위 인가봐  
 [전문용어의 의미 생각해보기]

- 직사각형 방에 갇힌 배고픈 흰쥐 = <보기> 18번 그림 병아리인데.
- 긴 벽 그러니까 AD, BC같은 긴 벽이 오른쪽에 있었는지 같은 정보로 찾는다.  
 [<그림>-지문 연결해 읽기]

- 장소기억은 무시  
 vs 원숭이는 ‘벽 색깔’ 등 장소기억 정보‘도’ 활용. 둘 다 활용.

[차이점 정리]

- 경로적분 : 곤충과 새의 ‘가장’ 기본적인 길찾기.
- 타고남
- ㉠ 장소기억 능력이 있기는 한데, 장소기억을 사용할 표지인 지형지물이 거의 없어서 사용할 수가 없다.
- ㉠ 자신의 위치에서 집 방향을 계속하여 다시 계산하는

- B로 이동한 방향과 거리만큼을 계산해서 다시 N가는 것 계산.
- 반복이 핵심.

한편, 이동 경로상의 매 지점에서 사막개미가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 기준을 정하기 위해 사막개미는 태양의 위치와 산란된 햇빛을 함께 이용한다. 태양의 위치는 태양이 높이 떠 있거나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을 때는 유용하지 않다. 이때 결정적 도움을 주는 것이 산란된 햇빛 정보이다. 사막개미는 마치 하늘을 망원경으로 관찰하는 천문학자처럼 하늘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있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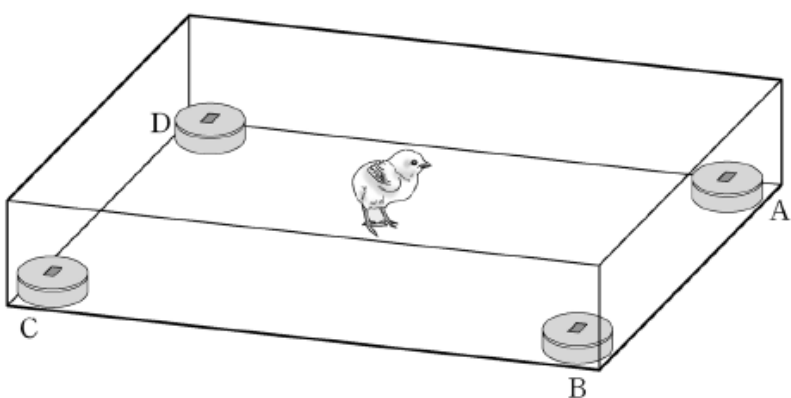
[문제] 진위판단 & 오지선다

1. 원숭이는 재정위 과정에서 기하학적 정보도 활용한다.  
정답 : ( 참 / 거짓 )
2. 꿀벌은 특정 장소를 여러 각도에서 바라본 영상을 기억하여 길을 찾는다.  
정답 : ( 참 / 거짓 )
3. ㉠의 길찾기에 대해, 지형지물이 많은 곳에서 사막개미는 장소기억을 활용하겠군.  
정답 : ( 참 / 거짓 )
4. ㉠의 길찾기에 대해, 사막개미는 한 걸음씩 이동하면서 그때마다 집까지의 직선거리를 다시 계산하겠군.  
정답 : ( 참 / 거짓 )

18.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상황에서 병아리가 보일 행동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병아리가 재정위 과정에서 기하학적 특징만을 활용한다고 가정하자. 아래 그림의 직사각형 모양의 상자에서 먹이는 A에만 있다. 병아리가 A, B, C, D를 모두 탐색하여 먹이가 어디에 있는지 학습하게 한 후, 상자에서 꺼내 방향을 혼란시킨 다음 병아리를 상자 중앙에 놓고 먹이를 찾도록 한다. 이와 같은 실험을 여러 번 수행하여 병아리가 A, B, C, D를 탐색하는 빈도를 측정한다.



- ① A를 높은 빈도로 탐색하고 B, C, D를 비슷한 정도의 낮은 빈도로 탐색한다.
- ② A, B를 비슷한 정도의 높은 빈도로 탐색하고 C, D를 비슷한 정도의 낮은 빈도로 탐색한다.
- ③ A, C를 비슷한 정도의 높은 빈도로 탐색하고 B, D를 비슷한 정도의 낮은 빈도로 탐색한다.
- ④ A, D를 비슷한 정도의 높은 빈도로 탐색하고 B, C를 비슷한 정도의 낮은 빈도로 탐색한다.
- ⑤ A, B, C, D를 비슷한 정도의 빈도로 탐색한다.

- 태양의 위치와 산란된 햇빛 함께 이용
- 태양 위치 못써도 산란된 햇빛으로 기준 결정
- 사막개미 = 천문학자, 개미도 하늘 본다. 땅만 보고 다니지 않는다.  
[나만의 편한 표현으로 핵심 정리]

[정답 및 해설] 1.참, 2.거짓, 3.참, 4.거짓, 18.③번

1. 선택지 '기하학적 정보' = 지문 '장소의 기하학적 특징' = 긴 벽이 오른쪽에 있었는지. 원숭이는 재정위, 장소기억 둘 다 쓰고. 참.  
[선택지와 비슷한 지문 표현 떠올려 정답의 확신성 높이기]
2. 선택지 특정 장소를 '여러 각도' vs 지문 특정 장소를 '특정 각도' 거짓.  
[차이점 파악]  
[선택지 표현과 반대되는 지문표현을 떠올리는 반대적 사고]
3. 사막개미도 장소기억 능력이 있지만, 눈에 띄는 지형지물이 없어서 사용할 수 없는 거였지. 지형지물 많으면 활용하겠지. 참.
4. 선택지 '직선거리' vs 지문 '방향'. 집 방향을 다시 계산하는거지. 거짓.  
[차이점 파악]  
[선택지 표현과 대비되는 지문표현을 떠올리는 반대적 사고]

18.

- 기하학적 특징'만' 활용 : 즉 장소기억 관련 정보는 무시하자는 것
- 그니까 '지문 예시'처럼 해보면 병아리는 긴 벽이 왼쪽에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겠네. 근데 긴 벽이 AD 긴 벽인지, BC 긴 벽인지는 모르겠네. 어쨌든 긴 벽 왼쪽으로 갈 테니, 그러면 A랑 C로 가겠네.  
[지문 예시를 <보기> 예시에 적용해보기]  
[지문 오른쪽을 <보기> 왼쪽으로 적용해볼 수 있는 응용력]  
[선택지 보기 전에 <보기>를 분석하여 정답을 주관식으로 풀어보기]
- 그러면 보자. 정답은 AC 높은 빈도로 탐색, DB 낮은 빈도로 탐색.  
정답 ③번.  
[의미는 비슷하면서도 나의 투박한 표현이 출제자의 엄밀한 표현으로 나온 선택지 찾기]

- ① A랑 C는 구분 못하지
- ② A랑 B는 구분하지
- ③ 이거지
- ④ A랑 D는 구분하지
- ⑤ 에헤이







#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 #183 정답 및 해설

<보기> 다음은 표준 발음에 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제8항 받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
- 제9항 받침 ‘ㄱ, ㅋ’, ‘ㅌ, ㅍ’, ‘ㅈ, ㅊ, ㅅ, ㅆ, ㅈ, ㅊ’,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ㅂ]으로 발음한다.
- 제10항 겹받침 ‘ㄱ’, ‘ㄴ’, ‘ㄹ’, ‘ㅌ’, ‘ㄷ’, ‘ㅌ’,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ㄹ, ㅂ]으로 발음한다. 다만, ‘ㅍ’은 자음 앞에서 [ㅍ]으로 발음한다.
- 제11항 겹받침 ‘ㄹ’, ‘ㄹ’, ‘ㄹ’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ㅁ, ㅂ]으로 발음한다. 다만, 용언의 어간 말음 ‘ㄹ’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 제13항 홑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 제23항 받침 ‘ㄱ(ㄱ, ㅋ, ㄱ, ㄹ), ㄷ(ㅌ, ㅍ, ㅌ, ㅍ, ㅌ, ㅍ)’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ㅌ, ㅍ’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제24항 어간 받침 ‘ㄴ(ㄴ), ㅁ(ㅁ)’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ㅌ, ㅍ’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다만, 피동, 사동의 접미사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 제25항 어간 받침 ‘ㄹ, 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ㅌ, ㅍ’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문제] 밑줄 친 단어의 올바른 발음을 [ ] 안에 적고, 표준발음법 몇 항에 의한 것인지 <보기>를 바탕으로 답하시오.

- 이제야 동녘에서[ ] 해가 떠오른다.  
정답 : ( )
- 그는 꽃밭 [ ]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정답 : ( )
- 비가 그치고 난 후 날씨가 맑게 [ ] 개었다.  
정답 : ( )
- 그녀는 하얀 눈을 밟고 [ ] 앞으로 나아갔다.  
정답 : ( )
- 아버지의 외곶 [ ] 인생은 마침내 빛을 보았다.  
정답 : ( )

[정답 및 해설]

- 동녘에서 [동녘에서]  
- 제13항 홑받침 ‘ㅋ’이 모음으로 시작된 부사격조사 ‘-에서’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연음하여 발음한다.
- 꽃밭 [곶밭]  
- 제9항 받침 ‘ㄷ’은 자음 ‘ㅂ’ 앞에서 대표음 [ㄷ]으로 발음한다.  
- 제23항 받침 ‘ㄷ(ㄷ)’ 뒤에 연결되는 ‘ㅂ’은 된소리 [ㅃ]으로 발음한다
- 맑게 [말게]  
- 제23항 겹받침 ‘ㄹ’의 ‘ㄱ’ 뒤에 연결되는 ‘게’의 ‘ㄱ’은 된소리[ㄱ]로 발음한다.  
- 제11항 다만, 용언 ‘말다’의 어간 말음 ‘ㄹ’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 밟고 [밟고]  
- 제25항 받침 ‘ㄹ’ 뒤에 연결되는 ‘ㄱ’은 된소리 [ㄱ]으로 발음한다  
- 제10항 다만, ‘밟-’은 ‘고’의 자음 ‘ㄱ’ 앞에서 [ㅍ]으로 발음한다
- 외곶 [외곶]  
- 제10항 겹받침 ‘ㄹ’은 어말에서 각각 [ㄹ]로 발음한다.

### ★★★ 음운 변동의 순서 ★★★

표준 발음법 적용 순서, 즉 음운 변동의 순서에는 견해차가 있다고 하는데요. 수험생 입장에서 문제 풀 때 일단 기억해두어야 할 건 '된소리되기(경음화)'가 먼저 적용된 후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위 문제 중 맑게 [말께]에서는 된소리되기를 자음군 단순화보다 우선 적용했습니다.

- 표준발음법 제 6장 된소리되기 제23항 겹받침 'ㄹ'의 'ㄱ' 뒤에 연결되는 '게'의 'ㄱ'은 된소리[ㄱ]로 발음한다.
- 표준발음법 제 4장 받침의 발음 자음군 단순화 제11항 다만, 용언 '맑다'의 어간 발음 'ㄹ'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순서를 반대로 해서 자음군 단순화를 우선 적용해보면, 맑게 [말게]가 됩니다. [말게]가 [말께]가 되게 하는 된소리되기 조항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는 올바른 발음이 아니죠. '된소리되기(경음화)'를 먼저 적용한 후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하면 실전에서 문제 풀 때 막힘없이 풀 수 있을 겁니다.

※ '거센소리되기(유기음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경음화)'를 우선 적용하고, 이후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한 후, 콧소리되기(비음화), 굴림소리되기(유음화)를 적용하자는 견해도 있다고 합니다.



<보기> 40번

「홍계월전」은 비범한 능력을 가진 여성 영웅 홍계월의 활약상을 그린 작품이다. ‘고난- 위기 - 극복’의 영웅 소설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여성 영웅의 형상을 그려 낸다. 특히 주인공은 여러 차례 위기를 겪게 되는데, 어린 시절에 겪는 1차 위기에서는 조력자의 도움으로 고난을 극복하게 된다. 2차 위기에서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개인적 고난을 겪게 되는데, 그런 중에 국가의 위기가 발생함으로써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지문]

여공이 물러 나오자 위공과 정렬 부인이 다시 일어나 칭찬하기를, “어지신 덕택으로 계월을 구하사 친자식같이 길러 입신양명하게 하시니 은혜가 백골난망이로소이다.”

하며 슬픈 감회를 금치 못하거늘 여공이 더욱 감사하며 공손히 응답하더라. ㉠평국과 보국이 또한 옆드려 먼 길에 평안히 행차하심을 치하하더라. 위공과 정렬 부인이며 기주후와 공렬 부인과 춘랑도 또한 자리에 참례하고 양윤이 또한 마음에 기꺼함을 헤아리지 못할지라. 이날 큰 잔치를 배설하고 삼 일을 즐기니라.

이때 천자 신하들을 돌아보고 이르기를, “평국과 보국을 한 궁궐 안에 살게 하리라.”

하시고, 종남산 아래에 터를 닦고 집을 지을새, 천여 칸을 불일성지(不日成之)\*로 지으니, 그 장함을 헤아리지 못할지라. 집을 다 지은 후에 노비 천 명과 수성군 백 명씩 내려 주시고 또 채단과 보화를 수천 바리를 상으로 내려 주시니, 평국과 보국이 황은을 축수하고 한 궁궐 안에 침소를 정하고 거처하니 그 궁궐 안 넓이가 십 리가 남은지라 위와 거동이 천자나 다름이 없더라.

이때 평국이 전장에 다녀온 후로 자연 몸이 곤하여 ㉡병이 침중하니 집안이 경동하여 주야 약으로 치료하니, 천자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매우 놀라사 명의를 급히 보내어,

“병세를 자세히 보고 오라. 만일 위중하면 짐이 친히 가 보리라.” 하시고 어의(御醫)를 명하사 보내시니, 어의 황명을 받자와 평국의 침소에 와 병세를 진맥하니 병세 위중하지 아니한지라. 속히 약을 가르쳐 쓰라 하고 돌아와 천자께 사실을 아뢰더라

[A]어의 다녀와 아뢰기를, “평국의 병세는 위중하지 아니하옵기로 약을 가르쳐 쓰라 하옵고 왔사오나 또한 괴이한 일이 있어 수상하여이다.”

하더라. 천자 놀라 문기를, “무슨 연고가 있느냐.” 어의 땅에 옆드려 아뢰기를, “평국의 맥을 보오니 남자의 맥이 아니오매 이상하여이다.”

천자 그 말을 들으시고 이르기를, “평국이 여자면 어찌 적진에 나가 적진 십만 대병을 소멸하고 왔리요. 평국의 얼굴이 도화색(桃花色)이요, 체격이 작고 약하여 혹 미심하거니와 아직은 누설하지 말라.”

하시고 자주 문병하시니라. 이때 평국이 병세 점점 나으매 생각하되, ‘어의가 나의 맥을 보았으니 필시 본색이 탄로날지라 이제는 할 일 없이 되었으니, 여복을 갈아입고 규중에 몸을 숨어 세월을 보냄이 옳다.’

하고, 즉시 남복을 벗고 여복을 입고 ㉢부모 앞에 뵈어 느끼며 뺨에 두 줄기 눈물이 종횡하거늘 부모 또한 눈물을 흘리며 위로하더라.

[중략 줄거리] 이후 홍계월(평국)은 천자의 주선으로 보국과 혼인을 하게 되는데, 군영 및 집안에서의 사건 등으로 남편 보국과 갈등을 겪으면서 남편과 떨어져 홀로 지내게 된다.

각설. 이때 남관장이 장계(狀啓)\*를 올리거늘 천자 즉시 뜯어 열어 보시니 하였으되,

[B]‘오왕(吳王)과 초왕(楚王)이 반하여 지금 장안을 범하고자 하옵나이다. 오왕은 구덕지를 얻어 대원수를 삼고, 초왕은 장맹길을 얻어 선봉을 삼아 장수 천여 명과 군사 십만을 거느려 호주 북지 십여 성을 항복 받고 형주자사 완태를 베고 짓쳐오매 소장의 힘으로는 방비할 길이 없사와 감히 아뢰오니 옆드려 바라옵건대 황상은 어진 명장을 보내어 막으소서.’

하였거늘, 천자 보시고 크게 곤란하사 온 조정의 신하들을 모아 의논하시되 우승상 명연태 아뢰기를,

“이 도적을 좌승상 평국을 보내어 방비하올 것이니 급히 영을 내려 부르옵소서.”

천자 들으시고 한참 뒤에, “평국이 전일에는 출세하였기로 불러 국사를 의논하였거니와 ㉣지금은 규중 여자라 어찌 영으로 불러 들여 전장에 보내리오.” 하시되 신하들이 아뢰기를,

“평국이 지금 규중에 처하오나 이름이 조야에 있삽고 또한 작록이 영구하오니 어찌 혐의하오리오.”

하거늘, 천자 마지못하여 급히 평국을 영으로 부르시니라.

이때 평국이 규중에 홀로 있어 매일 시비를 데리고 장기와 바둑으로 세월을 보내더니 사관이 나와 천자가 부르는 명을 전하거늘, 평국이 크게 놀라 급히 여복을 벗고 조복으로 사관을 따라 어전에 옆드리니 천자 크게 기뻐하며 이르기를,

“㉤경이 규중에 처한 까닭에 오래 보지 못하여 주야로 사모하더니 이제 경을 보매 기쁘기 헤아릴 수 없거니와 짐이 덕이 없어 지금 오 초 양국이 반하여 호주 북지를 항복 받고 남관을 넘어 황성을 범하고자 한다 하니 경은 마땅히 출사하여 사직을 안보하게 하라.”

하시되 평국이 옆드려 아뢰기를, “신첩이 외람하와 폐하를 속이옵고 공후 작록을 받자와 영화로 지내옵기 황공하온데 죄를 사하시고 이토록 사랑하옵시니 신첩이 비록 우매하오나 힘을 다하여 폐하의 성은을 만분의 일이나 갚을까 하오니 근심하지 마옵소서.”

하더라. -작자 미상, 「홍계월전」-

\*불일성지: 며칠 안 되어 일이 이루어짐.  
\*장계: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는 일이나 문서.

[문제] 진위판단

1. [A]와 [B]는 모두 정황을 전달하는 주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나타나 있다.                                  정답 : ( 참 / 거짓 )
2. [A]는 대화를 통해, [B]는 요약적 제시를 통해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답 : ( 참 / 거짓 )
3. [A]는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B]는 과장된 표현을 통해 장면을 극대화하고 있다.                             정답 : ( 참 / 거짓 )
4. ㉠은 흥계월과 보국이 멀리서 온 여공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정답 : ( 참 / 거짓 )
5. ㉡은 흥계월이 부모 앞에서 울음을 터트리며 서러움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 준다.                                    정답 : ( 참 / 거짓 )
6. ㉢은 천자가 집안일에 매달려 있는 흥계월을 오랫동안 보지 못해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정답 : ( 참 / 거짓 )
7. 흥계월이 궁궐에서 천자에 못지않은 생활을 하여 천자의 노여움을 사게 된 것은 2차 위기의 빌미가 되었음을 알 수 있군.                             정답 : ( 참 / 거짓 )
8. 여공이 어린 흥계월을 구하여 입신양명하게 한 것에서 주인공이 1차 위기를 조력자의 도움으로 극복했음을 확인할 수 있군.                                정답 : ( 참 / 거짓 )

※ 2016학년도 2015년 고3 6평 A형 38 ~ 40번 문학 지문 참조

- 스스로 정답을 정하고, 그 근거도 정리해본 후에, '정답 및 해설'을 보셔야 합니다 -

# #184 정답 및 해설

## <보기> 40번

「홍계월전」은 비범한 능력을 가진 여성 영웅 홍계월의 활약상을 그린 작품이다. ‘고난- 위기 - 극복’의 영웅 소설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여성 영웅의 형상을 그려 낸다. 특히 주인공은 여러 차례 위기를 겪게 되는데, 어린 시절에 겪는 1차 위기에서는 조력자의 도움으로 고난을 극복하게 된다. 2차 위기에서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개인적 고난을 겪게 되는데, 그런 중에 국가의 위기가 발생함으로써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 [지문]

여공이 물러 나오자 위공과 정렬 부인이 다시 일어나 칭찬하기를, “어지신 덕택으로 계월을 구하사 친자식같이 길러 입신양명하게 하시니 은혜가 백골난망이로소이다.”

하며 슬픈 감회를 금치 못하거늘 여공이 더욱 감사하며 공손히 응답하더라. ㉠평국과 보국이 또한 옆드려 먼 길에 평안히 행차하심을 치하하더라. 위공과 정렬 부인이며 기주후와 공렬 부인과 춘량도 또한 자리에 참례하고 양윤이 또한 마음에 기꺼함을 헤아리지 못할지라. 이날 큰 잔치를 배설하고 삼 일을 즐기니라.

이때 천자 신하들을 돌아보고 이르기를, “평국과 보국을 한 궁궐 안에 살게 하리라.”

하시고, 종남산 아래에 터를 닦고 집을 지을새, 천여 칸을 불일성지(不日成之)\*로 지으니, 그 장함을 헤아리지 못할지라. 집을 다 지은 후에 노비 천 명과 수성군 백 명씩 내려 주시고 또 채단과 보화를 수천 바리를 상으로 내려 주시니, 평국과 보국이 황은을 축수하고 한 궁궐 안에 침소를 정하고 거처하니 그 궁궐 안 넓이가 십 리가 남은지라 위의와 거동이 천자나 다름이 없더라.

이때 평국이 전장에 다녀온 후로 자연 몸이 곤하여 ㉡병이 침중하니 집안이 경동하여 주야 약으로 치료하니, 천자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매우 놀라사 명의를 급히 보내어,

“병세를 자세히 보고 오라. 만일 위중하면 짐이 친히 가 보리라.” 하시고 어의(御醫)를 명하사 보내시니, 어의 황명을 받자와 평국의 침소에 와 병세를 진맥하니 병세 위중하지 아니한지라. 속히 약을 가르쳐 쓰라 하고 돌아와 천자께 사실을 아뢰더라

[A]어의 다녀와 아뢰기를, “평국의 병세는 위중하지 아니하옵기로 약을 가르쳐 쓰라 하옵고 왔사오나 또한 괴이한 일이 있어 수상하여이다.”

하더라. 천자 놀라 묻기를, “무슨 연고가 있더냐.”

어의 땅에 옆드려 아뢰기를, “평국의 맥을 보오니 남자의 맥이 아니오매 이상하여이다.”

천자 그 말을 들으시고 이르기를, “평국이 여자면 어찌 적진에 나가 적진 십만 대병을 소멸하고 왔리오. 평국의 얼굴이 도화색(桃花色)이요, 체격이 작고 약하여 혹 미심하거니와 아직은 누설하지 말라.”

하시고 자주 문병하시니라. 이때 평국이 병세 점점 나으매 생각하되, ‘어의가 나의 맥을 보았으니 필시 본색이 탄로날지라 이제는 할 일 없이 되었으니, 여복을 갈아입고 규중에 몸을 숨어 세월을 보냄이 옳다.’

하고, 즉시 남복을 벗고 여복을 입고 ㉢부모 앞에 뵈어 느끼며 뺨에 두 줄기 눈물이 종횡하거늘 부모 또한 눈물을 흘리며 위로하더라.

## [현장독해]

- 여성 영웅 홍계월
  - 고난, 위기, 극복 찾기
  - 1차 위기는 어린 시절, 조력자 도움
  - 2차 위기는 여자라서 고난, 국가 위기 발생해서 난관 극복 기회
- [<보기> 먼저 읽으며, 지문에서 주목할 내용 파악]

- 여공, 위공, 정렬 부인. 인물들 파악해야 [고전 소설 인물 파악 주의]
- 계월 나왔고.

- 위공과 정렬 부인이 여공을 칭찬한 거고. 여공이 감사해 한거지. 그럼 계월을 구해서 친자식같이 길러 입신양명하게 한 건 ‘여공’이네. 이게 <보기> 1차 위기 계월 어린 시절, 조력자 여공이네.

- [숲(상황 맥락)을 통해, 나무(문장 표현의 의미) 파악]
- 모두 행복
- 천자

- 천여 칸 궁궐 집을 며칠 안 되어 똑딱. 나라에서 둘 사이 잘 되도록 천자가 밀어주네
- [어휘풀이 해석에 반영]  
[나만의 편한 표현으로 상황 정리]

- 천자 카드 플렉스
  - ㉡ 평국 아픔
- [나만의 편한 표현으로 핵심 촌철살인]

- 괴이한 일?
  - 아~ 평국 = 홍계월 = <보기> 여자 = <보기> 2차 위기 나오려나보네.
- [지문-<보기> 연결해 이해하기]

- 천자는 어의 말 안 믿네.
  - 천자가 평국 매우 아낌.
  - 평국 = 홍계월. 자기 여자인 거 들킬까 봐 숨어 지낼 생각
- [나만의 편한 표현으로 상황 정리]

- ㉢계월이 여자인 거 고백하고 숨어지낼 거라고 했겠지.

[중략 줄거리] 이후 홍계월(평국)은 천자의 주선으로 보국과 혼인을 하게 되는데, 군영 및 집안에서의 사건 등으로 남편 보국과 갈등을 겪으면서 남편과 떨어져 홀로 지내게 된다.

각설. 이때 남관장이 장계(狀啓)\*를 올리거늘 천자 즉시 뜯어 열어 보시니 하였으되,

[B]‘오왕(吳王)과 초왕(楚王)이 반하여 지금 장안을 범하고자 하옵나이다. 오왕은 구덕지를 얻어 대원수를 삼고, 초왕은 장맹길을 얻어 선봉을 삼아 장수 천여 명과 군사 십만을 거느려 호주 북지 십여 성을 항복 받고 형주자사 완태를 베고 짓쳐오매 소장의 힘으로는 방비할 길이 없사와 감히 아뢰오니 엿드려 바라옵건대 황상은 어진 명장을 보내어 막으소서.’

하였거늘, 천자 보시고 크게 곤란하사 온 조정의 신하들을 모아 의논하시되 우승상 명연태 아뢰기를,

“이 도적을 좌승상 평국을 보내어 방비하올 것이니 급히 영을 내려 부르옵소서.”

천자 들으시고 한참 뒤에,

“평국이 전일에는 출세하였기로 불러 국사를 의논하였거니와 ㉠지금은 규중 여자라 어찌 영으로 불러 들여 전장에 보내리오.”

하시되 신하들이 아뢰기를,

“평국이 지금 규중에 처하오나 이름이 조야에 있삽고 또한 작록이 영구하오니 어찌 혐의하오리오.”

하거늘, 천자 마지못하여 급히 평국을 영으로 부르시니라.

이때 평국이 규중에 홀로 있어 매일 시비를 데리고 장기와 바둑으로 세월을 보내더니 사관이 나와 천자가 부르는 명을 전하거늘, 평국이 크게 놀라 급히 여복을 벗고 조복으로 사관을 따라 어전에 엿드리니 천자 크게 기뻐하며 이르기를,

“㉡경이 규중에 처한 까닭에 오래 보지 못하여 주야로 사모하더니 이제 경을 보매 기쁘기 헤아릴 수 없거니와 짐이 덕이 없어 지금 오 초 양국이 반하여 호주 북지를 항복 받고 남관을 넘어 황성을 범하고자 한다 하니 경은 마땅히 출사하여 사직을 안보하게 하라.”

하시되 평국이 엿드려 아뢰기를,

“신첩이 외람하와 폐하를 속이옵고 공후 작록을 받자와 영화로 지내옵기 황공하온데 죄를 사하시고 이토록 사랑하옵시니 신첩이 비록 우매하오나 힘을 다하여 폐하의 성은을 만분의 일이나 갚을까 하오니 근심하지 마옵소서.”

하더라.

-작자 미상, 「홍계월전」-

\*불일성지: 며칠 안 되어 일이 이루어짐.

\*장계: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는 일이나 문서.

- 남편이랑 싸움

[나만의 편한 표현으로 핵심 정리]

- 오왕, 구덕지, 초왕, 장맹길 : 반동인물. 빌런 등장 = <보기> 국가의 위기  
[고전 소설 인물 파악 주의]

- <보기>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평국=홍계월  
[지문-<보기> 연결해 이해하기]

- ㉠<보기> 여성에 대한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개인적 고난  
[지문-<보기> 연결해 이해하기]

- 평국이 유명하고 관직 아직 있는데 부르시죠.  
[설의적 표현은 평서형으로 바꾸어 그 의도 파악]

- ㉡아깐 여자라 안 된다고 했으면서... 나라 위기 상황이라 계월이 다시 챙기시네.  
[나만의 편한 표현으로 핵심 정리]

- <보기>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  
[지문-<보기> 연결해 이해하기]



[문제] 진위판단

1. [A]와 [B]는 모두 정황을 전달하는 주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나타나 있다. 정답 : ( 참 / 거짓 )
2. [A]는 대화를 통해, [B]는 요약적 제시를 통해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답 : ( 참 / 거짓 )
3. [A]는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B]는 과장된 표현을 통해 장면을 극대화하고 있다. 정답 : ( 참 / 거짓 )
4. ㉠은 흥계월과 보국이 멀리서 온 여공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정답 : ( 참 / 거짓 )
5. ㉡은 흥계월이 부모 앞에서 울음을 터트리며 서러움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 준다. 정답 : ( 참 / 거짓 )
6. ㉢은 천자가 집안일에 매달려 있는 흥계월을 오랫동안 보지 못해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정답 : ( 참 / 거짓 )
7. 흥계월이 궁궐에서 천자에 못지않은 생활을 하여 천자의 노여움을 사게 된 것은 2차 위기의 빌미가 되었음을 알 수 있군. 정답 : ( 참 / 거짓 )
8. 여공이 어린 흥계월을 구하여 입신양명하게 한 것에서 주인공이 1차 위기를 조력자의 도움으로 극복했음을 확인할 수 있군. 정답 : ( 참 / 거짓 )

[현장독해] 1.거짓, 2.참, 3.거짓, 4.참, 5.참, 6.거짓, 7.거짓, 8.참

1. 정황을 전달하는 주체 [A]는 어의, [B]는 장계올린 남관장. 이들 싫어한다는 것 없지. 거짓  
[선택지의 표현 구체화] [서술어의 주체와 대상 엄밀히 파악]
2. [A]는 여자인 것 같다는 어의와 그럴 리 없다는 천자 간의 대화. [B]는 남관장이 그간의 상황을 요약한 장계를 보내어 천자가 읽어보는 상황. 참.
3. [A] 천자가 '평국의 얼굴이 도화색이요 체격이 작고 약하여'라고 말하며 외양 묘사를 통해 장면을 극대화. [B] '장수 천여 명과 군사 십만을 거느려 호주 복지 십여 성을 항복 받고 형주자사 완태를 베고 짓쳐오매 소장의 힘으로는 방비할 길이 없사와' 이게 '과장'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으나 애매하고, 차라리 문제 2번처럼 '사건 정보 요약적 전달'로 보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거짓
4. 선택지 '멀리서 온 여공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 지문 '엎드려 먼 길에 평안히 행차하심을 치하하더라.' 참  
[선택지와 유사한 지문 표현 떠올려 정답의 확신성 높이기]
5. 선택지 '울음을 터트리며 서러움을 드러내는' = 지문 '느끼어 뺨에 두 줄기 눈물이 종횡'. 참  
[선택지와 유사한 지문 표현 떠올려 정답의 확신성 높이기]
6. 선택지 '집안일에 매달려 있는 흥계월'  
vs 지문 '평국이 규중에 홀로 있어 매일 시비를 데리고 장기와 바둑으로 세월을 보내더니'. 거짓  
[선택지와 반대되는 지문 표현 떠올려 정답의 확신성 높이기]
7. 선택지 '천자에 못지않은 생활을 하여 천자의 노여움'  
vs 지문 '집을 다 지은 후에 노비 천 명과 수성군 백 명씩 내려 주시고 또 채단과 보화를 수천 바리를 상으로 내려 주시니, 평국과 보국이 황은을 축수하고 한 궁궐 안에 침소를 정하고 거처하니 그 궁궐 안 넓이가 십 리가 남은지라 위익와 거동이 천자나 다름이 없더라'.  
- 천자가 준 걸로 흥계월이 잘 사는 건데, 자기가 줘 놓고 자기가 노여워할 수는 없죠. 거짓  
[선택지와 반대되는 지문 표현 떠올려 정답의 확신성 높이기]
8. 여공 = <보기> 어린 시절 계월의 1차 위기 조력자 = 지문 '어지신 덕택으로 계월을 구하사 친자식같이 길러 입신양명하게 하시니'. 참  
[선택지 - <보기> - 지문 연결해 정답의 확신성 높이기]



# #185 비문학

[지문]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과 같은 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이자율이나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통화 정책 수단인 ‘공개 시장 운영’은 중앙은행이 민간 금융 기관을 상대로 채권을 매매해 금융 시장의 이자율을 정책적으로 결정한 기준 금리 수준으로 접근시키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수하면 이자율은 하락하고, 채권을 매도하면 이자율은 상승한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소비와 투자가 확대되어 경기가 활성화되고 물가 상승률이 오르며, 이자율이 상승하면 경기가 위축되고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 이와 같이 공개 시장 운영의 영향은 경제 전반에 ㉠파급된다.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얻기 위한 요건 중에는 ‘선제성’과 ‘정책 신뢰성’이 있다. 먼저 통화 정책이 선제적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경제 변동을 예측해 이에 미리 대처한다는 것이다. 기준 금리를 결정하고 공개 시장 운영을 실시하여 그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때까지는 시차가 발생하는데 이를 ‘정책 외부 시차’라 하며, 이 때문에 선제성이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서야 비로소 기준 금리를 인하한다면, 정책 외부 시차로 인해 경제가 스스로 침체 국면을 벗어난 다음에야 정책 효과가 ㉡발현될 수도 있다. 이 경우 경기 과열과 같은 부작용이 ㉢소반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선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통화 정책은 민간의 신뢰가 없이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정책 신뢰성이 손상되지 않게 ㉣유익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통화 정책이 민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다. 경제학자 프리드먼은 중앙은행이 특정한 정책 목표나 운용 방식을 ‘준칙’으로 삼아 민간에 약속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를 지키는 ㉤‘준칙주의’를 주장한다. 가령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민간에 약속했다고 하자. 민간이 이 약속을 신뢰하면 물가 불안 심리가 진정된다. 그런데 물가가 일단 안정되고 나면 중앙은행으로서 이 제 경기를 ㉥부양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문제는 민간이 이 비일관성을 인지하면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점이다. 준칙주의자들은 이런 경우에 중앙은행이 애초의 약속을 일관되게 지키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간이 사후적인 결과만으로는 중앙은행이 준칙을 지키려 했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중앙은행에 준칙을 지킬 것을 강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준칙주의와 대비되는 ㉦‘재량주의’에서는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신속적인 정책 대응을 지지하며 준칙주의의 엄격한 실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아울러 준칙주의가 최선인지에 대해서도 물음을 던진다. 예상보다 큰 경제 변동이 있으면 사전에 정해 둔 준칙이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 신뢰성은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중앙은행이 반드시 준칙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문제] 진위판단 & 오지선다

1. 윗글은 통화 정책의 목적을 유형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정답 : ( 참 / 거짓 )
  2. 윗글은 관련된 주요 용어의 정의를 바탕으로 통화 정책의 대표적인 수단을 설명하고 있다. 정답 : ( 참 / 거짓 )
  3. ㉠에서는 중앙은행이 정책 운용에 관한 준칙을 지키느라 경제 변동에 신속적인 대응을 못해도 이를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답 : ( 참 / 거짓 )
  4. ㉡에서는 ㉡과 달리, 통화 정책에서 민간의 신뢰 확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정답 : ( 참 / 거짓 )
2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경제학자 병’이 제안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어떤 가상의 경제에서 2000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 분기 동안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가 4%로 유지되는 가운데 다양한 물가 변동 요인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률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났다. 단, 각 분기의 물가 변동 요인은 서로 관련이 없다고 한다.

기간	1/1~3/31	4/1~6/30	7/1~9/30
	1분기	2분기	3분기
물가 상승률	2%	3%	3%

경제학자 병은 1월 1일에 위 표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었고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 상승률을 매 분기 2%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한 선제적 통화 정책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제학자 병의 고려 사항]

기준 금리가 4%로부터 1.5%p\*만큼 변하면 물가 상승률은 위 표의 각 분기 값을 기준으로 1%p만큼 달라지며, 기준 금리 조정과 공개 시장 운영은 1월 1일과 4월 1일에 수행된다. 정책 외부 시차는 1개 분기이며 기준 금리 조정에 따른 물가 상승률 변동 효과는 1개 분기 동안 지속된다.

\*%p는 퍼센트 간의 차이를 말한다. 예를 들어 1%에서 2%로 변화하면 이는 1%p 상승한 것이다.

- ①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2.5%로 인하하고 4월 1일에도 이를 2.5%로 유지해야 한다.
- ②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2.5%로 인하하고 4월 1일에는 이를 4%로 인상해야 한다.
- ③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4%로 유지하고 4월 1일에는 이를 5.5%로 인상해야 한다.
- ④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5.5%로 인상하고 4월 1일에는 이를 4%로 인하해야 한다.
- ⑤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5.5%로 인상하고 4월 1일에도 이를 5.5%로 유지해야 한다.

# #185 정답 및 해설

## [지문]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과 같은 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이자율이나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통화 정책 수단인 '공개 시장 운영'은 중앙은행이 민간 금융 기관을 상대로 채권을 매매해 금융 시장의 이자율을 정책적으로 결정한 기준 금리 수준으로 접근시키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수하면 이자율은 하락하고, 채권을 매도하면 이자율은 상승한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소비와 투자가 확대되어 경기가 활성화되고 물가 상승률이 오르며, 이자율이 상승하면 경기가 위축되고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 이와 같이 공개 시장 운영의 영향은 경제 전반에 @파급된다.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얻기 위한 요건 중에는 '선제성'과 '정책 신뢰성'이 있다. 먼저 통화 정책이 선제적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경제 변동을 예측해 이에 미리 대처한다는 것이다. 기준 금리를 결정하고 공개 시장 운영을 실시하여 그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때까지는 시차가 발생하는데 이를 '정책 외부 시차'라 하며, 이 때문에 선제성이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서야 비로소 기준 금리를 인하한다면, 정책 외부 시차로 인해 경제가 스스로 침체 국면을 벗어난 다음에야 정책 효과가 ㉠발현될 수도 있다. 이 경우 경기 과열과 같은 부작용이 ㉡소반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선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통화 정책은 민간의 신뢰가 없이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정책 신뢰성이 손상되지 않게 ㉢유익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통화 정책이 민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다. 경제학자 프리드먼은 중앙은행이 특정한 정책 목표나 운용 방식을 '준칙'으로 삼아 민간에 약속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를 지키는 ㉣'준칙주의'를 주장한다. 가령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민간에 약속했다고 하자. 민간이 이 약속을 신뢰하면 물가 불안 심리가 진정된다. 그런데 물가가 일단 안정되고 나면 중앙은행으로서는 이제 경기를 ㉤부양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문제는 민간이 이 비일관성을 인지하면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점이다. 준칙주의자들은 이런 경우에 중앙은행이 애초의 약속을 일관되게 지키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간이 사후적인 결과만으로는 중앙은행이 준칙을 지키려 했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중앙은행에 준칙을 지킬 것을 강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준칙주의와 대비되는 ㉥'재량주의'에서는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신속적인 정책 대응을 지지하며 준칙주의의 엄격한 실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아울러 준칙주의가 최선인지에 대해서도 물음을 던진다. 예상보다 큰 경제 변동이 있으면 사전에 정해 둔 준칙이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 신뢰성은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중앙은행이 반드시 준칙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 [현장독해]

- 통화 정책 = 이자율 or 통화량 조절
- '공개 시장 운영' = 이자율 조절 통화 정책 <- 중앙은행이 민간 채권 매매
- [전문용어 개념 정리] [인과관계 정리]
- 채권 매수 -> 이자율 하락 -> 소비와 투자 확대 -> 경기 활성화 -> 물가 상승률 증가
- [비례관계 정리] [차이점 정리]
- vs 채권 매도 -> 이자율 상승 -> 경기 위축 -> 물가 상승률 하락
- 정부에서 공개적으로 채권 사서 시장에 영향주니까 '공개' 시장 운용 인거겠지? [전문용어가 이름 지어진 이유 지문 표현으로 파악]
- [차이점 정리]
- 선제성 vs 정책 신뢰성
- 선제성 = 예측해서 미리 대처 [전문용어 개념 정리]
- 기준 금리 결정하고 채권 매매하며 공개 시장 운용한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때까지의 시차 = 정책 외부 시차 [전문용어 개념 정리]
- 그니까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고, 시간이 지나고 나타난다는 소리
- [나만의 편한 표현으로 핵심 정리]
- 경제가 스스로 침체 국면을 벗어났는데, 그제서야 공개 시장 운용 효과가 발휘되면 오히려 경기 과열.
- 민간의 신뢰 = 정책 신뢰성 [지문 앞 뒤 비슷한 표현 연결]
- 프리드먼 준칙주의 = 약속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는
- 물가가 안정되고 나면 중앙은행은 태세 전환해서 경기 부양하려고 할 수도 있지 -> 비일관성 -> 신뢰 훼손 [인과관계 정리]
- 준칙주의자 : 물가 안정되어도 물가 상승률 목표치까지 일관성 지켜 [지문 표현을 이용한 나만의 편한 표현으로 핵심 정리]
- 준칙주의 vs 재량주의
- = 변화에 따라 신속적 대응 + 준칙주의 엄격히 지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
- 큰 경제 변동 -> 준칙주의가 오히려 장애물
- '반드시' 준칙주의할 필요는 없다 [극단적 표현 주의]

[문제] 진위판단 & 오지선다

1. 밑글은 통화 정책의 목적을 유형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정답 : ( 참 / 거짓 )
2. 밑글은 관련된 주요 용어의 정의를 바탕으로 통화 정책의 대표적인 수단을 설명하고 있다.  
정답 : ( 참 / 거짓 )
3. ㉠에서는 중앙은행이 정책 운용에 관한 준칙을 지키느라 경제 변동에 신속적인 대응을 못해도 이를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답 : ( 참 / 거짓 )
4. ㉡에서는 ㉠과 달리, 통화 정책에서 민간의 신뢰 확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정답 : ( 참 / 거짓 )

23.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경제학자 병'이 제안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어떤 가상의 경제에서 2000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 분기 동안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가 4%로 유지되는 가운데 다양한 물가 변동 요인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률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났다. 단, 각 분기의 물가 변동 요인은 서로 관련이 없다고 한다.

기간	1/1~3/31	4/1~6/30	7/1~9/30
	1분기	2분기	3분기
물가 상승률	2%	3%	3%

경제학자 병은 1월 1일에 위 표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었고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 상승률을 매 분기 2%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한 선제적 통화 정책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제학자 병의 고려 사항]

기준 금리가 4%로부터 1.5%p\*만큼 변하면 물가 상승률은 위 표의 각 분기 값을 기준으로 1%p만큼 달라지며, 기준 금리 조정과 공개 시장 운영은 1월 1일과 4월 1일에 수행된다. 정책 외부 시차는 1개 분기이며 기준 금리 조정에 따른 물가 상승률 변동 효과는 1개 분기 동안 지속된다.

\*%p는 퍼센트 간의 차이를 말한다. 예를 들어 1%에서 2%로 변화하면 이는 1%p 상승한 것이다.

- ①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2.5%로 인하하고 4월 1일에도 이를 2.5%로 유지해야 한다.
- ②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2.5%로 인하하고 4월 1일에는 이를 4%로 인상해야 한다.
- ③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4%로 유지하고 4월 1일에는 이를 5.5%로 인상해야 한다.
- ④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5.5%로 인상하고 4월 1일에는 이를 4%로 인하해야 한다.
- ⑤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5.5%로 인상하고 4월 1일에도 이를 5.5%로 유지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1.거짓, 2.참, 3.참, 4.거짓, 23.㉠번

1. 선택지 '통화 정책의 목적' = 지문 '물가 안정과 같은 경제적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목적'을 유형별로 나누어 제시하진 않네. 거짓  
[선택지 표현과 비슷한 지문 표현 떠올려 보기]
2. 선택지 '주요 용어의 정의' = 지문 '공개 시장 운용'. 선택지 '통화 정책의 대표적인 수단' = 지문 '이자율이나 통화량 조절'. 참.  
[선택지 표현과 비슷한 지문 표현 떠올려 보기]
3. 선택지 '준칙을 지키느라 경제 변동에 신속적 대응을 못해도' = 3문단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 3문단 마지막 '애초에 약속을 일관되게 지키는 편이 바람직'. 참.  
[선택지 표현과 비슷한 지문 표현 떠올려 보기]
4. 선택지 '민간의 신뢰 확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vs 지문 4문단 마지막 '정책 신뢰성은 중요하지만'. 거짓.  
[선택지 표현과 반대되는 지문 표현 떠올려 보기]  
+ 민간의 신뢰 확보 자체는 중요하지. 그러나 확보를 위해 준칙주의를 지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고, 심지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 단점이 있다고 해서, 아예 필요 없다고 없애자는 극단적 생각 조심

23.

- 기준 금리 4% [지문과 연관된 출제요소 파악]
- 2분기에 3%로 물가 상승률이 오르네 [지문과 연관된 출제요소 파악]
- 2%로 유지해야? 그러면 2분기 3분기는 정부가 조절해야겠네. [지문과 연관된 출제요소 파악]
- 선제적 통화 정책해야 되는데? 왜 안 받아들여졌지...
- 금리 1.5%p 변하면 -> 물가 상승률 1%p 달라짐 [인과관계 정리]
- 금리 1.5%p 올리면 -> 물가 상승률 1%p 떨어짐.  
[출제자의 애매한 중립적 표현의 방향성을 스스로 구체화해보기]
- 정책 외부 시차 1개 분기 = 효과는 1개 분기 뒤에 나타난다.  
-> 그러면 1월 1일에 기준 금리 4%를 선제적으로 1.5%p 올려야, 2분기에 3%될 걸로 예상되는 물가 상승률이 1%p 떨어져서 2%가 되겠지. 그리고 4월 1일에는 5.5%p를 그대로 뒀서 물가 상승률도 그대로 2%가 되게 해야지. [선택지로 냅다 넘어가기 전에, <보기>와 지문 내용을 연결시켜 정답을 주관식으로 생각해보기]  
-> 내가 주관식으로 푼 거랑 비슷한 거 찾으면... 정답 ㉠번  
[나의 투박한 표현과 의미가 유사하면서도, 고소까지 염두에 둔 출제자의 엄밀한 표현 찾기]



## #0 나가기 전에 : 제작 방향성

### 문제나 풀자

저는 독해법·풀이법·학습법·멘토링 등을 칼럼 형식으로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에 지쳐 버렸습니다. 좋은 독해 습관, 좋은 풀이 습관들을 그저 소개만 해서는, 아무리 쉽고 재밌게 얘기하더라도 한계가 있더군요. 제가 여전히 많이 부족한가봅니다. 자신의 안 좋은 습관은 고치고, 좋은 방법들은 최대한 많이 자기 습관으로 만드는 그 실질적 행동 방법. 그 실천 지향적인 **실질적 액션 플랜**을 제시하는데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수많은 국어 교수들의 그렇게 잘나고 멋들어진 풀이를, 결국 학생 스스로가 시험 순간에 해낼 수 있게 만드는, 그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이 자료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전, 좋은 방법들을 그저 소개만 하고 있을 시간에, **학생들이 한 문제라도 더 풀게 하고자** 했습니다. 지나가다 우연히 한 문제를 푸는 학생조차도, '좋은 자극, 좋은 긴장감'을 얻을 수 있도록 문제를 엄선하고 해설을 쓰고 있습니다. 최고난도·최다오답 문제뿐만 아니라, 공부 잘한다는 학생들도 가끔씩 실수하는 문제, 누구나 한번쯤은 틀려가며 배우는 문제, 좋은 습관대로 푼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문제 등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별 생각 없이 그냥 풀어봤는데 틀려서, 독이 바짝 오른 상태에서 해설을 읽으며, 자연스럽게 좋은 독해법·풀이법·학습법·멘토링을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학생들에게도, 제게도, 시간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더 나으리라 믿습니다.

### 도전하여 내 것으로 만들자

이 자료의 문제들은, 국어 기초 개념, 즉 '고전 어휘 및 고전 독해법'과 '문법 개념' 등을 1회독 한 학생. 윤혜정 선생님의 [개념의 나비효과], 이해항 선생님의 [국어의 기술]과 같은 기초 개념서를 1회독 이상 한 학생이라면 **누구든지 도전 가능한 것들**입니다. 저는 수업 설명회에서도 학생·학부모님들과 이 문제들을 함께 풀니다. 수업 커리큘럼·계획서·분석 자료를 그럴듯하게 발표하는 것만큼이나, 눈앞에서 지문을 읽고 문제 푸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더 큰 공감을 얻더군요. 중학생·고1·고2·고3·N수·학부모 등의 틀에 스스로를 가두어, 이 자료는 내가 풀 게 아니라고 편견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다 맞힐 수 있는 실력을 갖추자는 마인드로, 해당 자료의 문제들을 다 맞히고 막힘없이 설명해내는 것에 도전**해 보세요.

### 스스로 설명해보자

활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문제 풀고 해설 읽는 거죠. 다만, 남들보다 질적으로 높게 이 자료를 활용하여 경쟁에서 이기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설명해보는데 집중**하세요. 스스로에게 정답과 근거를 설명해본 후 해설과 비교해보세요. 하루하루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어느 새 자신의 안 좋은 습관은 안하게 되고, 좋은 습관은 해내게 될 겁니다.

굳이 이 자료를 복습해야만 한다는 부담감을 갖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보다는, 여기서 알게 된 좋은 습관들과 방법들을 평소 국어 문제 풀 때 적용해보려고 하세요. 또는 몇 달 혹은 1년 후에, 똑같은 문제를 스스로에게 다시 설명해보면서 자신이 성장했는지를 점검해보셔도 좋습니다.

물론, 해설에서 공감 가는 부분, 스스로 잘 안됐던 부분은 시간차를 두고 몇 번이고 다시 복습하면 더욱 좋기야 하겠지요. **반복의 지루함을 인내하고 복습하는 자가 결국 인생에서 성공하는 겁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니었기에 어색했던 것을, 마치 처음부터 내 것이었던 것마냥 편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반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지루하다고 복습 잘 못하거든요. 복습만 잘 해도 대한민국 90%는 이길 수 있습니다.

### 색다르게 해보자

일반적인 국어 문제들을 풀다 지쳐 토할 것 같을 때, 공부하기는 너무 싫는데 그래도 뭔가는 해야 마음이 편할 때, 그럴 때마다 가끔씩 들춰보고 또 몇 문제 풀어 보세요. 문제도 유형도 영역도 형식도 평소 풀던 것들과는 좀 다르겠지만, 인생에 걸쳐서 도움이 될 좋은 독해 습관과 좋은 풀이 습관을 얻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결국 벌을 받더라